



정답과 해설

A N S W E R

I. 현대시

STEP

A

1등급 도전문제

현대시 ①

01 ①

02 ①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1~03] 작품 분석

(가) 눈(김수영)

▶ 제목의 의미

자연물인 ‘눈’을 제재로 삼아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지 및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

▶ 시적 상황

눈을 바라보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자고 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불순한 것을 떨쳐 내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정서 및 태도

•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이 살아 있기를 바램.		
작품 속 근거	눈은 살아 있다.	
•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함.		
작품 속 근거	기침을 하자.	‘- 하자’라는 청유형 종결 어미를 활용함.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 주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

▶ 특징

①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② ‘눈’과 ‘가래’의 이미지가 대립적 구조를 형성함.		
작품 속 근거	눈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
	기침	가래(불순한 것)를 뱉어 내기 위한 행위
	젊은 시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 화자 자신
	가래	불순한 것(비겁한 일상성, 소시민성, 속물성)
③ 동일한 문장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1연)	대조
	기침을 하자. ~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2연)	
	눈은 살아 있다.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3연)	
	기침을 하자.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4연)	

blacklabel 특강 김수영의 「눈」

김수영은 「눈」이라는 제목의 시를 세 편 썼다. 1956년에 쓴 이 시에서의 ‘눈’은 ‘살아 있는 순결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후에 쓴 1961년의 시에서 ‘눈’은 쓸모없는 저항시를 쓰는 시인과 대비되는 ‘민중의 상징체로서의 눈’이며, 1966년의 시에서 ‘눈’은 ‘폐허에 내리는 눈’이다. 세 편의 시는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눈’의 이미지만은 세 편 모두 비슷하다.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오규원)

▶ 제목의 의미

1연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고 한 부분에서 제목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흔들려야 살아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2연에서 말한 슬픔, 고독, 고통에 자기를 해집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제목은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지 말고 견뎌 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시적 상황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며 삶을 성찰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① 현실 극복의 의지를 지님.	
작품 속 근거	피하지 마라
② 현실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남.	
작품 속 근거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주제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자.

▶ 특징

① 시어 및 시구의 반복이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살아 있는~ (1연)	
	들판의 ~ 하나 (2연)	
	흔들려서(흔들리고) (1연, 3연)	
② 문장 어순을 바꿔 시상을 전개함. (도치법)		
작품 속 근거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의미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흔들리면서 / 튼튼한 줄기를 얻고	시련 속에서 강인함을 얻고

▶ 어휘 풀이

• 순례(巡禮): 종교의 발생지, 본산(本山)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여 참배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를 반복하면서 눈이 지닌 생명력과, 그 순수한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살아 있는~’을 반복하면서 ‘살아 있음’의 의미를 ‘흔들림’과 연관 짓는 한편, ‘들판의 ~ 하나’를 반복하여 바람으로 인해 겪게 될 ‘슬픔’, ‘고독’, ‘고통’을 제시하면서, 이를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고통, 즉 흔들림을 견디고 성숙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1연)	대조
	기침을 하자. ~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2연)	
	눈은 살아 있다.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3연)	
	기침을 하자.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4연)	
(나)	살아 있는~ (1연)	대조
	들판의 ~ 하나 (2연)	
	흔들려서(흔들리고) (1연, 3연)	

오답 해설 | ② (나)에서는 ‘피하지 마라’라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고통을 견디며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는 ‘- 하자’라는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기침을 하자.	청유형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나)	피하지 마라	명령형

③ 도치법은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 기법을 말한다. (나)의 3연에서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은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피하지 마라.’를 도치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가)에는 도치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④ (가)는 현실을 ‘밤’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밤’을 극복하기 위해 ‘가래’를 뱉고 ‘기침’을 하자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바람은 오늘도 분다’에서 ‘바람’은 외부적 시련을 상징한다. 즉, 살아 있는 것에 고통, 고독, 슬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들림은 자기를 해집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색적 어조란 곰곰이 생각하며 성찰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어조를 말한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고 있고, 이를 감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그러나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긴 시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나 사색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에서 ‘기침’은 ‘마음 놓고,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강조를 통해, 이 ‘젊은 시인’이 평소에는 무언가를 마음 놓고 하지 못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웠지만 자유를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시구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의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 들판의 고통 하나도 /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 자기를 해집고 있다.’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③ (가)에서는 ‘기침을 하자’, ‘가래를 뱉자’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뱉어 내고 나면, 화자가 바라는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나)에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삶이란 당연히 고통이 있는 법이니, 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견디며 이겨 내자고 말하고 있다.

④ (가)의 ‘기침’은 부정적인 속성을 내뱉는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를 지닌 행동이며, <보기>와 연관 지었을 때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바람’은 슬픔과 고독, 고통을 가져다주지만 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와 대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에서 자연적 속성을 나타내는 대상은 ‘눈’인데, ‘눈’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눈’의 자연적 속성이 현실 인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 이미지는 ‘혼들림’이다. 화자는 삶이란 시련과 고통이 있으니,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버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혼들림’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현실 상황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죽음을 초월하여 오로지 순수하고 정의로운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인 ‘젊은 시인’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소망하는 자 = 젊은 시인 = 화자 자신

오답 해설 | ① ‘눈’은 순수한 생명, 즉 인간의 삶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보면,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상태, 진실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③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에서 ‘가래’는 ‘눈’과 대조적 의미로, 더러움, 부패한 현실과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를 ‘뱉자’고 말하는 것은, 억압과 불의를 거부하고, 그만큼 ‘자유’를 갈망한다는 뜻이다.

④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는 부패한 현실의 억압 속에서 생김 더러운 자신

의 찌꺼기, 속물성, 소시민성, 불순한 일상성 등을 의미한다.

⑤ ‘젊은 시인’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의 의미와 같다. 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로, <보기>와 연관 지었을 때,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04~07] 작품 분석

(가) 모란이 피기까지(김영랑)

▶ 제목의 의미

이 시에서 모란은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며 유일한 소망을 의미한다. 5월의 어느 날 피었다가 이내 지고 마는 모란처럼, 화자에게 삶의 보람이란 짧고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이 이 ‘허망한’ 소망 때문에 1년의 거의 대부분을 벅찬 기대와 슬픔 속에서 보내듯이,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순간은 극히 짧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보상할 만큼 강렬하다고 말하고 있다.

▶ 시적 상황

화자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을 알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

▶ 정서 및 태도

‘기다림 - 상실로 인한 슬픔 - 기다림’의 정서를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1~2행	3~10행	11~12행
	기다림	상실로 인한 슬픔	기다림

▶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

▶ 특징

① 수미상관(반복과 변주)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1, 2행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1, 12행
②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의미와 정서에서 반전을 이룸.		
작품 속 근거	찬란한	모란이 피.
	슬픔의 봄	모란이 지.
	→ ‘봄’은 모란이 피기 때문에 기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란이 지기 때문에 슬픈 시간이기도 함.	

▶ 어휘 풀이

- 모란: 봄에 피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으로 미(美)를 상징함.
- 여인: 이별한, 상실한.
- 서운케: 서운하게.
- 하냥: 한결같이, 늘.
- 우웁내다: ‘우웁나이다’의 준말, 혹은 ‘우웁니다’의 전라도 방언.

(나) 도봉(박두진)

▶ 제목의 의미

이 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의 접경 지대에 있는 산인 도봉산(道峰山)을 배경으로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가을의 도봉산을 통해 삶의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말하면서, 그러한 괴로움의 극복과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 시적 상황

인적 없는 가을 산에서 홀로 ‘그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로워함.	
작품 속 근거	홀로 앉은 / 가을 산의 어스름.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 쓸쓸함과 괴로움을 느낀.	
작품 속 근거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 ‘그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림.	
작품 속 근거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 주제

삶의 외로움과 구원에 대한 갈망

▶ 특징

① 직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② 시간의 흐름이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산그늘 길게 늘어 / 붉게 해는 넘어가고, // 황혼과 함께 /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③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이동함.		
작품 속 근거	1~7연	외부 세계
	8~10연	내면 세계

▶ 어휘 풀이

• 황혼(黃昏):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

04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에는 ‘현재(1~2행) - 미래(3~4행) - 과거(5~10행) - 현재(11~12행)’의 시간이 나타난다. 5~10행에는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던 과거의 체험이 나올 뿐, 과거에 대한 반성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11~12행에서 화자는 순환의 원리에 따라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나 모란이 지는 슬픔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엔 날 ~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과거의 경험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다시 필 모란을 기다림.

오답 해설 | ① (가)는 처음 부분인 1~2행과 끝 부분인 11~12행이 유사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blacklabel 특강 수미상관(수미쌍관, 수미상응)

처음과 끝에 같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열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시구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면 된다는 점이다.

③ (나)는 1~7연까지는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8연부터는 내면 세계로 이동하여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④ (가)의 화자는 잠시 피는 모란을 보며 찬란한 기쁨을 느끼다가, 모란이 지고 난 후에는 자신의 한 해가 다 갔다고 느끼면서 슬퍼한다. 즉 모란이 피고 짐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 (나)에서도 6연부터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별과 밤이 오며 따라 화자의 고독이 심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가을 산의 적막함을 느끼던 화자는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오자 홀로 남겨졌음에 더욱 더 쓸쓸해하고 있는 것이다.

⑤ (가)에서는 ‘모란’이 저 버린 현실에 대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그대’가 없는 현실에 대한 힘겨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이 저서 서럽고 섭섭함.
	삼백예순 날 허냥 섭섭해 우웬네다	
(나)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가 없어 쓸쓸하고 괴로움.

0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에서 ‘그들(순수 서정시 계열의 시인들)은 이념과 현실 생활과 시대정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었을 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상황을 나타낼 뿐, 현실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 ①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절망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우웬네다’에서 공손함을 더하는 어미인 ‘-오-’를 사용해 어감을 부드럽게 하고 있다. 또한 ‘-테요’로 끝나는 경어체를 활용하여 슬픔과 기다림이라는 애상적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기〉의 여성적 정조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③ ‘우웬네다’는 ‘우웬니다’의 전라도 방언이고, ‘하냥’은 ‘한결같이’라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이다. 이러한 방언의 활용으로 보다 섬세한 정조를 드러내고 있다.

⑤ 11~12행에서 문장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을 활용함으로써, 화자가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문장 어순을 바꿔 모란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함.

0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그대’는 절대적 구원의 존재로, 조국, 민족, 사랑하는 이, 절대자 등을 상징한다. 이러한 ‘그대’를 만나기 위해 화자는 ‘긴 밤’과 ‘슬픔’을 가지며 그 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자가 현존하는 곳은 ‘산세’나 ‘구름’ 등이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가을 산’이다. 〈보기〉에 의하면 박두진에게 ‘산’은 그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소재이지만, 이 시에서는 다른 자연물들도 떠나가 버리는 외로운 공간이기에, 가혹한 시대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화자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그대’가 그러한 시대를 극복하게 해 줄 이상적인 존재, 절대자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을 산’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쓸쓸함과 고독감만이 나타난다. 기쁨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② ‘어스름’은 해질 무렵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속성을 통해 ‘상실과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어스름’ 속에서는 적막함만 느껴질 뿐 낙관적 기대가 나타나진 않는다.

③ ‘황혼’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를 의미한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별’도 뜨고 ‘밤’도 오게 된다. 이때 화자는 더욱 더 혼자임에 외로워하며 고독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은 ‘구원의 힘’이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또한 ‘별’이 뜨는 시간이라 화자가 고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별’이 화자의 상황과 대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지, 자연의 순환 원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이 해소될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에서 ‘쉬느냐’라는 표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대’가 다른 곳에서 ‘쉬는’ 행위가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인 화자 곁으로 돌아올 것이고, 화자가 홀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화자의 상황이 회복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7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을 산의 어스름’은 가을 산의 해질 무렵의 적막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한 준비는 9연에 나타나 있는데, 화자는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긴 밤과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여기서 ‘밤’은 그대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이다. 따라서 ‘그대’를 만나기 위한 특정 시간은 ‘밤’을 보낸 후이다.

오답 해설 ① ‘삼백예순 날’은 모란을 잃은 화자의 서러운 감정이 매우 깊음을 강조한다.

② ‘찬란한’은 지극히 긍정적인 대상에 사용하는 관형어이고,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찬란한 슬픔’은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 사이에 모순이 나타나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는 ‘모란’으로 인해 기쁨(피었을 때)과 슬픔(졌을 때)이 교차되는 화자의 강렬한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④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긴 밤’과 ‘슬픔’을 가져야 한다. ‘긴 밤’은 그대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슬픔을 갖는다’는 의미는 ‘슬픔’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대와 만남을 기약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슬픔’은 그대를 만나기 위해 가져야 할 요건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게니와,	긴 밤, 슬픔: 그대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요건

⑤ ‘선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가 잠시 쉬고 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다’라는 표현은 그대가 ‘쉽’이 끝나고 나서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③ 13 ③

[08~10] 작품 분석

(가) 강우(김춘수)

▶ 제목의 의미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비’는 아내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어두운 심정과 절망적 상황을 암시하며 특히, ‘비’는 화자의 슬픔을 더욱 증폭시키는 소재 또는 화자의 눈물로 해석될 수 있다.

▶ 시적 상황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의 풍경을 제시하고,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을 독백조로 나타내어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쓸쓸함, 허전함을 느낌.	
작품 속 근거	~ 어디로 갔나
• 아내의 죽음에 대해 절망하고 체념함.	
작품 속 근거	나는 풀이 죽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주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 특징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넘치지지미 땀뻘 땀새가	후각적 심상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 되돌아온다.	청각적 심상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시각적 심상
② 반복적 표현을 통해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어디로 갔나, (3회 반복)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함.

③ ‘비’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고조된 정서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 어휘 풀이

- 땀뻘: 땀과 땀.
- 담괴: 담(痰)이 살갓속 속에 멎쳐서 생긴 멍.

(나) 성탄제(김종길)

▶ 제목의 의미

‘성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이지만, 이 시에서는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인류를 구원한 예수의 사랑과 연결 짓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제목 「성탄제」는 서구의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축제로서의 의미가 아닌, 한국의 전통적·복고적 정서로 전이되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한다.

▶ 시적 상황

화자는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어린 시절, 눈을 헤치고 약(산수유)을 구해 온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회상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애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남.		
작품 속 근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주제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시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눈	시련, 역경
	산수유 열매	아버지의 사랑
② 배경의 대칭 구조가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어린 짐승 - 서른 살 나	과거와 현재(시간)
	어두운 방 - 도시	시골과 도시(공간)

▶ 어휘 풀이

- 성탄제: 성탄절.

08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자가 처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가)와 (나)에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가)에서는 ‘나’가 ‘밥상’을 통해 아내의 부재를 인식하며 밖을 기웃거리는 것으로 보아, 집 안에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나)에서는 ‘나’가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서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밥상은 차려 놓고	집 안에 있는 화자가 아내의 부재를 인식함.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서 화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함.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어디로 갔나’의 반복을 통해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는 ‘나’의 상실감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는 ‘바알간 숯불’, ‘붉은 산수유 열매’와 ‘눈’ 등을 통해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린 시절 화자가 겨울에 열병을 앓았던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4연에 감탄사 ‘아’가 나타나 있으나, (가)에는 감탄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비’를 통해 아내의 부재를, (나)는 ‘눈’을 통해 아버지의 부재를 떠올리

며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09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자가 [C]에서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B]에서 제시된 것처럼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기 때문이다. 아내를 불러 봐도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로 들리는 상황은 아내의 부재(죽음)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B]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근거: 화자의 목소리만 메아리로 돌아옴.
[C]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결론: 아내의 부재(죽음)

오답 해설 ① [A]와 [B]에는 모두 화자의 독백이 제시되고 있다. 청자를 부르고는 있지만, 청자의 대답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② [A]에서 화자는 아내를 찾으며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왜 말이 없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어서 [B]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로 들으면서 아내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며, 결국 [C]에서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며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④ [D]의 ‘어둠’과 ‘비’, [E]의 ‘빗물’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절망과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C]에는 객관적 상관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D]에서는 비가 시작한 이후에 화자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풀이 죽는다. [E]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화자는 아내의 죽음에 체념한다. 따라서 [D]에서 [E]로 가면서 시적 상황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는 [D]와 [E] 모두에서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화자의 상황 인식이 전환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D]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 비가 내림. • 화자는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고 풀이 죽음.
[E]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비가 퍼부음. • 화자는 아내의 죽음에 체념함.

10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현재 내리는 ‘눈’으로, 화자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시상의 흐름이 역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옛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눈(과거 회상의 매개체)

오답 해설 ① ‘젓아드는 어린 목숨’은 ‘고열로 괴로워하는 어린 화자’를 표현한 것이다.

② ‘붉은 산수유 열매’는 ‘붉은’이라는 색채어가 활용된 시각적 심상에 해당하며,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따 온 열매이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③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밤을 성탄제와 연결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의 희생과 연결되어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다.

⑤ ‘-일까’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black label 특강 의문의 형식

의문형 어미 ‘-느냐, -는가, -버니까, -어, -어요’ 등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형식을 말한다. 시에서는 반드시 해답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예 •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
•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 윤선도, 「만흥」 –

[11~13] 작품 분석

(가) 생명의 서 1(유치환)

▶ 제목의 의미

‘생명의 서’는 ‘생명의 기록’이라는 의미로, 생명파(인간의 정신적·생명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의 작가들) 시인이었던 작가의 경향을 드러낸다.

▶ 시적 상황

생명의 본질을 찾아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려 한다. 이는 극한 상황을 설정하여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함이다.

▶ 정서 및 태도

본질적 자아에 대한 간절함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	
작품 속 근거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주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비장한 의지

▶ 특징

① 생경한 한자어 및 관념어를 많이 사용함.	
작품 속 근거	회의, 애증, 백일, 작열, 일체, 사멸, 영겁, 허적, 열사, 원시, 본연, 사구, 회한 등
②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주제를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어휘 풀이

- 회의(懷疑):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 애증(愛憎):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백일(白日): 구름이 끼지 않아 밝게 빛나는 해.
- 작열(灼熱): ①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② 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듯 들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일체(一切): ① 모든 것. ②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사멸(死滅): 죽어 없어짐.
- 영겁(永劫): 영원한 세월.
- 허적(虛寂): ‘허적하다(텅 비어 적적하다)’의 어근.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 열사(熱沙/熱砂): 햇볕 때문에 뜨거워진 모래.
- 원시(原始/元始): ① 시작하는 처음. ②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아니한 상태.
- 본연(本然): 본디 생긴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
- 자태(姿態): 어떤 모습이나 모양.
- 사구(沙丘/砂丘): 해안이나 사막에서 바람에 의하여 운반·퇴적되어 이루어진 모래 언덕.
- 회한(悔恨): 뉘우치고 한탄함.

(나) 농무(신경림)

▶ 제목의 의미

농무(農舞)는 원래 농촌에서 일을 끝낸 다음 노동의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행해지던 놀이로, 농민들이 추는 춤인 동시에 농민들이 보고 즐기는 춤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1960~70년대의 비극적 농촌 현실과 농민의 울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삶의 한을 풀어내는 집단적인 신명놀이의 성격을 지닌다.

▶ 시적 상황

산업화 속에서 붕괴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한과 울분을 농무의 신명 속에 표출하고 있다. ‘팅 빈 운등장’에서 출발하여 ‘소줏집’, ‘장거리’, ‘쇠전’, ‘도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울분, 서러움, 원통함, 답답함을 느낌.	
작품 속 근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비판함.	
작품 속 근거	이까짓 /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 주제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와 한(恨)

▶ 특징

① 직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까짓 /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②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심리를 반어적으로 표출함.	
작품 속 근거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때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축을 다 팔아 버려야 하는 상황 즉, 쇠전, 도수장을 가야 하는 말이 되지 않는 역설적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출함.
③ 역사적 인물을 통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꼭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꼭정이(임궏정)처럼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도 울부짖고, 서림(임궏정을 배신한 인물)이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도 해해대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가든 농민들이 살 길은 막막하다는 의미임.

▶ 어휘 풀이

- 장거리(場--): 장(많은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서는 거리.
- 걱정: 임궏정. 조선 명종 때 황해도에서 봉기한 농민 도적으로,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았을 때 단순한 도적이 아닌, 피폐해진 삶 때문에 불의한 현실에 항거하여 일어난 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음.
- 서림: 임궏정의 책사(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로, 처음에는 임궏정을 잘 따랐으나, 현실에 타협하며 배신하게 되어 임궏정이 죽음에 이르게 됨.
- 신명: 흥겨운 신이나 멋.

11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대구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표현법이다. (나)는 ‘~고 ~꺼냐’의 문장 구조로 짝을 맞춘 표현으로 시상을 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냐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냐	• 대구법(‘~고 ~꺼냐’의 문장 구조 반복) • 의문형 문장 ‘~불꺼냐(불까), ~흔들꺼냐(흔들까)’ 사용 → 농민들의 한강조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생명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시각적 심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막이 내림을 알리는 징소리와 농무를 마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소리 등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한편, 무대의 모습이나 농무를 마친 사람들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 (나) 모두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 한번 뜯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울로 서면	시각적 심상
(나)	• 징이 울린다 •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청각적 심상
	• 막이 내린다 •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시각적 심상

② (가)에서는 ‘병든 나무처럼(나약한 상태)’, ‘불사신같이(강렬한 상태)’, ‘회한 없는 백골(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상태)’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꼭정이처럼(현실에 저항하는 사람)’, ‘서림이처럼(현실에 타협하는 사람)’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즉 (가), (나) 모두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비’한다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농촌의 현실이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으나, 현재 나빠졌다는 내용을 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에서는 현재 농촌 현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과거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가)는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날 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역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⑤ ‘탈속성’은 사전적 의미로는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시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가)는 ‘먼 아라비아 사막’과 같이 탈속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나)는 농촌만 나올 뿐 탈속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2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화자는 3연에서 ‘열렬한 고독 가운데 /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울로 서면 /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나’라고 하였다. 이는 고독 속에서 홀로 있으면 화자가 찾던 ‘나’와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열렬한 고독’이 절대적인 고독을 의미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고 버텨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나	절대적 고독 속에서 ‘나(자신)’의 본질을 찾게 됨.

오답 해설 | ① ‘병든 나무’는 ‘생명이 부대’끼는 상황이다. 즉 한계 상황에 봉착한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본질적 자아인 ‘나’를 찾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의 ‘나’와는 대비된다.

② 화자는 1연에서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자 했다. 그곳은 2연에서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 즉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죽어 없어진 영원히 허무하고 적막한 곳이다. 1연과 연결 지어 보자면 이러한 극단적인 곳에 가야만 본질적 자아인 ‘나’를 만날 수 있기에, ‘영겁의 허적’은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이다.

④ 3연의 ‘나의 생명이란 /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에서 ‘원시의 본연한 자태’란 나약해진 화자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되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나’의 상태이다. 다시 말해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 되찾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는 훼손되지 않은 원시적인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3연에서 ‘백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시어이므로,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얻지 못할 경우 모래 사장에서 죽겠다는 의미이다. 즉 ‘회한 없는 백골’을 통해 죽음을 감수하고 서라도 본질적인 ‘나’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에서는 (나)가 농촌에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통해 현실의 억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하였다. [C]의 ‘신명이 난다’는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흥겨운 신이나 멋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서 오는 답답함과 절망감에 대한 역설적, 반어적 표현이다. ‘비롯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농무를 추는 것은 역설적 상황이다. 이때 ‘신명이 난다’는 것은 현실의 괴로움을 강조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blacklabel 특강 역설, 반어

- ① 역설: 겉으로 보아서는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표현이지만 좀 더 따져 보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수사법이다.
 예)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 윤동주, 「십자가」 -
 ② 반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오답 해설 ① [A]에서 ‘막이 내렸다’라는 과거형 표현은 농촌의 쇠락을 암시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의 현재형 표현은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악을 쓰’고, ‘길길대’고, ‘울부짖고’, ‘해해대’는 부정적 이미지의 행위들은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농촌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보여 준다. 화자는 젊은 남자들이 농촌을 떠나고 남은 이들도 현실에 올분을 토로하거나 현실과 타협하게 된, 농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④와 ⑥는 <보기>에서 언급한 피폐해진 농촌 현실을 드러낸 부분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㉔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
㉖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농사를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 우시장에 소를 팔고, 도살장에 자신이 기르던 가축들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음.

⑤ ㉔는 겉으로는 신명 나는 몸짓이지만 시적 상황과 <보기>를 고려할 때, 깊은 절망에서 우러난 몸짓에 해당한다. 따라서 ‘날나리를 불꺼나’, ‘어깨를 흔들꺼나’라고 하는 것은 비관적 현실 앞에서 삶의 방도를 모색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자조적 물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현대시 ④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⑤
19 ③

[14~16] 작품 분석

(가) 추억에서(박재삼)

▶ 제목의 의미

화자가 어렸을 때 가난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모습을 회상한 시이다. ‘추억에서’의 ‘추억’은 아름답고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아닌,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이다. 이 시는 그러한 시간을 회고하면서 어머니의 슬픔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시적 상황

진주 장터 어느 생어물전에서 해 질 녘까지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를, 오누이가 골방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렸던 일을 떠올리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어머니의 고달픈이 한과 슬픔의 정서로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한(恨)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슬픔
• 오누이는 추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림.		
작품 속 근거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여 /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 주제

한스러운 삶을 사셨던 어머니에 대한 회상

▶ 특징

①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친근감과 어머니의 삶의 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울 엄매야 울 엄매 → 경상도 사투리로 토속적이며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켜 친근감을 느끼게 함. 또한 ‘울 엄매’라는 단어의 발음은 ‘울고 있는 엄마’라는 의미를 연상시켜 어머니의 삶의 한(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함.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슬픔의 정서를 표현함.	
작품 속 근거	빛 발(發)하는 눈깔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
③ 영탄형,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정서 표출을 절제함.	
작품 속 근거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울 엄매의 마음은 여떠했을고.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어휘 풀이

- 생어물전: 생선을 파는 가게.
- 어스름: 조금 어두운 상태. 또는 그런 때.
- 은전(銀錢): 은으로 만든 돈.
- 오명 가명: 오면서 가면서.
- 신새벽: 아주 이른 새벽.
- 웅기전: 웅기그릇을 파는 가게.

(나) 건우의 노래(서정주)

▶ 제목의 의미

건우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드러낸 시이다. 건우가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 이별을 수용하며 이겨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시적 상황

건우(화자)가 직녀에게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이별한 동안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며 만남을 기다리자고 권유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이별의 상황을 성숙한 사랑을 위해 감당해야 할 장애물과 고난이라 여기고 받아들임.	
작품 속 근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각자 본분에 충실하자고 권유함.	
작품 속 근거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주제

이별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사랑의 의미

▶ 특징

① 인간의 숙명을 설화적 설정을 통해 전달함 : 건우와 직녀는 1년 중에 음력 7월 7일 단 하루만 재회하는 시련을 겪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통을 감내하여 성숙한 사랑에 이르자는 태도를 드러냄.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③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구조로 시상이 전개됨.	
작품 속 근거	직녀(織女)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발에

▶ 어휘 풀이

- 은하물: 은하수(‘은하’를 강(江)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오토향: 모자람이 없이 온전한.
- 홀몸: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 베를: 삼베, 무명, 명주 따위의 피륙을 짜는 틀.
- 북: 베를에서, 날실의 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베를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 모양으로 생김.
- 중전: 하늘의 한가운데.

14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의 '별밤'은 소망의 세계, 밝음을 나타내는 시어로 '골방'과 대조를 이룬다. '골방'은 오누이가 추위에 떨며 '엄매'를 기다리는 곳, 즉 외롭고 가난한 현실의 삶을 나타내는 곳이다. 이런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대조적 시어가 나오지 않는다. '물살', '바람', '푸른 은하물'은 장애물이라 볼 수 있지만, 이는 부정적 시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불타는 홀몸'은 간절한 그리움을 의미하고, '모래밭'은 견우가 있는 시련의 공간, '구름'은 직녀가 있는 시련의 공간을 의미한다. 각각의 의미가 다를 뿐, 대조라고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별밤(소망의 세계, 밝음) ↔ 골방(외롭고 가난한 현실의 삶)	대조적 의미의 시어
(나)	물살, 바람, 푸른 은하물: 장애물,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	대조적 의미의 시어는 없음.
	불타는 홀몸: 간절한 그리움	
	구름: 직녀가 있는 시련의 공간	

오답 해설 | ① (가)는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어머니의 한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서 '진주'라는 특정 지역을 제시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③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별을 통해 아픔을 수용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④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한편, (가)는 '-ㄴ가'의 종결 어미를, (나)는 '~있어야 하네'와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통일성과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울 엄매야 울 엄매 • 한(恨)이던가. •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 반짝이던 것인가.	
(나)	• 허이언 허이언 구름 • 이별이 이별이 •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blacklabel 특강 반복, 변주

① 반복: 같은 것을 두 번 이상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반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형성되고 시 전체에 통일감을 준다.

예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

② 변주: 동일 표현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복의 틀에서 벗어나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변주는 내용적인 주제는 유지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만 약간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변주가 나타날 때는 반복과 마찬가지로 정서나 주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 어이할거나 /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중략)
아-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 피고리처럼 울지도 못할 /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 서정주, 「신록」 -

15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직설적'이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은 견우와 직녀의 행위를 통해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만남의 순간을 기다리자.'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에서 견우는 직녀에게 이별의 아픔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수용할 때 사랑은 더욱 커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견우는 이별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이를 극복하려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별의 수용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견우직녀, 설화를 차용하여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재회를 기다릴 것을 당부함.

오답 해설 | ① 어머니가 고기를 다 팔지 못하면 집에 돈을 가져갈 수 없다. 즉 다 팔지 못한 고기의 '눈깔'은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한편 '은전'은 가질 수 없는 부(富)를 상징한다. 이 둘은 빛나고 둥그랗다는 시각적 이미지의 유사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② ㉡은 어렸던 어린 시절을 촉각적 이미지의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손이 시렸다'가 아닌 '손 시리게 떨던가'라는 의문형 종결 형태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③ '웅기전의 웅기들'이 '글썽이고 반짝'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웅기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반짝이는 웅기로 비유하였다는 것이다. 이 둘 모두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을 나타내고 있다.

④ 사랑을 위해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이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시구의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오롯한 이 자리'는 '은하물'에 의하여 나누어진 자리이다. 또한 이곳은 '물살'과 '바람'만이 있는 공간으로, 견우가 '홀몸'으로 혼자 외로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견우는 홀로 그리움을 견디며 이별을 참아 내야 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롯한 이 자리': '물살', '바람', '푸른 은하물'이 있는 곳 → 화자 혼자 존재하는 곳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이별'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이별의 아픔을 수용할 때 사랑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믿으므로 이별의 장소인 '이 자리'는 부정적 공간이 아니다.

② '푸른 은하물'이나 '물살', '바람'은 장애물이기는 하나,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게다가 '오롯한 이 자리'는 그러한 장애물만이 남은 곳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제거된 곳이라 볼 수 없다.

③ '불타는 홀몸'은 견우 혼자서 견뎌야 하는 간절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견우와 직녀는 이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홀몸'은 적절하나, 견우는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려는(역전)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견우와 직녀는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오롯한 이 자리'는 은하물에 의하여 나누어진 자리이지, 그들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다.

[17~19] 작품 분석

(가) 파초우(芭蕉雨)(조지훈)

▶ 제목의 의미

'파초'는 파초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성긴 빗방울 / 파초 위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이라는 시구에서 현재 비가 오고 있고, 그 빗물이 파초의 커다란 잎에 떨어져 '후두기는(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초우'는 이런 시적 상황을 압축한 제목이다.

▶ 시적 상황

저녁 어스름에 빗방울이 파초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푸른 산과 마주하고 물소리를 느끼면서 자연과 함께하고자 한다.

▶ 정서 및 태도

• 자연 친화적 태도(자연에 대한 그리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작품 속 근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 자연 속에서 은둔하며 쉬고 싶은 마음	
작품 속 근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

▶ 특징

①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함.		
작품 속 근거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②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적 배경을 생생하게 나타냄.		
작품 속 근거	파초 앞에 후두기는	청각적 이미지
	저녁 어스름	시각적 이미지
②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적 안정감을 부여함.		
작품 속 근거	1연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5연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어휘 풀이

- 성긴: 반복되는 횃수나 도수가 자주 있지 않은.
-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나) 사평역에서(곽재구)

▶ 제목의 의미

‘사평역’이라는 시골 간이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이자,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역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쓸쓸한 모습과 삶의 애환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 시적 상황

사평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조용하게 응시하며, 그들을 위로하고자 난로에 한 줌의 톱밥을 넣어 주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가 느껴짐.	
작품 속 근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함(연민).	
작품 속 근거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회상함.	
작품 속 근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주제

막차를 기다리며 느끼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

▶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단하고 쓸쓸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시각적 이미지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청각적 이미지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작품 속 근거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미각적 이미지

②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시적 대상을 표현함.		
작품 속 근거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	차가움 (혹독한 현실)
	청색의 손바닥	
	톱밥 난로	따뜻함 (서민들에 대한 연민)
	한 줌의 톱밥	
작품 속 근거	불빛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③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로 표현함.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7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어디서 설 것인지도 모르는 처지이다. 그러나 지금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은 화자로 하여금 마주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대상이다. 이는 산과 마주 앉고 싶고, 물소리를 들어도 싫지 않으며, 날마다 바라도 산이 그림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매우 늦은 시간의 시골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며 톱밥 난로 앞에서 그리웠던 과거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창 열고 푸른 산과 / 마주 앉아라.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음.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을 그리워함.
(나)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리웠던 추억들을 회상함.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1연과 5연에서 ‘구름’에게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구름은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으로, 사람에게 말하듯 친근하게 표현한 것은 의인화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는 대합실 유리창의 모습을 ‘흰 보라 수수꽃’으로, 밤 열차의 차창을 ‘단풍잎 같은’으로, 사람들이 조는 모습을 ‘그믐처럼’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화자와 구름을 동일시함. 구름을 사람처럼 친근하게 표현함.
(나)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	성에 깬 유리창을 비유함.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	스쳐 지나가는 밤 열차의 차창을 비유함.
	그믐처럼 멎은 줄고	파곤에 젖어 조는 사람들을 비유함.

② (나)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잔잔한 분위기이다. ‘역동적’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후두둑 떨어지는’의 의미를 지닌 ‘후두기는’이라는 시어가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지만, 이는 파초 앞에 떨어지는 성긴 빗소리를 표현한 것일 뿐 현실적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나)에는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시어나 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는 것이지만, ‘구름’은 화자 자신이기도 하기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에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구름’은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편안하게 설 곳이 없는 현실에서 화자는 ‘어디메’라는 자연의 안식처를 찾고 있다. 따라서 5연은 자연에서 쉬면서 편안함을 누리려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이지, 현실이나 꿈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창 열고 푸른 산과 / 마주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에 /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산, 물소리: 자연 을 의미함.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어디며: 안식처 (자연)를 가리킴.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정처 없이 자연을 떠도는 사람으로,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형식적으로는 '구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만, '구름'과 화자 자신의 처지는 같기에 이는 '구름'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저녁 어스름 무렵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푸른 산과 / 마주앉아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소망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화자는 창을 열고 산과 마주 앉아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대상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으면 화자가 자연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감하길 원하기 때문이라 파악할 수 있다.
 ④ '들어도 싫지 않은'은 화자가 자연과의 교감을 계속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교감이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서 화자는 사람들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한 줌의 눈물'을 바친다고 했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는 표현으로 보아 대합실의 사람들은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자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다. 즉 '눈꽃의 화음'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맞으나, '한 줌의 눈물' 또한 같은 의미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지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사람들이 대합실의 톱밥 난로 옆에 모여 좀처럼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다. '한 줌의 눈물'은 대합실에 모인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그믐처럼 멎은 졸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고단한 삶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쏟아 같은 입술 담배 연기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는 모습: 외롭고 소외된 모습

② [B]에서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 모두들 알고 있었다'라는 구절들을 통해 화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한 줌의 눈물'을 뿌리며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④ [C]에서 화자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라고 했다. 힘든 시기를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견디고 있는 것이다.
 ⑤ 자신의 '눈물'을 톱밥 난로에 던지는 것은 그 눈물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힘든 삶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20 ② 21 ① 22 ③ 23 ④ 24 ① 25 ⑤
26 ④

[20~23] 작품 분석

(가) 월훈(月暈)(박용래)

▶ 제목의 의미

'월훈'은 '달무리'라는 의미로, 현대 문명과 단절된 적막한 산골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운 삶의 모습과 분위기를 압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 시적 상황

현대 문명과 단절된 첩첩산중 마을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삶을 관찰하며 그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깊은 산속 외딴집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의 외로움과 허전함	
작품 속 근거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 주제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

▶ 특징

① 경어체의 사용과 명사형 종결 표현으로 경감의 깊이를 더함.		
작품 속 근거	~ 있습니다. ~ 모과빛입니다. ~ 듣지요. ~ 울지요.	~ 않습니다. ~ 밤입니다. ~ 생각합니다. ~ 읊니다.
	• 마을.	• 월훈.
		명사형 종결
②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줌.		
작품 속 근거	공작지, 공작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사상이 전개됨.		
작품 속 근거	첩첩산중 - 사잇길 - 갯속같은 마을 - 집 - 외딴집 - 노인	

▶ 어휘 풀이

- 허방다리: 함정(陷穽).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
- 노루꼬리 해: 매우 짧은 해.
- 봉당: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

(나) 상한 영혼을 위하여(고정희)

▶ 제목의 의미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며 견뎌 나가는 화자의 태도를,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언제나 곁에 숨 쉬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 시적 상황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자 한다.

▶ 정서 및 태도

•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자 함.	
작품 속 근거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나 뿌리 깊으랴 밑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함.	
작품 속 근거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임.	
작품 속 근거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 주제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활용해 주제를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뿌리	삶의 의지
	새순, 개울, 등불	삶에 대한 희망
	뿌리 깊은 들만	고통을 극복한 경지
②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20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는 현대 문명과 단절된 첩첩산중 마을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운 삶을 관조적(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그린 시이다. 그리고 (나)는 고통에 맞섬으로써 고통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마을’, ‘월훈’ 등의 명사형 종결과 ‘-지요’ 또는 ‘-하나다’의 종결 형태가 반복되고 있을 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와 같은 청유형 표현으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1연에서는 상한 갈대라도 살아서 흔들릴 수 있고, 밑동이 잘리더라도 뿌리가 깊다면 새순이 돋는다는 것을, 2연에서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도 물이 고인다면 꽃을 피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갈대와 부평초를 통해 화자는 삶의 의지가 강하다면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점층적 시행 배치와는 거리가 멀다.

blacklabel 특강 점층

점층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으로, 작고 약하고 좁은 것에서 크고 강하고 넓은 것으로 표현을 확대해 가는 것을 말한다.

예)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⑤ (가)는 부분적으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보이고, (나)의 경우에도 1, 2, 3연에 걸쳐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나)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21 시상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시적 대상은 노인이다. 이 노인은 3연이 되어서나 등장하는데, 앞의 1, 2연은 노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첩첩산중 - 사잇길 - 갭 속 같은 마을 - 집 - 외딴집 - 노인’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 가는 방식, 즉 원경에서 근경으로 대상에 집중해 가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①의 「청노루」 역시 ‘머언 산 - 청운사 - 느릅나무 - 속잎 - 청노루의 눈’으로, 즉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을 좁혀 가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첩첩산중 - 사잇길 - 갭 속 같은 마을 - 집 - 외딴집 - 노인	‘원경 →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에 집중해 나감.
(나)	머언 산 - 청운사 - 느릅나무 - 속잎 - 청노루의 눈	

오답 해설 | ② ‘별 하나에~’의 반복, 즉 유사한 구조의 반복에 의한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 준다.

③ 순수한 ‘새’와 폭력적인 ‘포수’의 대립, 즉 대립적 이미지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 준다.

④ ‘팅 빈 운동장 - 소숫집 - 장거리’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 준다.

⑤ 1연에서 의지를 표명한 뒤, 2연에서 결의를 다지고, 3연에서 파멸할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의지를 점점 강조하여 나타내는 점층적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 준다.

22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는 ‘~어디 있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이용하여 전체 시를 이끌고 있는데, 이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니라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나) 역시 2연에서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가랴/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통과 동행하는 일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이고 비장한 태도를 보여 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통과 동행하는 일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줌.

오답 해설 | ① (나)의 화자는 1연에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등의 표현으로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도 1연에서는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을 2연에서는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삶을 노래함으로써 고통을 수용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갈대’, ‘밑동 잘린 나무’, ‘부평초 잎’ 등을 통해 이 시를 감상하는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있으며 <보기>는 전체적으로 ‘꽃이 피는 과정’을 통해 이 시를 감상하는 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3연에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라는 표현을 통해 시련이 영원하지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가 시련을 순간으로 보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나)는 ‘가자’ 등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으나 <보기>는 청유형 문장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2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상한 갈대와 뿌리 없는 부평초가 고통 속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 고통과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성숙을 얻게 됨을 노래하고 있다. ㉠에서 고통에게 ‘살 맞대고 가자’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의 대면 의지, 고통을 수용하려는 태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해가 진 산골 마을에서 집집마다 불을 켜는 광경은 경쾌함과 거리가 멀다.
 ② 노인은 귀를 모은 채 누군가 자신을 찾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노인의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 속에서 들리는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듯한 귀뚜라미 소리에는 노인의 고독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귀뚜라미’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귀뚜라미가 노인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의미하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마주 잡을 손’은 외로움에 맞서며 고통과 마주하려 했을 때 만나게 될, 유사한 처지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즉 서로 기댈 수 있는 연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4~26] 작품 분석

(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이용악)

▶ 제목의 의미

이 시는 국경을 넘나들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낯선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참담한 실상을 그려 내고 있다. 아버지가 낯선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비통한 심정을 ‘풀벌레 소리’에 투영하여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시적 상황

타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슬퍼한다.

▶ 정서 및 태도

절제된 어조에 서글픔을 담아냄.	
작품 속 근거	우리는 머리맡에 얹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 특징

①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삶을 반영함.	
작품 속 근거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 아무울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었다.
② 청각적인 표현으로 비극성을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③ 수미상관식 구성 방식을 취함.	
작품 속 근거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연의 4~5행은 4연의 3~4행 에서 반복하여 여운을 주고 시 상에 안정감을 부여함.

▶ 어휘 풀이

- 노령, 아무울만, 니코리스크: 러시아 지명.
- 자라온: 키운.
- 설렁한: 좀 추운 듯한.

(나) 나무를 위하여(신경림)

▶ 제목의 의미

시련을 겪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위로와 믿음을 노래한 시이다.

▶ 시적 상황

나무들이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 휘고 꺾이고, 짓궂은 이웃들의 발길질에 목을 움츠리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작은 존재들의 연대와 단합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 주제

단합과 연대를 통한 민중들의 고난 극복

▶ 특징

① 의인화된 청자(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함.	
작품 속 근거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panse 때 지어 설 나무들아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랴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랴
③ 긍정적 의미의 시어와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대조됨.	
작품 속 근거	꽃과 열매, 잎과 꽃 ↔ 어둠, 비바람

▶ 어휘 풀이

- 산비탈: ‘산비탈’의 방언.
- 바위너설: 바위가 삐죽삐죽 내밀어 있는 험한 곳.

24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에서는 낯선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상황이 그려져 있고, (나)는 현재 민중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으나 민중이 마침내는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의 밤	타향에서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
(나)	잎들 더러 찢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나무(민중)’가 처해 있는 시련과 고난

오답 해설 ② (가)는 아버지와 사별이 시상을 유발하고 있으나, (나)에는 사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③ 설의적 표현은 (나)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랴 /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랴’에만 나타난다.

④ (가)는 아버지의 임종 상황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나)는 시련에 찬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 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어둠과 비바람’과, 그것을 이겨 낸 결실인 ‘꽃과 열매’가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대립적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25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에서 ‘산비탈과 바위너설’은 아프고 서러운 나무들이 목을 움츠리고 있는 공간이다. 나무들이 새롭게 서는 공간은 마지막 행에 ‘숲과 들panse’로 제시되어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산비탈과 바위너설	고통받는 나무들의 현재 위치
	숲과 들panse	승리한 나무들의 새로운 위치

오답 해설 ① ‘피지 못한’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문맥상 아버지의 못 다 이룬 꿈으로 풀이할 수 있다.

②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밤을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슬픔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라는 문맥을 고려할 때, ‘꽃과 열매’는 민중이 승리하는 날 누리게 될 자유와 행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어둠, 비바람’과 더불어 ‘짓궂은 이웃들’은 나무를 시련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요소들이다.

26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3연에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의원이 찾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였고,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의원이나 이웃 늙은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는 존재들일 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화자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때늦은 의원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후에 도착함.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이웃 노인이 아버지의 눈을 감김.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시는 겨울에 ‘문의 마을’에 가서 느낀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명상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은 삶과 죽음의 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연에서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 낯선 타향임을 드러내며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2연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가 객지를 떠돌며 힘겹게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현대시 ①	
01 ①	02 ①	03 ⑤	04 ⑤	05 ③	06 ③		

[01~03] 작품 분석

(가) 사과를 먹으며(함민복)

▶ 제목의 의미

사과를 먹는 것은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이나, 이 작품에서는 사색의 단초가 됨으로써 창작의 배경이 된다. 사과를 먹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사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사과에 담긴 자연과 우주의 순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시적 상황

사과를 먹으며 사과가 화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자연과 인간의 노력을 생각하고, 모든 생물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명 순환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사과에 담긴 의미에 대해 사색함.	
작품 속 근거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 사과를 먹는다 / 사과가 나를 먹는다

▶ 주제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 특징

① 일상의 경험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음.	
작품 속 근거	사과를 먹는다 → 사과 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작품 속 근거	사과(사과나무) ~ 먹는다
③ 점층적으로 의미를 확대하며 시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사과를 먹는다 → 사과가 나를 먹는다
④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사과를 먹는다 / 사과가 나를 먹는다

▶ 어휘 풀이

- 소슬바람: 가을에,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며 부는 으스스한 바람. 솔바람.
- 나이트: 나무의 줄기나 가지 따위를 가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둥근 테. 1년마다 하나씩 생기므로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음.

(나) 바다(박남수)

▶ 제목의 의미

조금씩 요동치다 점점 격하게 휘몰아치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로 터져 버리는 모습을 바다의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시적 상황

수평선의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요동치다 높고 거칠게 물으로 밀려와 결국 포말로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 지치고 초조한 감정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역동적이고 격정적임.	
작품 속 근거	키를 넘어 날리기 시작한다. 표범의 줄무늬가 훌쩍 뛰고 코끼리의 거구도 미끄러져 내린다.
• 내면의 감정이 서서히 동요하다 급격히 요동치며 폭발함.	
작품 속 근거	세상 모든 것이 얹질러진다.

▶ 주제

격동하는 바다의 거대한 모습, 견잡을 수 없이 터진 노여움

▶ 특징

① 점층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킴.	
작품 속 근거	처음에는 손을 들더니 → 차차 아우성이 되더니 → 키를 넘어 날리기 시작한다 → 전량으로 흔들리더니 → 세상 모든 것이 얹질러진다
②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함.	
작품 속 근거	표범의 줄무늬가 훌쩍 뛰고 코끼리의 거구도 미끄러져 내린다.

▶ 어휘 풀이

- 스름스름: 눈에 띄이지 않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
- 제어하다: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화자는 ‘사과를 먹는다’는 일상적 경험에서 시작하여 사계절을 거치며 사과가 열매 맺는 과정을 떠올리고 인간의 노력을 생각하다 결국 모든 생물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깨닫고 있다. 일상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생명의 순환이라는 철학적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철학적 깨달음을 찾아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사과를 먹는다	일상적 경험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도망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철학적 깨달음

오답 해설 ② (가)와 (나) 모두 특수한 공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에서는 배경이 되는 공간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의 ‘바다’는 일반적인 공간이지 특수한 공간은 아니다.

③ (가)는 ‘먹는다’를, (나)는 ‘시작한다, -터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획득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제를 뒷받침하거나 강조하지는 않는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사과’는 생명에 대한 깨달음의 매개체로 사용되었고, (나)의 ‘바다’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가)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역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blacklabel 특강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

‘운문’의 첫 번째 문제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여러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하는 문제이다. 이런 경우, 이어진문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가 많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을 찾으려면 선지를 적절히 끊어서 그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예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빗대어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먼저 자연물에 빗대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02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정답 해설 ‘사과를 먹는다 /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모든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지, 자연 파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도망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생명의 순환 과정

오답 해설 ② ‘-을/를 먹는다’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과를 먹는 행위 → 사과를 존재하게 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 →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③ 화자는 사과를 먹으며 자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사과와 양분이 되어 사과와 일부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한 생이 끝난 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순환 원리 사상이 깔려 있다.

④ ‘(내가) 사과를 먹는다 /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생명이 순환되는 자연의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는 ‘사과’로 모든 행이 시작된다. 그러나 20행부터 22행까지는 ‘흙’으로 시작해서 다른 행과 차별을 둔다. 또한 갑자기 들어쓰기를 하고 있어 ‘시적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blacklabel 특강 역설 / 반어 / 시적 긴장감

‘시적 긴장감’이란 시에서 일상적이지 않고 참신한 표현을 써서 독자로 하여금 표현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반어(의도와 반대되는 표현), 역설(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 도치(문장의 어순을 비꿈.), 행간 걸침(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음 행에 배치) 등을 통해 드러난다.

- 예 아이,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도치
- 유치환, 「깃발」 -

03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과 관계없는 자연의 바다, 그 격동하는 거대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 감상을 해도 좋고’를 볼 때, (나)는 바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있으며, 바다가 가지고 있는 격동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바다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과 관계없는 자연의 바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인 ‘-터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요한 듯하던 바다가 격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기다림에 지친 화자의 심정이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면 ‘동요하기 시작한다’와 ‘아우성이 되더니’는 초조함을, ‘전량으로 흔들리더니’와 ‘날리기 시작한다’는 초조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미끄러져 내린다’와 ‘엎질러진다’는 분노의 폭발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를 격동하는 바다를 형상화했다고 본다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평선의 잔잔한 바다가 물으로 밀려오면서 파도가 커지고 급기야 포말을 이루며 부서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④ <보기>에 제시된 ‘어떤 현실적 상황을 오버랩 시켜 감상’한 예이다.

blacklabel 특강 <보기>가 제시된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와 ‘<보기>를 참고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는 푸는 방법이 다르다. 즉 ‘<보기>를 바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보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지를 확인할 때 <보기>를 꼼꼼하게 대응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기>를 참고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는 <보기>보다는 ‘지문’에 충실하여 선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04~06] 작품 분석

(가) 외길(천양희)

▶ 제목의 의미

여러 새들이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시인 역시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외길)을 지켜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시적 상황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여러 새들의 모습을 관조하며 자신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자신의 길을 가려는 의지를 표출함.	
작품 속 근거	외길이 나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

▶ 주제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켜 가고자 하는 의지

▶ 특징

① 전반부 화자와 후반부 화자가 다름.		
작품 속 근거	1~6행	시인 자신이 화자가 되어 새들의 생태와 의지를 관조적으로 드러냄.
	7~10행	새가 화자가 되어 자신의 의지를 피력함. 시인의 삶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냄.
② 경어체 사용으로 화자의 의지를 표출함.		
작품 속 근거	제발 그대로 놓아두시지요.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	
③ 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유함.		
작품 속 근거	가마우지새는 벼랑에서만 살고 동박새는 동백꽃에서만 삽니다. 유리새는 고여 있는 물은 먹지 않고 무소새는 등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공중이 저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놓아두시지요
외길이 나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

▶ 어휘 풀이

- 고소 공포증: 높은 곳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병적 증상.
- 폐쇄 공포증: 폐쇄된 장소를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병적 증상.

(나) 자화상 2(오세영)

▶ 제목의 의미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며, 이 시에서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 시적 상황

‘눈발’ 속에서도 궁핍함을 말하지 않고 ‘먼 지평선’을 응시하며 고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까마귀의 고고한 삶을 관조하며 자신도 까마귀와 같은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고고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지님.

작품 속 근거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人家)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까마귀의 고고한 모습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여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까마귀의 순수한 모습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까마귀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함.

▶ 주제

고고하고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 특징

① 색채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까마귀	검은색(화자의 지향)
	설원, 눈발	흰색(부정적 현실)

② 대조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人家)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 어휘 풀이

- 형형한: 작은 빛이 자꾸 반짝거리고 있는 상태인.
- 낱알: 하나하나 따로따로인 알.

04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는 살아가는 방식과 장소는 각각 달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인가(人家)의 앞마당에서 먹이를 얻는 까치와 존재론적 정체성을 지키며 고고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검은 까마귀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가마우지새는 벼랑에서만 살고 동박새는 동백꽃에서만 삽니다. 유리새는 고여 있는 물은 먹지 않고 무소새는 동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들
(나)	결코 까치처럼 인가(人家)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여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고고하고 순수한 검은 까마귀

blacklabel 특강 시어의 이미지 파악

시를 감상할 때, 시어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는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외길’, ‘까마귀’, ‘검은 색’ 등은 일반적으로는 위태롭거나 어두운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에서 ‘외길’은 뒤에 이어지는 ‘나의 길이니 /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에서 ‘까마귀’와 ‘검은색’은 ‘검을 테면 / 철저히 검여라’,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등의 시구로 미루어 볼 때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므로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설원’, ‘얼어붙은 지상’, ‘눈발’, ‘겨울’, ‘눈’, ‘빈 가지’ 등 계절을 알게 하는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동백꽃은 계절을 알게 해 주는 시어가 아니라, 동박새가 사는 동지가 동백꽃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②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새들을 묘사가 아닌 나열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 등장하는 새들은 모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화자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따라서 (가)에는 대비되는 시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나)에는 대비되는 시어인 ‘까치’와 ‘까마귀’를 통해 고고한 까마귀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④ (가)의 ‘외길’은 화자가 선택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나타낼 뿐, 헤쳐 나가야 할 힘든 현실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겨울’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정적 현실, 본질이 가려진 허위와 위선의 현실로 까마귀가 헤쳐 나가야 하는 힘든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05 시상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 ‘새들은 고소 공포증도 폐쇄 공포증도 없습니다.’는 새들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하늘을 날아온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해 살고 있다 해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포면적인 삶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B]는 뒤의 ‘외길이 나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로 연결되며 삶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니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B]	그래도 새들은 날아오릅니다. 새들은 고소 공포증도 폐쇄 공포증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따라 두려움 없이 살아감.

오답 해설 | ①, ② [A]의 1, 2행은 ‘~살고’, ‘~삽니다’를 통해 새들의 삶의 공간을, 3, 4행은 ‘않고’, ‘않습니다’를 통해 새들의 습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을 알 수 있다.

④ 경어체를 사용하면 청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진지하게 전달하여 말하기에 효과적이다. ‘두시지요’는 ‘두어라’의 경어체로 명령형 종결 형태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더욱 강하게 전달된다.

⑤ ‘~이 ~니 / 제발 ~시지요.’의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 결코 까치처럼 / 인가(人家)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보면 까마귀는 까치와 대비를 이루어 고고하고 타협하지 않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까마귀가 ‘설원’을 굶어보는 것은, 위선이나 거짓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설원’의 뒤에 가려진 진실을 꿰뚫어보기 위함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중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까마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고고한 존재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설원: 부정적인 현실

오답 해설 ① 시인은 시를 통해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까마귀를 통해 고고한 존재를 지향하는 시인의 철학적 상상력을 볼 수 있다.
 ② 의인화는 「이슈 우화」나 「장끼전」에서와 같이 동물에게 사람인 것처럼 성격이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풍자를 통해 대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이 시에서 까마귀를 ‘그대’로 부르는 경우처럼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④ ‘빈 가지’는 위에 나왔던 ‘굵어 죽을지언정’과 호응하여 ‘궁핍한 현실’을 표현하며, ‘홀로 앉아’는 고고한 모습을 엿보게 한다.
 ⑤ ‘단 한 개의 깃털도’가 행간 걸침이 되어 다음 행의 ‘남기지 말고’가 행의 맨 앞에 놓여 강조되고 있다. 또 ‘단 한 개의 깃털도 철저히 검어라.’와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blacklabel 특강 행간 걸침(행간 걸림)

한 행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 행으로 연결되어 끝내는 것을 말한다. 시에서 중의적(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 것)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또는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강조할 시어를 행의 첫 머리로 끌어와서 배치한다.

예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두나.
 이시라 후더면 가라마는 제 구두야
 보내고 그리는 정을 나도 몰라 후노라 — 황진이의 시조 —
 이 시조에서 행간 걸침은 ‘제 구두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있으라 했더라면 제가(임이) 구태어 갔을까마는’과 ‘제가(내가) 구태어 보내고 그리는 정을’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고, ‘보내고 그리는 정’이 행의 맨 앞에 놓여서 자연스럽게 강조된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07 ④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③

[07~09] 작품 분석

(가) 머슴 대길이(고은)

▶ 제목의 의미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으로, 소외당한 민중이지만 민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을 상징한다.

▶ 시적 상황

화자의 어린 시절 정신적 스승이었던 대길이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대길이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함.	
작품 속 근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커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주제

머슴 대길이를 통해 깨달은 공동체적 삶의 의미, 민중의 건강성과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

▶ 특징

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구어체를 사용함.	
작품 속 근거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② 토속적 시어와 구체적 지명을 제시함.	
작품 속 근거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 상 머슴으로 누룩도아지 한 마리 번쩍 들어 / 도아지 우리에 넘겼지요
③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 어휘 풀이

- 새터 관전이네: 새터라는 마을의 관전이라는 사람의 집에.
- 상머슴: 일을 잘하는 장정 머슴.
- 먹따다: 칼 따위로 짐승의 먹(목의 앞쪽)을 찢거나 자르다.
-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 어두운 현실에 더욱 깨어 있는 존재임을 의미함.
- 흘적삼: 흘겁 적삼.

(나) 땅끝(나희덕)

▶ 제목의 의미

우리나라 최남단인 전라남도 땅끝 마을을 지칭하면서,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을 나타내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시적 상황

꿈이 좌절되어 두려워하다가 땅끝에 와서 절망 속에 희망이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과거의 인생에 대해 사색함.	
작품 속 근거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꿈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 절망 끝에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작품 속 근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 주제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느끼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

▶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희망의 의지를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② 구체적 지명을 모티브로 활용함.	
작품 속 근거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07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① (가)는 ‘-지요’의 반복을 통해 대길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나)는 ‘-었지’ 등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도아지 우리에 넘겼지요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지요’의 반복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대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멀고 있었어	‘-었지’의 반복

오답 해설 ① (나)의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대길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시의 주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땅끝’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③ (가)와 (나) 모두 일상적인 경험을 찾을 수 있으나, (가)에서는 반성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역시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찾는 화자의 모습은 있지만, 반성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이야기체를 통해 대상인 ‘대길이’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독백적인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며 대상인 ‘땅끝’에서 얻은 깨달음을 노래할 뿐, 대상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

blacklabel 특강 대화와 독백

독백은 혼자 하는 말이고, 대화는 둘 이상이 함께 하는 말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간혹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도 대화체가 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말인데도 듣는 사람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 • 어머니, /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깊은 삼림 지대를 끼고 돌면
 고향의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 새끼 마음놓고 뛰여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이 시는 어머니라는 대상이 있지만 독백체이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

•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향단이의 대상이 없지만 대화체이다. 그넷줄을 밀려면 향단이 이 장면에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향단이 말하는 내용은 없다 해도 대화체가 되는 것이다.

— 서정주, 「추천사」 —

→ 독백과 대화는 청자가 그 장면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청자가 있다면 대화, 없다면 독백이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이라는 구절로 볼 때 대길이의 신분은 ‘머슴’이다. ‘상머슴’은 부유한 머슴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머슴이라는 뜻으로, 머슴인 대길이가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지바에 모른단다 /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는 대길이가 화자에게 해 준 말이다. 대길이는 겨울에도 남루한 옷을 입을 정도로 가난한 처지이지만, 힘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길이가 풍족한 삶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머슴의 신분
	찬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가난한 형편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지바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

오답 해설 | ① 이어지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에서 대길이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영원한 스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갸거겨’는 우리말을 나타내는 대유적 표현으로,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갸거겨 배웠지요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갸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대길이가 화자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으로 한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 대길이의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다.

③ ‘어둠’은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대길이가 어두운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뚜렷한 민족의식을 갖고 어린 자신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매우 의미 있는 행위로 여기고 있으며, 머슴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스승으로서 화자를 이끌어 준 밤에 더욱 빛났다고 여긴 것이다.

⑤ ‘홀적삼 처녀’는 ‘얇은 옷을 입은 처녀’로 대길이가 이성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소재이다. 이에 대비되는 ‘바다’는 대길이가 동경하고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시를 잘 읽는 법

- ① 화자를 찾는다.: 시의 화자가 작품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다.
 - ② 시의 중심인물(중심 대상)을 찾는다.: 화자가 작품 내부에 존재한다 해서 그가 반드시 중심인물(또는 중심 대상)인 것은 아니다.
 - ③ 시의 중심인물의 특징과 화자의 상황, 정서 및 태도 등을 생각해 본다.
- 예 「머슴 대길이」
- 화자는 작품 내부의 인물인 ‘나’이다.
 - 중심인물(중심 대상)은 ‘대길이’이다.
 - 대길이는 머슴의 신분이지만 힘이 세고 성실한 인물로,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으며, 넓은 세상을 동경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에 ‘나’는 그런 대길이를 그리워하며 그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09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어린 시절 좌절된 꿈으로 인한 두려움을 ‘빠걱빠걱 떨고 있었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그걸 보려고 /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꿈의 좌절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빠걱빠걱 떨고 있었어	두려움(‘그녀’에 감정을 이입함.)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blacklabel 특강 감정 이입 / 객관적 상관물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감정 이입은 자신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대상도 자기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다. 객관적 상관물은 사람의 심리나 정서, 사상을 사물이나 사건, 자연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상관물에는 감정 이입을 사용하기도 한다.

- 예 ① 저 물도 내 안과 같아 울며 밤길 가는구나.
 - ‘저 물’은 감정 이입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 왕방연의 시조 —
- ② 떨떨 나는 저 피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 외로워라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 유리왕, 「황조가」 —
 -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③ 아침부터 ‘찌아~’ 울어 대는 매미 소리에 여름의 더운 길이 훑 들어왔다.
 - 객관화를 통한 정서 표현(내 감정과 같지도 않지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객관적 대상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즉 화자의 감정도 매미의 감정도 나타나진 않지만 한여름의 후끈한 공기에 찌죽이 살짝 엿보인다. 이런 경우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감정 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므로, 이것이 감정 이입일까, 객관적 상관물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감정 이입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삶의 막다른 곳인 땅끝에서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것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③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네’는 진자 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힘차게 차고 올라가도 끝내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넷줄’은 ‘희망과 좌절’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⑤ ‘땅끝’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라는 시구로 볼 때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10~12] 작품 분석

(가) 춘설(정지용)

▶ 제목의 의미

이른 봄에 내린 눈을 의미한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봄눈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시적 상황

때 아닌 눈(초봄에 내리는 눈)을 통해 오히려 봄의 기운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봄을 맞이하는 기쁨이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이 설어라.
• 차가운 눈 속에서 봄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음.	
작품 속 근거	꽃 피기 전 절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출고 싶어라.

▶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이 온 것을 생동감 있게 나타냄.		
작품 속 근거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
	서늘옴과 빛난 이마받이하다.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② 영단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문 열자 섯!	

▶ 어휘 풀이

-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 뗏부리: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
- 이마받이: ① 이마로 부딪침. ② 두 물체가 몹시 가깝게 맞붙음.
- 웅숭그리고: 출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 햇웃: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나) 추억 -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정진규)

▶ 제목의 의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창작 모티프로 삼아 쓴 시로, 그림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시적 상황

고단한 노동에 지쳐 있으며, 비가 내리는 새벽에는 휴식을 기대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고단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담담하게 바라봄.	
작품 속 근거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 주제

일에 지친 가족의 고단함과 휴식에 대한 기대

▶ 특징

① 회화 작품을 시적 변용함.	
작품 속 근거	제목: 추억 -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②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 어휘 풀이

- 고되다: 하는 일이 힘에 겨워 고단하다.
- 때우다: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

10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문 열자 섯!', (나)의 '맛있는 잠!'은 영탄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쓸쓸함과 거리가 멀다. (나) 역시 쓸쓸한 정서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문 열자 섯!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갑작스러운 봄눈에 놀라고, 눈 쌓인 먼 산의 차가움을 느낌
(나)	맛있는 잠! 잠에는 막힐이 없었다	고단한 노동 이후 달고 깊게 잠들.

blacklabel 특강 영탄법

감탄사나 감탄 조사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고, —노 / 나' 등의 의문형 어미로도 영탄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예 아, 아름다워라. 보았노고, 놀랍지 않느냐 등

오답 해설 | ② (가)는 '우수절, 초하루 아침, 눈'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서늘하고, 이마받이, 웅숭그리고, 움짖, 햇웃'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낯선 표현들이 대상을 묘사하거나 시상을 전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나)는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는 쉬운 단어들을 중심으로 식구들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④ (가)는 '봄눈'을 통해 초봄의 생명력을, (나)는 '감자'를 통해 식구들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는 시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 등을 통해 이른 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식구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얼음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시각적 심상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짖 아니 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
	서늘하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나)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의 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시각적 심상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빠격거렸다.	청각적 심상
	서적서적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11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화자는 초봄에 내린 눈을 보고 겨울옷을 벗고 다시 출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봄기운을 먼저 느끼고 싶은 화자의 설렘이 드러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㉔	햇웃 벗고 도로 출고 싶어라	온몸으로 봄기운을 느끼고 싶은 마음

오답 해설 | ① 먼 산에 내린 눈이 마치 이마에 닿아서 차가운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다.

②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물고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삽질에 능숙한 식구들의 모습을 마디 굵은 손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빗줄기를 부드럽게 느끼는 것은 식구들이 비를 계기로 하루쯤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빗줄기는 식구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은 농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고흐의 말을 통해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식구들은 늘 저녁을 감자로 때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감자가 <보기>의 그림과 (나)의 식구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이들이 가난함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중략)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감자가 주식임.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고흐의 말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화자가 식구들을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식구들의 삶의 모습을 담담히 그려 내고,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구절에서 그들이 농사일을 숙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낼 뿐, 그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드러내지 않는다.

② (나)와 <보기>의 그림은 모두 인물들의 모습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 농민의 삶은 당시 사람들에게 더럽고 미개하다고 여겨졌다고 하였으나, (나)의 식구들의 삶에 독자들이 거리감을 느낄 것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⑤ <보기>의 '더럽고 미개하다고 여기던 농민의 삶'이라는 구절로 볼 때, 그림의 인물들은 괘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식구들이 사람들에게 괘시를 받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④
18 ③

[13~15] 작품 분석

(가) 산수유나무의 농사(문태준)

▶ 제목의 의미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산수유나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는 결과물로 표현함으로써 산수유나무 그늘이 주는 배려를 표현하고 있다.

▶ 시적 상황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과 그늘을 보며, 산수유나무가 한 해 농사를 지어 그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산수유나무가 드리운 그늘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가치를 발견함.	
작품 속 근거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 주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 특징

① 자연물을 바라보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작품 속 근거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②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함.	
작품 속 근거	마음의 그늘이 욕망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이라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사람의 마음의 그늘 (좁음) ↔ 산수유나무의 그늘(넓음)

▶ 어휘 풀이

- 되: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되는 한 말의 10분의 1.

(나) 슬픔이 기쁨에게(정호승)

▶ 제목의 의미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하여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시적 상황

청자로 설정된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존재이며, 이러한 '기쁨'에게 화자는 '슬픔'과 '기다림'을 주겠다고 말한다. '슬픔'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 정서 및 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함.	
작품 속 근거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추구

▶ 특징

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너(청자): 기쁨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건넌다.	
② ‘- 겠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작품 속 근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건넌다.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어휘 풀이

- 동사자: 얼어죽은 사람.
- 가마니: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을 뚫자리 치듯이 쳐서 만든 용기.

13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 ‘노란 그늘’, ‘노란 좁쌀’ 등을 통해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별도의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blacklabel 특강 색채어

- 색채어: 빛깔을 나타내는 말. 색깔의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예 하이얀 여울턱, 붉은 먼지, 푸른 샛강
- 색채: 빛깔, 색 이름, 색을 띠는 소재 모두를 포함한다. 예 까마귀, 백로, 노을

- ③ (가)에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에는 화자인 ‘나’를 표면에 제시하여 ‘너’에게 ‘슬픔’을 알게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는 ‘산수유나무가 ~ 농사를 짓고 있다’의 표현이, (나)에는 ‘~을 주겠다’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마음의 그늘’과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나)는 ‘슬픔’과 ‘기쁨’을 대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가)에서는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고 마음의 그늘이 좁아지는 속성을, (나)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몰인정한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4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함박눈’은 ‘나’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봄눈’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야 할 긍정적인 대상이므로, ‘함박눈’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함박눈: 가진 자만이 누리던 기쁨
(나)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봄눈: 소외된 이들을 위한 애정과 희망

-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추위에 떨던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동사자’에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여 주지 않은 ‘너’의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가마니 한 장’은 결국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의미한다.
③ 화자는 ‘너의 사랑’을 ‘무관심한 것’으로, ‘너의 눈물’은 ‘흘릴 줄 모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힘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기다림’은 화자가 다른 사람들의 힘든 삶을 이해할 줄 모르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다림’은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시간이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15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의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울 때 함께 넓어지는 것으로, 산수유나무는 큰 그늘을 드리움으로써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사람들에게 호응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슬픔’은 소외된 공간에서 촉발되는 정서로 볼 수 없다. 겨울밤 거리에서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는 소외된 이웃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에게 화자인 ‘나’가 슬픔의 의미를 알려 주

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소외된 공간에서 슬픔이 촉발된다고 할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는 땅에서 넓어진다	그늘: 쉬어갈 공간
	끓어오르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나)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슬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애정

-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산수유나무가 만든 ‘그늘’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여 (나)의 ‘슬픔’은 소외된 이웃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② (가)에서 마음의 ‘그늘’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한 것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슬픔’은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마음의 ‘그늘’을 만든 주체는 사람들이므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나)의 ‘슬픔’은 소외된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보여 준다.
④ (가)의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듯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타난 결과물이다. (나)의 ‘슬픔’은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고난, 시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다.

[16~18] 작품 분석

(가) 병원(윤동주)

▶ 제목의 의미

화자가 처한 공간이자, 병원의 풍경에서 본 젊은 여자 환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시적 상황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젊은 여자 환자를 관찰한다. 화자 또한 자신도 모를 아픔으로 병원에 찾아왔지만 높은 의사는 그의 병을 모른다고 한다. 화자는 자신과 여자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여자 환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정서 및 태도

• 자신을 성찰하며 피로, 분노의 정서를 자제함.	
작품 속 근거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생애서는 안 된다.
• 치유의 소망을 지닌 여자에게 공감하며 건강의 회복을 기원함.	
작품 속 근거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주제

고통과 고독에 대한 연민, 상황 극복의 기원

▶ 특징

①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현장감을 부여함.	
작품 속 근거	~한다, ~없다, ~모른다, ~한다, ~안 된다, ~사라진다, 누워 본다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묘사함.	
작품 속 근거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 어휘 풀이

- 일광욕: 치료나 건강을 위하여 온몸을 드러내고 햇빛을 쬐. 또는 그런 일.

(나) 나무(박목월)

▶ 제목의 의미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 시적 상황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공주로, 온양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을 거

치며 화자는 여러 나무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도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음을 알게 된다.

▶ 정서 및 태도

나무들을 보며 목중함, 침울함, 고독감을 차례로 느낌.		
작품 속 근거	목중하게 서 있었다.	말이 적고 몸가짐이 신중함.
	몹시 추워 보였다.	우울함
	외로워 보였다.	고독

▶ 주제

나무를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 특징

① 여행 과정에 따라 사상이 전개됨.		
작품 속 근거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여정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공주에서 온양으로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함.		
작품 속 근거	수도승일까	목중함
	어설픈 과객일까	추움
	파수병일까	외로움

▶ 어휘 풀이

- 목중하다: 말이 적고 몸가짐이 신중하다.
- 우회하다: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다.

16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자신이 젊은 여자를 보며 느낀 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조치원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온양으로 갔다가, 온양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젊은 여자가 ~ 일광욕을 한다.	여자를 관찰함.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여자와 자신의 쾌유를 기원함.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여행의 경로

오답 해설 ② (가)에서 화자가 젊은 여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더라도, 이에 따라 젊은 여자의 아픔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화자는 나무에 감정을 이입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나)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문장들이 나타나 있으나, 이 문장들은 대상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본 것일 뿐,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가)는 현재형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인 ‘-다, -는다’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주로 과거형 시제인 ‘-았 / 었-’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가 젊은 여자와 교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의 화자 역시 나무들과 교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자의 극복 의지는 (가)에만 나타나고 있다.

blacklabel 특강 설의적 표현

표현에 변화를 주어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예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17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화자는 늙은 의사가 자신의 병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성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화자의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운 젊은 여자를 보고 있고, 화자 자신도 모를 아픔을 참다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려 주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젊은 여자’를 바라보며 화자는 2연에서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있다. 또한 3연에서 그녀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으므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나비 한 마리’도 없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상황은 젊은 여자가 찾는 이 없이 홀로 외롭게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⑤ ‘금잔화 한 포기’를 가슴에 꽃고 가는 여인을 보며 화자는 여인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여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있는 물론이고, 자신의 정서를 투영하여 여인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정서의 투영

화자의 정서를 시적 대상에 서글픈

예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 사물인 웅기는 글썽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시적 대상인 웅기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에서 ㉢까지 화자는 나무들을 보며 목중함, 쓸쓸함 등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에서 ㉣로 오게 되었을 때, 화자는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서울로 올라오며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온양에서 서울로 올라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유성에서 서울까지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느낀 나무에 대한 감정을 자신의 내면에 연결하고 있으므로, 정서의 심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여행 중에 발견한 나무들의 이미지를 ‘수도승’, ‘과객’, ‘파수병’ 등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가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자라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④ 한 그루의 늙은 나무는 ‘목중한 수도승’으로, 떼를 저 물려 있는 나무들은 ‘어설픈 과객’으로, 뒷길 산마루에 있는 나무들은 ‘외로운 파수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나무의 외양을 통해 화자가 느낀 감상을 묘사한 것이다. ⑤ 유성에서 온양까지는 화자가 여행을 다니며 본 나무들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만, 온양에서 서울로 올라온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인식하고 있다. 즉, 자신의 내면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19~21] 작품 분석

(가) 서해(이성복)

▶ 제목의 의미

‘서해’는 시적 대상인 ‘당신’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화자는 오히려 그 공간에 가지 않고, ‘당신’이 계실 자리로 남겨 둠으로써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서해에서 ‘당신’의 부재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될 실망감과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 ‘서해’가 늘 파도치고 있다는 말을 통해 ‘당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애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 시적 상황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서해’를 생각하며,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남.	
작품 속 근거	내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주제

그리운 이에 대한 배려와 안타까운 그리움

▶ 특징

① 역설적 발상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않았습니다, 다들가요, 뒤척이겠지요, 할까 봅니다, 있습니다
③ 의인법을 활용해 서해의 모습을 묘사함.	
작품 속 근거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월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④ 도치법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 내 다 가 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 어휘 풀이

- 개펄: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판.
- 진펄: 땅이 질어 질퍽한 벌.

(나) 승무(조지훈)

▶ 제목의 의미

‘승무’는 장삼과 고깔을 걸치고 복채를 쥐고 추는 민속춤이다. 여기서는 승무를 추는 여승을 소재로 하여 삶의 번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시적 상황

춤추는 여승의 외면을 묘사하면서,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여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화자: 여승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느낌.	
작품 속 근거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여승: 세상 속의 번뇌를 경건한 승무로 승화시키고자 함.	
작품 속 근거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뺄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 특징

① 역설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상황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② 시적 허용을 통해 운율과 어감을 살리고, 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함.	
작품 속 근거	하이얀, 나빌레라, 파르라니, 모두오고, 감기우고
③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운율감과 구조적 안정감을 줌.	
작품 속 근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어휘 풀이

- 사(紗): 얇고 가벼운 비단.
- 박사(薄紗): 얇은 사(紗).
- 대(臺): 물건을 떠받치거나 올려놓기 위한 받침이 되는 기구.
- 황촉(黃燭): 밀랍으로 만든 촛.
- 외씨버선: 오이씨처럼 볼이 조붓하고 가름하여 맵시가 있는 버선.
- 복사꽃: 봉숭아꽃.
- 세사(世事):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
- 번뇌(煩惱): 1.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2.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 삼경(三更):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11시~새벽 1시.

19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는 ‘바다’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으로, (나)는 승무를 추는 ‘여인’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둘 다 감각적 심상(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에 의해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리듬감과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 다들가요, 뒤척이겠지요 • 앉았습니다, 할까 봅니다, 있습니다	-버니다 / -요
(나)	• 나빌레라, 서러워라, 별빛이라, 나빌레라 • 외씨버선이며, 두 방울이야	-라 / -여(야)

② (가)는 화자가 예상하는 서해의 모습을 의인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월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바다의 모습을 의인화함.

③ (가)에는 ‘당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유보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서해’는 ‘당신’이 계실지도 모르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을 남겨 둠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그리움을 지속해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도치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 내 다 가 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도치의 방식으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냄.

⑤ (나)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면서 시상 전개에 통일성(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써 파악되는 성질)을 주고 있다. 그런데 1연과 마지막 연은 같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변화되어 있다. 1연의 ‘나빌레라’는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승을 묘사한 것이라면, 마지막 연의 ‘나빌레라’는 번뇌를 극복했거나 또는 번뇌 극복에 한 발 다가선 정화의 마음을 가진 여승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1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속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승

9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번뇌를 극복하거나 번뇌 극복에 다가선 정화의 마음을 가진 여승
----	------------------------------	------------------------------------

20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번뇌’는 여승이 승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일체의 세속적인 번뇌를 가리킨다. 반면 ‘별빛’은 여승이 승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으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를 의미한다. 여승은 승무를 통해서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이는 ‘번뇌’와 ‘별빛’을 합일(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버리고 ‘별빛’을 얻음으로써 이루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2연에서 화자는 ‘그곳 바다’, 즉 ‘당신’이 존재하는 ‘서해’도 다른 바다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② 1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계시’까 봐 서해에 가 보지 않았다고 한다. 화자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이는 역설적 태도이다. 그리고 3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지 모를 공간을 ‘당신이 계시 자리’로 남김으로써 ‘당신’의 부재를 확인할 경우 느끼게 될 절망감과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당신’의 존재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③ 여승은 파랗게 삭발한 머리를 하얀 고깔 속에 감추고 있으며, 드러나 있는 두 볼에는 고운 빛이 흐른다. 이로써 여승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여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시에 이러한 아름다운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낌을 ‘고와서 서러워라’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두 방울’은 여승이 흘리는 ‘눈물’로, 번뇌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으로 이는 속세의 번뇌를 떨쳐 버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화의 의미 또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타 장르로의 전환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는 ‘승무’라는 춤을 통해 세속적인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춤을 추는 동작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6연~8연에서 세속적 번뇌의 초월을 염원하는 모습은 정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을 역동적인 춤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5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버선이며.	긴 소매로 하늘을 휘젓는 춤사위, 급박한 울동을 보여줌.
6연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부분 춤 동작으로, 거의 정지한 순간의 장면임.
8연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협정인 양하고	춤이 끝날 즈음의 느린 가락에 맞춘 완만한 춤 동작

오답 해설 | ① 7연의 ‘고운 뺨’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여승이 ‘고운 뺨’을 가진 젊은 여인임을 알 수 있다.

② ‘여승’은 ‘밤’에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밤을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이라 표현하고 있다. 대(臺)는 물건을 떠받치거나 올려놓기 위한 받침이 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곳에 황촉(黃燭) 즉, 밀랍으로 만든 초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 초가 말없이 녹고 있는 밤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5연에서는 날렵하면서도 사뿐히 도는 춤사위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절묘하게 포착해야 한다. ‘외씨버선’은 춤의 아름다움을 신체 한 곳에 집약시켜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통해 전통적인 곡선미를 보여 줄 수 있다.

⑤ (나)는 깊은 가을 달밤 빈 무대에서 촛불을 밝히고 승무를 추고 있는 젊은 여승의 모습을 통해 인간 번뇌를 종교적으로 초월하려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승무를 춤으로써 여승은 점차 슬픔과 함께 세사의 번뇌를 극복하게 된다. 따라서 주위의 배경을 보여 준 후, 번뇌를 극복하게 되어 여승의 얼굴이 점차 평온해짐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다.

[22~24] 작품 분석

(가) 향아(신동엽)

▶ 제목의 의미

이 시의 제목인 ‘향아’는 ‘고운 얼굴’을 가진, 아직 문명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이다. 결국 이 시는 ‘향아’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자고 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시적 상황

‘향아’라는 시적 대상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아름다운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을 건네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인간 본연의 순수성과 순수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 의지가 드러남.	
작품 속 근거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개지로 가자,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남.	
작품 속 근거	허울의 눈부심,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발돋움의 흥내

▶ 주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조화롭던 과거 세계로의 회귀 의지

▶ 특징

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청유형)으로 시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향(香)아 ~자.					
② 대조적 심상을 사용해 대상의 차이를 부각함.						
작품 속 근거	<table><tr><th>현실</th></tr><tr><td>허울 기생충의 생리 허식 병들 생김새에 맞지 않는 행동</td></tr></table>	현실	허울 기생충의 생리 허식 병들 생김새에 맞지 않는 행동	<table><tr><th>이상향</th></tr><tr><td>옛날 석양 풍요로움 젊음 소박함 싱싱함</td></tr></table>	이상향	옛날 석양 풍요로움 젊음 소박함 싱싱함
	현실					
허울 기생충의 생리 허식 병들 생김새에 맞지 않는 행동						
이상향						
옛날 석양 풍요로움 젊음 소박함 싱싱함						
③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 어휘 풀이

- 조석(朝夕): 아침과 저녁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수수력거리는: 수런거리는.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수선스럽게 자꾸 지껄이는.
- 회올리는: 타래처럼 꼬여서 올라가게 하는.
- 인: 몸에 깊이 뻗 버릇.
- 콩바심: 거둬들인 콩을 두드려 콩알을 털어 내는 일.
- 미개지(未開地):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생활·문화 수준이 낮은 땅.

(나) 멀치(김기택)

▶ 제목의 의미

식탁에 반찬으로 올라와 있는 ‘멀치’를 보면서 화자는 과거 멀치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즉 이 시는 ‘멀치’의 삶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길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시적 상황

식탁 위에 오른 딱딱한 멀치 반찬을 보며 과거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노닐던, 생명력 넘치는 멀치를 상상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멀치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작품 속 근거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멀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갔던 것이다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 멀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함.	
작품 속 근거	지금도 멀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 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주제

생명력 회복에의 소망과 의지

▶ 특징

① 공간의 대비가 나타남: 건어물집 ↔ 바다				
② 특정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시적 안정감을 부여함.				
작품 속 근거	~ 것이다			
③ 대조적 심상을 사용해 대상의 차이를 부각함.				
작품 속 근거	<table><tr><td>그물, 햇빛, 바람 등 생명을 빼앗아 가는 존재</td><td>↔</td><td>물결, 파도, 해일, 바다 등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td></tr></table>	그물, 햇빛, 바람 등 생명을 빼앗아 가는 존재	↔	물결, 파도, 해일, 바다 등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
그물, 햇빛, 바람 등 생명을 빼앗아 가는 존재	↔	물결, 파도, 해일, 바다 등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		
④ 점증법을 사용해 의미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2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는 화자가 ‘향아’라는 시적 대상에게 ‘오래지 않은 옛날’, ‘전설 같은 풍속’, ‘정자나무 마을’, ‘미개지’, ‘싱싱한 마음밭’으로 회귀할 것을 청유형(가자, 돌아가자)으로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멸치’를 바라보면서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 즉 ‘물결’이었던 멸치가 잡혀서 접시에 담기게 된 상황에 대해 ‘~것이다’라는 평서형 종결 표현으로 멸치의 과거를 추측하고,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향아’에게 다른 공간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의 ‘멸치’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건어물집’, ‘접시 위’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그에 따라 멸치가 ‘물결’ 즉 생명력을 잃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는 ‘향아’에게 계속 자연과 인간이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과거 세계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서는 안타까운 어조로 ‘멸치’의 과거를 추측하다가, ‘멸치’에 아직 ‘물결’이 있고, 그에 따라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어조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나)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한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멸치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돌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함.

④ 대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표현법을 말한다. 하지만 (가)와 (나)에는 동일한 종결 표현의 반복이 나타날 뿐 대구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가)에서는 ‘향아’라고 부르면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멸치의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안타까워할 뿐,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에 의하면 (가)에 나타난 대상들은 신체 또는 인간들의 관계와 결합되어 ‘고향’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가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화자는 이 모습에 대해 ‘두렵다’고 표현했고, 이 모습을 ‘흉내내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바라는 ‘고향’의 모습이 아닌 상태인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부정적인 감정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오답 해설 | ① ‘향(香)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라고 했으므로,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옛날에는 ‘우물가’가 있었고, 이는 ‘고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연에서는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에서 나타나던 석양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석양은 ‘고향’의 모습이므로, 석양이 나타나던 수수밭의 모습도 고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향아’에게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자나무 마을은 고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풍속은 ‘고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2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바다의 무늬’는 ‘멸치’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는 ‘멸치’가 ‘빠다귀’처럼 마르고,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마른 멸치는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놓인다. 따라서 이때의 ‘모래 더미’도 멸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멸치는 어느 부엌으로 가서 ‘기름에 튀겨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기름’은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상태를 보여 준 것이 아니라, ‘멸치’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속성을 잃게 만드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가 마르고 힘이 없어짐. - 멸치의 부정적 상태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더 바짝 마른 멸치가 쌓여 있음. - 멸치의 부정적 상태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멸치가 기름에 튀겨짐. - 요리가 되는 과정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멸치’를 보면서 멸치가 잡히기 전을 생각하고 있다. 그때 ‘멸치’는 ‘물결’이었고,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이때 아직 멸치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②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냈고, 멸치는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때문에 길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멸치를 해치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죽은 멸치를 보면서도 멸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멸치’에게 아직 ‘바다’가 있고, ‘바다’에는 아직 ‘지느러미’, 그리고 ‘물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결’의 의미는 [D]와 [E]를 연결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화자는 ‘멸치’의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불러 멸치를 죽인 ‘고깃배’와 ‘그물’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직 ‘멸치’에게 ‘물결’, ‘파도’, ‘해일’이 있다고 보는 것은 멸치의 생명력이 회복되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E]에서 화자는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25 ①

26 ①

27 ③

28 ③

29 ②

30 ①

31 ④

[25~27] 작품 분석

(가) 고향 앞에서(오장환)

▶ 제목의 의미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안식처요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다. 그러나 이 시에는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화자의 깊은 회환과 자책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시적 상황

고향 앞에 와서도 고향으로 갈 수 없어 주막에 들러 주인집 늙은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화자: 전나무 우거진 고향 마을은 사라지고 변치 않는 것은 조상의 무덤뿐임을 실감하면서 안타까워함.	
작품 속 근거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 주막 주인: 화자의 슬픈 고향 소식에 공감함.	
작품 속 근거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 주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

▶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후각 흙이 풀리는 내음새, 누룩이 뜨는 내음새
	시각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촉각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청각 간간이 젼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② 현재 시제의 사용으로 그리움의 절박성을 강조함.	
작품 속 근거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 어휘 풀이

- 울멍울멍: 1.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2.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이라는 의미로,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함.
- 젼나비: 원숭이를 이르는 말.
- 예제로: 여기저기로.
- 상고(商賈): 장수. 장사하는 사람.

(나) 낡은 집(최두석)

▶ 제목의 의미

‘낡은 집’은 화자의 고향을 의미한다. 고향은 슬레이트 흙담집에, 여덟 자 정도의 작은 방에 고구마가 있고 메주가 있다. 이 모습에서 가난함, 궁핍함이 느껴진다.

▶ 시적 상황

낡은 집인 ‘고향 집’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다가 곧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다.

▶ 정서 및 태도

• 고향의 모습에 거리감을 둬.	
작품 속 근거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 가족들을 다시 만나 가족애와 연민을 느낌.	
작품 속 근거	허리 굽은 어머니는 ~ 오리를 잡는다.

▶ 주제

고향 집 풍경과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

▶ 특징

① 귀향하여 가족들과 있었던 사건들을 산문체 형식으로 이야기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됨.	
③ 감정을 절제한 객관적 서술(담당한 어조)을 통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④ 현재 시제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여함.	
작품 속 근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④ 감각적, 향토적 소재를 사용함.	
작품 속 근거	농부, 흙담집, 고구마 뒤주, 메주 등

▶ 어휘 풀이

- 슬레이트: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임.
- 여덟 자: 2.42미터 정도의 길이. 좁은 집을 의미함.
- 팔매질: 작고 단단한 돌 따위를 손에 쥐고, 팔을 힘껏 흔들어서 멀리 내던지는 것.

25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비교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진종일 나룻가에서 서성거리고,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고향 근처 주막에 들른다.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고향에 왔지만 고향 집의 가족들에 대해 거리를 두며 타인을 말하듯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도 없고 선풍한 냉동의 고향 집을 보며 낯선 느낌을 받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서글픈 마음에서 우연히 만난 ‘행인’에게 따스함, 친근감을 느끼고 싶어함.
(나)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튼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동이다.	익숙한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풍하고 낯선 느낌을 받음.

오답 해설 ② (가)에서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는 고향에 남아 있는 조상의 흔적을 의미할 뿐, 그 공간의 권위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 또 한 (나)에서 묘사되는 고향의 모습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가)에서는 고향에 다신 돌아갈 수 없으니 ‘세상이 변’했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인집 늙은이’에게서 따뜻한 인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의 고향은 초라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와 반기고, 동생이 반기고, 아버지가 돌아와 오리를 잡아 주는 모습에서 화자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세상이 변했다고 인식하거나 인심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 화자는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떠돌아 다니는 처지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아버지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이지만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움이나 농촌 현실의 각박함 정도이지, 삶의 무상함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공장에서 변변치 않은 돈을 벌어 오면서도 그곳에 간다는 것은 농촌에서는 그 벌이도 벌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함.

⑤ (가)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나)에서도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로 변한 모습에서 산업화를 읽어 낼 수는 있으나, 산업화를 통해 농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보기>에서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향이 파괴되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한 것이다. 또한 이 공감은 '귀향의 미완'으로 인한 슬픔 때문이지, '귀향'을 완성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 ② (가)의 마지막 연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에게 고향은 평화롭고 이성적인 공간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전나무 우거진 마을 /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③ (나)에서 화자는 고향의 가난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게 고향은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죽마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

④ (나)에서의 고향은 가난한 현실적 공간이라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반갑게 맞이하고, 아버지는 오리를 잡아 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가족애만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며 주인공 늙은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귀향은 미완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고향에 왔지만 고향의 모습과 가족들의 존재에 거리감을 내비친다.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퍼하'는 것으로 보아 귀향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7 시구의 표현 및 의미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 '동일시'한다는 것은 대상과 자신이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에서 장꾼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장꾼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다가 혹 자신의 고향을 봤는지 묻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해 장꾼들은 혹시 봤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장꾼과 화자의 상황은 같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의 형식으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 ㉡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해 가는 중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울망울망'은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 또는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태어를 통해 화자의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감각적 표현 및 음성 상징어

- ① 감각적 표현은 시의 내용으로 인해 오감이 연상되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연상될 때 '감각적 상상,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표현'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 ②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음성 상징어가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소리나 모양으로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썹썹', '명명', '땡땡', '우당당', '퍼덕퍼덕' 등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영글영글', '번쩍번쩍' 등

② 화자는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되어,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은 고향에서 꾸었던 지난날의 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음은 의문문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답을 요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④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거리감을 표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낯설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집에 아무도 없고 방바닥이 차가운 것은 집 안이 매우 쓸쓸한 것을 보여 준다. 화자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 고향에서 느끼는 낯설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8~31] 작품 분석

(가) 서울 길(김지하)

▶ 제목의 의미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가 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길을 '몸 팔러 간다'고 하여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 민중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다.

▶ 시적 상황

가고 싶지 않고, 고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고향을 떠나는 서글픔	
작품 속 근거	울지 마라 간다. → 슬픔을 참으며 이별함.
고향에 돌아올 기약이 없는 막막함	
작품 속 근거	땡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 주제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현실

▶ 특징

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간다. / 울지 마라 간다. 딱딱한 서울 길 / 몸 팔러 간다.
② 직설적 표현을 통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민중의 삶을 고발함.	
작품 속 근거	꽃피어 돌아오리란 / 땡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딱딱한 서울 길 / 몸 팔러 간다.

(나) 고개(이시영)

▶ 제목의 의미

'앞산길 첩첩', '봉 첩첩', '천황재 아홉 굽이', '느티목 고개' 등 넘기 어려운 고개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그린 작품이다.

▶ 시적 상황

- 머슴으로 살다 세상을 마감한 정객이 아재를 지계에 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개를 넘어간다.
- 종과 머슴이라는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고통스런 삶에 대한 한탄과 고발	
작품 속 근거	언제나 벗어나리, 가도 가도 서러운 머슴살이 우리 신세

▶ 주제

민중들의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삶

▶ 특징

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묘사함.	
작품 속 근거	기러기 떼 돌아 넘는 천황재 아홉 굽이 내 오늘 너를 묶어 이 고개 넘는다만 ~차마 발 떨어지지 않는 느티목 고개, 뉘인 너 부여안고 한 번 넘으면 그만인 아, 축살잇고개
② 과거의 '머슴'과 '종'의 삶이 현재의 민중의 삶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한 주인을 벗어나면 또 다른 주인 한 세월 섬기고 나면 더 검은 세월

2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에는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나)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종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가)에서는 ‘모질고 모진 세상’, (나)에서는 ‘못 살아가겠다고 못 참겠다고’라고 하며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화자가 처한 현실	화자의 현실 인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구절
(가)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함.	• 팍팍한 서울 길 / 몸 팔러 간다. • 모질고 모진 세상
(나)	고통스러운 머슴살이를 함.	• 가도 가도 서러운 머슴살이 우리 신세 • 못 살아가겠다고 못 참겠다고

오답 해설 | ① 두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 분노, 체념, 비판의 인식을 보이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②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을 뿐, 이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두 작품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나)의 ‘못새들 저러이 올여 예’에서 새들에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한 부분이 드러나나, (가)에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29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보기 2>는 일제 시대에 팔려간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과거 상황을 초점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는 현재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를 초점화하여 전개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고향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떠나기 힘든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 2>에서는 ‘북쪽(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가 ‘서울’로 ‘몸 팔러 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울’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또한 <보기 2>의 ‘그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곳이므로 둘 다 부정적인 공간이다.

④ <보기 1>에 따르면 두 작품은 산업화 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가)의 화자와 <보기 2>의 ‘여인’은 그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몸 팔러 간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므로 피동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보기 2>에서도 ‘팔려간’ 여인이라고 했으므로 역시 피동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정갹이 아재의 시신을 업고 고개를 넘어가면서 정갹이 아재에게 ‘한 가락’을 뽀으라고 청한다. 머슴살이 신세로 살아 온 이들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부르는 가락은 서러운 삶의 애환이 담긴 노래일 수는 있지만, 서러운 삶을 이겨 낼 수 있는 소망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② ‘언제나 벗어나리’는 현실의 질곡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므로 꿈꾸기로 볼 수 있다.

③ ‘가도가도 서러운 머슴살이’라고 했으므로 현재에도 진행되는 민중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청포꽃’과 마찬가지로 ‘파랑새’는 머슴과 종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태어나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꿈을 이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한 세월 섬기고 나면 더 검은 세월’이라고 하였으므로 종과 머슴들이 겪어온 역사적 삶을 의미한다.

31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의 ‘고개’는 서울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물리적 공간이고, (나)의 ‘고개’는 정갹이 아재의 시신을 지고 넘어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동시에 이 ‘고개’는, 서울로 돈을 벌러 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가)의 화자와 머슴으로 살아가는 (나)의 화자가 겪는 험난한 인생길을 상징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	‘목마른 고개’를 넘어 ‘팍팍한 서울’로 가는 길	고통스러운 인생길
㉡	‘언제나 벗어나리, / 가도 가도 서러운 머슴살이 우리 신세’	
	정갹이 아재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장례 지내러 가는 길	죽음의 의미

오답 해설 | ① ㉠은 서울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고개로, 삶과 죽음의 경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가는 화자가 넘어야 할 대상일 뿐, 행복을 막는 장애물과는 거리가 있다.

③ ㉠, ㉡은 모두 화자가 실제로 넘어야 할 대상으로, 현실의 초월과는 관련이 없다.

⑤ ㉠은 물리적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꼭 못 오는 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넘어가는 길일 뿐 반드시 넘어야 할 길이라 볼 수는 없다.

Ⅱ. 현대 소설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③
07 ① 08 ④

[01~04] 작품 분석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

▶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의 제목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부끄러움’의 감정은 화자가 속물적인 세대 속에서 현실적으로 변모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순수한 감정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긴장감의 표현이며, 주체와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후의 폐허적 상황 속에서 출발한 급격한 근대화의 흐름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한 채, 물질적인 개발에 치우치는 과도기적 불균형 상태를 드러낸다. 그와 같은 피상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성은 상실되고, 물질적 가치만이 유일한 삶의 지표로 작용하는 전도된 가치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러한 세계는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지만, ‘부끄러움’도 없이 추구되는 세속적 출세의 욕망과 금전적 가치 위에 구축된 허구적 삶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추악한 현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은 ‘전도된 가치의 질서 속에서 삶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등장인물

- 나: 작품의 화자. 유난히 부끄러움을 타던 소녀였으나, 가난한 기지촌 생활과 세 번의 결혼 등의 편력을 통해 현실적 감각을 갖게 된 중년 여인이다.
- 남편들: 첫 번째 남편은 교만한 중농, 두 번째 남편은 위선적인 지방대 강사, 세 번째 남편은 철저한 배금주의자(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 동창들: 고생고생하다 한 밀천 잡은 희숙, 직업 여성 영미, 고위층 남편을 가진 경희 등 모두 세속적인 중년 여성들로 그려진다.

▶ 전체 줄거리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나’는 그간의 생활을 되돌아본다. ‘나’는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하면서 지방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서울은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을 겪는 분주한 일상의 공간으로 비쳐진다. 물질주의에 전도된 그 속물적 공간은 남편과 동창들이 펼쳐 보이는 위장과 가식으로 점철된 환멸의 무대이다. 학창 시절 유난히 부끄러움을 타던 ‘나’ 또한 이와 같은 세태를 살아가면서 변모를 겪어 간다. ‘나’는 모처럼 돌아온 부끄러움의 감정이 자신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지문 줄거리

동창의 집을 찾은 ‘나’는 화려한 살림살이와 세련된 동창의 포즈에 담겨 있는 가식과 속물성을 발견한다. 일터 학원에서 나와 우연히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관광객 안내인의 말을 듣고 ‘나’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되찾는다. ‘나’는 모처럼 돌아온 부끄러움의 감정이 자신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주제

형식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과 삶의 진정성 회복에 대한 소망

▶ 어휘 풀이

- 가장집기: 가장집물(家藏什物). 집에 놓고 쓰는 온갖 살림 도구.
- 심미안(審美眼):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 교제술(交際術): 교제하는 재주나 수단.
- 우국지사(憂國之士): 나라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한국인 여자 안내원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일본말로 한국인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윤리적, 정신적 가치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 전환을 ‘독백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의 두드러진 서술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나’가 경희네 집에 갔을 때, 경희네 집 풍경과 자신의 집 풍경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일본어 학원에 갈 때도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을 안내하는 한국인 여자 안내원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한다고, 자신만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으며 자신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소설은 친구를 만난 상황, 남편에게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일본어 학원에 다니는 상황, 일본어 학원에서 나와 부끄러움을 느낀 상황이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인 ‘나’의 심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지는 않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각 사건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병치’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 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나’와 동창들인 친구들의 사이나, ‘나’와 동창 중 ‘경희’의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결 의식’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을 통해 ‘부끄러움’이라는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가 직접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동창들과의 대결 구조 때문이 아니라, ‘관광 안내원’의 말 때문이다.

⑤ 친구를 만난 상황, 남편에게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일본어 학원에 다니는 상황, 일본어 학원에서 나와 부끄러움을 느낀 상황 등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 속에서 ‘나’가 느낀 바가 그대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묘사’라고 할 수 없다. ‘객관적 묘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0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는 너무 멋진 모습인 ‘여자 안내원’과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한 ‘일본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소매치기를 주의하라고 일본어로 ‘일본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겉모습,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 진정성도 윤리성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 안내원’은 부끄러움을 잊고 살던 나에게 부끄러움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경희’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가 관광 안내원이 팬클럽의 직업이라고 하니 후에 이혼하게 되면 자립의 밑천으로 삼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생각을 하는 ‘나’가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부유하지 않음.	하긴 경희네 안방 자개 문갑과 내 집 자개 문갑이 같은 값일 리 없고, 그 문갑 위에 놓인 청자가 우리집 것과 같은 6백 원짜리 가짜일 리는 만무하다 하겠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함.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약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자립의 밑천을 삼아 불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③ ‘남편’은 ‘경희’ 얘기를 하자 반가워하며, 같이 일본어 학원에 다니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즉 ‘남편’이 ‘경희’와 친분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경희’와 친분을 잘 쌓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남편의 말	“그런 여자하고 같이 다닐 기쁨도 천만 안 되지. 그게 다 처세술이랴구.”

④ ‘영미’는 ‘나’의 남편에 대해 말하면서 ‘입을 비죽’거리고 ‘희숙’은 세 번째 남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영미’와 ‘희숙’이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희’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거리감을 지우려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	영미가 약간 입을 비죽대며 “뭐 일본과 기술 제휴한 전자 회사 사장이거나 봐.” 했다. 곧 이어 희숙이 “글쎄 그 사람이 애 세 번째 남편이래지 뭐니.” 하고 덧붙였다.

⑤ ‘경희’는 세 번째 남편이라는 말에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이는 ‘나’의 심리를 파악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전부터 쪽 계산되어 온, 부끄러운 척을 하는 아름다운 포즈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경희의 웃는 모습	경희는 정숙한 여자가 못 들을 망측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얼굴을 굳게 붉히더니 “계집애두.” 하며 손을 입에 대고 웃었다. 덧니가 부끄러워 비웃된, 그녀의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버릇은 이제 덧니의 매력까지를 계산하고 있어 세련된 포즈일 뿐이다.

03 인물이 처한 사건과 상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이야기 1에서 ‘나’는 그다지 부유한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과 세 번째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3에서 혹 남편과의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자녀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이야기 1	부유하지 않음.	하긴 경희네 안방 자개 문갑과 내 집 자개 문갑이 같은 값일 리 없고, 그 문갑 위에 놓인 청자가 우리집 것과 같은 6백 원짜리 가짜일 리는 만무하다 하겠다.
	세 번째 남편을 둠.	곧 이어 희숙이 “글쎄 그 사람이 애 세 번째 남편이래지 뭐니.” 하고 덧붙였다.
이야기 3	자식이 없음.	자식을 길러 본 경험에 없는 나는 이들이 은근히 탐나기도 했지만

오답 해설 | ① ‘나’는 경희에 대해 이야기 1에서는 ‘실망’과 ‘안도’를, 이야기 3에서는 ‘거리감’을 느낀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은 이야기 3에서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이야기 1	나는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이야기 3	자기 신분에 신경을 쓰는 소리나 해서 거리감만 점점 느끼게 했다.

② ‘나’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것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이고,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자립의 밑천을 삼아 볼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이야기 1보다 이야기 2에서 잘 드러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이야기 2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약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자립의 밑천을 삼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④ 남편은 경희로부터 얻을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 ‘나’를 일본어 학원에 보낸 것으로, ‘나’가 일본어 학원과 거리에서 겪은 일이 ‘남편의 배려’ 때문이라고 보긴 힘들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이야기 2	“뭐? 일본어 학원? 다녀야지. 암 다녀야구말구. 그런 여자하고 같이 다닐 기월 놓치면 안 되지.”

⑤ 이야기 1~3 모두 ‘나’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따라서 서술 시점이 달라진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는 남편의 권유와 미래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일어 학원’에 등록한다. 하지만 ‘일어 학원’에서 ‘경희’에 대한 거리감만 생기고, 실력은 늘지 않았다. ‘일어 학원’에서 나와 ‘일본인 관광객’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존스럽다고 여기고, 반면 그들을 통솔하는 ‘안내원 여자’는 멋스럽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물질적 가치에만 기준을 뒀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따라서 ‘나’는 ‘일본인 관광객’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뿐, 그들의 ‘외래문

화’에 대해 판단한 내용은 없다. 또한 <보기>와 연결지어 보더라도, 이 글의 초점은 ‘외래문화’가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출세’와 ‘내면적 순수함’의 구도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②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일어 학원	경희	거리감만 점점 느끼게 했다.
	일본어 실력	내 일본말은 늘지 않았다.
일본 관광객	일본 관광객	어느 촌구석에서 왔는지 야박스럽고, 경망스럽고, 교활하고, 게다가 촌티까지 더덕더덕 나는 일본인들
	안내원 여자	너무 멋쟁이라 아아,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오답 해설 | ① 지문에 의하면 ‘가장집기들에게 약간의 용도와 금전적 가치와 전 시 효과 외에’ 다른 애정을 두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는 겉으로 보이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물질적 측면에서만 화려한 외피를 추구하는 과정
앞부분	경희나 나나 이런 가장집기들에게 약간의 용도와 금전적 가치와 전 시 효과 외엔 특별한 심미안이나 애정을 두지 않긴 마찬가지일 테니,

③ ‘나’가 ‘깃발’이나 ‘손수건’을 날리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고 싶어서이다. 이것을 <보기>와 연결시키면 ‘내면적 순수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인간의 내면적 순수함은 상실된다.
뒷부분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펴들며 활활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라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④ ‘경희’는 ‘나’에게 일본어 공부에 대해 권하면서 ‘출세’와 연결지어 말하고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산다’고 말하지만, 혹시 경희에게서 얻을지도 모를 이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국 ‘인간관계’조차 ‘물질적 개발’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물질적 측면에서만 화려한 외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 또한 그것을 위한 도구 내지 수단으로 전락한다.
경희	“요샌 남편이 출세하려면 뒤에서 여자가 뒷받침을 잘 해 줘야 해.”
남편	“일본어 학원? 다녀야지. 암 다녀야구말구. 그런 여자하고 같이 다닐 기월 놓치면 안 되지.”

⑤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은 <보기>와 연결지어 보면 ‘돈과 권력’을 원해서 다니는 학원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는 ‘내면적 순수함’보다는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출세에 대한 욕망이 팽팽
뒷부분	별이별 지식을 다 배웠을 거다. 그러니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쳤을 거다.

[05~08] 작품 분석

역마(김동리)

▶ 제목의 의미

‘역마’는 ‘역마살’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역마살’은 ‘역마(驛馬) + 살(煞)’의 합성어이다. ‘역마’란 말이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던 시절에 역참(驛站)에 대기시켜 두고 관용(官用)으로 쓰던 말을 의미하며, ‘살’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 곧 악귀의 깃을 의미한다. 즉 ‘역마살’이란 역마의 귀신이 독기를 품어 사람에게 씌워지는 것이므로, 역마살을 타고난 사람은 결국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길 위를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제목인 ‘역마’는 ‘역마살’을 지닌 성기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등장인물

• 성기: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 계연과의 사랑이 좌절되고 역마살을 극복하지

못하자 운명에 순응하며 엿판을 메고 떠난다.

- 옥화: 성기의 어머니. 주막을 운영하면서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운명을 받아들인다.
- 계연: 옥화의 이복동생. 성기를 사랑하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떠난다.
- 체 장수: 옥화와 계연의 아버지. 성기와 마찬가지로 역마살이 낀 인물이다.

▶ 전체 줄거리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마음 착하고 인심 좋은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화네 주막에 맡기고 떠난다.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맺어 주어 성기가 역마살을 극복하고 정착하기를 바란다. 그러던 중,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한다.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로 인해 의혹은 사실임이 밝혀진다. 체 장수가 36년 전 남사당을 꾸려 와 화개 장터에서 어떤 여인과 하룻밤 관계한 일로 태어난 딸이 옥화이며, 계연은 결국 옥화의 이복동생인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계연은 아버지인 체 장수를 따라 떠나고, 성기는 한참 앓아눕는다. 결국 옥화는 성기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난 성기는 엿판을 꾸러 집을 떠난다.

▶ 지문 줄거리

계연과 헤어진 후 시름에 젖어 있던 성기는 옥화에게 계연과의 관계를 듣게 된다. 한참 후 성기는 엿판을 맞춰, 자신의 운명을 따라 하동 쪽으로 유랑의 길을 떠난다.

▶ 주제

- 운명에 대한 순응과 그에 따른 인간성 구현
- 역마살이 낀 떠돌이 인간들의 삶

▶ 어휘 풀이

- 우수(雨水): 이십사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며, 양력 2월 18일경.
- 경칩(驚蟄): 이십사절기의 하나.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에 들며, 양력 3월 5일경임.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
- 청명(淸明): 이십사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의 사이에 들며, 4월 5일 무렵.
- 회춘: 1. 봄이 다시 돌아옴. 2.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
- 남사당: 무리를 지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나 춤을 팔던 남자.

0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옥화가 성기에게 강원도로 가 볼 것인지, 장가를 들어 여기서 살 것 인지를 묻고 있는 부분이 서술되다가,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성기에게 체 장수 영감이 아버지이고, 계연이 자기의 동생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결되어, 좋을 대로 선택하라는 옥화의 말에 성기가 다시 늙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옥화가 성기에게 체 장수 영감과 계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과거 장면을 통해 인물들의 관계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중간 (과거 장면)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black label 특강 장면 제시 / 요약적 제시

- ① 장면 제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생략이나 여과 없이 거의 그대로 보여 주는 서술 방식.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다.
- ② 요약적 제시: 실제 일어났던 일이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보여 주는 서술 방식.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오답 해설 | ② 옥화의 주막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도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도 없다.

③ 성기와 옥화의 의식이 드러나게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보긴 힘들고, 또한 대화와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약적 진술'이라고도 보기 힘들다.

black label 특강 의식의 흐름 기법

인물의 머릿속의 생각을 감정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여과없이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서에 따라 진행되거나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뒤죽박죽 서술되게 된다.

④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옥화의 주막으로, 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이지, 상상의 공간이 아니다. 또한 '화개 장터'는 실제로 있는 공간의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성이 높아진다.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은 없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계연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성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서른여섯 해 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인연과 명도의 말에 따라 계연을 떠나보내려는 옥화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ㄴ의 평가로 보자면, 이는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앞부분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오답 해설 | ①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성기가 역마살을 타고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한 것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④ ㄴ에 따르면 인물들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본다면, 명도(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의 말만 듣고 계연이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한 옥화의 행동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성기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 이를 ㄱ에서는 긍정하지만, 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으므로,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07 서술 시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옥화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고, (나)와 (다)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 중 (나)는 옥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할 수 있고, (다)는 성기의 입장에서 옥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다)
전지적 작가 시점 → 1인칭 시점	'옥화'가 서술자 - 옥화 = 나 - 성기 = 아들	'성기'가 서술자 - 옥화 = 어머니 - 성기 = '나'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간접 인용>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간접 인용> 부디 어미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어머니는 나의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직접 인용>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아 들의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직접 인용> "부디 어미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나의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08 소재와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㉔에서 계연이 떠나갈 때 울던 뻐꾸기는 또다시 ㉖에서 울고 있다. 그러나 이런 뻐꾸기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성기'가 자신의 운명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기의 갈등은 사랑하는 여자가 뜻밖에도 이모로 밝혀지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을 다시 겪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것으로, 성기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여름날의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해설 | ① '고운 햇빛'은 헤어지는 상황의 인물들의 어두운 심정과 대비되어 애상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② 헤어지고 싶지 않아 울음이 다 된 목소리만을 남기는 계연이나, 계연을 붙잡지 못하고 우두커니 지켜만 보는 성기의 모습에서 떠나는 안타까움과 망연자실한 성기의 심리가 드러난다.

③ 성기는 계연과 헤어져 병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가 지나가고 날이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의 모습처럼 툭툭 털어 버리고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된다. 맑게 갠 배경은 화개 장터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⑤ 이별한 후에 시간이 흘러 다시 뻐꾸기 울고 버들가지 늘어진 계절이 왔을 때, 앓아누워 있던 성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길을 떠나려 하고 있다. 이는 성기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름이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를 통해 성기의 성숙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 현대 소설 2 ▶

09 ⑤
10 ②
11 ②
12 ③
13 ①
14 ②

15 ③

[09~11] 작품 분석

만세전(염상섭)

▶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3·1 운동 직전인 1918년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만세전'이다. '만세전'은 이 시기의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한 지식인 청년의 눈에 비친 사회상의 기록으로, 전체적으로 '만세전'에서 보이는 암울한 현실로 인해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담담하게 그려 나가고 있다. 참고로 원래 이 소설은 '묘지(墓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는데, 일본 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여러 차례 삭제되고, 이 소설이 연재되는 잡지가 폐간됨에 따라 연재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 염상섭은 2년 뒤(1924년) 다른 곳에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발표하였다.

▶ 등장인물

- 나(이인화): 당대의 현실을 '공동묘지'로 인식하고, 지나치게 자학적이고 감상적으로 살아가는 인물. 당대 지식인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 김천 형님: 초등학교 교사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 장돌뱅이: 공동묘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화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와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눈다.

▶ 전체 줄거리

동경 유학중인 '나(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김천 큰형님의 전보를 받고 학기말 시험을 포기한 채 조선으로 귀국할 준비를 한다. 연락선 안에서 조선인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며 식민지 백성의 비애를 느낀다. 부산에 도착한 '나'는 조선

이 일본인들의 소굴이 된 것에 분개하고, 김천역에 마중 나온 형님 댁에 잠시 들른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는 비굴한 노예가 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을 절감하고, 구더기 무덤이라고 절규한다. '나'는 곳곳에서 전근대적 사고에 갇혀 생활하는 조선인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나'는 아내의 죽음 또한 인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와 같은 조선의 현실에서 도망치듯 동경으로 떠난다.

▶ 지문 줄거리

'나'는 차 안에서 장돌뱅이와 함께 공동묘지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인습에서 벗어나 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화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돌뱅이'는 부모에 대한 예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 어휘 풀이

- 스라소니: 고양이과의 포유류. '만세전'에서는 상대방이 취한 이윤의 찌꺼기라도 얻기 위해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미봉(彌縫): 일의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댐.
- 내지인: 일본인.
- 송덕비(頌德碑):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
- 음덕(陰德): 조상의 덕.
- 염통 밑에 쉬는 줄 모른다: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는 줄은 모른다.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해관계에는 밝아도,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큰 문제는 잘 깨닫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앞부분에서 '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내지인의 생활상을 이야기하며 공동묘지 법에 대해 '장돌뱅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화장을 지내도 상관이 없고, 큰 무덤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못살게 된 것은 공동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전근대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묘지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조선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장돌뱅이'와 '나'의 대화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긴 하지만, 대화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나'는 장돌뱅이를 붙들고 형님에게 못한 이야기를 꾸밈하듯 말하였다.

② '나'가 조선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냉소적 어조(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말투)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해학적 어조(익살스러운 말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공동묘지 법'이나 '내지인'이라는 단어에서 당대 현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주인공의 현실 비판적 인식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의 현실 비판적 인식은 다른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 법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부분 등에서 드러난다.

④ '나'와 '장돌뱅이'가 서로 다른 견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로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장돌뱅이는 들으면서 약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지 않다.

10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는 기차 안에서 공동묘지 법에 대한 대화를 듣다가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후 일본의 공동묘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과 양복쟁이를 둘러보며 무슨 오해가 생길까 봐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자신이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으로, 즉 자신의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중간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겐 염려되는 것이었다.

오답 해설 | ①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묘지 보존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라보다는 이 공동묘지 법과 관련해 특혜를 보는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이다.

③ ‘청년’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준다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묘지 법을 적극적으로 원한다기보다,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정도로만 해석된다. 따라서 ‘나’는 화장 제도에 대해 찬성(애급의 나라를 예를 들어 큰 무덤이 필요없다고 이야기함.)하고 있지만, 청년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공동묘지 법’에 관하여 언제 규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시행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상관도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애급’의 묘지 관습을 예로 들어서 무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의 장단점이 아니라, 묘지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는 생활 철학이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체 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都囀), 비굴(卑屈)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조선인들의 생활 철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그들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하고 있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都囀), 비굴(卑屈)~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체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오답 해설 | ① ‘나’는 조선인들의 ‘처세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연결지으면,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는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제와 관료제의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의하면,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것이다.

④ 이 글에서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는 ‘공동묘지 법’이다. <보기>에 의하면 작가는 이러한 ‘생활 현실’을 문학으로 확장시켜, 생활을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여 ‘나’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데, <보기>에 의하면 이는 작가가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2~15] 작품 분석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양귀자)

▶ 제목의 의미

임 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이다. 그의 아내 역시 벽돌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비가 오면 쉬는 작업장이 많아 일을 구할 수가 없다. 즉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쉬게 되고, 일이 없는 날에는 그간의 고단한 몸을 쉴 틈도 없이 억울하게 떼인 돈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것이다. 즉, ‘비가 온다’는 배경은 ‘일이 없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등장인물

• 그(은혜 아버지): 부친 원미동 연립 주택 집주인.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 인물이다.

- 아내: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 꼼꼼하게 잘 따지고 금전적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 인물이다.
- 임 씨: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겨울에는 연탄장수로, 여름에는 막일꾼으로 일함. 일처리가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한 인물이다.
- 김 반장: 형제 슈퍼의 주인. 넉살이 좋고 낙천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 전체 줄거리

‘그’는 원미동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한다. 그런데 목욕탕 파이프가 터져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자 지물포 주인에게 소개를 받아 임 씨를 고용한다. 그러나 젊은 인부와 함께 공사를 하러 온 임 씨의 본업이 연탄장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임 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하자, ‘그’와 아내는 임 씨가 일을 대충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 가는 일꾼은 아닐까 의심한다. 하지만 임 씨는 힘든 옥상 공사까지 정성껏 일을 한다. 또한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견적서를 수정하고 옥상 공사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임 씨에게 줄 돈을 아끼워하며 공사비를 깎아 보려던 아내와 ‘그’는 임 씨의 진실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내는 임 씨를 위해 술상을 마련한다. 임 씨와 한 잔 더 하게 된 ‘그’는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떼인 연탄 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난한 도시 빈민인 임 씨의 처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 지문 줄거리

‘그’의 집 수리를 끝내고 ‘임 씨’와 ‘그’는 김 반장네 형제 슈퍼 노천 의자에서 술을 마신다. 임 씨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

▶ 주제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 어휘 풀이

- 노천: 사방, 상하를 덮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
- 노임: ‘노동 임금(노동에 대한 보수)’을 줄여 이르는 말.
- 맨션 아파트: 큰 저택(邸宅)이란 뜻으로, 호텔의 고급 아파트를 이르는 말.

1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이 글의 서술자는 ‘그’이다. ‘그’는 ‘임 씨’와 술을 마시면서, ‘임 씨’가 비 오는 날마다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에 대해 듣게 된다.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임 씨는 떼인 연탄 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고 있다. 이러한 ‘임 씨’의 사정을 들은 ‘그’는 사장의 생김새를 추측하며 비판하고, ‘임 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공장 사장’처럼 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	뽀질뽀질한 상판에 배는 툭 볼거져 나왔겠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나중에는 임 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후라이쯤은 익혀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갇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찜곰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천 번 만 번 찜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 밑으로 떨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오답 해설 | ① ‘그’는 ‘임 씨’가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을 속이는 일꾼이라 생각해서 종일 의심하였다. 하지만 ‘임 씨’가 일을 끝내고, 힘든 옥상 공사까지 한 후, 일한 만큼만 견적을 다시 뽑아 경비를 요청하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따라서 중심 인물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이유가 서술되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점’은 계속 ‘그’를 초점에 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시점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의심함 → 미안함	[앞부분의 줄거리] ‘그’의 부부는 임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받는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공사비를 깎고자 마음먹는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blacklabel 특강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3인칭 서술자가 작품 속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만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3인칭 서술자는 특정 인물을 초점 화자로 삼아서 그가 듣는 것, 그가 보는 것, 그의 판단과 추측, 의견 등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그 외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 ② [앞부분의 줄거리] 외에 ‘그’와 ‘임 씨’가 김 반장네 형제 슈퍼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만 나온다. 따라서 장면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그’는 ‘임 씨’가 가리봉동에 가는 것을 몰랐으나, ‘임 씨’와의 대화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삽입했다는 말은 적절하다. 하지만 이는 ‘그’가 ‘임 씨’에게 친근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사건일 뿐,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는 사건이 아니다. 여기서 갈등은 ‘임 씨’와 ‘공장 사장’ 사이에서 나타난다.
- ⑤ ‘그’와 ‘임 씨’가 김 반장네 형제 슈퍼에서 술을 마시는 사건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blacklabel 특강 인과적 구성 / 병렬적 구성

① 인과적 구성: 사건과 사건이 인과 관계에 의해 긴밀하게 배열된다.

사건 → 사건 → 사건

② 병렬적 구성: 사건과 사건이 인과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어떤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삽화처럼 짙막한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삽화식 구성, 두 사건이 대등하게 이어지는 복합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

사건

사건

13 인물의 행동 이해 및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 ‘설왕설래(說往說來)’는 이야기를 나누며 욕심각심(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며 다투는 모양)할 때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이다. 하지만 ‘그’와 ‘임 씨’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주로 ‘그’가 ‘임 씨’의 푸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왕설래(說往說來)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임 씨’는 겨울만 되면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 연탄을 날라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따라서 ‘호구지책(糊口之策) -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적절하다.

③ ‘분기탱천(憤氣撐天)’은 ‘분기충천(憤氣衝天)’과 같은 말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른다는 의미이다. ‘공장 사장’은 맨션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면서도 ‘임 씨’에게 줘야 할 돈을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장 사장’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④ ‘공장 사장’은 여유롭게 살면서도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공장 사장’의 말과 행동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뜻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해당한다.

⑤ ‘그’와 아내는 처음에는 ‘임 씨’가 엉터리 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임 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 느낄 수 있다.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 함을 이르는 말이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임 씨’가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는 ‘공장 사장’에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이다. 글 전체를 통해 ‘임 씨’가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맨션아파트에 살면서 외제 자가용을 타고, 룬싸롱에서 큰 돈을 버리면서도 ‘임 씨’의 돈을 갚지 않는 ‘공장 사장’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는 ‘임 씨’의 가리봉동 이야기를 통해 ‘공장 사장’의 행동을 비판하게 된다. 즉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소외된 자를 작취하는 현실과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임 씨: 소외된 인물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소.”
	“어떤 놈은 한달 내내 뼈 쫓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겨울 돼 봐요. 마누라나 새끼나 원통 검댕칠이지.”
공장 사장: 소외된 자를 작취하는 인물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노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요, 맨션아파트!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꺼덕거리는 놈, 룬싸롱에서 몇 십만 원씩 톱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오답 해설 | ① <보기>에 의하면 연탄 배달과 허드렛일을 하는 ‘임 씨’는 ‘도시의 변두리에 내몰려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③ 힘겹게 살아가는 ‘임 씨’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공장 사장’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보기>의 ‘우리의 삶이 겹쳐야 할 아픔과 설움’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양귀자는 소외 계층의 힘든 삶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우울한 순간에서 ‘김 반장’이 ‘임 씨’에게 던지는 농담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 간의 정과 따스함,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암담하고 우울한 색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려 낸다.
앞부분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조오타!”

⑤ ‘그’는 ‘임 씨’가 엉터리 견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많은 돈을 받을까 봐 걱정하며 전전공공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 또한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가는 소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문학 작품에서 ‘소외 계층’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계층을 의미하고, ‘소시민’은 우리 주변의 보통 시민을 의미한다.

15 타 장르로의 전환

정답 ③

정답 해설 | ‘임 씨’는 ‘그’의 상황에 대해 부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자신의 상황 또한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임 씨’와 ‘그’가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회 현실에 대해서 ‘임 씨’는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도 ‘임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그’가 ‘임 씨’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지, 두 사람이 서로를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집에 대한 생각	임 씨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그’	“저런 것도 집 속에 끼나…….”
사회 현실에 대한 생각	임 씨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	나중에는 임 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오답 해설 | ① 이 소설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서민이고, ‘김 반장네 형제 슈퍼 노천 의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임 씨’는 겨울이면 연탄 배달을, 다른 때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노동자라 볼 수 있다. 술을 마시면서 흔들리는 그의, 거친 손과 술병을 클로즈업한다면 노동자의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

④ ‘임 씨’가 끝부분에서 ‘그’에게 겨울이면 온 가족이 나와 연탄을 배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회상 장면으로 넣으면 ‘임 씨’ 가족의 고단한 삶을 부각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끝부분	“겨울 돼 봐요. 마누라나 새끼나 원통 검댕칠이지. 한 장이라도 더 나르려니까 애새끼까지 끌고 나오게 된단 말요.”

⑤ ‘임 씨’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임 씨’의 심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잔한 배경 음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끝부분	"예. 고향으로 갑니다. 내 고향으로...." 공이 박힌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임 씨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16 ③	17 ②
18 ③	19 ⑤
20 ②	21 ③
22 ④	

[16~19] 작품 분석

유자소전(이문구)

▶ 제목의 의미

인물의 평생의 행적을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그의 친구 '유재필'의 범상치 않은 삶의 일대기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현대 사회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등장인물

- '나': 이 글의 서술자로, 유자의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며 작가이다. 유자의 삶을 글로 남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유자: '나'의 30년 지기인 유재필.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천연덕스럽고 솜씨 좋은 성격에 왕성한 호기심과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장인 정신을 겸비한 인물이다.
- 총수: 사람보다 값나가는 물고기를 걸치레로 기르는 등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치심이 강하고 위선적인 인물이다.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성격이다.

▶ 전체 줄거리

작가인 '나'에게는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매사에 생각이 깊고 곧은 성품을 지녔으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성인군자를 대하는 기본으로 '유자'라고 부른다. 유자는 특유의 불임성과 눈썰미로 학교에서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졸업 후에는 선거 운동원과 의원 비서관 등을 지내다가 제대 후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지내게 된다. 하지만 유자는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총수에게 쫓겨난 유자는 그를 소속 차량의 모든 교통사고를 뒤처리하는 노선 상무가 되는데, 그곳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 또 말년에는 종합 병원 원무 실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6·29 선언 때 시위를 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사표를 낸 후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 지문 줄거리

'나'의 친구인 유재필은 총수의 집에서 일하며 허영심이 가득한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유자는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다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되어 운전기사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자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면모를 보인다.

▶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비판

▶ 어휘 풀이

- 대관절: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 탄파라: '연예인(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고뿔: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객고: 객지에서 겪는 고생.
- 의몽: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큼함.

1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는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반면, [B]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독자가 '그(유자)'의 행동과 심리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B]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사건의 요약적 진술

오답 해설 ① [A]는 대화를 통해 '그(유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B]는 '그(유자)'의 행동, 심리 등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black label 특강 인물의 직접적 제시 / 간접적 제시

- 직접적 제시(말하기 방식):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다. 인물의 외양, 행동,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배적 인상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간접적 제시(보여 주기 방식):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인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인물의 행동이나 버릇, 대화, 갈등을 장면으로 보여주거나,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② [A]에서는 주로 서술자인 '나'와 유자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들떠온 비단잉어가 죽었다는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사건을 전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A]의 대상을 비단잉어로 본다면, 유자가 지닌 불만스러운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사회에 대한 인물의 비판 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서는 유자가 비단잉어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B]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물의 평가는 제시되지 않는다.

17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물고기가 감기에 들었을 것이라는 유자의 추측은 실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다. 유자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은 그가 총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총수에게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판청을 띄우며 총수를 은근히 비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기를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적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비교는 말투

오답 해설 ① 흘기눈을 뺐다는 것은 비단잉어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던 유자의 태도가 행동 묘사로 나타난 것이다.

③ 총수는 유자가 배참으로 의문을 떠는 것에 대해 '말 같잖은 소리'라고 일축하지만, 유자가 하는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④ 팔이 들이굽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이기에 봐주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유자는 그런 적이 거의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스페어 운전수의 딱한 사정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유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18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비단잉어'는 보통 사람의 몇 년 치 월급을 합한 값으로, 총수의 허영

심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굴비’는 유자가 노파의 집에 반찬거리가 없음을 떠올리고 다시 돌아가 놓고 오는 소재로, 유자의 인정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비단잉어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총수의 허영심, 과시욕
굴비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아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유자의 인정, 배려

- 오답 해설** ① ‘비단잉어’가 사람보다 몸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리를 사들인 총수의 사치스러움, 물질 만능 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 ② ‘굴비’는 유자가 노파와 스페어 운전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구입한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와는 관련이 없다.
- ④ ‘비단잉어’는 그 모습이나 가격으로 봤을 때 총수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소재이지만, ‘굴비’는 노파와 스페어 운전수에 대한 유자의 따뜻한 배려를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자부심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유자가 사고를 낸 스페어 운전수의 집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굴비’를 사 주고 온 것으로 볼 때, ‘굴비’는 유자의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단잉어’는 총수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유자를 통해 양심적인 인물의 삶을 보여 주어 이후 세대에 본보기로 삼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지만, 운전수와 유자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오답 해설** ① 유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와 관련된 일화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어 ‘전(傳)’의 형식을 재현하고 있다.
- ②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난한 형편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 노파의 집에 굴비를 주고 오는 모습 등에서 한결같이 인간적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유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 ③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유자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총수의 모습을 통해 물질 만능 주위에 빠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작품의 주제적 의미를 짐작하게 한다.

[20~22] 작품 분석

광장(최인훈)

▶ 제목의 의미

이 소설은 인간이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광장’과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밀실’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남과 북의 당시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즉 남한에는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자유와 밀실만이, 북한에는 이데올로기를 병자한 무자유와 신념 없는 광장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장과 밀실이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던 주인공은 한국 전쟁이라는 광장을 거쳐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선택하지만, 결말에서 주인공의 자살을 통해 이데올로기 선택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등장인물

- 이명준: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이상주의자이다. 자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현실에서의 절망을 사랑을 통해 극복하려는 낭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 이형도: 명준의 아버지. 월북한 사회주의자로 북한에서 고위 관리를 맡고 있지만, 이상적 혁명가의 면모를 보이지는 못한다.
- 윤애: 명준의 남쪽 애인으로, 명준이 월북한 후 명준의 친구 태식과 결혼한다.

- 은혜: 명준의 북쪽 애인으로 발레리나이다. 모스크바 유학을 떠났다가 북한군 간호 장교로 참전해 명준과 극적으로 재회하나,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한다.

▶ 전체 줄거리

주인공 이명준은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살면서 대남(對南) 방송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빌미로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 가서 구타를 당하고,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게 되어 월북한다. 그러나 이명준의 눈에 비친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명령과 복종만이 보일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었다. 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원하는 광장을 발견하지 못한다. 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에서 이념의 무의미함을 다소 보상받지만, 그것은 개인적 삶에 한정된 행복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그는 한국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그는 중립국을 택한다. 이제 그가 나설 광장은 남쪽과 북쪽 어느 곳에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商船) 타고르호(號)가 남중국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밤, 그는 바다에 투신 자살하고 만다.

▶ 지문 줄거리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명준은 두 마리 갈매기를 보게 된다. 그는 갈매기를 통해 은혜와 그녀가 품은 채 죽은 그의 딸의 모습을 보았다. 푸르고 넓은 바다에서 그가 원하던 광장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다로 몸을 던진다.

▶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 어휘 풀이

- 고조: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2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명준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부채를 통해 과거의 삶의 모습, 현재의 삶의 모습이 연결되어 서술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명준의 의식	……떨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과거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현재

blacklabel 특강 의식의 흐름 기법 / 현학적 표현

- 의식의 흐름 기법: 서술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써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 현학적 표현: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표현을 말한다.

- 오답 해설** ① 명준이 부채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 ③ 명준의 의식의 흐름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인물의 독백적 발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인물의 체험은 회상을 통해 요약적으로 짧게 서술되는 정도일 뿐이므로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현학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윗글에서 인물이 처한 시대적 현실을 그려 내고 있지도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명준이 중립국행을 택한 것은 남한과 북한에서 경험한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도피이다. 성격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연결할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명준의 기대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 오답 해설** ① 명준이 남한의 정치를 경멸하여 떠나 간 곳이 북한인 것을 통해 그 당시 이분법적 구도로 나누어져 있던 남북한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 ② 북한으로 간 명준이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갖게 된 것은 결국 북한에서도 이념적 허상을 경험하고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④ 명준이 남과 북에서 이념적 대립을 경험한 후 중립국행을 결정했을 때에는 남과 북에서 겪은 체제 내의 모순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 ⑤ 명준은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 친 후 뒤를 돌아 푸른 광장을 보게 된다. 이 푸른 광장을 보며 그가 이전에도 별판을 떠올린 일을 기억해 내는 것을 통해 푸른 광장은 명준이 꿈꾸던 이상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①은 사복 자리이므로, 명준의 인식이 전환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①에서 명준은 정치에 대해 경멸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적극적 인식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명준의 상황 변화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서 있다. ~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부채의 사복 자리

- 오답 해설** ① 남한에서 명준이 철학과 학생이던 시절은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자리를 의미한다.
- ② 중립국행 배에서 명준은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만 상태이므로 ①의 한계적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①에서 남한의 대학을 다니던 명준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보고, 책을 모으며 정치에 대한 경멸과 강한 관심을 동시에 지니고 이상적 사회를 꿈꾸던 상태였다. 반면 ①에서는 삶의 광장이 좁아져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 나타난다.
- ⑤ 명준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가 결국 중립국행 배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①에서 ①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명준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현대 소설 4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③

28 ⑤

29 ④

30 ②

[23~26] 작품 분석

외판 방(신경숙)

▶ 제목의 의미

① 표면적 의미

'나'가 큰오빠와 함께 살았던 구로 공단의 변두리 단칸방

② 상징적 의미

- 도시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빈궁한 삶
- 노동자의 꿈과 희망이 좌절된 공간
- '나'의 슬픔을 홀로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닫힌 공간

▶ 등장인물

- '나': 오빠를 따라 서울에 올라온 후 낮에는 공장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소녀.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후일 작가가 된다. 희재 언니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상처를 갖고 있으며, 작가가 된 이후로는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작가로서의 자의식에 시달린다.
- 희재 언니: 나와 같은 학교와 공장에 다니는 언니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의상실 재단사와 사랑에 빠지지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애인의 말에 절망하여 자살한다.
- 큰오빠: 대학에 다니다가 방위 근무를 하면서 사설 학원에서 강사 노릇을 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굳은 의지를 지닌 인물이지만 '나'의 눈에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 선생님: '나'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에게 소설을 써 볼 것을 권하는 인물이다.

▶ 전체 줄거리

'나'는 제주도에서 와서 열여섯 살의 '나'를 회상하며 그때의 기억을 글로 표현하려 한다. 그리고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며 글을 쓰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농촌에서 살던 '나'는 1978년에 외사촌 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다. '나'는 큰오빠와 함께 가리봉동의 외판 방에 살면서 구로 공단에 자리잡은 공장에 다닌다. 1979년부터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특별 학교인 영등포 여고에 다닌다. 그러던 중에 희재 언니를 알게 된다. 희재 언니는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애인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고, '나'에게 방 열쇠를 걸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나'가 그녀의 자살을 돕게 되었다는 상처를 남긴다. 소설가가 된 '나'는 공장에 다니던 옛 시절의 친구로부터 '왜 우리를 이야기는 소설로 쓰지 않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고 이 소설을 쓰게 된다.

▶ 지문 줄거리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자 공장 노동자였다. 고향에 두고 온 남동생을 생각하며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중, 최홍이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선생님은 '나'가 써 내려간 반성문을 읽고 '나'에게 소설을 써 볼 것을 권유한다. 소설가가 된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하여 글을 쓰기로 한다.

▶ 주제

유년 시절에 겪었던 삶의 아픔과 소설가의 자의식

▶ 어휘 풀이

- 주산: '수판셈(수판으로 하는 셈)'의 전 용어.
- 부기책: 자산, 자본, 부채의 수치·증감 따위를 밝히어 적는 책.
- 대차대조표: 기업이 결산 때에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
- 복원: 원래대로 회복함.

23

소재와 인물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① '나'는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노트에 소설의 내용을 옮겨 적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소설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설을 옮겨 적는 행위 자체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소설을 옮겨 적는 '나'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고.

오답 해설 ① '나'는 선생님이 써 오라는 반성문에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반성문을 읽은 선생님이 '나'에게 소설을 써 보도록 권유하고 있으므로, 반성문은 '나'의 재능을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나’의 반성문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나’는 도시 생활과 학교 생활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에 실망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힘든 삶을 견디기 위해 ‘꿈’을 필요로 했었음이 드러난다.
- ⑤ ‘나’는 공장에 왔다 가는 선생님을 보며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나’가 선생님에게서 인간적 면모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고, ‘나’는 결국 선생님의 배려로 주산 시간에도 소설을 옮겨 적으며 학교를 다니게 된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가 주산을 놓기 싫은 것은 마음속에 고향의 남동생 생각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겨워한 것은 그들의 생활이 전쟁과 같았으며,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윗글에서 ‘나’의 처지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에서 인물들의 처지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 오답 해설** | ① ‘나’는 공장과 학교를 오가는 열일곱 살의 학생이자 노동자이다. 도시 노동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의 인물들과 같은 도시 빈민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힘겨운 도시 생활은, ㉠의 인물들이 겪은 ‘전쟁’과 같은 생활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꿈’을 키운다. ㉠의 인물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 소설 쓰기와 천국에 대한 동경은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에 해당한다.
- ④ ‘나’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만,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내고 있다. 이는 ㉠의 어머니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매일 지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잘 참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2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B]는 소설 쓰기의 꿈을 심어 주었던 최홍이 선생님에 대한 회상으로,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등과 같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B]에는 ㉢의 내용이 적절하게 실현되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의 과거 회상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 언니가 무슨 책임냐고 묻는다.

- 오답 해설** | ①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야기의 전개 속도는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빨라질 수 있다.
- ② [A]에서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와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사이에 여백을 주고 있지만 이는 과거의 인물의 말과 그 말에 대한 현재의 서술을 교차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료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B]에서 ‘열일곱의 나’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성장기의 자신을 객관화하는 효과를 줄 뿐,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B]에서 ‘나’와 회재 언니와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나’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건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blacklabel 특강 현재형 어미

- 현재형 어미 사용: 용언의 어간에 ‘-ㄴ-, -는-’ 등을 결합한 형태이다.
예) 집에 간다. 밥을 먹는다.
-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 바로 지금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 실재감, 생동감 등을 표현할 수 있다.

26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C]는 작품의 창작 동기를 직접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작품 창작의 동기를 직접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되는 것이므로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라고 밝히고 있는 ④의 내용이 적절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소설을 쓰게 된 동기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터워 보고 내 인생의 패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 오답 해설** | ①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
- ② 목중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있다.
- ③ 움중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다.
- ⑤ ‘쓰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목중에게 따지고 있다.

blacklabel 특강 발문의 의도 파악하기

낯선 작품을 <보기>에 제시하고, 그 작품과 지문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발문이다. 발문에서 의도한 것을 먼저 파악하여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27~30] 작품 분석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서울 거리를 배회하며 느끼는 내면 의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서울 거리의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구보의 시선을 통해 1930년대 조선의 다양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 등장인물

- 구보: 26세의 미혼인 소설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나 글 쓰는 것 외에는 직업이 없다. 이러한 무능력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물로 치부하기도 한다.
- 어머니: 무능력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인물이다. 아들의 늦은 귀가와 결혼을 걱정하며, 구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갈망한다.
- 뱃: 구보와 같은 지식인으로 구보의 생활 및 생각에 동조하는 인물이다.

▶ 전체 줄거리

일정한 직업 없이 글을 쓰며 살아가는 구보는 정오에 집을 나와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동대문형 전차 속에서 과거에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하고 외면한 것을 후회한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 경성역을 찾아간 구보는 온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만 발견한다. 우연히 중학 시절 열등생이었던 동창이 예쁜 여자와 동행한 것을 보고 물질에 약한 여자의 허영심에 대해 생각한다. 다방에서 사회부 기자인 친구를 만나, 그가 돈 때문에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낀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새벽 두 시경, 구보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결혼도 하고 창작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 지문 줄거리

구보는 다방에서 사내와 최 군을 만나지만,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가득 찬 모습을 목격하고 이러한 세태에 불쾌감을 느낀다. 구보는 최 군이 자신에게 원고료를 묻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며, 마침 다방에 들어온 친구에게 다방을 나갈 것을 제안하며 상쾌함을 느낀다.

▶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 어휘 풀이

-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 득의감: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해하거나 뽐내는 감정.
- 애독: 즐겨 재미있게 읽음.
- 선전: 주의나 주장, 사물의 존재, 효능 따위를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잘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
- 모멸: 업신여기고 알잡아 봄.
- 단장: 짧은 지팡이.

2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구보가 다방에서 사내와 최 군을 만나 대화하다가 벗과 함께 다방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배열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구보의 내면 심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두서없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구보의 의식의 흐름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열만의 「발스 센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 평소애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 구보는 의미 뭉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 구보는 이 사내가 원호로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오답 해설 | ① 구보는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내와 최 군을 만난다. 그들이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거나’, 작품의 ‘원고료’를 묻는 모습은 물질주의 가치관에 전도된 세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모른다, ~갖지 않는다, ~상쾌하다’ 등 구보의 내면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주로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보의 내면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④ 사내와 최 군, 구보 사이의 말은 ‘이리 좀 안 오시요’,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등과 같이 주로 간접 화법으로 표현되어 그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구보가 벗에게 하는 말은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와 같이 직접 화법으로 표현하여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blacklabel 특강 직접 화법 / 간접 화법

- 직접 화법: 문장이나 대화의 언어 표현에서 남의 말을 전할 때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이다.
- 간접 화법: 문장이나 대화의 언어 표현에서 남의 말을 전할 때 인용 부호 없이 전달하는 방법이다.

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등에서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28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구보는 물질 만능주의에 경도된 사내와 최 군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소설을 쓴다는 내용은 없으며, 구보가 소설을 쓰는 이유도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사내와 최 군을 대하는 구보의 태도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냉소적, 비판적
	구보는 이 사내가 원호로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오답 해설 | ① 사내는 별로 친하지 않은 구보를 다른 사람에게 소설가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비싼 맥주를 마시는 것에 우월감을 느끼는 인물임으로, 한턱낸다면 재력을 과시하는 내용은 사내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② 최 군은 당시 인기 있던 소설들을 아는 척하며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작품을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최 군의 성격은 나타내기에는 적절하다.

③ 최 군이 결작이라고 여기는 인기 작품에 대하여 구보의 동의를 구하자 구보는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한다. 이를 통해 구보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최 군이 ‘원고료’에 대해 묻는 것을 통해 그가 물질 만능주의에 몰든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을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최 군의 생각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29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최 군이 「승방비곡」, 「대도전」 등 그 당시 유행하는 소설에 대해 결작이라고 하며 구보에게 동의를 구할 때, 구보는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한다. 이는 구보가 최 군과는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최 군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 군에게 자신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군이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내나 최 군과의 대화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구보의 행동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구보의 생각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 좋은 작품이라 여기지 않음. • 자신의 생각을 군이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 구보는 다방에서 사내가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사내가 다시 구보를 부르자,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구보가 게으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사내와의 만남이 달갑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구보는 사내와 접촉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지극한 불쾌’를 느끼는 상태이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격을 두기로 한다. 즉, 경어를 사용하여 사내와 구보 사이에 거리감을 두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③ ‘의미뭉뚱한 웃음’은 의미가 흐릿하고 희미한 웃음이라는 의미이다. 구보는 사내가 자신의 작품을 애독한다는 말에 대해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뒤이어 사내가 ‘구포 씨를 선전’한다는 말에 ‘의미뭉뚱한 웃음’을 짓는 것은 구보가 사내의 말을 진심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데에서 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⑤ 최 군이 구보에게 원고료를 묻자, 구보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보는 상대가 모멸을 느낄 수도 있는 대답을 하며 벗과 함께 다방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내와 최 군에게서 벗어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 구보가 여름밤의 바람을 상쾌하게 느끼는 것은 불쾌함을 느끼던 다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반어적 표현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상을 강하게 주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이다.

예) 먼 후일 당신이 그때에 찾으시면

내 말이 잊었노라.

- ‘당신’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

- 김소월, 「먼 후일」 -

정답 해설 ④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을 통해 사내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다. 반면 ⑥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내와 구보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고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③과 ⑤는 결국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추정하는지, 모든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③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의 심리 추측
⑥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사내와 구보의 심리 모두 파악

오답 해설 ① ④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그 인물이 관찰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따라서 사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묘사될 수 없다.

③ ④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나, 작품 속의 특정 인물인 구보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사실적 정보를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⑥는 서술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내적 독백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모든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⑤ ④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구보의 시선에서 인물의 심리를 추정하고 있으며, ⑥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알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blacklabel 특강 시점

- 시점: 작품에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는지 작품 외부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뉜다.
- 1인칭 시점: 서술자가 주인공이나 아니냐에 따라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 3인칭 시점: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서술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현대 소설 ①	
01 ①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8 ⑤						

[01~04] 작품 분석

모래톱 이야기(김정환)

▶ 제목의 의미

제목 ‘모래톱 이야기’의 의미는 공간적 배경인 조마이섬과 관련이 있다. 이 조마이섬은 결국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로 인해 군대가 정지(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들.)하면서 황폐한 모래톱(모래사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등장인물

- 나: 건우의 담임이자 소설가. 조마이섬의 일을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전달하면서 고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갈발새 영감: 건우의 할아버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민으로, 유력자의 횡포에 맞서 조마이섬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 윤춘삼: 갈발새 영감처럼 의로운 성격을 지닌 인물. 조마이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에게 상세히 전달한다.

▶ 전체 줄거리

이 글은 관찰자인 ‘나’의 20년 전의 경험담이다. K 중학교 교사였던 ‘나’는 나룻배 통학생인 건우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건우의 글을 읽게 되고 ‘조마이섬’에 얽힌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 ‘조마이섬’은 일제 시대에는 동척(東拓)의 소유였고, 해방 후에는 나환자 수용소로 변하는 등 섬사람들과 무관하게 논밭의 소유자가 바뀌고 있었다. ‘나’는 조마이섬에서 윤춘삼 씨와 갈발새 영감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

그해 처서(處暑) 무렵, 홍수 때문에 섬은 위기를 맞는다. 독을 허물지 않으면 섬 전체가 위험하여 주민들은 독을 파헤치지만, 독을 쌓아 섬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유력자의 하수인들이 방해한다. 화가 치민 갈발새 영감은 그 중 한 명을 탁류에 집어던지고 결국 살인죄로 투옥된다. 2학기가 되었으나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리(整地)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 지문 줄거리

서술자 ‘나’가 건우의 글을 읽고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 주민들이 겪었던 억울한 삶의 내력을 알아 가게 된다.

▶ 주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 어휘 풀이

- 역토둔(驛屯土): 역의 경비를 담당하는 역토와 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자급자족을 위해 경작하는 토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나’가 건우네 집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살피는 모습에서 구체적 묘사가 드러난다. 그리고 ‘나’가 건우와 어머니에 대해 판단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동척’, ‘을사 보호 조약’ 등의 말이 나오기는 하나 이를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억울했던 일하면서도 현재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권력의 횡포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현장감을 높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건우네 집의 일상적 소재들은 깔끔하고 부지런한 건우 어머니의 성품을 나타내는 장치이지 복잡한 심리 변화를 보여 주는 장치는 아니다.

④ 제시문은 ‘나’가 건우네 집을 방문해 건우 어머니와 건우를 만난 일과,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주는 조마이섬 이야기를 듣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건우의 <섬 얘기>로 인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고, 서술자인 ‘나’의 감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 일이 앞으로 조마이섬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중략) 이후의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라는 말을 통해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마이섬’에서 일어난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보고 건우의 <섬 얘기>를 원천으로 두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조마이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 의하면 조마이섬의 사람들이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저항의 중심인물이 ‘건우’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건우는 자신이 ‘조마이섬’에서 본 상황에 대해 <섬 얘기>에 서술

했다. (중략) 이후의 말을 보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주는 조마이섬에 관한 이야기와 건우가 썼던 <섬 얘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우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와 같은 조마이섬 사람들이 권력 앞에 당했던 일들을 보고, 그것을 일기로 서술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조마이섬의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고 하였으므로, 건우와 ‘나’ 모두 조마이섬의 증언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03 타 장르로의 전환

정답 ①

정답 해설 | <보기>에는 건우 증조부와 건우 선생님, 건우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반면 [A]에서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건우 선생님이 등장한다.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보기>에서처럼 지금의 일이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반복된 일임을 알려 주지만, ‘윤춘삼’의 등장으로 인해 대화를 하고 있는 건우 할아버지와 건우 선생님의 갈등 상황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둘의 갈등 상황도 아니며, 윤춘삼은 다른 인물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A]에서는 ‘1905년~해피 망측한 처사들이’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말해 주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S#98, S#99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 줄 뿐, [A]만큼 상세하지는 않다.

③ <보기>의 ‘S#98. 강독 위(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에서 E.L.S.는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이다. 따라서 조마이섬이 갖는 지형적 특징을 볼 수 있다.

④ [A]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척일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사건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사람들 모두 데리고 가서 내일은 그 놈들이랑 결판을 낼 까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내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예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관객들은 건우 할아버지와 권력자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며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⑤ [A]에서는 과거의 일에 대한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의 대화가 계속 나온다. 반면 <보기>에서는 S#98에서 건우 증조부의 ‘대명천지에 이룰 수는 없는 기다!’라는 말, S#99에서 건우 할아버지의 ‘대명천지에 이룰 수는 없는 기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이 강조된다.

04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 건우가 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우는 현재 조마이섬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은 ‘나릿배 통학생임더.’라는 말 속에서 저주와 원한을 담아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담은 한자 성어는 ‘함분축원(含憤蓄怨)’이다.

blacklabel 특강 분노의 마음을 담은 한자 성어

- 비분강개(悲憤慷慨): 의롭지 않은 일이나 잘못되어 가는 세태가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개인적인 원한이나 슬픔보다는 국가의 운명이나 세상의 풍속이 어지러울 때 많이 씀.)
- 함분축원(含憤蓄怨):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음.
-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 비분강개는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마음의 움직임인 데 비해, 함분축원과 절치부심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분한 마음을 품는 작위적인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③ 맥수지탄(麥秀之歎):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④ 와신상담(臥薪嘗膽):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으로써 이르는 말.

[05~08] 작품 분석

무영탑(현진건)

▶ 제목의 의미

제목 ‘무영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의미이다. 아사녀가 아사달을 찾아 불국사 앞까지 왔지만 아사달을 만나지 못한 채, 문지기에게 아사달이 만드는 탑이 완공되면 십 리 밖에 있는 못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거짓말을 듣는다. 결국 아사녀는 그 탑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등장인물

- 아사달: 부여 출신의 젊은 석공. 철저한 장인 정신으로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든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닮은 돌부처를 새기고 아사녀가 죽은 영지(그림자 못)에 몸을 던진다.
- 아사녀: 아사달의 아내. 매우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사달을 서라벌로 보내고 그리워하다가 아사달을 만나지 못한 채 못에 빠져 죽는다.
- 주만: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의 외동딸. 뛰어난 용모를 가진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로, 우연히 천민 석공인 아사달을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된다.
- 유종: 주만의 아버지. 화랑도 출신으로, 성격이 강한 민족주의자이며,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와 대립적인 인물임. 금지가 자신의 아들인 금성을 주만과 혼인시키려 하자 이를 거절한다.

▶ 전체 줄거리

신라 경덕왕 초파일 밤, 다보탑을 2년 만에 완성하고 이제 석가탑을 세우고 있는 불국사에 왕이 행차하였다. 일행은 다보탑을 보고 감탄하는데, 그 속에는 유종의 딸 주만(구슬아기)도 함께하고 있었다. 주만은 왕 앞에 나온 석공 아사달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다. 하지만 그는 부여의 천민으로, 고향에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헤어져 3년의 시간 동안 그를 그리워하는 아내 아사녀가 있었다. 아사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주위에서 추근거리는 사람들을 피해 아사달을 만나러 서라벌에 왔으나 남편을 만날 수 없었다. 다만 석가탑이 완성되면 영지(그림자 못)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문지기의 말만 믿고 영지에서 나날을 보내다 영지에 빠져 자살하고 만다. 탑이 완성되고, 아내의 참변을 들은 아사달은 슬퍼한다. 주만은 아사달에게 이 나라에서 달아나서 살자고 애원하다 국법을 어긴 죄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아사달은 영지에서 바위에 아내와 주만의 영상을 합하여 아름다운 부처님의 얼굴을 조각한 뒤, 영지에 투신한다.

▶ 지문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의 아들과의 혼인을 거절하고, 자신과 뜻이 맞고 나라를 구할 사윗감을 얻으려 한다. 한편, 아사달은 아사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한다. 아사녀와 주만에게 느끼는 감정을 담아 돌에 새기자 그 모습은 부처님의 얼굴이 되고, 조각을 마친 아사달은 못에 빠져 죽는다.

▶ 주제

- 이념의 차이로 인한 유종과 금지의 갈등
- 비극적인 사랑을 예술로 승화한 석공의 정신

▶ 어휘 풀이

- 정사(政事):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
- 문약(文弱): 글에만 열중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약함. 또는 그러한 상태.
- 원불(願佛): ① 자기가 일생 동안 섬기는 부처. ② 중생 제도를 본원(本願)으로 하여 나타난 부처.

0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인물 간의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종과 금지처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한 심리나 태도가 서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유종과 금지는 갈등 관계에 있으나, 이 작품에서 둘의 갈등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유종이 속으로 금지와의 사이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를 내적 갈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중략) 이후에는 아사녀와 주만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심리를 일컫는다. 즉 아사녀와 주만 사이에서 고민하며 망설이고 있는 모습은 내적 고민 상태,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갈등

- ① 내적 갈등: 괴로움, 걱정, 고민 등 한 인물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갈등
- ② 인물-인물 간의 갈등: 가치관 등의 차이로 두 인물 이상이 대립하며 생기는 갈등
- ③ 인물-사회 간의 갈등: 사회적 금기나 구조적 문제로 인물이 불만을 느끼며 생기는 갈등

오답 해설 ① 냉소적 어조는 짙은 어조로 비웃는 어조를 말한다. 유종은 당나라의 문화를 숭상하는 현실에 대해 과거의 사건(당 명황이 양귀비에게 미쳐 오랑캐에게 당한 일, 이백이 양귀비를 칭송하는 글을 지은 일)을 들어 비꼬면서 비판하고 있다.

②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유종에게, 뒷부분은 아사달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들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 서술자는 유종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과거 당 명황과 이백의 일을 들어 비판하고,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한문을 퍼뜨리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과거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비판적 태도
현재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비판적 태도

④ [A] 이후에서 주만에 대해 생각하는 아사달의 모습에서 주만과 아사달이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며 만나 왔던 사이라는 것을, [B]에서는 아사달이 아사녀와 부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이후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탑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 그 뜨거운 입김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 숨기던 눈물들

06 핵심 정보와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는 아사달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주만의 모습이 그려지고, [B]에서는 아사녀의 과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A]에서 아사달은 자신의 모습을 새겨 달라며 간청하는 주만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워하고 있으나, [B]에서 아사달은 아사녀에 대한 애뜻함과 미안함으로 아사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아사달은 아사녀를 새기려 하는데 주만이 계속 떠올라 혼란스러워하며, 당당한 주만과 소박하고 지고지순했던 아사녀의 모습을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B]에서는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아사달에게 자신을 새겨 달라 간청하는 모습에서 주만의 간절한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② [B]는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으로, 아사녀가 소박하게 웃는 모습,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 슬픔을 참으며 숨어 우는 모습 등에서 아사녀의 소박하고 여린 모습이 나타난다.

③ [C]와 그 앞부분을 조합해서 볼 때,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을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여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여인 사이에서의 고뇌와 죄책감, 한스러움을 종교적으로 승화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A] 앞부분에서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주만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 뒷부분을 보면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에서 둘의 모습이 다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유종은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성이 아닌, 자신이 숭상하는 화랑도의 힘이 될 사람을 구해 주만과 혼인을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데 정혼’을 놓는 일은 금지를 거절하고, 금지와의 연대를 거부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2문단	①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뭇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②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오답 해설 ① 문맥적으로 ‘그네들의 한문’이 지칭하는 것은 당학으로, 유종이 거부하는 대상이다. 유종은 당학을 숭상하는 금지와 혼사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의 한문’이 혼사를 거절하는 근본 이유는 맞다. 하지만 ‘주만’ 또한 ‘유종’처럼 ‘당나라’를 적대시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과거에는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 밑둥’처럼 자기 혼자만 남았다. 따라서 이는 과거와 대조되는 유종의 현재 처지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며 홀로 된 모습을 의미하지, 유종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신념은 과거도 현재도 강인하기 때문에 ‘무 밑둥’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그의 감은 눈시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주만의 모습이다. 즉 눈을 감아도 주만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아사달은 주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 아사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주만에 대한 마음을 거두려 애쓰고 있으나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별한 한 광채’는 아사녀의 모습이다. 이는 주만이 ‘구름을 헤치고 동등 떠오르는 햇빛’인 것에 비해 작고 초라한 모습이다. 이는 아사달의 가슴에 죄책감으로 남은 아사녀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화려한 주만에 대한 인상의 차이, 조각을 새기기로 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에는 아사녀가 석공을 만나지 못한 채 연못에서 석공의 모습을 보지만, 탑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 ‘무영탑’이라 불렀다는 이야기와, 아사달이 아내의 모습을 부처님의 모양으로 조각한 후 자신도 아내를 따라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를 제시문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했다.’에 이어진다. <보기>의 [자료 2]에서도 아내의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의 모양으로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여인들이나 여인의 모습을 새긴 것이지, 석공인 아사달의 얼굴을 새긴 것이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C] 앞부분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했다.

오답 해설 ① 제시문과 [자료 1]은 무영탑이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 인물인 석공과 아사녀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빌려서) 소설로 변용(바꿔 표현함)한 것이 맞다.

② 제시문에서는 아사녀의 죽음 이후 그 모습을 부처로 새기고 있다. [자료 2]에서도 죽은 아내인 아사녀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께 천도하기 위해 조각을 완성했다고 했다. 따라서 둘 다 아내를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

③ [자료 1]과 [자료 2]에서는 유종과 주만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인물들은 제시문에서 추가하여 언급한 인물이다.

④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녀가 석공의 모습을 보는 곳이다. [자료 2]의 못은 아내가 죽은 곳으로, 조각을 완성한 석공이 아내를 따라 빠져 죽은 곳이다. 제시문의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보면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라고 했다. 따라서 제시문과 [자료]들의 못이나 연못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며, 부부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환기되는 공간이다.

[09~12] 작품 분석

목마른 뿌리(김소진)

▶ 제목의 의미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한 핏줄이며, 여기서 ‘한 핏줄’은 우리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말라 있었던 ‘목마른 뿌리’는 혈육의 정과 민족 통일의 염원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 말미에 ‘나’가 이복형과의 형제애를 회복한 후, 단비를 잔뜩 머금은 나무의 뿌리처럼 몸 안에서 알 수 없는 축축함이 샘솟듯 힘차게 차오르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등장인물

- 아버지: 북에 가족을 두고 남으로 넘어와 가정을 꾸렸으나, 무능한 가장이었다.
- 나(호영): 남에 있던 아들. 서자라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
- 김태섭: 북에 있던 아들.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 곁에 묻어 드리고자 남으로 왔다.

▶ 전체 줄거리

‘나’의 아버지는 북쪽에 처자식을 두고 남쪽으로 홀로 내려와 가정을 꾸리며 살다 병으로 죽는다. 이후 시간이 흘러 남북이 통일된 직후 2002년의 가상 세계, 아버지가 이북에 두고 온 아들 김태섭이 자신의 어머니의 유골을 들고 ‘나’를 만나러 온다. 아버지의 무덤에 같이 묻어 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 드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나’는 태섭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게 되고, 태섭이 아버지에게 대해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챈다.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는 아버지가 생전에 차던 시계였고, ‘나’는 자신이 어릴 적에 태섭이 남파 공작원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북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능하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형제는 서로가 같은 핏줄임을 확인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진다.

▶ 지문 줄거리

‘나’는 성인이 되어 ‘태섭’을 만나, 어릴 적에 태섭과 작은아버지가 남파 공작원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북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아버지가 거부했음을 듣게 된다. ‘태섭’과 ‘나’는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를 풀고, 서로 간의 형제애를 느끼게 된다.

▶ 주제

이복형제의 만남을 통한 남북의 화해

▶ 어휘 풀이

- 맥고모자(麥藁帽子): 맥고로 만든 모자. 개화기에 젊은 남성들이 주로 썼음. ‘밀짚모자’로 순화.
- 취약(脆弱): 무르고 약함.
- 문설주(門-柱):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 공작원(工作員):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일을 꾸며 활동하는 사람.
- 절체절명(絶體絶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붓도랑: 붓물을 대거나 빼게 만든 도랑.
- 땡땡하다: 코가 막히어 말을 할 때 코의 울림 소리가 나면서 갑갑하다.
- 미물(微物): ① 작고 변변치 않은 물건 ②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이르는 말 ③ 변변치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매웁하다: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어리석고 둔하다.

• 목올대: 올대뼈나 목청을 이르는 말.

0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작품은 통일 이후의 가상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북한에 있는 아들과 남한에 있는 아들이 만나 아버지에게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혈육의 정을 확인하는 것이 이 작품의 내용이다. 따라서 통일의 상황이라는 가상 현실에 대해서는 나왔으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직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다는 것을 ‘태섭의 파편’으로 상징적으로 제시하곤 있지만, 이를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과거 태섭과 맥고모자(작은아버지)를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다. 그 장면을 통해 현재 태섭과 ‘나’의 관계가 밝혀지고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도 풀리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교차’도 적절하고, ‘입체감’을 살린다는 말도 적절하다.

② 태섭은 북한 방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장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현장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와 태섭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분단과 냉전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과 냉전의 상황도 살펴볼 수 있고, 분단으로 인해 겪은 가족의 아픔을 통해 ‘개인적 실존’의 차원에서 남북한의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태섭과 ‘나’의 대화가 주를 이루면서, [A] 부분에는 ‘나’의 내적 독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독백’과 ‘대화’를 통해 심리가 제시된다는 말은 적절하다.

1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나’가 우리는 ‘한 뿌리’라고 말하자, 태섭은 ‘타고난 핏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 핏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것 자체가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이라는 의미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의 말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뿌리입니다!”
태섭의 대답	“기거를 새삼 말하는 무얼 하겠음? 타고난 핏줄인 것을…….”

오답 해설 ① 태섭의 파편은 남북 분단에 따른 우리 민족의 상처이다. 따라서 이곳에 손을 얹는 행위는 그 상처를 감싸 주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② ‘태섭’의 돌아가자는 말에 아버지는 ‘시계’를 준다. 이는 아들 태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행위이다. 또한 시계만을 주고 돌아가지 않는 모습에서 남한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의지도 살펴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태섭의 말	“기려시면서 차고 계시던 시계를 풀어 주셨다. 혹, 아버지가 생각나면 시계라도 보라고…….”

③ ‘파편’은 아직 남아서 날이 곳으면 아프다고 한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파편’은 통일이 된 후에도 남아 있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에 따른 우리 민족의 상처를 의미한다.

④ 서로를 만나지 못해서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따로 살아온 가족들이 서로 그리워하며 간절히 만나기를 희망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태섭의 말	“서로에게 가 닿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등?”

11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앞부분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나’는 아버지가 북한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남한의 가족을 버리지 않아 감사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의 줄거리]	북쪽에 두고 온 큰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밖으로 걸돌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오답 해설 | ② 아버지에게 북한의 아들이 찾아와 함께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였는지 생각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끼인 나란 존재는 무엇이였을까?

③ 태섭의 권유에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궁금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앞부분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④ 북한에서 아들이 찾아왔을 당시를 추측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고 있다.

⑤ 아버지가 북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자 걸도는 모습이나,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정(부정)에 대한 욕구를 알 수 있다.

12 구절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태섭’은 인간이 미물보다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다. 하찮은 미물인 새도 자유롭게 날다닐 수 있는데(경계가 없는데), 인간은 철조망(삼팔선)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왔다갔다 하지 못했던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태섭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 따라서 남한에서 그리운 아버지와 살고 있는 이복동생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껴 ‘나’를 ‘똥이 지게 쳐다본’ 것이다. 반면 북한의 작은아버지인 ‘맥고모자를 쓴 양복쟁이’는 조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 ②은 이러한 미묘한 감정과 사랑을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①	남방을 입은 청년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맥고모자는 땀범벅이 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태섭의 말에서 살피볼 수 있는 인물간의 관계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내래 작은아바이와 함께 공작원으로 뿔뿔했어.” • 청년: 이복형 태섭 • 맥고모자: 북한의 작은아버지

blacklabel 특강 성격, 심리의 직접적 / 간접적 제시

- ① 직접적 제시(telling):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
예 남한의 조카를 만나 반가웠다.
- ② 간접적 제시(showing):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것
예 땀범벅이 된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② 무서운 마음이 든 ‘나’는 청년과 맥고모자를 쓴 사람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고 있고, 그들에게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받아 어린 ‘나’는 그 상황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분단 현실과 연결짓는 것은 역측이다.

③ 어린아이라 단 것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기 힘들었고, 의지보다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어린아이’라는 특수한 대상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④ 아버지는 동생과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의 한과 그리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③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무능함’이라고 보긴 힘들다. 어린아이의 순박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3~15] 작품 분석

소문의 벽(이청준)

▶ 제목의 의미

일반적으로 ‘벽’이라고 하면 격리된 느낌과 답답함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벽이 실체의 벽이 아닌 무형(無形)의 ‘소문의 벽’일 때 더욱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온다. 유형(有形)의 벽은 쉽게 부숴 버릴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세 편의 내부 소설을 통해서 진실의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억압으로 가득한 ‘소문의 벽’의 공포를 고발하고 있다. 즉, 이때의 ‘소문의 벽’은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진실의 숨통을 조이는 문학의 허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인공 박준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다.

▶ 등장인물

- ‘나’: 잡지사의 편집장. 이 글의 관찰자이자 서술자이다. 정신 병원을 탈출한 박준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에 대해 추적한다.
- 박준: 전깃불의 공포와 불안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신 병원에 자청해 들어간 소설가. 본명은 박준일로, 담당 의사의 잘못된 치료 때문에 결국 병원을 뛰쳐나간다.
- 김 박사: 박준의 담당 의사. 환자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잘못된 치료 방법을 고집한다. 고통의 근원을 외면하는 권위적인 인물이다.

▶ 전체 줄거리

‘나’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도와 달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자신의 방에서 재운다. 다음날 ‘나’는 그가 정신 병원에서 탈출한 소설가 박준이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진술 공포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열심히 작품을 발표하던 박준이 정신병에 걸린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의 소설 세 편을 읽는다. 소설을 통해 그의 공포증이 한국 전쟁 당시 강한 전깃불 아래서 정체를 모를 사내들에게 진술을 강요받은 경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김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을 고수한다. 마침내 김 박사가 박준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전깃불을 들이대고, 그날 밤 박준은 병원을 탈출한다. ‘나’는 그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 지문 줄거리

‘나’는 김 박사와 박준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신문에서 전깃불에 대한 박준의 경험담을 읽고 그의 고뇌를 알게 된다.

▶ 주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한 인간의 정신적인 상처

▶ 여허 풀이

- 전깃불(電池-): 손전등에서 비치는 불빛.
- 공비(共匪): 공산당의 유격대. 중국에서, 국민 정부 시대에 공산당의 지도 아래 활동하던 게릴라를 비적(匪賊)이라고 욕하며 부르던 데서 유래함.

13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중략) 앞부분에서 김 박사는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박준이 단순히 어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어서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중략) 앞부분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오답 해설 | ① ‘나’가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질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김 박사는 아직까진 그렇다고 말한다. 즉 전깃불과 어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다.

②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상대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의 편인지 대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잘못 대답을 할 경우 어머니뿐 아니라 아들의安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망적인 것이다.

④ ‘나’는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김 박사에게도 관심을 가져 보도록 권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고 난 후, ‘나’는 신문 기사에서 박준이 한 인터뷰를 보게 되고, 전깃불에 대해 왜 공포를 느끼는지, 그가 왜 작가로서 힘들어했는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 소설을 읽어 전깃불의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나’는 김 박사에게 박준의 공포감에 대해 들은 후에도, ‘박준의 소설’과 전깃불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김 박사에게 그의 소설을 읽기를 권한다. 따라서 김 박사의 치료 방안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14 서사적 기능의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A]에는 박준이 어린 시절 어느 날 밤에 겪은 일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박준이 왜 전깃불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박준은 현재의 글쓰기가 전깃불 앞에서의 일방적인 자기 진술과 같으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A]에서는 박준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일과 그가 소설 작업 중에 느끼는 생각인 박준의 두 경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나’와 김 박사가 알고자 했던 박준의 전깃불에 대한 공포감을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박준이 자신의 어렸을 적, 현재의 일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인물의 말을 통해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는 있다.

blacklabel 특강 묘사

- ① 객관적 묘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
- ② 주관적 묘사: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상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는 방법
- 자신의 감정을 담아 서술하는 것은 ‘주관적 묘사’로, 절대 ‘객관적 묘사’가 될 수 없다.

② ‘실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과거의 상황으로 인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다.

④ 어린 시절의 전깃불과 관련된 공포스러운 경험과 글을 쓰면서 느끼는 생각이 연관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다각적으로 구성’했다고 보기 힘들고,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⑤ [A]에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 서술되어 있지만 이는 ‘박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박준은 ‘위험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깃불의 공포’에 대한 과거의 일과 요즘 ‘소설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공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위험한 질문’의 의미는 <보기>에서의 ‘정신적 외상(trauma)’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김 박사가 박준에게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즉 말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김 박사는 위험한 질문을 하여, 박준으로 하여금 말문을 트도록 시도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박준은 위험한 질문을 받아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지금’과 같은 강요의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② <보기>에서 ‘소설은 ~ 말문 트기의 하나’라고 하였다. [A]에서 박준은 소설을 쓰면서 ‘나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관 지어 보면 박준은 ‘소설’을 통해 ‘자신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말문 트기’로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준은 진술을 하면서 ‘전깃불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보기>와 연관 짓는다면, 그것은 말문 트기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소설 쓰기’는 박준에게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이자, 과거의 정신적 외상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A]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박준은 소설 쓰기를 과거의 전깃불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했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박준은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기에 <보기>와 연결 지어 해석하자면, 어렸을 적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자신의 상황과 연결 되어 환기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은 분단과 이념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현대 소설 ③				
16 ③	17 ④	18 ④	19 ②	20 ③	21 ⑤	22 ④

[16~18] 작품 분석

노란 봉투(최일남)

▶ 제목의 의미

전반부의 ‘뻣뻣한 노란 봉투’는 속물적 인간의 위선(자기 은폐)과 자기 과시, 허세를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의 ‘후줄근한 노란 봉투’는 속물적 근성이 폭로된 뒤의 초라한 모습을 의미한다.

▶ 등장인물

- 기형: 광순의 고등학교 동창
- 광순: 조숙한 문학청년

▶ 전체 줄거리

기형은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다가 과거 조숙한 문학청년이었던 광순을 만난다. 그 후 열흘쯤 지나서 광순이 불쑥 기형을 찾아온다. 기형은 광순에게 전화번호는 물론, 사무실의 위치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놀란다. 광순은 그 뒤에도 기형을 여러 차례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뻣뻣한 노란 봉투를 끼고 와 기형에게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듯 보여 준다. 광순은 기형을 찾아와 예술 잡지를 발간하는 데에 자금을 대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무역 회사 과장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그에 대한 답례를 달라고도 하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허황되게 늘어놓다 돌아가기도 한다. 백화점에서 일본 관광객 가이드 행세를 하고 있는 광순을 목격한 기형은 며칠 뒤 신문 사회면에서 일본 관

광객 사기에 연루된 광순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 후 우연히 광순을 무고동에서 목격한 기형은 광순을 아는 체하지 못한다. 광순은 여전히 노란 봉투를 끼고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뺏뺏하게 보이지 않고 후줄근해 보인다.

▶ 지문 줄거리

기형과 광순이 동창회에서 만난 뒤로 기형의 사무실에 노란 봉투를 든 광순이 찾아온다.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예술 잡지의 자금을 대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고,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무역회사 과장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답례를 하라고 요구한다. 기형은 과거와 다른 광순에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다.

▶ 주제

속물적 근성에 몰들어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 어휘 풀이

- 대포집: 대포술(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을 파는 집.
- 국영(國營): 나라에서 경영함. 또는 그런 방식.
- 권두(卷頭): 책의 첫머리.
- 판로(販路): 상품이 팔리는 방면이나 길.
- 사술(詐術): 남을 속이는 수단.

1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시점으로, 기형을 조점으로 하여 기형의 내면을 서술하여 독자가 기형의 내면에 공감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두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는 사건을 전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갈등을 심화시키지는 않는다. 기형이 광순의 부탁과 은근한 돈 요구에 난감해하고 실망하게 되지만, 외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기형과 광순이 대조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으며, 두 인물이 대립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 둘의 대립이 사건을 이끌어 가는 요인도 아니다.

④ 광순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기형의 기억이 조금은 드러나지만 대조적 체험이 제시되지는 않으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단서를 알 수도 없다. 광순의 과거 모습은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광순의 과거 모습	조숙한 문학청년이었던 광순
광순에 대한 예상	기형이 생각해 온 광순이는 더 좀 오기 덩어리야 했다. 무시하고, 재고, 웬만한 건 깔아뭉개야 했던 것이다.
광순에 대한 평가	기형이는 이 친구가 이처럼 무너질 수가 있을까 싶어~ 너무 뻔히 보이는 앞은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기껏 영세 출판사에서 밥 빌어먹고 있는 자기 따위를 상대로 수를 부리려 드는 것이 싫었다.

⑤ 광순이 기형의 사무실에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반복되지만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

17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내적 갈등이 '고조'되려면,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㉗에서는 광순에 대한 부담스러움만, ㉘에서는 광순의 부탁을 받고 광순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리고 ㉙에서는 광순이 다시 ㉘에서 말한 이야기를 할까 봐 걱정하다가, 일자리 관련 얘기를 듣게 되면서 광순에게 실망한다. 광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 글은 끝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㉗	갑자기 부담스런 느낌이 들었다.	부담스러움
㉙	기형은 너무 뜻밖이라 잔을 툄다 말고 물었다. 그가 자기 따위에게 무슨 부탁을 해 온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의아함

㉘	기형은 그가 또 잡지 건을 꺼낼까 봐 내심 조마조마했다.	조마조마함, 실망감
	너무 뻔히 보이는 앞은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자기 따위를 상대로 수를 부리려 드는 것이 싫었다.	

오답 해설 | ① 위의 '지문에서 단서 찾기'에서 알 수 있듯이 ㉘로 갈수록 기형의 실망감이 나타난다.

② ㉘에서 광순은 예술 잡지 자금을 대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㉙에서는 과장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답례를 하라고 권한다. 여기서 광순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③ 위의 '지문에서 단서 찾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형은 광순이 잡지 얘기를 다시 할까봐 마음을 졸였다.

⑤ 광순의 '뺏뺏한 노란 봉투'는 속물적 인간의 위선(자기 은폐)과 자기 과시, 허세를 상징한다.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기형에게 찾아올 때마다 노란 봉투를 들고 오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노란 봉투를 두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㉗	사무실에 들어올 때 옆에 끼고 온 크고 뺏뺏한 노란 봉투는 탁자 위에 놓은 채였는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제법 배가 불룩했다.
㉘	한옆에 놓아두었던 노란 봉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었다. 유명한 국영 기업체의 이름이 큰 활자로 적혀 있었다.
	그는 노란 봉투에서 잔글씨를 잔뜩 늘어놓은 종이쪽지를 꺼내더니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다.
㉙	이번에 끼고 온 노란 봉투는 그전 것보다 더 뺏뺏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에 의하면 광순은 스스로의 무기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 '노란 봉투'를 끼고 다닌다. 따라서 '노란 봉투'는 무능력한 광순의 허황된 자기 욕구가 투영된 대상이다. <보기>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었던 1970년대의 세태'라는 설명으로 보아 광순이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기형과 광순이 만날 때마다, 광순이 '노란 봉투'를 들고 오는 것은 맞으나, 노란 봉투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두 번째 만남 때 노란 봉투 속의 쪽지를 꺼내 출판 관련 일을 부탁한 것뿐이다.

② <보기>에 의하면 기형이 후에 광순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노란 봉투는 '후줄근'해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형이 광순의 속물 근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상일 뿐, 광순의 미래가 불완전한지에 대한 암시는 아니다. 기형은 광순의 미래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다.

③ 광순이 노란 봉투를 들고 와서 하는 잡지 출판 이야기나 과장 자리 이야기는 <보기>에 의하면 허황된 계획,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광순의 '속물성'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기형은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광순에 대해 실망은 하지만, 자신과 달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진 채 앞은수로 자신을 속이는 모습에 대해 실망감과 황당함, 어이없음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⑤ <보기>에 의하면 스스로의 무기력을 은폐하기 위해, 광순은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닌다고 할 수 있다. 기형은 이러한 모습을 세 번째 만남에서 알게 되고, <보기>에 서술되어 있는 일본 관광객 사기로 인해 확실하게 파악하게 된다. '노란 봉투'는 자신을 과장하려는 광순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9~22】 작품 분석

가객(황석영)

▶ 제목의 의미

'가객(歌客)'은 예전에, 시조 따위를 잘 짓거나 창(唱)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다. 이 소설에서 '가객'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예술의 바탕임을 깨달은 '수추'를 의미한다.

▶ 등장인물

- ‘나(깨꾸쇠)’ : 1인칭 관찰자인 문동이 저지,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수추’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 가객(수추) : 신묘한 노래를 부르지만 추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혐오를 받아 강 건너로 도망친다. 그 속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객이 된다.

▶ 전체 줄거리

‘나’는 자신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이치를 깨닫게 해 준 수추가 되살아나기를 기다리며 과거 수추를 만났던 시기를 회상한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든 수추는 신묘한 노래를 부르지만 추한 외모를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간다. 강 건너편에서 수추는 예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래로 위안과 감동을 받게 된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장자는 수추를 죽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추의 죽음을 믿지 않고, ‘나’도 수추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 지문 줄거리

‘수추’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묘한 노래를 들려주지만 추한 외모 때문에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강 건너편에 가게 된다. 강 건너편에서 수추는 노래(예술)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예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 주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도달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

▶ 어휘 풀이

- 진창: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게 된 곳.
- 저자: ‘시장(市場)’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 새암: 샘. 남의 처지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
- 부지깽이: 아궁이 따위에 불을 땔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1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에서는 등장인물인 ‘나’가 관찰자의 관점에서 수추의 등장과 저자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관점에서 저자를 떠나 강 건너편에 머물면서 내면 변화를 겪는 수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서 사건을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

blacklabel 특강 시점

- ① 1인칭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 ‘나’가 주인공으로,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한다.
 -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나’가 주변 인물로, 제3자인 주인공을 관찰하며 이야기한다.
- ② 3인칭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심리, 성격, 사건의 방향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서술자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한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저자, (나)에서는 강을 건너가 시냇가로 공간이 전환된 것은 맞으나 ‘빈번(빈거로울 정도로 거듭하는 횟수가 잦음.)’하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 또한 인물들 사이라 하면 저자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객인데, 그들의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진 않는다. (가)에서 수추가 얼굴을 들었을 때 긴장감이 생기긴 하나, (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중략 부분의 줄거리]의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라는 부분에서 과거 경험의 회상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조적 체험인지는 알 수 없으며, (가)의 저자에서 사람들이 외면했던 경험, (나)의 시냇가에서 짐승들이 외면하며 도망가던 경험은 유사한 경험이므로 이 또한 대조적 체험이라고 볼 수 없다. ※ 제시된 지문 뒷부분에는 수추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난 뒤 저자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가객을 반가워하고 좋아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때는 회상은 아니나 과거와 대조적 체험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제(내

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도달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인물의 내면 변화에 따라 표정이 변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표정 변화에 따른 내면 변화’는 전후 관계가 틀어진 진술이다.

⑤ (가)에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 사건의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와 (나)에 음률을 완성했으나 추한 외모 때문에 외면받는 수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수추의 내적 갈등 원인으로, (나)에서는 노래를 내려놓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가), (나) 모두에서 갈등 원인을 알 수 있으므로 (나)에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거문고 줄이 끊어짐으로써 수추는 노래에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나)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

② 가객은 (가)에서는 저자 사람들의 반응, (나)에서는 동물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역한 모습에 대해 괴로워하며 노래에만 집착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거문고 줄이 끊어져 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④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이 수추에게 모여드는 이유는 수추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때문이고, 수추를 떠나는 이유는 수추의 흉측한 외모 때문이다.

⑤ (나)에서 수추는 흉측한 얼굴을 부끄러워하면서 노래에만 집착하였지만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2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에서 수추는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벗어 버림으로써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수추의 운명이 비극적이라 말하기 어렵고, ‘나’의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되지도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갈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시냇물을 보며 자신을 증오하지만, 갈등이 해소된 후에는 시냇물 속에서 환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시냇물은 모두 수추가 자기를 확인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의 앞부분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나)의 뒷부분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② 사람들은 외모가 흉측한 수추를 외면하고 이에 따라 수추가 저자를 떠난 뒤 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수추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러 저자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는다. 이때 수추에게 거문고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외면으로 힘들어지면서 어느 날 거문고를 박살내게 된다. 그 이후 수추는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환희의 얼굴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거문고는 수추에게 돈벌이 수단이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수추를 노래에만 집착하게 하는 도구이기에 양면적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동물들은 (가)의 저자의 사람들처럼 해가 떠오르면 수추를 보고 달아났다가, 밤이 되면(수추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몰려들어 노래를 들었다. 이 모습은 저자의 사람들과의 기억을 유도하고, 동물들마저 외면한다는 생각에 수추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정답 해설 | 수추는 저자에 있다가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냉대를 피해 강 건너편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저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짐승들을 보며 힘들어하게 된다. 따라서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 따라 수용자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자신의 외모(예술가)와 떠나는 사람들(수용자)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지문과 <보기> 연결하기				
<보기>	예술가	작품	사회	수용자
지문	수추	수추의 노래	저자	저자 사람들
			강 건너편	짐승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수추의 노래를 듣는 수용자인 ‘나’는 노래를 부르는 가객인 수추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② 수추의 노래(작품)를 들은 저자 사람들(수용자)은 노래에 대한 답례로 돈을 던져 주고 있다. 따라서 ‘나’는 작품(노래)이 수용자(저자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돈을 지불하고 싶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③ 수추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수추의 노래를 듣고 감탄하다가, 수추의 추한 얼굴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수추의 노래에 감동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수추의 노래를, 노래로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모가 흉측한 예술가와 연계해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의 뒷부분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지고 말았다.

⑤ ‘수추’는 자신의 추한 얼굴 때문에 더욱 노래에 집착해 왔다. 그러던 중 거문고의 줄이 끊어져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오히려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환희로 빛나게 된다. 따라서 수추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와 작품(노래) 사이의 괴리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현대 소설 ④	
23 ③	24 ③	25 ②	26 ④	27 ②	28 ③		
29 ③	30 ⑤						

[23~26] 작품 분석

눈이 오면(임철우)

▶ 제목의 의미

주인공은 흐드러지게 쏟아지는 함박눈과 눈이 가득 쌓여 은빛으로 빛나는 세상을 통해 공허하고 적막한 느낌을 받는다. 또 도시 개발로 인해 아버지의 무덤을 잃고 어머니마저 잃어버린 주인공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서 ‘눈’은 주인공의 허망하고 서글픈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등장인물

- ‘그(찬우)’ : 두 번의 실직으로 어려운 삶을 꾸려 가는 인물. 꼬두메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달리 꼬두메에 대해 가난과 슬픔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
- 어머니 : 죽은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고향 ‘꼬두메’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오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으로 인해 고향 상실의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 전체 줄거리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며 고향인 꼬두메로 가자고 아들(찬우)을 조른다. 아들은 결국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꼬두메로 향한다. 기차 안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고 아들은 과거의 꼬두메를 회상한다. 꼬두메에 도착했으나 마을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다.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어머니가 사라지고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지문 줄거리

‘나’는 아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에 가면서 자신의 처지와 아내, 실직 상태에 대해 생각하였다. (중략) 꼬두메에 도착한 이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함박눈 내리는 거리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다.

▶ 주제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 어휘 풀이

- 결행(決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을 듯한 기세로 결단하여 실행함.
- 이태: 두 해.
- 심연(深淵): 1. 깊은 못. 2.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해설 | 작품 속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으나, 서술자가 ‘그’의 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모든 인물들의 심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인 ‘그’의 시선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나 꼬두메가 변해 버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 되어 버린 일, 한눈을 판 사이에 어머니가 눈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일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 인물의 시각을 빌려 사건을 서술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사건에 대한 ‘그’의 생각이 내적 독백으로 나타나나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그’의 감정이 주를 이루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실직 상태에서 겪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기는 하나 시제가 혼용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 바로 이날 오후였다.

⑤ 등장인물은 ‘그’와 ‘아내’, ‘어머니’ 등인데, 이들이 대립하는 양상도 직접 드러나지 않으며, 그 대립이 사건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이 소설의 여로 구조가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보면 ‘그’와 어머니가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에 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라는 말은 적절하다. 또한 기차 속에서 사표를 던진 일, 어머니가 자신을 이끌어 준 일 등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머니께 의존하며 살아왔기에 놀라우리만큼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려고는
중간 부분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그’가 귀향 여행은 충동적으로 결행했지만, 사표를 쓴 상황을 봤을 때 즉흥적이고 낙천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고 견디다가 사표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낙천적이라기보단 비판적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직장에 대한 인식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어떻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② ‘그’가 사표를 제출하고 꼬두메로 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 실직 상태가 된 것이 이미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응하지 못했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

④ 함께 고향을 향해 출발했지만 갑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어머니를 찾으려서 꼬두메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를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에서 어머니와의 끈끈한 애정을 살펴볼 수 있다.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으나, ‘그’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의욕을 잃고 어머니마저 그늘이 될 수 없음을 절망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직장에 대한 인식	그는 이전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인식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25 공간적 배경의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꼬두메가 변했고, 과거의 꼬두메는 이제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머니 혼자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뒷부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오답 해설 | 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에 왔을 뿐, 어머니가 찾고 싶어 하는 꼬두메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꼬두메는 ‘그’가 아니라, 어머니가 회복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③ 세상 사람들은 꼬두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꼬두메가 이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해 준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④ 꼬두메에 살았던 그 시절에 정신적 필요는 누렸을지 모르나, 물질적 필요는 누리지 못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꼬두메에서의 생활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곤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⑤ ‘그의 가족’은 그와 아버지, 형, 어머니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꼬두메를 찾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 혼자일 뿐이다.

26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그’는 어머니를 찾아 눈길을 헤매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혹 어머니는 과거의 꼬두메로 간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을 한다. 따라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세상에 꼬두메는 없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계속 꼬두메를 찾으려 하는 어머니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생각이 옳지 않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오답 해설 | ①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직장 동료들을 보는 것을 힘들어 했다. 힘들고 고달프면서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동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지 않고 처지를 비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동료에 대한 인식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어떻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② ‘그’는 과거보다 더 비참해진 살림살이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으나,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은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자각조차도 사라져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직장에 대한 인식	하지만 그는 이전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③ 아내는 ‘그’가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떠나는 귀향길에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내는 ‘그(찬우)’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므로, ‘어머니를 찾아 꼬두메로 가는 일’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로 가는 일’을 비판한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아내의 생각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⑤ 어머니는 ‘그(찬우)’와 함께 꼬두메에 왔고, 그 꼬두메에서 사라지셨다. 하지만 이것이 ‘그(찬우)’에 대한 섭섭함 때문인지는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27~30] 작품 분석

화산택이(오영수)

▶ 제목의 의미

‘화산택이’는 이 소설의 중심 인물로, 화산택이를 통해 이 글의 주제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을 때는 화산택이의 행동과 대화, 심리 등에 초점을 맞춰 감상해야 한다.

▶ 등장인물

- 화산택이: 시골의 할머니이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 서울의 작은아들 집에 찾아왔다가 서운한 마음만 안고 다시 시골로 돌아간다.
- 작은아들: 화산택이의 아들로, 도시에 사는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 도시화의 상징이며, 가족 관계가 도시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 준다.
- 며느리: 처음 보는 시어머니에게 인사절도 할 줄 모르는,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이다.

▶ 전체 줄거리

화산택이는 두메산골에 사는 노인으로 작은아들을 만나려고 도시를 방문했다. 작은아들의 집 앞에 다다르자 어느 여인(며느리)이 화산택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화산택이가 아들의 집이 맞냐고 물어보자 쌀쌀하게 대답한다. 화산택이가 아들의 집에 들어가자, 아들은 고무신을 내오고 화산택이가 신고 있던 쥘신을 버리지만, 화산택이는 쥘신을 버린다는 것이 영 아깝다. 화산택이는 신식 집의 어색한 풍경에 불편함을 느낀다. 화산택이가 아들에게 형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언짢아하고, 며느리가 밥상을 내오지만, 화산택이에게는 그 밥상이 더 불편하다. 화산택이는 처음 보는 손녀딸에게 시골에서 귀한 것이라며 도토리떡을 주지만, 손녀딸은 맛만 조금 보고 바로 뱉어 버린다. 화산택이는 잠이 오지 않고 뒤가 급해 화장실을 찾았으나, 미처 찾지 못하고 담 밑에 불일을 보고 들어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화산택이는 뒤를 본 담 밑에 수채임을 알고 치우고 돌아오다가 쓰레기통에 도토리떡이 버려진 것을 보고, 그 길로 바로 아들의 집을 나온다.

▶ 지문 줄거리

도시에 익숙하지 않은 화산택이가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왔지만 작은아들과 며느리의 냉대를 받으며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쌓인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뒤가 마려워 뒷간을 찾는다. 결국 뒷간을 찾지 못해 수채에 불일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 수습하고자 한다.

▶ 주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전통적인 가족에

▶ 어휘 풀이

- 짚세기: 짚신(뱃짚으로 삼아 만든 신).
 - 다다미방: 다다미(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돛자리)를 깔 방.
 - 의롱(衣籠): 옷농(옷을 넣어 두는 농).
 - 경대(鏡臺): 거울을 버티어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따위를 넣는 서랍을 갖추어 만든 가구.
 - 보통이: 물건을 보에 싸서 꾸러 놓은 것.
 - 강보(襁褓): 포대기(어린이의 작은 이불).
- [속담]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 품 안의 자식.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자라서는 제 뜻대로 행동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시롭다: 성가시다(남부 서남 방언).
 -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양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아들이 기운이 없고 아프고 기력이 쇠한 것도 다 며느리가 잘못된 탓이지.
 - 수채: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27 중심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 [A]의 뒷부분을 보면 마실(마을) 사람들은 작은아들이 돈도 잘 벌고, 또 멧쟁이 며느리를 봤다고 화산택이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아들은 쇠약해졌고, 오랜만에 만난 자신에게는 찝찝했다. 힘들어 가지고 온 꿀밤떡도 먹어 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주지 않는다. 자신의 잠자리를 봐 준 후에 자기들끼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수더분한 색시를 골라 장가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장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농사나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고 사는지 못마땅해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끝부분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사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정을 하느니 하고 날뽀 댕기더니.’

오답 해설 | ① 화산택이는 아들이 짚신을 버리자 아까워하지만 이는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아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면 고무신도 괜찮지만, 짚신을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다. 따라서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걸는 데는 짚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짚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③ 시어머니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에 대해 화산택이는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 하지만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말할 뿐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데면데면하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라는 의미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앞부분	‘저거 조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A] 뒷부분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사절도 없이 본 바 없는 것 같으니,

- ④ 버리고 벌러 오랜만에 서울에 온 첫날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잠도 오지 않고 뒤가 급해 와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 것이다.
- ⑤ 아들이 즐기던 것이고 시골에서도 귀한 꿀밤떡이어서 손녀에게 주었으나 입에 맞지 않아 뱉어 내는 것이 섭섭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노여워했다고는 볼 수 없다.

28 장면의 기능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린’ 작은아들네에 와서 불편하고 낯설다. 작은아들, 며느리, 손녀조차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모습에서 화산택이는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A]에서 화산택이는 만아들네를 생각한다. 초라한 집이지만 그 안의 만아들과 만며느리에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고, 그들을 만나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 화산택이는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와 달리 큰아들네를 생각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위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는 장면을 제시해서 화산택이가 느끼는 감정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적절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숙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만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만며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 오답 해설** | ① 만아들과 만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은 새 인물이지 않지만, 화산택이가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인물일 뿐,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진 않는다.
- ② 현재 작은아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기,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화산택이의 처참하고 서글픈 감정이 강조될 뿐, 화산택이나 작은아들 내외의 위기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 ④ 만아들과 만며느리가 있는 곳은 실제 시골이기 때문에 환상적 배경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화산택이는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다고는 볼 수 있다. 그녀에게 ‘시골’은 자신과 같은 곳, 위로받는 곳, 낯설지 않고 포근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동일 인물이 다양한 사건 속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작은아들네에서 느끼는 화산택이의 서글픈 감정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도 아니다.

29 서술 방식의 차이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한 경우와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 두 가지 서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밖에서 뒷간을 찾는다. 이것이 화산택이의 생각이다. 따라서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는 화산택이의 인식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한 내용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서술자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 생각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 오답 해설** | ① 화산택이는 서울의 작은아들 집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손도 대면 안 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므로, 화산택이의 심정이 드러난 말이다.
- ② ㉠의 다음 문장을 보면, 화산택이는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고자 한다. 즉 ㉠에서 나오는 건넌방의 소곤소곤 대는 소리를 들은 것은 화산택이다. 자신에게는 찝찝하게 굴던 작은아들 내외가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후, 화산택이는 ‘그래, 너희들이 좋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④ 급했던 뒤를 보고 난 화산택이가 개운함을 느낀 것이므로, 이는 화산택이의 시각이다.
- ⑤ 뒷간을 찾지 못해 수채에 불 일을 본 화산택이가, 불 일을 본 자리를 정리하고자 나왔는데 밝은 날에 보아도 뒷간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이므로 화산택이의 생각이다. 서술자라면, ㉠처럼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30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A]의 장면에서 만머느리는 ‘누더기’를 입고 있다. 누더기는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깎거나 덧붙인 헌 옷을 의미하는데, 만아들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작은머느리는 ‘양말’을 입고 있다. ‘누더기’는 그저 가정 형편을 나타내는 헌 옷일 뿐, 시골이나 자연에서만 쓸 수 있는 옷이 아니다. 또한 양말도 도시나 문명의 상징이 아니다. 만약 화산재가 신고 온 ‘버선’과 작은머느리의 ‘양말’을 대비한다면, 이는 시골과 도시로 나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짚세기는 화산재가 시골에서부터 신고 온 신이고, 고무신은 작은아들이 도시에서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골과 도시로 대비되는 소재이다.



[31~33] 작품 분석

영여 인간(손창섭)

▶ 제목의 의미

‘영여 인간’이란 ‘남아도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6·25 전쟁의 후유증이 산재해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로부터 추방당하여 불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 유형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오는 세 인물은 전후 상황에서 짙은 우수를 간직한 채 존재하는 영여 인간들이다. 서만기의 합리성, 정직성, 온건함, 인간주의적 자세 등의 덕목에 천봉우와 채익준의 무력증, 무책임성, 비사회적 생각과 태도 등을 대비함으로써 이들의 병적이며 부정적인 인물 유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어두운 면을 주인공 서만기를 통해 따뜻하게 감싸 안음으로써 전쟁이 가져다 준 불구성과 황폐함으로부터 탈피하여 건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자 하는 의도를 보여 준다.

▶ 등장인물

- 서만기: 치과 의사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처가의 생계까지 맡고 있는 책임감이 강한 신사적 인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 채익준: 사회의 모순과 불의를 보며 비분강개하는 정의로운 면을 지녔지만, 현실 생활에 무능한 인물.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아내의 장례가 끝난 후 돌아와 망연자실한다.
- 천봉우: 매사에 무기력하고 아내의 경제력에 기생하는 인물. 만기의 병원에서 짝사랑하는 홍인숙을 바라보거나 낮잠 자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 봉우 처: 만기 병원 건물의 소유주로, 봉우와는 형식적인 결혼 관계만 유지한다. 행실이 좋지 않은 인물로, 만기를 유혹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병원을 비워 달라고 협박하여 만기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 미스 홍: 만기 병원의 간호사로 만기를 사모한다.

▶ 전체 줄거리

치과 의사인 서만기는 매력적인 외모만큼이나 가슴이 따뜻한 인간형이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천봉우와 채익준은 서만기와는 다르다. 천봉우는 늘 실의에 빠져 있다. 유일한 낙은 매일 방문하는 서만기의 치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얼굴을 온종일 바라보는 것이다. 채익준은 신문에 실린 사회 문제에 대해 몹시 흥분하지만 늘 말뿐이다. 익준이 돈을 벌러간 사이에 그의 아내가 죽자 만기가 나서서 장례를 치러 준다.

※ 참고: 얼핏 보면, 작가는 익준과 봉우를 ‘영여 인간’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 영

여 인간이 아닌 서만기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 서만기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들이 사는 시대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영여 인간들이 존재했다. 그들 중 일부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소수의 서만기형 인간들이 그 역할을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거운 책임감에 지쳤고, 수많은 ‘영여 인간’들은 실의에 빠져 ‘산송장’처럼 살아가야 했다.

▶ 지문 줄거리

익준과 봉우는 만기의 치과에 매일 출근한다. 봉우는 6·25 사변 이후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다. 익준이 돈을 벌러 간 사이 익준의 처가 죽고, 만기는 봉우 처에게 사정을 하여 장례를 치른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익준을 만난다.

▶ 주제

전후 사회의 인간 소외와 그 고발

▶ 어휘 풀이

- 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복받침.
- 노상: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
- 오관: 다섯 가지 감각 기관. 눈, 귀, 코, 혀, 피부를 이름.
- 적치(赤治): 인민 공화국 치하.
- 공습(空襲): ‘공중 습격(공군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총격이나 폭격으로써 적을 습격하는 일)’을 줄여 이르는 말.
- 반색: 매우 반가워함. 또는 그런 기색.
- 막역(莫逆):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함.
- 희사(喜捨):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음.
- 치하(致賀):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중략) 이전에는 치과에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개, 그 이후에는 봉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만기가 봉우 처를 만나 돈을 벌러 익준 처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병렬식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병렬식 구성 중 삽화처럼 짙막한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삽화식 구성이다. 따라서 각 삽화마다 ‘초점이 되는 인물’이 각각 있기 때문에 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인물’은 없다. 봉우 이야기는 ‘그 인물이 가진 사연을 밝혀내는 구조’라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삽화들은 사연을 밝혀내는 구조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봉우의 ‘낮잠 자는 모양’을 서술한 부분에서 봉우가 6·25 사변 이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25라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통해, 봉우가 6·25 사변에 피란을 가지 못하고, 인민 공화국 치하에서 고생을 하며 숨어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두 번째 (중략) 앞	그렇게 된 연유를 그는 6·25 사변으로 돌리는 것이다. 피란 나갈 기회를 놓치고 적치(赤治) 삼 개월을 꼬박 서울에 숨어 지낸 봉우는 빨갱이와 공습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② 서술자는 아래와 같이 봉우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면서 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봉우는 전쟁으로 삶의 의욕, 생활력을 잃은 무기력한 존재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봉우의 외양	거슴츠레한 낮
	그때만은 그의 눈도 노상 환하게 빛난다.
	빼빼 말라붙은 몸집에 키만 멀쭉하게 큰 그
	어딘가 방금 자다 깬 사람 모양 정신이 들어 보이지 않는 표정

봉우의 행동	그리고 나서는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처럼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의 시선은 자주 간호원에게로 간다.
	간호원과 시선이 마주치면 봉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
	그는 대합실 구석 자리에 앉은 채 곧잘 낮잠을 즐긴다.

③ 서술자가 봉우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할 때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봉우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에도 보이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봉우에 대한 서술	그의 시선은 자주 간호원에게로 간다. 그때만은 그의 눈도 노상 황홀하게 빛난다.
	뻘뻘 말라붙은 몸집에 키만 멀쭉하게 큰 그는 언제나 말이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하다. 어딘가 방금 자다 깬 사람 모양 정신이 들어 보이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다.
	하기는 그는 대합실 구석 자리에 앉은 채 곧잘 낮잠을 즐긴다.

④ 이 글은 치과에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개, 봉우에 대한 이야기, 만기가 봉우 처를 만나 돈을 빌려 익준 처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들은 서로 인과 관계를 갖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지닌 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도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병렬식 구성으로 현실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봉우 처는 돈이 많은 인물이고 봉우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평소 봉우를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남편인 봉우의 친구 만기를 유혹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실이 좋지 않은 인물이다.

오답 해설 | ① 봉우가 청각만은 늘 깨어 있는 상태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6·25 사변 때의 일 때문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봉우	청각만은 늘 깨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자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된 연유를 그는 6·25 사변으로 돌리는 것이다.

② 봉우는 매일 만기 치과 의원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 세상사에 관심이 없고 의욕을 상실한 사람으로, 비현실적 몽환 속에서 살아간다. 낮잠을 자거나,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짝사랑하는 간호사를 바라만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의하면 봉우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익준은 비분강개파(의롭지 못한 일이나 잘못되어 가는 세태가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쳐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에 분노만 할 뿐, 만기 치과 의원에 날마다 오는 것으로 보아, 현실 개혁의 의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⑤ 만기는 부조리한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봉우, 익준과 대조적인 인물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봉우 처의 노골적인 추태와 위협이라는 괴로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상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만기는 황폐해진 전후 사회의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애로써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33 소재와 구절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인물, 사건, 배경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확인하며 파악해야 한다. 익준이 일하러 간 사이에 익준의 처가 죽었고, 만기가 도와 익준 처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만기가 익준이 없는 것을 탄식하자, 익준의 장모는 ‘살아서도 남편 구실 못 한 위인’이라며 죽은 후에도 있으나 마나라며 비판한다. 따라서 익준이 없는 상황 때문에 장모가 익준을 이전과 다르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익준이 잉여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장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내가 죽은 것도 모른 채 남편 구실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병원에는 날마다 출근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자는

‘비분강개파 채익준’, ‘실의의 인간 천봉우’라고 말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기에게 병원은 생계를 유지하는 장소이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의 장소이다. 익준에게는 사회 비판의 장소이자, 가정에도 직장에도 속하지 못한 그가 머무르는 장소이다. 봉우에게는 비현실적인 사랑을 꿈꾸는 장소이자 의식과 잠 사이의 경계적 장소이다. 따라서 각 인물들의 정서,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다.

② 봉우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이 남긴 상처 때문이다. 피란을 가지 못했던 그가 인민군 치하에서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면서 지냈기 때문이다. 작가는 전쟁 당시의 공포감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됨을 보임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상한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③ 봉우 처는 만기에게 부도덕한 마음을 품고 있다. 따라서 만기를 보면서 반가워하고, 자신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면서, 돈이 아닌 다른 ‘적당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봉우 처의 행동	앞장서 들어서는 만기를 보고 반색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두 저 같은 여자가 소용에 닿을 때가 있군요.
	적당한 이자까지 들쭉. 아시겠어요?
	일간 다시 들려 주세요. 선생님 일루 꼭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요!

⑤ 아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새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산에 다녀왔다고 자랑한다. 죽음 앞에서 슬퍼야 하는데, 어머니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점, 아버지를 보고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는 천진난만한 상태라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34~37] 작품 분석

잠시 늙는 풀(김원일)

▶ 제목의 의미

‘풀’은 일반적으로 바람, 즉 세상의 힘에 쉽게 늙는 연약한 존재로, 민중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 시우의 가족도 물질만능주의에 절망하여 늙고 만다. 그러나 이 절망과 시련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김수영의 시 ‘풀’에서도 그랬듯이 제목처럼 잠시 늙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등장인물

- 시우: 부사장네 운전수. 주인 사모님을 대신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 종우: 시우의 형. 시우의 일은 가슴 아프지만 이를 계기로 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우를 위로한다.
- 이 선생: 주인 사모님네를 도와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장이다.

▶ 전체 줄거리

백암리에서 가난하게 살던 시우 가족은 서울로 올라온다. 힘겹게 서울 생활을 하던 시우는 김 여사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고, 이후 운전을 배워 김 여사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시우에게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며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 가족은 측근인 이 선생을 통해 시우의 형인 종우와 가족을 돈으로 매수하고, 시우가 사고를 낸 것으로 거짓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종우는 작은 가게를 낼 수 있는 큰돈 앞에서 갈등하다가 시우를 설득한다. 결국 시우는 경찰 앞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실형을 선고받는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시우는 묘하게 웃는다.

▶ 지문 줄거리

자신이 모시는 사모님(김 여사)의 죄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갇힌 시우는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기도 했지만 종우 형의 면회 이후 자신의 희생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감옥 생활을 견뎌 내겠다고 결심한다.

▶ 주제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삶

▶ 어휘 풀이

-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판결에 대해 복종하지 않고 다시 판결을 요구했으나 '고등 법원(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에서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고.
- 실형(實刑):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 다습다: 알맞게 따뜻하다.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인 시우에게 맞춰 서술되어 있다. (중략) 이전에는 시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사장과 사무장의 대화가 나와 있고, (중략) 이후에는 시우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혔지만 가족을 위해 참기로 한 상황을 형의 말과 시우의 내면 심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시우의 감정 상태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우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시우의 심리 서술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시우는 연방 뿔뿔이 다시 증열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죄수들이 수감된 구치소라는 배경이 나오기는 하지만, 인물의 외양과 배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이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적으로 서술해야 하는데, 인물에 대해서도 시우의 따뜻한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구치소 안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듯이 충분히 자세하게 서술하는 '묘사'의 방식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의식 세계에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제시된 내용은 비논리적이며 뒤죽박죽이다. 여기서는 시우의 독백과 심리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내면 심리, 내적 독백이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니다.

③ 시우와 종우의 대화가 나와 있기는 하나, 대화 안에서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종우가 시우에게 가족을 위해 참아 달라고 하고, 시우는 이 말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우가 억울함을 가졌다가 인내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 있으나, 이 모습이 대화에 나와 있지는 않다.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표현하려 한다면 시우가 '나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형 말 듣고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라는 식의 말을 했어야 한다.

④ '사무장'과 '부사장', 시우와 종우의 대결, 혹은 구치소 안의 사람들 사이의 대결 의식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35 타 장르로의 전환

정답 ③

정답 해설 | ㉔는 앞의 내용과 달리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시우가 구치소의 생활을 마감하고,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흘렀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상의 기법이 오버랩(O.L.)이다. 오버랩은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인데, 이로써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 참고로 구치소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기타 신원 불분명 및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감되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가두어 관리하는 곳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미결수라 하며,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형을 확정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범죄자로 분류하지는 않아야 한다. 다만, 구치소도 내부 관리, 내부 식당 운영,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결수(형을 확정받은 사람, 즉 유죄를 받은 사람들)를 두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우가 '오늘 아침' 갈 곳은 '교도소'이다. 교도소는 재판에서 형을 확정 받은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다. 앞서 시우에게 '형이 확정'되었다고 했으므로, 시우는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기결수라 하며, 정식으로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받았기에 범죄자라 칭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㉔는 부사장과 사무장의 대화 이후, 사무장의 태도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따라서 부사장과 사무장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 주는 것은 가능하나 (둘의 대화가 끝난 상태이긴 하나 대화가 끝난 후 서로의 표정을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 줄 수 있다.), 이때 초점이 되어야 할 인물은 부사장이 아니라 사무장이다. 따라서 부사장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무장의 심드렁한 표정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 또한 부사장이 사무장을 흐뭇하게 바라본다고 할 수 없다. 대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설교조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에게 일을 똑바로 진행하라며 강압적이고 가르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흐뭇한 심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② '자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웃는 것을 말한다. ㉔에서 시우의 주된 감정은 억울함이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비웃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 비하의 감정'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시우는 형과의 대화 이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시우가 바라보는 구치소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다. 또한 ㉔에서 '마음이 설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애잔한 배경 음악'도 어울리지 않는다.

⑤ 종우는 시우를 찾아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그 가게의 이름은 '백암 상회'라고 붙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일 뿐이며, 이런 미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시우가 형에게 따질 것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교도소를 가는 시우와 종우가 만날 상황도 아니다.

36 소재에 담긴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시우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해 죽고 싶었던 마음을 돌려 가족의 좀 나은 삶을 위해 감옥 생활을 견뎌 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 죄수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있게 들리기도 하고(㉑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 그들의 얼굴을 다정하게 느끼기도 하는(㉒ 다정한 얼굴) 것이다. 또 쇠창살 밖에서 눈을 맞는 고깔 열매를 보며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며(㉓ 산타클로스 모자) 가족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고, 동생의 중학교 진학을 희망(㉔ 맞춤 중학 교육)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복잡한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웃음'은 이러한 감정 변화가 담기지 않은 표현이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보기>를 살펴보면 김원일의 소설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㉔에서는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도 그 구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면회소'는 '못 가진 자'인 시우가 사모님을 위해 억울하게 구치소 생활을 하는 곳이고, '신흥 주택 지대'는 시우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받은 돈으로 시우네 가족들이 식품점 별일 점포를 물색할 장소이다. 따라서 둘 다 '못 가진 자'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갇힌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줄 수 없다. 오히려 두 장소 모두 '갇힌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신흥 주택 지대	봉천동 신흥 주택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별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오답 해설 | ①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라는 말로 보아 이는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상태이다. 죄수는 그러한 시우를 보며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시우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억울하게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고 (몇 년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1년은 더 살게 되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복잡한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애써 밝게 웃으려 해도, 울음이 섞인 웃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II. 고전 시가

◀ 고전 시가 1 ▶

STEP

A

1등급 도전문제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②

[01~05] 작품 분석

(가) 정과정(鄭瓜亭)(정서)

▶ 제목의 의미

작자인 정서의 호가 ‘과정(瓜亭)’이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에 그의 성과 호를 합하여 ‘정과정곡(鄭瓜亭曲)’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 갈래 고려 가요(향가계 여요)

▶ 시적 상황

임을 깊이 그리워하며, 임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과 자신을 다시 사랑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작자가 유배를 간 상황에서 지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다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임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함.	
작품 속 근거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 자신의 결백을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아니시며 거츠르신 달 아오 잔월호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니미 나를 하마니자시니잇가.
• 임에게 자신을 다시 사랑해 줄 것을 호소함.	
작품 속 근거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주제

임(임금)을 그리는 마음과 자신의 결백 호소

▶ 특징

①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의탁함.		
작품 속 근거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산(山) 겹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겹동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②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는 존재로 천지신명을 내세움.		
작품 속 근거	잔월호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잔월호성: 천지신명.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
③ 표면적으로는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음.		
작품 속 근거	녁시라도 님은 한데 녀저라 아오	님(임): 사랑하는 사람 → 임금

▶ 어휘 풀이

- 이숫하요이다: 비슷합니다.
- 거츠르신 달: 거짓인 것들.
- 잔월호성(殘月曉星): 새벽녘의 달과 별.
- 녀저라: 지내고 싶구나.
- 베키더시니: 우기던 이, 고집하던 사람.
- 말히마리신더: 사람들의 모함하는 말입니다.
- 괴오쇼셔: 사랑해 주소서.

현대어 풀이

내가 입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내더니
산의 겹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나를 모함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새벽녘의 달과 별(천지신명)이 아실 것입니다.
넋이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어라.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잘못된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못 사람의 모함입니다.
슬프구나.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임이시여,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

(나) 속미인곡(續美人曲)(정철)

▶ 제목의 의미

‘미인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를 뜻하는 ‘사미인곡(思美人曲)’에 이어서 자신의 심회를 토로한 속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갈래 가사(양반 가사)

▶ 시적 상황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임과 이별한 사연과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할 때 지은 작품임을 고려하면 연군(戀君)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임이 잘 자내는지 염려함.	
작품 속 근거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함.	
작품 속 근거	님다히 消息(소식)을 아모려나 아자 하니
•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토로함.	
작품 속 근거	茅簷(모첨) 찬 자리의 방등만 도라오니 半壁靑燈(반벽청등)은 놀 위하야 발갓 는고.
•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찰하리 식여디여 落月(낙월)이나 되야이셔 님 거신 窓(창) 안에 번드시 비최리라.

▶ 주제

임(임금)을 그리는 간절한 정

▶ 특징

①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님을 뵈셔 이셔 ~窓(창) 안에 번드시 비최리라.	중심 화자(을녀)로,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함.	
	각시님 달이야카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대화의 상대자(갑녀)로,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며, 위로와 조언을 하는 역할임.	
② 자연물을 통해서 이별에 대한 작자의 자세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낙월	임을 잠시 비춤. - 수동적, 일시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 임에게 다가가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김.
	구준비	오랫동안 임을 적심. - 능동적, 지속적	

▶ 어휘 풀이

- 春寒苦熱(춘한고열): 이른 봄의 추위와 여름의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한 더위.
- 秋日冬天(추일동천): 가을날과 겨울날.
- 粥早飯(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일찍 먹는 죽.
- 구름은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 茅簷(모첨): 초가지붕의 처마.
- 半壁靑燈(반벽청등): 벽 가운데 걸린, 푸른빛을 내는 등.
- 落月(낙월): 지는 달.
- 구준비: 궂은비(끄느름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

현대어 풀이

(예전에) 임을 모신 적이 있어 임의 일을 내가 알구나.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할 때가 몇 날인가?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가? 아침 진지 전에 먹는 죽과 아침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 싶구나. 오늘도 거의 자물었구나. 내일이니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지는 말인가? (나무,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저렇게 끼어 있는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떻게 보며,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 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로 여수 선하게 되었구나.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 있는 푸른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산울) 오르며 내려며 (강가물) 해매며 오락가락하니,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하여 지쳐 땀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과 같이 곱던 얼굴이 반 넘어 늘었구나.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말삼 올리려 하니, 눈물이 연달아 쏟아지니 말인을 어찌 하며, 정회(淸懷)도 못다 풀어 묵마져 메니,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헛된 일이다. 이 임이 어디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떠를 뿐이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이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커녕 굶은비나 되십시오.

(다) 동동(動動)(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동동’은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적 상황

일 년 열두 달에 따른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임과 이별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작품 속 근거	유월(六月) 보로매 아으 별해 바론 빗 다호라.
	시월(十月)애 아으 저미면 바랏 다호라.
• 임과 함께하기를 소망함.	
작품 속 근거	니를 한데 녀겨져 원(願)을 비삽노이다.

▶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 특징

① 명절과 그에 따른 세시풍속을 소재로 삼음.		
작품 속 근거	오월(五月) 오일(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즘은 헬강존(長存)하살 약(藥)이라 받잡노이다.	단오
	유월(六月) 보로매 아으 별해 바론 빗 다호라.	유두
	칠월(七月) 보로매 아으 백중(百種)배(排)하야 두고, 니를 한데 녀겨져 원(願)을 비삽노이다.	백중
	팔월(八月) 보로매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론 니를 외셔 녀근 오늘날 가배(嘉俳)샅다.	한가위
	구월(九月) 구일(九日)애 아으 약(藥)이라 먹는 황화(黃花)	중양절
② 자연물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를 빗나를 넣고 신더.	계절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피꼬리는 옛날을 잊은 녹사님과 대조되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냄.
③ 화자를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빗, 바랏(보리수나무)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
	저(젓가락)	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 화자

▶ 어휘 풀이

- 녹사(錄事): 고려 시대에, 각급 관아에 속하여 기록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하급 실무직 벼슬.
- 별해 바론: 벼랑에 버린.
- 적곰: 잠시나마.
- 저미면 바랏: 저민 보리수나무.

- 봉당(封堂):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흠바닥 그대로 둔 곳.
- 한삼(汗衫): 속적삼.
- 분지나무: 산초나무.

현대어 풀이

4월을 아니 있어 아아 오는구나 피꼬리새여. /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 5월 5일에 아아 단오날 아침 약은 / 천 년을 사실 약이기에 버치옵니다. // 6월 보름(유두일)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좇아가옵니다. // 7월 보름(백중)에 아아 여러 종류의 제물을 벌여 놓고 /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옵니다. // 8월 보름(추석)에 아아 한가윗날이지만 /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 있는) 한가윗날입니다. // 9월 9일(중양절)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노란 꽃(국화) / 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 10월에 아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 11월에 봉당 자리에 아아 홀적삼을 덮고 누우니 / 슬프도다. 고운 임과 (떨어져)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 12월 분지나무로 꺾은 아아 소반의 젓가락 같구나. / 임의 앞에 들어 가지려니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임에) 묻니다.

01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에서 ‘벼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와 ‘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 /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는 앞의 구절이 의문형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뒤의 구절은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벼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자신을 모함한 이가 누구인지 묻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함.
	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임이 자기를 잊었을까 염려하고,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소망함.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임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지만, (나)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뱃길을 알아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운다는 점에서 ‘점동새’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반해, (다)의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빗’과 ‘바랏’에, 다른 이에게 시집가게 된 자신을 ‘저’에 각각 비유하고 있다.

③ (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와 그리움의 감정만이 드러날 뿐,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가)는 ‘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에서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④ (나)와 (다)는 모두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의 임은 군주로 보든 연인으로 보든 문제는 없다. (나)는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면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이고, 작자와 창작 배경(정철이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는 상황에서 지은 연군 가사임.)을 고려한다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임은 표면적으로는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임을 군주로 보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나)의 임은 군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연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연군(戀君)의 정(情)을 노래한 작품으로, 후자의 경우는 연모(戀慕)의 정(情)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④, ⑤ (다)의 임은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화자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며, 4월령에서 ‘녹사(錄事)’라는 임의 신분을 직접 드러냈다. 따라서 화자의 곁에 없을 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평범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

03 시어의 역할과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의 '잔월효성(殘月曉星)'은 화자를 포함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 즉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落月(낙월)'은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은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아니시며 거츠르신 달 아요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잔월효성: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존재
(나)	찰하리 식여디여 ㉡ 落月(낙월)이나 되야 이셔 님 거신 窓(창) 안에 번드시 비취리라.	낙월: 임을 잠시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

오답 해설 | ① (가)의 '잔월효성(殘月曉星)'은 임에게 깨우침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는 대상이다. (다)의 '落月(낙월)'은 임 계신 창안을 비추고자 하므로,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잔월효성(殘月曉星)'은 외로운 화자와 함께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는 천지신명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다)의 '落月(낙월)'은 죽어서라도 임 곁에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볼 때,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잔월효성(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존재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화자의 소원을 이루어 줄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의 '落月(낙월)'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대상일 뿐, 화자와 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는 아니다.

⑤ (가)의 '잔월효성(殘月曉星)'은 잠 못 이루는 화자의 분신이 아니라,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는 대변자이다. (다)의 '落月(낙월)'은 버림받은 화자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대상이 아니라,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04 시어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산으로 물가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지쳐 잠이 들었는데,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기에 꿈속에서 임을 만난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할 말도 다 하지 못했는데 새벽닭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만다. 따라서 '鷄聲(계성)'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야속한 존재이다. (다)의 '손' 역시 임에게 드린 젓가락을 임 대신 잡음으로써 화자와 임의 사랑을 가로막는 야속한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마음의 머근 말슴 슬가장 살자 하니 눈 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情(정)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 鷄聲(계성)의 잠은 엇다 깨듯던고.	鷄聲(계성):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 하소연하고자 하였으나, 닭 울음소리가 화자를 꿈에서 깨어나게 함.
(다)	니미 알페 드러 일이노니 손이 가져다 므 락삽노이다.	손: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자 하였으나, 영동한 사람이 젓가락(화자)을 가져가음.

오답 해설 | ① 4월을 잊지 않고 온 '굿고리새'는 오지 않는 임과 대비되는 자연물이다.

② '녹사(綠事)니문'은 임의 신분을 나타낸다.

③, ④ '빳'과 '바랏'은 모두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시어이다.

05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나)는 두 명의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 앞부분의 화자는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중심적 화자인 을녀이고, ㉡의 화자는 을녀의 하소연을 듣고 위로와 조언의 말을 하는 보조적 화자인 갑녀이다. (※갑녀와 을녀는 작품에 나오는 명칭은 아니지만, 두 화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④ 앞부분의 을녀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도 도저히 임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닫고

차라리 죽어 지는 달이 되어 임이 있는 창을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말을 들은 ㉡의 갑녀는 을녀에게 지는 달이 되어 임에게 소극적, 일시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굳은비가 되어 적극적, 지속적으로 다가가도록 권하고 있다. 문맥상 이 말은 을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 을녀의 소극적 태도에 야속함을 느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각시님 달이야카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구즌비: 임의 마음을 오래도록 적시는 존재로, 임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의미함.

오답 해설 | ①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다시 사랑해 달라는 호소의 심정이 담겨 있다.

② 진지는 옛날과 같이 잘 드시는지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사공은 없고 빈 배만 걸려 있는 상황이므로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⑤ 고운 사람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므로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다.

[06~08] 작품 분석

(가) 정석가(鄭石歌)(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1연에 나오는 '딩아 돌하'라는 구절과 관련이 있다. '정'은 덩(정), '석'은 돌과 대응되어, '정석'은 '정경'이라는 악기에 은유하여 연정의 대상인 임금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 보기도 한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적 상황

앞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이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태평성대를 소망함.	
작품 속 근거	선왕성대(先王聖代)에 노니 ^오 와지이다.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바름.	
작품 속 근거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니 ~ 유덕(有德)후신 님을 여히 ^오 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줄 사교이다. ~ 유덕(有德)후신 님을 여히 ^오 와지이다.

▶ 주제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태평성대 기원

▶ 특징

①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과 반어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구은 밤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후신 님을 여히 ^오 와지이다.	임과 헤어질 생각이 없음. (역설과 반어)
	옥(玉)으로 련(蓮)스고줄 사교이다 ~ 유덕후신 님을 여히 ^오 와지이다.	
②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면서 상황과 정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니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니	

▶ 어휘 풀이

- 덩아 돌하: 징이여 돌이여.
- 세물애: 가는 모래.
- 삭 나거시아: 삭이 돌아야.
- 접두(接柱)호요이다: 붙입니다.

현대어 풀이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 /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 / 이 좋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 구운 밤 닛 되를 씹습니다. / 그 밤이 움이 돌아 썩이 나아만 / 그 밤이 움이 돌아 썩이 나아만 / 유덕하신 임금 이별하고 싶습니다. //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 그 꽃이 세 묵을 피어야만 / 그 꽃이 세 묵을 피어야만 / 유덕하신 임금 이별하고 싶습니다.

(나) 한림별곡(翰林別曲)(한림 제유)

▶ 제목의 의미

이 노래의 작자 ‘한림 제유’는 고려 시대에 왕명을 받들어 문서를 꾸미는 일을 하던 한림원의 선비들을 말한다. ‘한림별곡’은 이들이 지은 노래라는 의미이다.

▶ 갈래 경기체가

▶ 시적 상황

고려 시대 신진 사대부들이 학문과 풍류를 뽑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신진 사대부들의 문학적 경지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제1장〉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록변려문, 이규보와 진화의 시,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등 시인과 문장을 예찬함.
• 귀족 문인들의 풍류적 삶의 태도	
작품 속 근거	〈제8장〉 그네 뛰는 흥겨운 정경과 풍류 생활을 찬양함.

▶ 주제

- 신진 사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의욕적 기개
- 귀족들의 향락적 풍류 생활과 퇴폐적인 기풍

▶ 특징

① 전체 8장의 분장체로, 각 장은 전대절(前大節) 4행과 후소절(後小節) 2행의 총 6행으로 구성됨.		
작품 속 근거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수록(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陳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통기다적(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랑경시부(良鏡詩賦) 위시당(試場) ㄱ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	전대절
	엿(業) 금학수(琴學士)의 옥순문싱(玉筭門生) 금학수(琴學士)의 옥순문싱(玉筭門生)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후소절
② 한자를 연결하여 우리말 율격인 3음보에 맞추어 음보율을 형성함.		
작품 속 근거	원순문(元淳文) ㄴ인노시(仁老詩) ㄴ공노수록(公老四六)	3·3·4조의 3음보
③ ‘위 ~ 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경기체가의 공통된 갈래 특성		
작품 속 근거	위시당(試場) ㄱ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	
	위 주(註)조쳐 내 외운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	
	위력남(歷覽) ㄱ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	
	위휴수동유(携手同遊) ㄱ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	
④ 열거법, 설의법, 반복법을 사용함.		
작품 속 근거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수록(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陳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열거법
	위 ~ ㄱ경(景) ㄱ이 엇더히니잇고.	반복법, 설의법

▶ 어휘 풀이

- 수록(四六): 사록변려문. 4자 또는 6자의 대구로 된 문장으로 한문체의 하나.
- 쌍운주필(雙韻走筆): 쌍운으로 운자를 내어 시를 빨리 짓는 일.
- 시당(試場) 〆경(景): 과거 시험을 보는 곳의 모습.
- 금학수(琴學士): 금의. 무인 정권하에서 무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사람.
- 옥순문싱(玉筭門生): 옥으로 된 준순처럼 뛰어난 문학생.
- 대평광기(大平廣記): 중국 송나라 때 간행된 총서.
- 삭옥섬섬(削玉纖纖): 옥을 깎아 만든 듯이 곱고 보드라운 여자의 손.
- 휴수동유(携手同遊):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는 광경.

현대어 풀이

〈제1장〉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록변려문 /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주필 /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 아,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 금의의 뛰어난 문학생들, 금의의 뛰어난 문학생들 / 아, 나까지(모두)몇 분입니까?

〈제2장〉 『당서』와 『한서』 『장자』와 『노자』, 한유와 유충원의 문집 / 이백과 두보의 시집, 난대 영사들의 시문집, 백거이의 문집 / 모형의 『시경』과 『서경』, 『주역』과 『춘추』, 『대대례』와 『소대례』, / 아, 주석까지 내리 외우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 『태평광기』 사백여 권 『태평광기』 사백여 권 / 아! 열람하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제8장〉 호두나무 쥐엄나무에 /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 당기어라 밀어라 정 소년아. / 아! 내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습니다. / 옥을 깎은 듯 고운 손길에 옥을 깎은 듯 고운 손길에 / 아! 손을 잡고 함께 노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사각거리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구운 밤을 심어 그것이 움이 돌아 썩이 나아 헤어지겠다거나,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에 접합하여 그 꽃이 세 묵을 피어야 헤어지겠다는 것은 임금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구운 밤이 움이 돌아 썩이 나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과장 - 역설
옥 연꽃이 세 묵을 피면	
↓	
유덕하신 임금 이별하겠다.	임금 이별하지 않겠다. - 반어

오답 해설 | ① 전체적인 내용은 이별을 거부하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다. 임에 대한 송축은 1연에만 나타난 내용이다.

② 청유형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1연은 임에 대한 송축, 2~3연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서사적인 흐름이나 각 연의 유기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역설이,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반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지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과는 거리가 멀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경기체가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노래했던 문학적 관습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에 화자의 정서를 결부시켜 노래한 양식이다. 〈제1장〉에서 여러 구체적인 문인의 이름이, 〈제2장〉에서 여러 서적의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제1장〉, 〈제2장〉에는 문인들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제8장〉에는 문인들의 향락적 생활이 드러나 있다.

② 신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한 상류 계층의 학문적 자부심이 〈제1장〉과 〈제2장〉에 드러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1장〉	위시당(試場) 〆경(景) 〆기 었더히니잇고.	사대부들이 자신의 학문적 실력을 뽐내는 광경이 매우 광장함을 강조함.
〈제2장〉	위주(註)조쳐 내 외운경(景) 〆기 었더히니잇고.	많은 서적을 읽고 소화하는 유생들의 학식을 자랑함.

③ 〈제8장〉에 여인들과 그네를 뛰는 향락적 생활과 풍류가 드러나 있다.

⑤ ‘-잇고’의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질문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단정을 나타내고, 자신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blacklabel 특강_경기체가

경기체가가 고려 중엽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삶과 향락적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 즐기던 노래이다. 13세기 초에 한림 학사들이 지은 「한림별곡」을 시작으로 조선 선조 때까지 이어졌다.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이 노래에 '경 그 엇더하니잇고'라는 구절이 되풀이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신흥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학식과 체험을 노래했고, 구체적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한 후 객관적인 설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연장체 형식으로, 한 연은 전대절 4행과 후소절 2행으로 이루어졌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는 고려 속요 작품이고, (나)는 경기체가 작품이다. (가)의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오와지이다'가, (나)의 각 장의 중간이나 끝 부분에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후 양절의 형식은 (나)에만 적용된다.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구절을 기준으로 볼 때, 앞부분은 대상과 경치의 나열을, 뒷부분은 대상과 경치에 대한 자궁심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선왕성지(先王聖代)에 노니 오와지이다.	각 연의 끝에 '~오와지이다'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함.
	유덕(有德)후신님을 여히오와지이다.	
	유덕(有德)후신님을 여히오와지이다.	
(나)	위 시당(試場)스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제1장〉, 〈제2장〉의 중간의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앞에는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하고, 뒤에는 자신들의 모습과 심회(자부심)을 드러냄.
	위 주(註)조쳐 내 외운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오답 해설 | ①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는 모두 고려 시대에 향유된 장르이며, 창작과 향유 계층은 각각 서민과 양반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는 <보기>에 언급된 것처럼 사랑과 이별의 심정을 노래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나)는 〈제1장〉에서는 과거 시험장의 모습을, 〈제2장〉에서는 책을 읽는 모습을, 〈제8장〉에서는 유희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1장〉	위 시당(試場)스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시험장의 모습이 굉장함을 과시함.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자신을 포함하여 (제자가) 많음을 과시함.
〈제2장〉	위 주(註)조쳐 내 외운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학문과 독서의 경지를 과시함.
	위 력남(歷覽)스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제3장〉	위 휴슈동유(携手同遊)스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과시함.

④ <보기>에 따르면 (가)는 구전된 갈래이므로, 구전 과정에서 내용의 가감이 가능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한학자인 작가가 알려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창작 때부터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데 비해, (나)는 〈제1장〉에서 문인들을, 〈제2장〉에서 서적을 나열함으로써 자신들의 자궁심을 드러내고 있다.

blacklabel 특강_전후 양절의 형식

내용상 앞부분(전절)과 뒷부분(후절)의 두 마디(절)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고려 가요나 경기체가 중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작품이 많다.

예 고려 가요 「청산별곡」의 경우는 공간적 배경인 '청산'과 '바다'를 경계로 전후 양절을 보여 준다. 1~4연은 청산 노래, 5~8연은 바다 노래라고 할 수 있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09 ②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③ 16 ③ 17 ②

[09~13] 작품 분석

(가) 사모곡(思母曲)(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어머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를 의미한다. 『시용향약보』에는 순우리말인 ‘엇(=어머니)노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기도 하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적 상황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각각 낫과 호미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을 칭송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아버지의 사랑을 낫에 평가하며 은연중에 원망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호미도 놀히언마루는 날기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언마루는 / 위 덩더동성 어마님 기티 과시리 업세라	
	• 어머니의 절대적 사랑을 예찬함.	
작품 속 근거	어마님 기티 과시리 업세라	

▶ 주제

어머니의 사랑 예찬

▶ 특징

① 농경 생활 속 사물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호미도 놀히언마루는 날기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버지의 사랑(호미)에 비해 어머니 의 사랑(낫)이 훨씬 강함.
② 흥을 유발하는 조흥구가 사용됨.		
작품 속 근거	위 덩더동성	
③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어마님 기티 과시리 업세라	5, 7행 반복

▶ 어휘 풀이

- 괴시리: 사랑하실 이.
- 아소: 아서십시오.

현대어 풀이

호미도 날이 있지만 / 낫같이 (질) 들 리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 어머니같이 사랑하실 분이 없습니다.
아서십시오, 임(또는 사람들)이여, / 어머니같이 사랑하실 분이 없습니다.

(나) 훈민가(訓民歌)(정철)

▶ 제목의 의미

‘백성을 가르치는(훈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경민가(警民歌)’라고도 한다.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 갈래 시조(전 16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백성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부모에 대한 효성이나 형제간의 우애 등 유교적 덕목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함.	
작품 속 근거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

•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고함.	
작품 속 근거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 주제

유교적 윤리 실천을 권장함.

▶ 특징

①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일상적인 어휘와 친근한 어조를 사용함.	
작품 속 근거	아버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② 권장하는 삶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작품 속 근거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 어휘 풀이

- 하날: 하늘
- 가업슨: 끝이 없는.

현대어 풀이	
〈제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제4수〉 아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엔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 사친가(思親歌)(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제목이 같은 여러 이본이 존재한다.

▶ 갈래 가사(규방 가사)

▶ 시적 상황

일 년 열두 달의 순서로 그 달에 해당하는 명절과 풍속과 연관시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을 잘 봉양할 것을 당부한다.

▶ 정서 및 태도

•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슬프다 우리 부모 상원(上元)인 줄 모르시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淸明)인 줄 모르시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踏靑節)을 모르시나
•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권유함.	
작품 속 근거	정월이라 심오 일에 완월(玩月)하는 소년들이 흥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세라
	수목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하고 자육양이친부재(子欲養而親不在)라

▶ 주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표현 및 부모님 봉양 권고

▶ 특징

① 월령체 형식으로 일 년 열두 달의 명절과 연관시켜 내용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정월이라 심오일에~	정월대보름
	이월이라 한식(寒食)일에~	한식
② 중국 고사를 인용함.		
작품 속 근거	이월이라 한식(寒食)일에 천추절(千秋節)이 적막하니 개자추의 님이로다	개자추의 고사
	가수(逝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여	공자와 증점의 고사

▶ 어휘 풀이

- 완월(玩月): 달을 구경하며 즐김.
- 흥풍(凶豊): 흉년과 풍년 또는 흉작과 풍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사대절(四大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뼈마디라는 뜻으로, ‘육체’를 이르는 말.
- 봉래 방장 영주산: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영산(靈山)인 삼신산(三神山).

- 영결종천(永訣終天):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 음풍(陰風): 흐린 날씨에 음산하고 싸늘하게 부는 바람.
- 영절(永絶): 소식이나 관계 또는 생명이나 혈통 따위가 영원히 끊어져 아주 없어짐.
- 상원(上元): 도교에서, ‘대보름날’을 이르는 말.
- 천추절(千秋節): 고려 시대에, 임금의 생일을 기념하던 날. 또는 중국 황태자나 황후의 생일을 기념하던 날.
- 삼진날: 음력 삼월 초사흘날.
- 연자(燕子): 제비.
- 호접(胡蝶): 호랑나비.
- 답청절(踏靑節): ‘삼진날’을 달리 이르는 말. 이날 들에 나가 파랑게 난 풀을 뜯는 풍습이 있는 데서 유래함.

현대어 풀이

정월이라 심오 일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이, 흥년일지 풍년일지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을 생각해라. / 육체는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어찌하여 잊겠는가? 오랫동안 민었다니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가? 슬프다, 우리 인생 /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 사람 없는 산중에 잎 떨어진 나무처럼, 한 줄 흙으로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게 되겠구나. / 일 년에 삼백육십 일, 하루에 12시간 부모를 생각한다. / 음산한 바람 소리 적막하고 소식이 영원히 끊어지니,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날인 줄 모르시나. / 그 달을 허송하니 이월이라 한식일에 천추절이 적막하니 개자추의 님이로다. / 먼 산에 봄이 드니 불에 뒹던 풀에 속임이 나온다. (종락) /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그 달 그믐 다 지나고 삼월이라 삼진날에 제비는 날아들어 옛 집을 찾아오고 나비는 다양하여 구색을 자랑한다. / 가수에 목욕하고 무우에 바람 쏘여,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에 이르러 시를 읊는다. / 산에 핀 꽃은 붉은 비단이요, 가는 버드나무는 푸른 실이로다. (종락) /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삼진날)을 모르시나.

09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는 부모님의 은덕을 ‘하날’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 역시 ‘태산같이’를 통해 부모님의 높은 덕을, ‘하해같이’를 통해 부모님의 깊은 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하날가튼가업슨은덕	• 원관념: (부모님의) 은덕 • 보조 관념: 하날(하늘)
(다)	태산같이 노픈 덕과 하해같이 기픈 정	• 원관념: (부모님의) 덕, 정 • 보조 관념: 태산, 하해

오답 해설 | ① (나)는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는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淸明)인 줄 모르시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踏靑節)을 모르시나’ 등을 통해 부모님이 세상을 등졌거나, 화자의 곁에 없는 상태임을 드러낸다.

③ (나)는 시조이고, (다)는 가사 작품으로, 둘 모두 4음보로 전개된다.

④ (가)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을 뿐, 훈계를 하려는 의도는 찾을 수 없다. 이에 반해 (나)는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를 통해, (다)는 ‘부모 봉양 생각세라’를 통해 부모를 잘 섬기라는 훈계의 의도를 볼 수 있다.

⑤ 세 작품은 모두 부모의 사랑이나 은덕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10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호미에, 어머니의 사랑은 낮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딘 호미와 달리 날이 선 낮과 같다고 여기고 있다. 또 어머니처럼 자신을 사랑할 이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다)의 화자는 부모님 두 분의 봉양을 모두 강조하고, 부모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슬퍼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①과

같이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호미도 놀히언마루는 날 7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보다 높이 평가함.
	어마님 7티 괴시리 업세라	
(나)	정월이라 십오 일에 완월(玩月)하는 소년들이 흥 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세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 봉양할 것 을 강조함.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하고 자육양이 친부재(子欲養而親不在)라	
	슬프다 우리 부모 상원(上元)인 줄 모르시나	부모님이 부재한 상황을 암시함.
	슬프다 우리 부모 청명(淸明)인 줄 모르시나	
	슬프다 우리 부모 답정절(踏靑節)을 모르시나	

오답 해설 ② (가)의 화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자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제시된 내용은 부모에게 해 줄 말에 해당하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③ (가)의 화자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을 뿐이다. (가)에 부모의 소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부모 중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을 뿐, 자식으로서 겪은 아픔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1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는 ‘위 덩터동성’이라는 조음구가 나타나는데, 이는 장구나 북 등의 악기 소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조음구는 흥을 돋우는 음악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덩터동성’이 시상을 심화하거나 확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1, 3행에서 ‘-마루는’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⑤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낮과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호미를 대비하여, 낮이 더 잘 든다는 것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호미도 놀히언마루는 날 7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어바님도 어이언마루는 위 덩터동성 어마님 7티 괴시리 업세라	잘 들지 않는 호미 대비 잘 드는 낮 아버지의 사랑 ↔ 어머니의 사랑 →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보다 높이 평가함.

③ ‘아소 님하’가 감탄 어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화자가 청자(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화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김으로써 은덕을 갚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도치의 표현 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의 대구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대상인 부모님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하날 가튼 가업슨 은덕’에서 부모님의 은덕을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설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④ ‘디나간 후면 애답다 엇디하리 / 평생애 곱터 못할 일이 이썬인가 호노라’를 통해 통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가정하여 청자를 경계하고 있다.

13 시어의 관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기수’는 봄에 몸을 씻는 장소, ‘무우’는 바람을 쐬는 장소라는 점에서 별개의 대등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유 관계인 시어가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의 사랑)’을 ‘낮’에 비유하고 있다.

② ‘(부모님의) 은덕’을 ‘하늘’에 비유하고 있다.

③ ‘(부모님의) 정’을 ‘하해’에 비유하고 있다.

⑤ ‘산화’를 ‘홍금’에 비유하고 있다.

[14~17] 작품 분석

(가) 규원가(閨怨歌)(허난설헌)

▶ 제목의 의미

‘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원부가(怨婦歌)’ 또는 ‘원부사(怨婦詞)’라고도 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유교 사회의 봉건적 인습 속에서 규방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한스러운 삶을 토로하고 있다.

▶ 갈래 가사(규방 가사)

▶ 시적 상황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속절없이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과 남편에 대한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경박한 남편을 만난 것을 탄식함.		
작품 속 근거	장안유흥(長安遊俠)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잊서	
•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함.		
작품 속 근거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寶花顔) 여데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요나. 스스로 참고(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리.	- 설빈화안(雪寶花顔):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 - 면목가증(面目可憎): 미게 변한 현재의 모습
• 외도를 하며 소식도 없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함.		
작품 속 근거	삼삼오오(三三五五) 아유원(遊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끊겼고.	남편에 대한 원망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갖쳐신들 생각이야 업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든, 열두 때 김도 길사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 주제

봉건 사회에서 겪는 부녀자의 원정(怨情)과 한(恨)

▶ 특징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제 구존비는 므스 일고.	자최는(자국눈), 구존비(꿇은비):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강조함.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올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다.	실술, 새소리: 화자의 서러운 감정이 이입된 대상
	죽림(竹林) 푸른 고데 새소리 더욱 설다.	
② 중국의 고사를 인용함.		
작품 속 근거	소상(瀟湘) 아우(夜雨)의 뗏소리 섯도는 듯	순임금의 두 왕비 아황과 여영의 고사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요동의 정영위의 고사

▶ 어휘 풀이

- 하마: 벌써.
- 공후(公侯):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 군자호구(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짝.
- 월하(月下): 월하노인(月下老人).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
- 장안유흥(長安遊俠): 장안(한양)에서 이름난 호탕한 풍류객.
- 천연여질(天然麗質): 타고난 고운 모습.

- 뵤오리 북 지나듯: (베틀에서) 베올에 북(납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지나듯.
- 참괴(慚愧)하다: 매우 부끄러워하다.
- 아유원(冶遊園): 기생집. 난봉꾼이 노는 곳.
- 백마금편(白馬金鞭): 흰 말과 금빛 채찍.
- 자죄눈: 자국눈(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의 옛말.
- 삼춘화류(三春花柳): 꽃이 피고 버들이 돋는 석 달 동안의 봄.
- 실솔(蟋蟀): 귀뚜라미.
- 녹기금(綠綺琴): 한나라 사마상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문고의 이름.
- 벽련화(碧蓮花): 질푸른 연꽃.
- 소상(瀟湘): 중국 남부에 있는 소수와 상수. ‘아름다운 호수’를 빗대어 이르는 말.
- 화표(華表):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위.
- 연광(年光): 변하는 사철의 경치. 젊은 나이.
- 간장(肝臟)이 구곡(九曲) 되야: 창자가 굽이굽이 서리었다는 뜻으로, 마음속에 시름이 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약수(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 홍안(紅顏):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

현대어 풀이

엇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어 버렸는가?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늙은 뒤에 서러운 사연 말하진니 목이 맨다.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몸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 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이 되기는 바라지 못하더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였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 정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랑을 꿈같이 만나, 당시에 마음 쓰기가 마치 살얼음을 디디는 듯하였다. 열다섯, 열여섯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모습 이 태도로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주마저 매우 시기하여, 봄바람과 가을 물이 베올에 북이 지나가듯 고운 머리 채와 젊고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맑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거나 어느 일이 날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여럿이서 때 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에 머무는가? (나는 집 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임의) 소식이야 더욱 알라? 인연을 끊었다 한들 (임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임의) 얼굴을 못 보면 그림자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열두 때(허루)가 길기도 길고, 서른 날(한 달)이 지루하다. 규방 창 앞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겨울밤 차고 찬 때 자국은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굵은비는 무슨 일인가? 꽃이 피고 버들이 돋는 봄의 좋은 시절에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빛)이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실에서 울 때, 한 한숨과 떨어지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돌이켜 (여러 가지 일을) 풀어 생각하니 이렇게 하여 어찌할 것인가? 푸른 등불을 돌려 놓고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에 섞어 타니, 소상강 밤비에 맺힌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만, 연꽃 무늬 휘장을 친 방은 고요하고 쓸쓸하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속이 뒤틀려 굽이굽이 끊어졌도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번은 (만날) 때를 놓치지 않는데, 우리 임 가신 후에는 무슨 약속(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가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여라.

(나) 시집살이 노래(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겪는 서민 여성의 고통과 좌절, 허무와 애환 등 한스런 삶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민요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이 풍자와 해학을 통해 드러난다.

▶ 갈래 민요

▶ 시적 상황

근친(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 오는 형님을 맞은 사촌 동생이 시집살이에 대해 묻자 형님이 고된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체념하고 있다.

▶ 주제

시집살이의 한(恨)과 체념

▶ 특징

① 사촌 동생과 형님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됨.		
작품 속 근거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까?	사촌 동생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사촌 형님(사촌 언니)
② 언어유희와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한 표현으로 해학성을 유발함.		
작품 속 근거	시집살이 개집살이	언어유희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同姓)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
③ 유사(동일) 어구의 반복과 4음보의 전개로 운율감이 잘 드러남.		
작품 속 근거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저는 형님 온다.	
	형님 형님 사촌 형님	
	둥글둥글 ~ 어렵더라. / 도리도리 더 어렵더라.	
	‘(~ 하나) ~새요’의 반복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서 삼 년이요, / 말 못하여 삼 년이요,	
	배꽃 같은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은 요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백옥 같은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작품 속 근거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을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④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는 민중 문학의 모습을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 어휘 풀이

- 당추: 고추.
- 수박 식기: 그릇이 수박처럼 둥글다는 의미.
- 도리소반: 둥글고 작은 밥상. 둘러앉아서 먹는 데서 나온 이름.
- 호랑새: 호랑이처럼 무서운 새.
- 할림새: 남의 허물을 잘 고해 바치는 새.
- 뽕족새: 성을 잘 내는 새.
- 뽕중새: 마음에 차지 않아 입술이 뽕족이 나온 새.
- 비사리춤: 오래 쓴 땀싸리비처럼 성기고 거친 물건.
- 열새 무명: 아주 고운 무명.
- 반물 치마: 짙은 남빛 치마.

14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주로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노래하였다.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드는 듯.’이라는 구절이 있기는 하나, 이는 남편에게 마음을 쓰는 일에 살얼음을 디디는 것처럼 조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지,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를 꿈길치 만나 잊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드는 듯.	남편을 대할 때 살얼음 디디듯 조심하며 마음을 쓸.
(나)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唐樞) 싹고 뒷발에는 고추 싹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시집살이의 괴로움

오답 해설 | ① (가)는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데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에서, (나)는 ‘배꽃 같은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 삼단 같은 요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 백옥(白玉) 같은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에서 변해 버린 자신의 외양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다.

② (가)는 가사, (나)는 민요 장르로서 모두 3·4조의 4음보율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는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심회를 전개하고 있으나, (나)는 시집간 사촌 언니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사촌 동생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 하거나, 시집 식구들과 자신을 ‘새’에 비유하는 등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시집살이의 고통을 웃음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또 자신의 눈물에 연못이 생겨 거위와 오리(자식들을 의미함.)가 들어온다는 표현을 통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으로 괴로운 시집살이를 체념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가)에는 해학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15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의 ‘백마금편(白馬金鞭)’은 남편의 화려한 치장을 의미한다. (나)에서는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중 ‘미련새’는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편은 말과 행동이 미련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데어데 머무는고.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
(나)	남편 하나 미련새요	어리석고 둔한 남편

오답 해설 | ① (가)의 ‘설빈화안(雪鬢花顏)’과 (나)의 ‘배꽃’은 모두 화자의 결혼 전의 고운 외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순수한 내면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② (가)의 ‘면목가증(面目可憎)’과 (나)의 ‘호박꽃’은 모두 화자의 현재의 외양을 나타낸다.
 ④ (가)의 ‘대화’는 화자가 남편을 기다리며 보낸 세월이 길었음을 의미하고, (나)의 ‘백옥’은 화자의 결혼 전의 예쁜 손을 나타낸다.
 ⑤ (가)의 ‘녹기금’은 화자가 시름 섞여 연주하는 것으로 보아, 꿈이 아닌 현실에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표출하는 수단이다. (나)의 ‘삼단’은 결혼 전 화자의 아름답던 외양을 나타낸다.

16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등으로 마음이 복잡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기>의 화자 역시 임의 꿈을 꾸다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와 <보기>의 화자 모두 공통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寢婦)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숙절업시 험만 만다.	임으로 인한 시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찰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하니, 바람이 디는 뉘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모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요는다.	
<보기>	곰던 모습 아련히 보일 듯 사라지고 깨어 보면 등불만 외로이 타고 있네.	임을 그리워하다 잠에서 깬.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실술(귀뚜라미)’과 ‘새소리’ 등을 통해, <보기>의 화자는 ‘가을비’를 통해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②, ④ (가)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곁에 없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두 시 모두 임이 곁에 없다는 결핍의 상황이 시상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⑤ <보기>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인 태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는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님이 날 필요냐’, ‘세상의 서툰 사람 수업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가르치 또 이실가.’와 같은 구절을 통해 처지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7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 화자는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후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뒤에 나열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방식을 통해 시집에서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시집살이의 고달픈 토로
	동글동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도 어렵더라.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 방아 찧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 두 방에 자리 걸고	시집에서의 각종 노동 나열

오답 해설 | ① ‘시아버님같이 어려우랴.’와 ‘시아머니보다 더 푸르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가진 생각의 정당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시집 식구들과 자신을 ‘새’에 비유하여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혼 전 자신의 고운 모습을 ‘배꽃’, ‘삼단’, ‘백옥’에, 결혼 후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호박’, ‘비사리춤’, ‘오리발’에 비유하여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적 표현이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고달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⑤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나열하고 있을 뿐, 근경과 원경 등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black label 특강 설의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문문은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데 반해, 설의법은 그렇지 않으며 평서문으로 전달해도 무방한 내용인 것이 차이점이다.

- 예 • 일반적인 의문문: 내일은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 설의적 표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STEP

A

1등급 도전문제

고전 시가 3

18 ②

19 ①

20 ①

21 ⑤

22 ⑤

23 ④

24 ④

25 ④

26 ④

[18~22] 작품 분석

(가) 사미인곡(思美人曲)(정철)

▶ 제목의 의미

‘미인’, 즉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로서, 왕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했다.

▶ 갈래 가사(양반 가사)

▶ 시적 상황

임과 이별한 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자신의 충정을 임에게 알리고 싶어 함.	
작품 속 근거	며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거신디 보내오져.
• 외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정성을 임에게 전하고 싶어 함.	
작품 속 근거	나위(羅縵) 적막(寂寞) 후고 수막(繡幕)이 뷔어 있다. ~ 님의게 보내오려 님 거신디 바라보니
• 임이 선정을 베풀기를 기원함.	
작품 속 근거	누(樓) 우허 거려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절낫 7티 밍그쇼셔.

▶ 주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연군지정(戀君之情)

▶ 특징

① 여성적 어조로 임(임금)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애절하게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풀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쿠니와 제도(制度)도 그줄시고.	
②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상 전개		
작품 속 근거	동풍(東風), 미화(梅花)	봄
	녹음(綠陰)	여름
	서리, 기러기	가을
③ 상징적 소재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매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충정)
	옷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청광(淸光)	임금의 선정에 대한 소망

▶ 어휘 풀이

- 암향(暗香): 그윽이 풍기는 향기. 흔히 ‘매화의 향기’를 이룸.
- 나위(羅幃): 얇은 비단으로 만든 장막.
- 슈막(繡幕): 수놓은 장막.
- 수품(手品)은 쿠니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 위루(危樓): 높은 누각.
- 슈정념(水晶簾): 수정으로 만든 발.
- 팔황(八荒): 온 세상.
- 심산궁곡(深山窮谷): 깊은 산속의 궁벽한 골짜기. 여기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

현대어 풀이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해쳐 내니, /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 가득이 나 차고 담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 황혼에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 달이) 임이신가 아니신가? /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꽃 지고 새 잎이 나니 푸른 잎이 우거져 그들이 깔렸는데, / 비단 휘장 안은 쓸쓸하고, 수놓은 장막은 텅 비어 있다. / 부용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건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돌려 두니, / 가득이나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그리도 길던가? /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 금으로 만든 차로 재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 추었구나. / 산호로 만든 지게 위의 백옥함에 담아 두고 /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 바라보니, /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 천만 리나 되는 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 / 가거든 열어 두고 나를 본 듯 반기실까?
하룻밤 사이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으니, /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임이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다. /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 깊은 산골짜기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나) 누항사(陋巷詞)(박인로)

▶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작가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있을 때 친구인 이덕형이 두메 생활의 어려움을 물은 데 대한 답으로 지은 노래이다. ‘누항(陋巷)’은 자신이 사는 산골을 이르는 말이다.

▶ 갈래 가사(양반 가사)

▶ 시적 상황

농사지를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궁핍한 현실과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자 하는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안빈낙도와 빈이무원(貧而無怨)의 삶을 추구하며 충효와 우애, 신의를 지키고자 함.	
작품 속 근거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넘지 업스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랴.

▶ 주제

-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충효, 우애, 신의를 나누는 삶의 추구

▶ 특징

①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보여줌.	
작품 속 근거	어와 괴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옴노라. ~ 공후니나 감시나 주업 죽도 후다만
② 감정을 현실적인 언어로 직접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실위(實爲) 그러후면 할마 어이홀고.
	구복(口腹)이 위루(爲累) 후야 이저씨다.

▶ 어휘 풀이

- 한기태심(旱既太甚): 가뭄이 매우 극심함.
- 널비: 지나가는 비.
- 아함이: ‘에헴’ 하는 인기척.
-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 혜염: 근심.
- 옥지읍(玉脂泣):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 삼해주(三亥酒): 정월 셋째 해일에 빚은 좋은 술.
- 먼덕: ‘멍석(짚으로 네모지게 결어 만든 큰 깔개)’의 옛말.
- 설피설피: 맥없이 걷는 모습.
- 구복(口腹): 먹고사는 일.
- 위루(爲累): 거리낌이 됨.
- 첨피가옥(瞻彼淇澳): 저기 기수(소부, 허유의 은거지)의 물가를 바라봄.
- 유비군자(有斐君子): 교양 있는 선비
- 노화(蘆花): 갈대꽃.

현대어 풀이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지을) 시기도 다 늦어가는 때에, /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 길 위에 흘러가는 근원 없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 / “소 한번 빌려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쑤에, / 친절하다고 여겼던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 큰 기침으로 ‘에헴’을 오래도록 한 후에, / “어, 거기 누구신가?” (문기에) “염치없는 저옵니다.(대답하였다.)”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 “해마다 이렇게 하기 구자한 줄 알지마는, /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간에 빌려준 적도 하지마는, /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사람이 /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 내고 /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값을 것인가. / 내일 소를 빌려주마 하고 굳게 약속하였기에 /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 어렵구요.” / 진실로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 현 멍석을 숙여 쓰고 축 없는 짐신을 신고 맥없이 어슬렁어슬렁 물러나오니 /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만 짓을 뿐이로다. (중략)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 먹고사는 일이 누가 되어 잊었다. / 저 기수의 물가를 보건대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 갈대꽃 깊은 곳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벗이 되어, /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 늘으리라. / 무심한 백구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1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임(임금)과 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임에게 자신의 정성을 바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늦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서 추자갈고.’ 등에서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를 빌리러 갔다가 창피를 당하고 돌아오는데,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초칠 뿐이로다.’에서 극도의 무안함을 표출하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연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구복(口腹)이 위루(爲累) 후야 어지버 이저씨다.’와 같이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동풍(東風)이 건듯 부려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봄) →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綠陰)이 싹트는디(여름) → 후루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가을)

③ (가)와 (나)는 가사로, 4음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동풍(東風)이 V건듯 부러 V적설(積雪)을 V헤터 내니, 창(窓)밖고 V심근 미화(梅花) V두세 가지 V피여세라.
(나)	구디 다든 V문(門) 밖고 V어득히 V혼자 서서, 큰 기침 V아함이를 V양구(良久) 토록 V후(後)에

④ (나)에 일상적 경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와 (나) 모두 일반적인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⑤ (가)와는 상관관이 없고, (나)의 말미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을 지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19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계절에 따라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봄에는 매화를 꺾어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통해, 가을에는 청광(淸光)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통해 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여름에는 임에게 옷을 지어 보내려 하나 산과 구름이 앞길을 막는다며 안타까워하고, 가을에는 별을 임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는 여러 자연물들을 통해 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디 보내오져.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
	청광(淸光)을 띄여 내여 봉형누(鳳凰樓)의 붓티고져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며 흘시고	산, 구름, 장애물
	북극(北極)의 별이 되니, /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별을 보고 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림.

오답 해설 | ② 전체적으로 독백하듯 말하고 있으나, 이별의 원인을 외부 세계로 돌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임이 자신을 걱정해 주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대화의 형식은 없고,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고사를 끌어들이는 부분은 없고,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20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소를 빌리러 갔다가 창피를 당하고 돌아와 예전부터 꿈꿔 왔던 삶, 즉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략) 부분에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와 공짜로 소를 빌리는 것이 불가능한 세태에 대해 탄식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화자와 소 주인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현장감이 나타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어와 귀 닐신고	소 주인
	염치(廉恥) 업산 니옵노라.	화자

③ 영탄의 방식으로 안분지족이라는 삶의 지향함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 다토리 업슬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④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허며 말라 허랴.’에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⑤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에서 개를 끌어들이 자괴감, 곧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A]에서 화자는 가뭄 속에 잠시 내린 비에 흐르는 물을 눈에 대어 놓고 소를 빌리러 간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소를 빌려주겠다고 말했던 소 주인을 찾아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다. 돌아온 화자는 [B]에서 예전부터 꿈꿔 왔던 강호의 꿈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며, 누구도 주인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화자는 소 주인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외적인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에서는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

② [A]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B] 역시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을 뿐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와 [B] 모두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나 그를 통한 통찰과 거리가 멀다.

④ [A]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나, [B]에서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운명론에 대한 수용으로 볼 수는 없다.

22 발화의 대상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은 소 주인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화자에게 진정성 없이 한 말이고, ㉡은 소를 빌리러 온 화자에게 소 주인이 묻고 있는 말이다. ㉢은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이라며 화자에게 소 주인이 묻는 말이며, ㉣은 소 주인이 화자에게 한 말이다. 즉 ㉠, ㉡, ㉢, ㉣은 모두 소 주인이 화자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은 소 주인이 건넌집 사람에게 한 약속의 말이므로, 말을 듣는 대상이 대상이 화자가 아니라 건넌집 사람이다.

[23~26] 작품 분석

(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이항)

▶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작가가 경북 안동의 도산 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때에 지은 연시조로, 전 6곡(언지)과 후 6곡(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지(言志: 뜻을 말함.)’가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노래한 것이라면, ‘언학(言學: 학문을 말함.)’은 인생관 중 학문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 노래한 것이다.

▶ 갈래 시조(전 12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 귀의 생활
-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講學), 사색에 잠긴다는 학문 생활

▶ 정서 및 태도

•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함.	
작품 속 근거	후들며 천석고황(泉石膏黃)을 고쳐 므슴후료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벼를 사마
• 자연을 벗하며 살아도 임금을 그리워함.	
작품 속 근거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닐디 못후애

▶ 주제

자연을 관조하며 학문에 정진함.

▶ 특징

① 도학파의 자연 관조적 자세와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남.	
②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됨.	
작품 속 근거	천석고황(泉石膏黃), 연하(煙霞), 순풍(淳風), 유란(幽蘭), 피미일인(彼美一人), 교교백구(蛟蛟白駒), 어악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 등

③ 반복법, 설의법, 대구법 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작품 속 근거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허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허료	반복법, 설의법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대구법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로다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 어휘 풀이

- 초야우생(草野愚生):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 천석고황(泉石膏肓): 고질병이 되다시피 자연(산수 풍경)을 좋아함을 일컬음. 즉,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의 절실함을 나타냄.
- 연하(煙霞): 안개와 놀.
- 순풍(淳風): 순박한 풍속.
- 허다영재(許多英才):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
- 유란(幽蘭): 그윽한 향기를 내는 난초. 난초의 별칭.
- 피미일인(彼美一人):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유대(有臺)하고: 높은 대가 있고.
- 교교백구(皎皎白駒):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그림자를 짓고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는 의미로,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현대어 풀이
〈제1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라? /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하라? /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이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라?
〈제2수〉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벼를 삼아서 / 어진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병으로 늙어만 가는구나. /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었으면.
〈제3수〉 예로부터 내려오던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졌다고 하니 그 말은 참으로 거짓말이로다. /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니 그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 (성현들께서) 어찌 세상의 수많은 영재들을 속여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제4수〉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난초가 골짜기에 피었으니 자연이 향기 맡기 좋구나. / 흰 구름이 산마루에 걸려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 이러한 가운데서도 임금을 더욱 잊을 수가 없구나.
〈제5수〉 산 앞에는 대가 있고, 대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구나. / 때 지은 갈매기들은 오락가락하는데, / 어찌하여 회고 깨끗한 말은 멀리 갈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제6수〉 봄바람이 부니 꽃은 산에 가득 피어 있고, 가을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니. /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 더구나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솔개는 하늘을 나니 흘러가는 구름은 그늘을 짓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23 시상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3수〉의 시적 대상은 순풍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들과 인성이 어질다고 말하는 이들인데, 이 중 인성이 어질다고 한 성현이 실질적인 대상이다. 반면 〈제4수〉의 시적 대상은 ‘유란’, ‘백운’, ‘피미일인’ 등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대상은 ‘피미일인’으로 표현된 임금이다. 따라서 〈제3수〉와 〈제4수〉의 시적 대상은 다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3수〉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로 소거(所居)할가	성현이 속여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풍은 사라지지 않음.
〈제4수〉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하	피미일인(임금)에 대한 그리움

오답 해설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 종장은 설의적 표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의적 표현을 반복한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설의법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허료 →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허료 → 허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허료

② 〈제1수〉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자족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제2수〉에 와서도 이어져 연하, 풍월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2수〉의 말미에 허물없는 삶을 살겠다는, 삶에 대한 경계를 더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1수〉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허료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자 함.
〈제2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벼를 삼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 함.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자연 속에서 늙어 가며 허물이 없기를 바람.

③ 〈제2수〉까지는 자연 속에서의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3수〉에 와서는 ‘순풍’, ‘인성’ 등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관심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⑤ 〈제4수〉에서는 ‘유란’, ‘백운’ 등의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제5수〉에 와서는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벗어난 곳을 지향하는 ‘교교백구(현자)’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24 시어의 함축적 의미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5수〉에서 ‘갈매기’는 자연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갈매기’에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간접적으로나마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교백구’는 자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세속에 관심을 두는 인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교백구’는 비판의 대상이지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존재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천석고황’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이라는 뜻으로 자연 속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②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의미하고, ‘풍월’은 바람과 달을 의미하는 시어로, 세속과 구분되는 자연을 가리키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 ③ ‘유란’은 계곡에 있고 ‘백운’은 산 위에 펼쳐진 대상으로, 화자가 향기 맡기 좋고 보기 좋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아름답게 감상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⑤ ‘화만산’은 춘풍에 의해 펼쳐진 풍경이고 ‘월만대’는 가을밤에 의해 펼쳐진 풍경인데, 가득 찼 ‘만(滿)’ 자에 의해 충만한 느낌을 자아낸다.

25 정서의 파악과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1수〉의 화자는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천석고황)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④는 박인로의 ‘누항사’의 한 대목으로,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꺾을 듯한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심, 충성심만은 잊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어 이와 거리가 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1수〉	허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허료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음.
선지 ④	기한(飢寒)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이질는가	일단심을 잊지 못함.

- 오답 해설** | ① 김천택의 시조로, 백구를 의인화하여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심정을 노래했다.
- ② 이현보의 「어부사」 〈제1수〉로, 속세와 단절한 채 천심녹수와 만첩청산, 달과 함께 자연 속 풍류를 즐기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송순의 시조로, 초가삼간에 ‘나’, ‘달’, ‘청풍’을 각각 채우고 강산은 둘러 두고 보겠다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 ⑤ 정극인의 「상춘곡」의 일부로,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자신의 풍류에 대한 자부심이 잘 나타나 있다.

현대어 풀이

- ① 갈매기가 말 좀 물어보자 놀려 말려루나. /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이 어디 어디 벌려 있더냐? /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거기에 가서 (함께) 놀리라.
- ② 굽어 내려다보니 깊고 푸른 물이고 주위를 돌아다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다. / 붉은 먼지가 열 길이나 되는 번잡한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 강호에 달이 밝으니 더욱무심하구나.
- ③ 십 년을 계획하여 초가삼간을 지어 내니 /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 두고 / 강과 산은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 ④ 가을철에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인들 담겨 있랴? / 빈곤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뭇이로구나. / 굶주리고 헐벗음이 몸을 괴롭힌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 ⑤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 옛사람들의 풍류는 내가 미칠까 못미칠까? / 세상의 남자로 태어나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26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제2수>에서 태평성대에 늙어 가면서 허물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제4수>에서도 「피미일인」, 즉 임금을 잊지 못한다 하여 유교적 가치를 또 한 번 제시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전원 생활에 들어와 살아 가는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를 ‘태평성세에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어 ‘밭을 갈고 배를 두드리며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산십이곡」과 <보기>의 화자는 둘 다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연 속 삶이라는 개인적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세속을 지향하는 이를 비판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다른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자연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세속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 역시 자신이 있는 곳과 세속을 구분하여 자신이 처한 곳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5수>	엇더타 교교백구(蛟蛟白駒)는 멀리 머무 두는고	자연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비판함.
<보기>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 뚝배기도 네 가지나 마을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세속과 자신의 삶을 구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함.

- ③ 「도산십이곡」은 <제1수>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에서 오는 만족감을 드러내며, <제2수>~<제6수>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보기>의 화자는 자신에게 밭, 뽕나무, 물, 나무 등이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화자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안분지족을 느끼게 하는 소박한 대상이다.

고전 시가 4

STEP

A

1등급 도전문제

27 ⑤

28 ③

29 ④

30 ④

31 ②

32 ⑤

33 ①

34 ⑤

[27~31] 작품 분석

(가) 상춘곡(賞春曲)(정극인)

▶ 제목의 의미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노래’라는 뜻이다.

▶ 갈래 가사(은일 가사, 강호한정가)

▶ 시적 상황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전원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하고. /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미칠까.
• 자연과 하나가 되어 흥취를 즐김.	
작품 속 근거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 주제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安貧樂道)

▶ 특징

① 3(4) · 4조, 4음보 연속체로 운율을 형성함.		
작품 속 근거	홍진(紅塵)에 V 묻힌 분네 V 이내 생애 V 어떠하고. 옛사람 V 풍류를 V 미칠까 V 못 미칠까.	
② 대구법, 감정 이입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작품 속 근거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대구법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 소리마다 교태로다.	감정 이입
③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도화행화(桃花杏花) → 녹양방초(綠楊芳草) → 수풀에 우는 새	

▶ 어휘 풀이

- 홍진(紅塵): 붉은 먼지, 속세.
- 지락(至樂):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 수간모옥(數間茅屋): 몇 칸 초가집.
- 벽계수(碧溪水): 물빛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 울울리(鬱鬱裏): 우거진 숲.
- 도화행화(桃花杏花): 복숭아꽃과 살구꽃.
- 녹양방초(綠楊芳草):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나) 율리유곡(栗里遺曲)(김광옥)

▶ 제목의 의미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청빈한 삶을 살며 지은 작품이다. <제1수>에서 작가는 자신을 「귀거래사」의 도연명이라 자처하는데, 도연명이 예전에 살던 마을 이름도 율리였다.

▶ 갈래 시조(전 17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자연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일이 만족스러움. 전원적, 자연 친화적	
작품 속 근거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 주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

▶ 특징

비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아무리 맏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 어휘 풀이

- 만호후(萬戶侯):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갈숲: 갈대숲.
- 군마음: 쓸데없는 생각을 품은 마음.
- 헛글고 싹근: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 필마(匹馬): 한 필의 말.

27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는 첫 구절인 ‘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하고.’에서 알 수 있듯이, ‘홍진에 묻힌 분네(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제6수> 역시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하고.	청자: 홍진에 묻힌 분네
(나)	어와 저 백구(白駒)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청자: 백구

오답 해설 | ① (가)는 일관되게 아름다운 봄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는 데 비해, (나)는 각 연마다 다른 일화들을 제시하며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고자 함.)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홍진(세속)’과 ‘산림(자연)’의 대비를, (나)는 ‘삼공(높은 벼슬 - 세속)’과 ‘강산(자연)’의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를쏘냐.’와 (나)의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가)는 ‘엿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 소리마다 교태로다.’를 통해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제16수>의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를 통해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세속적 소유’를 지향하는 당대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화자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나)의 <제2수>에서는 백구가 ‘갈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 것을 ‘군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욕심을 드러낸 행동으로,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㉔은 소유하려는 것이요,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	세속적 소유 반대
㉔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고기를 잡아먹으려는) ‘군마음’ → 세속적 소유

오답 해설 | ① 화자가 소나무가 울창한 숲에서 바람과 달의 주인, 즉 자연을 즐기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은 소유하지 않은 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숲에서 우는 새와 더불어 교감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대상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④ 화자가 맑은 즐거움을 가진 상태에서 재력과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은 무소유의 즐거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⑤ 세속의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화자의 모습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모습에 가깝다.

29 시구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A]에서 화자는 새봄이 돌아와 도화행화가 피고, 녹양방초가 푸르고, 새들은 아양을 떠는 듯하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과 일체감에서 오는 흥겨움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반면 [C]에서는 동풍이 불어 쌓인 눈을 녹이고, 동서남북 모두에서 지난해 보았던 푸른 산이 드러나는 새봄에도 귀밀의 해묵은 서리, 즉 흰머리는 녹지 않는다고 말하며 늙어 가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화자가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봄’이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낸다고 볼 근거가 없다. 반면 [C]에서는 ‘동풍’이 부니 눈이 녹아 청산이 옛 모습을 되찾는 데 반해 화자의 흰머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고 하여, ‘다시 찾아온 봄’은 자연의 무한성을 드러내고, ‘귀 밀의 해묵은 서리’는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C]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자연의 시간] 봄이 되자 청산이 옛 모습을 찾음.
	↑ 대조	
	귀 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인간의 시간] 화자는 제 모습을 찾지 못함. → 늙음에 대한 한탄

② [A]와 [C]에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뿐, 둘 다 봄과 겨울의 대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엿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겨울 → 봄’으로 시간이 흐름.
[C]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③ [A]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 소리마다 교태로다.’에서 ‘새’를 의인화하여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에는 의인화의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동풍이 적설을 녹이는 것, 청산이 옛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의인화가 아니다.

⑤ [A]와 [C]에서는 근경(近景)에서 원경(遠景), 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을 찾기가 어렵다. 단지 [C]에서는 선경후경(先景後情)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0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정답 해설 | [B]에서 화자는 짝이 아닌 보리를 꾸었고, 많은 양이 아니라 한 말이 채 못 되지만 ‘다나 쓰나 어이리.(달든 쓰든 상관아 없다.)’라고 하여,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B]의 모습은 부정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B]	뒷집에서 한 말이 채 안 되는 거진 보리를 꾸.	안분지족(安分知足)

오답 해설 | ① 전체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주는 것 마구 쥘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③ 보리를 빌려 술을 빚어 마시는 삶에 대해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⑤ <제6수>의 화자와 같이 ‘군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보기>의 ‘사람들’은 탐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백로를 유유자적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제6수>의 화자는 백구의 의도(고기를 노림.)를 파악하고 군마음(욕심)을 버릴 것을 권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마음은 오히려 강 물고기에게 있는데	백로의 내면: 물고기를 탐냄.
	사람들은 말하네, 세상 시름 잊고서 있다고.	백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초연한 존재
(나) <제6수>	어와 저 백구(白鵠)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수록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겸만 들면 어찌리.	백구에 대한 화자의 태도: 고기를 노리고 있는 백로에게 자신처럼 욕심을 버리기를 제안함.

오답 해설 | ① (나)의 <제6수>는 탐욕스러운 백구와 욕심 없는 화자의 대비가 나타나 있으나, <보기>에는 그러한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는 (나)의 <제6수>의 화자와만 어느 정도 연관된다.

④ <보기>에서는 ‘사람들’이 백로의 외면만을 보고 그 내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으나, 이에 대해 화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의 <제6수>에서는 물고기를 노리는(욕심을 가진) 백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는데, 화자가 백로에게 자신처럼 군마음 없이 잠이나 자라고(욕심을 버리고 은거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 현실을 체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보기>에서 ‘사람들’은 백로의 표면적인 모습만 주목하지만, 화자는 백로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본질을 간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제6수>에서도 화자가 물고기를 노리는 백로의 의도를 말하는 상황이므로, 대상의 내면적 본질을 간파하였다고 볼 만하다.

black label 특강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을 의미한다. 대체로 고전 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용어로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을 뜻하는 안빈낙도(安貧樂道)가 있다.

예 안분지족의 사상이 담긴 작품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여 草廬三間(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맛져 두고
江山(강산)은 들일 댜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준의 시조 —

[32~34] 작품 분석

(가)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이이)

▶ 제목의 의미

작가가 고산 석담(石潭)에 은거하며 그곳의 풍광을 묘사하고, 이를 학문을 향한 정진과 연결하여 노래한 작품으로, 서곡 1수와 본문 9수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의 이미지를 시간의 순서와 연관시켜 아침(제1곡)에서 달밤(제8곡)에 이르는 하루의 시간적 순환과 봄(제2곡)에서 겨울(제9곡)에 이르는 한 해의 질서에 따라 형상화하고 있다.

▶ 갈래 시조(전 10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고산에 은거하며 그곳의 경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함.	
작품 속 근거	살림이 승지(勝地)를 몰온이 알게 혼들 었더리.

▶ 주제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과 학문의 즐거움

▶ 특징

① 각 수의 초장에서 ‘~곡(曲)’은 어드미고 ~다.’를 반복함. → 고산의 특정 장소를 소개하고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여 완결성을 더함.	
작품 속 근거	일곡(一曲)은 어드미고 관암(冠巖)에 히 빗친다.
	이곡(二曲)은 어드미고 화암(花巖)에 춘만(春曉)커다.
	삼곡(三曲)은 어드미고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② 작품 전체에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중의적으로 표현함.	
③ 한자어 사용이 두드러지고,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어휘 풀이

- 관암(冠巖): 갯바위(봉우리 이름).
- 평무(平蕪): 잡초가 무성한 평평한 들.
- 녹준(綠樽): 좋은 술동이.
- 화암(花巖): 꽃바위.
- 벽파(碧波): 푸른 물결.
- 취병(翠屏): 꽃나무의 가지를 이리저리 틀어서 문이나 병풍 모양으로 만든 물건.
- 하상기음(下上其音): 소리를 낮추었다가 높였다 하며 노래를 부름.
- 반송(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현대어 풀이

<제1곡> 일곡은 어디인가? 갯바위에 해가 비쳤도다.

잡초 무성한 들판에 안개가 걷히니, 먼 곳 가까운 곳이 그림 같구나.

소나무 숲 속에 술동이를 놓고 벗이 찾아온 것처럼 바라보노라.

<제2곡> 이곡은 어디인가? 꽃바위에 봄기운이 가득하도다.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멀리 들판으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명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제3곡> 삼곡은 어디인가? 취병에 나뭇잎이 우거졌구나.

푸른 나무에 봄철의 새의 소리를 낮추었다가 높였다 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반송이 바람에 흔들리니 여름 풍경이 아니구나(매우 시원하구나).

(나) 편양정가(俛仰亭歌)(송준)

▶ 제목의 의미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고향 전남 담양에 편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치와 그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가사(양반 가사, 은일 가사, 강호한정가)

▶ 시적 상황

편양정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풍류 생활을 돌아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자신의 풍류 생활에 자부심을 느낌.		
작품 속 근거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자연을 즐기는 일 때문에 여유가 없음.

▶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君恩)에 대한 감사

▶ 특징

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나모 새 우거져 녹음(綠陰)이 무르익은 적의	여름
	즌서리 빠진 후의 산빛치 금수(錦繡)로다.	가을
	조물(造物)리 현수(玄雪)하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겨울
② 비유, 대구, 반복, 점층, 생략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 편양정 주변의 경치를 묘사함.		

▶ 어휘 풀이

- 양풍(涼風): 서늘한 바람.
- 즌서리: 진서리. ‘수증기’의 방언.
- 금수(錦繡): 수놓은 비단.
- 만경(萬頃):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
- 어적(漁笛): 어부의 피리.
- 현수(玄雪): 야단스러워.
- 경궁요대(瓊宮瑤臺):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 여기서는 눈 덮인 자연을 비

유함.

- 옥해은산(玉海銀山): 옥같이 맑고 깊은 바다와 흰눈에 덮인 산.
- 건곤(乾坤): 천지.
- 시비(柴扉): 사립문. 사립작(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달아서 만든 문.
- 청려杖(靑藜杖): 명아쭈대로 만든 지팡이.

현대어 풀이

나무 사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어우러진 때에 높은 난간에서 긴 줄을 내려 떠나 물 위의 시원한 바람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안개 걷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누런 구름(벼가 누렇게 익은 가을의 들판)은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어부의 피로도 흥을 못 이겨 달을 따라 (계속)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눈에) 문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에 펼쳐졌구나. 천지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롭구나.
속세를 떠나와도 이 몸이 여유가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니, 밤은 언제 졸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는가? (자연을 완성하느라) 아침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싶겠느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는가?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도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길을 전하겠느냐?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다) 유산가(遊山歌)(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화창한 봄날을 맞아 산에 가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잡가

▶ 시적 상황

봄을 맞이해 자연의 풍류를 즐기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것을 예찬함.	
작품 속 근거	유상영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씨고.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이더든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 주제

봄의 아름다운 경치 완상(玩賞)과 감흥

▶ 특징

① 4·4조의 운율이 주조를 이루지만 파격이 많음.		
② 대구법, 열거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의태어와 의성어가 빈번하게 사용됨.		
작품 속 근거	유상영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층암(層巖) 절벽상(絶壁上)에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러온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대구법, 은유법 의태어, 의성어
③ 한시구와 우리말 표현이 혼용되어 쓰임.		

▶ 어휘 풀이

- 죽장 망혜(竹杖芒鞋): 대지팡이와 짚신. 먼 길을 떠날 때의 간편한 차림새를 일컫는 말.
- 단표자(單瓢子): 하나의 표주박.
- 만산홍록(滿山紅綠): 온 산에 붉은빛과 푸른빛이 가득함.
- 창송취죽(蒼松翠竹):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 기화요초(琪花瑤草):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
- 난만중(爛漫中): 꽃이 활짝 피어 화려한 가운데.
-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 고깃배를 타고 물가를 따라가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즐김.
-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 버드나무 가지들이 푸르게 늘어짐.
- 황산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 황산 골짜기에 봄이 돌아옴.
- 소부(巢父) 허유(許由): 중국 요임금 때의 은자.
- 기산(箕山) 영수(潁水): 소부와 허유가 은거하던 곳.

현대어 풀이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표주박 들고 천 리 강산 들어가니 온 산의 꽃들은 일 년에 한 번 다시 피어나서 봄빛을 자랑하느라고 색깔마다 붉었는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은 활짝 피어 화려한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여기저기 날고 있도다.
버드나무 위로 나는 피꼬리는 조각조각 모두 금이요, 꽃 사이에 춤추는 나비는 가루가루 흩어 지는 눈이로다. 봄 석 달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구나. 복숭아꽃은 만발하여 점점이 붉고, 고기잡이배를 띄워 놓고 봄을 즐기니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 아니냐? 버드나무 가지는 가닥가닥 녹색을 띠고, 황산 골짜기에 봄을 맞았으니 도연명이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지냈다는 곳이 여기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오르며),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떨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 리 강산 먼 길을 어찌 갈까 하고 슬피 운다.
먼 산은 첩첩, 태산은 우뚝하며,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였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늘어지고 구부러져 성난 바람에 흥이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
층층 바위 절벽 위의 폭포수는 팔팔 쏟아지는데, 마치 수정발을 드리운 듯, 이 골짜기 물이 주루룩, 저 골짜기 물이 살살 흘러내리고,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한곳에 합수하여 천방지방으로 솟아오르고 퍼져 나가고 끝없이 이어지고 방울지며 흐르다가 건너편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와 허유가 (세상과 단절하고) 서로 묻고 답하며 지내던 기산과 영수가 바로 여기가 아니냐?

3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보기>에서는 고전 시가 작품 속 자연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자연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는 경우, 이 둘이 겹쳐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을 적용할 때 (다)의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에 주목할 뿐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묘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고산에 은거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에 주목하고 있을 뿐, 현실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③ (나)에서 노동의 고통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④ (다)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으나, 화자가 서민의 삶의 태도를 드러냈거나 양반 계층과 자신을 비교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33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제3곡>을 보면 화자는 맑은 물에 꽃을 띄워 속세로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보기>의 화자는 늙은 중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곳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아름다운 경치를 남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자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살림이 승지(勝地)를 물은이 알게 혼들 었더리.	명승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누리고자 함.
(보기)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를 남다려 현사 마오. 경요굴 은세계(銀世界)를 찾을 이 이실세라.	다른 이들이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 찾아올까 염려함.

<보기> 현대어 풀이

공산에 쌓인 입을 삭풍이 가두어 들어듯이, (삭풍이) 불어 때구름을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 오니 조물주가 호사스러워 욕으로 꽃을 만들어 수많은 나무와 수물을 꾸며 내었구나. 앞 여울물은 가리어 얼고, 외나무다리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막대를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고? 산옹의 이 (정신적) 부귀를 남에게 자랑 마오. 경요굴(성산)의 눈이 덮인 은거지를 찾을 이가 있을까 두렵구나.

오답 해설 | ② <보기>의 화자는 자연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즐

기고 있다.

- ③ <보기>의 ‘부귀’는 물질적인 부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귀를 가리키는 것이다.
④ (가)에는 봄과 여름 경치만이 나타나 있다.
⑤ <보기>의 화자와 늙은 중은 모두 성산에 있는 존재이기에 공감을 유도할 이유가 없고, 인사를 건네라는 충고 또한 (가)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

34

시구 사이의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③과 ⑤은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뜨고 나서 천 리 강산을 어떻게 갈까 하고 슬피 우는 것이므로, 시간의 선후로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 오답 해설** ① 해가 비춤.(원인) → 따뜻해지면서 안개가 걷힘.(결과)
② 바람이 있음.(원인) → 여름인데 시원함.(결과)
③ 내 몸에 겨를이 없음.(원인) → 떨어진 꽃을 쓸 수 없음.(결과)
④ 돌아다니느라 설 틈이 없음.(원인) → 지팡이가 닳아 무디어 감.(결과)



- 01 ①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④ 09 ① 10 ⑤

[01~05] 작품 분석

(가) 초암이 적료한테(김수장)

▶ 갈래 시조(평시조, 단시조)

▶ 시적 상황

세속에서 벗어나 한적한 초가에서 홀로 거문고를 타며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번잡한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홀로 은거함.	
작품 속 근거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한테 벗 업시 혼자 안자
•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낌.	
작품 속 근거	언의늬이 조흔 뜻을 알리 잇다 하리오.

▶ 주제

한적한 자연에서 느끼는 정취

▶ 특징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평조(平調) 한 님에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 어휘 풀이

- 초암(草庵): 갈대나 짚, 풀 따위로 지붕을 엮은 암자.
• 평조(平調): 국악에서 쓰는 속악 음계의 하나로, 낮은 음조임. 평조로 된 음악은 흔히 화창하고 화평스러운 느낌을 줌.

현대어 풀이

초암이 적적이고 고요한데 벗 없이 혼자 앉아
평조 한 곡조에 흰 구름이 절로 존다.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하겠는가?

(나) 만흥(萬興)(윤선도)

▶ 제목의 의미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이다. 제목과 같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시조(전 6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작자가 해남 금쇄동에 은거할 때 지은 작품이다. 화자는 어지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유희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분수에 맞는 것으로 여김.	
작품 속 근거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분(分)인가 하노라.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낌.	
작품 속 근거	아마도 임천만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작품 속 근거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다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하라 하시도다.

▶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 특징

① 자연과 속세를 대비함.		
작품 속 근거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뒤집, 바윗곳 물가, 먼 뼤, 강산(江山) 등	자연(이상적 공간)
	삼공(三公), 만승(萬乘), 인간 만사(人間萬事), 다토리 등	속세(현실적 공간)
② 우리말의 모미를 잘 살림.		
작품 속 근거	말삼도 우음도 아녀도 몰내 도하하노라.	
	다만당 다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하라 하시도다.	

▶ 어휘 풀이

- 뒤집: 띠집(풀로 지붕을 엮은 집).
• 하얗: 향암(鄉闇).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 또는 그런 사람.
• 슬카지: 실컷.
• 삼공(三公):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룸.
• 만승(萬乘): 만 대의 병거(兵車)라는 뜻으로,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 소부 허유(巢父許由): 부귀영화를 마다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의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주겠다고 하자 허유는 더러운 물을 들었다고 하여 강물에 귀를 씻었으며,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여 소를 끌고 돌아갔다는 데서 유래한다.
• 임천만흥(林泉閑興):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

현대어 풀이

<제1수>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띠집을 지으려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제2수>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의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제3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임이 온들 반가움이 어려할 것인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제4수> 누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천자가 이만하겠는가?

이제 해아려 보니 소부 허유가 약았더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한가로운 흥취는 비할 데가 없구나.

<제5수>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이름) 하늘이 아서서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하냐도 아니 말거

다만 다투 이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01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고요한 자연 속에서 홀로 거문고를 타며 자연과의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홀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독백조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와 (나) 모두 대구와 반복이 나타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의 '삼공(三公)'과 '만승(萬乘)', '소부 허유'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상일 뿐,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닛다 허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삼정승이나 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강조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巢父許由) 낙돏더랴.	자연에 묻혀 산 소부와 허유가 현명했다고 여김.	

④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⑤ (가)는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대조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모두 보여 주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평조(平調) 한 님에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화자와 흰 구름(자연)이 하나가 됨.
(나)	삼공(三公), 만승(萬乘), 인간 만사(人間萬事), 님다당 님다리 업슨 강산(江山)	인간과 자연의 대조
	말삼도 우음도 아녀도 문내 도하하노랴.	인간과 자연의 조화

0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A]에서 화자는 잔을 들고 산을 바라보며 그리던 임에 비교하여 산이 더 반갑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이 자신에게 웃음도 말씀도 보내지 않아도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에서는 대상과의 비교나 삶의 변화 시도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종장과 [A]의 종장에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가 드러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평조(平調) 한 님에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화자와 흰 구름의 교감
[A]	말삼도 우음도 아녀도 문내 도하하노랴.	화자와 먼 산의 교감

③ (가)의 종장을 보면 '어느 누가 이 즐거운 뜻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A]의 종장에서도 '그리던 임이 온들 반가움이 이리할 것인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종장에서 거문고를 통해 '백운'과의 교감을, [A]의 화자는 초장에서 술잔을 통해 '먼 뫼'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평조(平調) 한 님에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흰 구름에게 거문고 곡조를 연주해 줌.
[A]	잔 들고 혼자 안자면 뫼를 바라보니,	먼 산을 술잔구 삼아 술을 마심.

⑤ (가)의 초장과 [A]의 초장에는 모두 '혼자'라는 시어가 나온다. 두 시의 화자는 모두 홀로 있으면서 유유자적(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3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 <제3수>의 시적 대상은 '뫼'로 대표되는 자연 속 삶이라고 할 수 있

다. <제4수>의 시적 대상 역시 '임천한흥(林泉閑興)'으로 집약되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수>와 <제4수>의 시적 대상이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자연 속에 피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분수라고 하면서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② 자연 속에 집을 지은 후,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제4수>에서 '임천한흥(林泉閑興)'에 대한 자부심은 <제5수>의 '강산을 덕히라'와 연결되어 속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제4수>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흥취는 속세의 다른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 여김.
	<제5수> 다만당 님다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하 시도다.	자신의 일은 속세를 벗어나 오직 자연을 지키는 것이라 여김.

⑤ 화자가 자신의 본성을 하늘이 알아서 인간의 일은 맡기지 않고 자연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고 한 것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은 하늘이 내려 준 것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04 시어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에서는 하늘이 화자에게 '인간 만사'는 한 가지도 맡기지 않고 '강산'을 지키는 일만 맡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 만사'는 화자가 떠난 세속을, '강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맛되	인간 만사: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
	다만당 님다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하 시도다.	강산: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오답 해설 | ① '산슈' 사이에 '뫼집'을 짓고 사는 모습에서, 화자가 자연 속의 소박한 공간을 지향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② '보리밥', '뫼나물'은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소재로, 안빈낙도의 삶의 모습과 어울린다.

③ '뫼'는 자연을 나타내며, '님'은 속세의 인물이므로, 두 대상은 대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삼공'과 '만승'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와 대비되는 속세의 권력자를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이들이라도 자연 속에서 사는 자신만 하겠느냐고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05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했다.' 정도가 된다. 이러한 풀이와 <보기>를 참조한다면, ㉠에서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한 소부와 허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巢父許由) 낙돏더랴.	소부, 허유는 현명한 인물임.
<보기>	허유는 일언지하(一言之下)에 이를 거절하고,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영천수에서 귀를 씻었다.	소부, 허유는 속세의 권세를 거부하는 인물임.
	소부(巢父)가 전후 사정을 듣고 그러한 더러운 물은 소에게도 마시게 할 수 없다며 돌아갔다.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소부와 허유를 긍정하며, 자연 속에 사는 삶이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보다 자신이 낫다는 자부심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화자는 속세를 떠난 인물들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졌

다고 볼 수 없다.

④ 화자는 소부와 허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허유와 소부는 둘 다 요임금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므로, 둘 모두 현실에 개입하는 삶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임금이 되어 달라는 부탁에 소부가 허유보다 거부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은 맞으나, 소부가 허유를 비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단, 화자가 두 사람을 모두 본받으려고 했다고는 볼 수 있다.

[06~10] 작품 분석

(가) 만언사(萬言詞)(안조환)

▶ 제목의 의미

‘만언(萬言)’은 ‘만 마디 말’, 즉 ‘많은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언사’는 유배지에서 생활과 심정을 비교적 길게 토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갈래 가사(유배 가사)

▶ 시적 상황

작자가 유배되었을 때 쓴 시이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유배 생활을 고통스러워함.	
작품 속 근거	가슴이 터져 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창을 갖춰 내어 이 설움 답답할 게 여달이나 보고지고.
• 임금을 그리워함.	
작품 속 근거	평생에 곱던 님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 주제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소무의 복해 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라	
② 자연물에 말을 거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백구야 날지 마라. ~ 내 가슴 쏘아 해쳐 흥중의 붉은 마음 꿰어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백구’에게 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충심을 암시함.

▶ 어휘 풀이

- 고미장자: 고미다락의 땡장지. ‘고미다락’은 지붕 밑의 빈 공간을 말함. ‘장지’는 방과 방 사이,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을 말하며, ‘땡장지’는 안과 밖에 두꺼운 종이를 겹바른 장지를 말함.
- 세살장자: 세살장지(가는 살을 가로세로로 좁게 대어 짠 장지).
- 완자창(卍字窓): 창살이 ‘卍’자 모양으로 된 창.
- 소무(蘇武): 중국 전한 시대의 명신.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 19년 간 억류되었다가 귀국함. 오랜 세월 절개를 굳게 지킨 공으로 전속국(소수 민족을 담당하던 관직)에 오름.
- 귀불귀(歸不歸): 한번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함.
- 풍상(風霜): 바람과 서리.
- 천고절(千古節): 아주 오랜 세월 변치 않을 굳은 절개.
- 팔: 둘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
- 가웃: 어떤 분량의 약 반에 해당하는 양.
- 품(品): 품질.
- 청울치: 칠명굴의 속껍질. 칠의 속껍질로 쪼갠 노(가늘게 꼬아 만든 줄).
- 사립(蓑笠): 도롱이(蓑,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와 삿갓.
- 마혜: ‘마혜(麻鞋)’의 잘못. ‘마혜’는 미투리(삼이나 노 따위를 짚신처럼 삼은 신)를 뜻함.
- 조대(釣臺): 낚시터.
- 홍일(紅日): 붉은빛을 띤 해. 새벽에 막 떠오르는 붉은 해.

- 만경창파(萬頃蒼波): 만 이랑의 푸른 물결. 한없이 넓은 바다.
- 은린옥척(銀鱗玉尺):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물고기’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 취어(取魚): 물고기를 낚음.
- 의취(義趣): 옳은 뜻.
- 성상(聖上):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일간죽(一間竹): 한 칸 길이의 대나무. 낚싯대를 말함.
- 일없다: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 붉은 마음: 단심(丹心).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현대어 풀이

가슴이 터져 오니, 터지거든 구멍을 뚫어 / 고미장지와 세살장지로 완자창을 내어 / 이 설움(가슴에 가득 차서) 답답할 때 열거나 닫거나 해보고 싶구나. / 아, 설마 한들 어떻게 하겠는가. / 세상에 귀양살이하는 이가 나뿐이며 (정든) 사람들과 이별한 이가 나 혼자이겠는가. / 중국의 소무도 북해에서 억류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있었으니 / 나 홀로 이 고생이 설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될까. / 무슨 일이든 마음 붙여 시름을 잊어야겠다. / 작은 낚을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 바람과 서리가 섞여 불어 온 세상이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오랜 세월 변치 않고 푸른 대나무는 혼자 불빛을 띠었구나. 붉은 대나무를 꺾어 내어 잔가지 쳐 다듬으니 / 한 발의 반쯤 되는 길이의 낚싯대는 품질이 좋게 만들어졌구나. 청울치 가는 줄에 맨 낚싯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 이웃집 아이들이 오늘 날씨가 좋다. / 셋바람(동풍 혹은 봄바람) 불지 않아 물결이 고요하니 물고기가 많이 몰릴 때라 함께 낚시질하러 가자구나. 도롱이는 걸치고 삿갓은 찢혀 쓰고 미투리는 조여 신고 / 낚시터로 내려가니 대나무를 스치는 바람이 한가하게 불어온다. / 멀고 가까운 산천에 붉은 햇빛이 비추었으니 넓은 바다가 모두 다 금빛으로 빛나는구나. 낚시를 드리우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니 / 물고기가 알아서 (낚시줄을) 무는구나. / 굳이 내 마음에는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옳은 뜻(자연을 즐기자 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라. / 낚싯대를 들어올리니 사방에 잠들어 있던 갈매기가 / 내가 들어올린 낚싯대의 그림자에 자기를 잡을 줄로만 여겨 / 다 놀라 날아가는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왕께서 나를 버리시니 나는 너를 좇아 여기까지 왔노라. / 너는 본래 영물(신령스러운 동물)이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지. / 평생에 걸쳐 사랑하던 임과 천 리의 거리로 이별하고 / 사랑은 물론이거니와(사랑은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움도 견디기 어렵구나. / 근심이 쌓이니 내 마음을 돌 데 없어 / 흥 없는 낚싯대를 별로 소용없이 들었으니 / 물고기도 잡을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너를 잡겠는가. / 그래도 나를 못 잡겠거든 내가 가진 긴 부리로 / 내 가슴을 쏘아 해쳐서 가슴속의 붉은 피(혹은 진심)를 / 기쁘게 꺼내어 볼 양이며 네가 당연히 알게 될 것이로다.

(나) 만보(晩步)(이항)

▶ 제목의 의미

‘해질녘의 걸음’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갈래 한시(오언 절구)

▶ 시적 상황

추수철의 어느 저녁 무렵 산책을 하며, 주변 경관과 수확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학문에 대한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읽을 많아 어지러이 책을 뽑아 놓았다가 이리저리 훑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
•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미진하다고 여겨 회한에 잠김.	
작품 속 근거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 주제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과 학문적 경지를 돌아봄.

▶ 특징

① 해질녘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함.		
작품 속 근거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② 농민들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함.		
작품 속 근거	농사짓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농민들: 결실의 기쁨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화자: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회한

▶ 어휘 풀이

- 프락: 뜯.
- 재: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 숙원(宿願):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
- 회포(懷抱):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06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백구’에게 임(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그리움, 충심)을 알아 달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갈까마귀’와 ‘해오라기’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네(백로)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평생에 곱던 님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 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일편단심을 드러냄.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종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네(백로)가 응당 알리로다.	
(나)	갈까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해오라기 우둑 서니 모습 흰칠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인생에서 성취한 것이 없다고 한 탄환.

오답 해설 | ① (가)는 ‘뒷동산’에서 ‘바닷가(‘냇빛대’, ‘백구’ 등의 단서로 미루어 알 수 있음.)’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나)는 ‘방 안(‘책’을 정리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서 ‘프락’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의 공간 이동이 화자의 갈등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며, 화자의 갈등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③ (가)의 화자는 귀양을 온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고, (나)의 화자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한다. 두 작품 모두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두 작품의 화자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⑤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의 변화된 모습이나 세월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이 작품은 ‘불특정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웃집 아이들’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독자에게 작가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당대에 잘 알려진 상투적인 구절들을 가져와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청자로 설정함.

오답 해설 | ① ‘소무의 복해 고생’을 끌어들이 귀양을 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든 귀양살이에 대한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풍상이 섞여 치고 만물이 소슬한’ 상황에서도 늘 ‘푸른 대나무’를 통해, 자신도 비록 귀양지에서 고통받는 처지이지만 임금에 대한 절개와 충성심을 잃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냇시’는 실제로 고기를 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⑤ ‘백구’를 말벗으로 대하는 모습이나 그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데에서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

08 시구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화자는 해질 무렵에 산책을 하다가 가을 들판, 즐거워하는 농민들의 모습, 그리고 절기를 알려 주는 갈까마귀와 흰칠한 모습을 한 해오라기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해오라기를 본받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화자는 해오라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날을 자책하고 있을 뿐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해오라기 우둑 서니 모습 흰칠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우둑 선 해오라기와 숙원을 풀지 못한 화자 자신을 대비함.

오답 해설 | ① ‘잊음 많아’라는 앞 구절을 통해 책을 어지럽게 뽑는 행위가 이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시간은 날이 저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자의 인생이 저무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③ ‘농사짓 가을걷이 가까워지니’라는 앞 구절을 통해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기뻐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이 회포를 뉘에게 얘기할거냐.’라는 앞 구절을 통해 홀로 거문고를 타는 행위에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할 상대가 없어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09 표현의 특징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 화자는 자신의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가슴에 구멍을 뚫어 창을 만들고, 그 창을 통해 서럽고 답답할 때마다 가슴을 열어 심정을 표출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가슴이 터져 오니	문제 상황: 가슴이 답답함.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 창을 갖춰 내어	해결 방안: 가슴에 창을 뚫.
	이 설움 답답할게 여달아나 보고지고.	기대 효과: 가슴이 괴로울 때 창을 열고 단음.

오답 해설 | ② 비교의 방식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나,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양살이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은 사람이 화자 자신 말고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멀고 가까운 산과 바다에 붉은 해가 비치고 물에는 금빛 그림자가 비친다는 뜻으로, 햇빛이 자연을 비추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원근 풍경을 대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임금과의 이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점층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유사한 통사 구조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10 표현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㉔에서 (화자를) 버린 행위의 주체는 ‘성상’이고, ‘너(백구)’를 쫓는 행위의 주체는 화자이다. ㉕에서 ‘붉은 마음’으로 인해 ‘성상’이 화자를 버렸다는 알 수 없다. ‘붉은 마음’은 화자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시어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 ‘버리다’의 주체: 성상 • ‘좇다’의 주체: 화자
(나)	흥종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붉은 마음: 화자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소재

오답 해설 | ① 성상이 버려서 이곳에 온 것이라는 말에서, 귀양을 온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있다.

② 자신의 가슴 속 붉은 마음(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갈매기에게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③ 화자는 임금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④ ㉔와 ㉕은 모두 갈매기를 향한 독백이라고 할 수 있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②	18 ⑤	19 ④			

[11~15] 작품 분석

봉선화가(鳳仙花歌)(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규방의 여인이 봉선화를 소재로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갈래 가사(규방 가사)

▶ 시적 상황

백화보에서 봉선화에 대해 알아본 후, 직접 봉선화를 길러 손톱에 물을 들이고, 시간이 흘러 시들어 떨어지는 봉선화 꽃잎을 읊는다.

▶ 정서 및 태도

• 봉선화의 정숙한 기상을 높이 평가함.	
작품 속 근거	정정(貞靜)한 저 기상을 여자 외에 누가 보았을까.
• 봉선화 물을 들인 결과에 만족해함.	
작품 속 근거	꼭 잎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올겠는가.
• 봉선화가 떨어지는 것을 슬퍼함.	
작품 속 근거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 주제

봉선화를 통해 드러낸 여성의 정회

▶ 특징

① 여성들의 일상과 정서를 밝은 분위기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규방의 일이 업서 백화보(百花譜)를 펼쳐 보니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다 핀 꽃을 캐어다가		봉선화가 핏.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임.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봉선화가 짐.	
③ 대조되는 대상을 통해 봉선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봉 선화: 꽃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함.	봉선화와 도리화를 대비하여 봉선화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냄.
	도리화는 잠깐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누가 슬퍼할까.		도리화: 꽃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음.	

▶ 어휘 풀이

- 섬돌: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 정정하다(貞靜--): 여자의 행실이 곧고 깨끗하며 조용하다.
- 난만하다(爛漫--):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하다. 광채가 강하고 선명하다.
- 홍로(紅露): 붉은 이슬.
- 서왕모(西王母):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녀의 이름. 불사약을 가진 선녀라고 하며, 음양설에서는 일몰의 여신이라고도 함.
- 녹의홍상(綠衣紅裳):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이르는 말.
- 표연하다(飄然--): 바람에 날부끼는 모양이 가볍다.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는 모양이 거침없다.
- 암암이(黯黯--): 암암히. 깊숙하고 고요하게.
- 의구하다(依舊--):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

- 도리화(桃李花): 복숭아꽃과 자두꽃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현대어 풀이

규방에 할 일이 없어서 백화보를 펼쳐 보니 '봉선화'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신선의 통소 소리가 저 멀리 신선이 사는 곳으로 사라진 후에 규방에 남은 인연이 한 송이 꽃에 머물렀으니, 연약한 푸른 잎은 봉황의 꼬리가 넘보는 듯하며, 활짝 핀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쳐 놓은 듯 하구나.

고운 섬돌위의 층은 흙으로 촉촉하게 심었으니 봄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가 비웃지 마소. 그 향기에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 그런 것이라네. 정숙한 기상을 지닌 저 꽃과 벗이 되려는 사람이 여자 외에 누가 있겠는가.

옥난간에 기대어 오래도록 보아도 다 못 보아, 창문을 반쯤 열고 어린 종을 불러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상자에 담아 놓고, 바느질을 끝낸 후 안채에 밤이 깊어 촛불을 밝혔을 때, 그 상자 앞으로 다가가 바로 앉아서 흰 구슬을 갈아 고운 손바닥에 놓고 난만하게 으깨어 놓으니, 페르시아 제후의 붉은 산호를 해쳐 놓은 듯하고 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붉은 도마뱀을 빨아 낸 듯하다. (붉은 가루를 손톱 위에 놓고 종이로 갈은 후) 곱고 가느다란 열 손가락을 수실(수놓을 때 쓰는 실)로 감아 놓으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듯하고, 미인의 얇은 뺨 위에 붉은 이슬이 맺히는 듯하고, 단단히 묶은 모양이 비단에 옥으로 글씨를 쓴 편지를 서왕모에게 부치는 듯하다.

봄잡을 늦게 깨어 (수실로 묶은 열 손가락을)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려 하니,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하여 손으로 (그 붉은 꽃을)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고 하니 (입김이) 안개처럼 거울을 가리는구나. 친구와 서로 약속해서 만나 (붉은 꽃처럼 물든 손가락을) 즐겁게 자랑하고, 봉선화의 빛깔과 손톱의 빛깔을 비교하니, 쪽 잎의 푸른빛이 쪽빛보다 푸르다는 말이 정말로 옳구나.

조용히 풀을 매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더니, 연둣빛과 붉은빛의 옷을 곱게 차려 입은 여인이 사뿐하게 와서 옷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하는 듯, 작별을 고하는 듯하다. 여럿이 잠에서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봉선화의 꽃귀신이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한 것 같구나. 수막을 휘 걷어 꽃이 만발한 수놓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 (떨어져서) 수를 놓았다. 마음 깊이 슬퍼하며, 떨어진 꽃잎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꽃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붉은 자취가 내 손에 머무르지 않는가." 동산의 복숭아꽃과 자두꽃은 (지고 나면 그뿐이니) 잠깐의 봄을 자랑하지 마소. 몇 번의 봄바람에 쓸쓸히 꽃잎이 떨어질들 누가 그것을 슬퍼할까. (나의 손톱에 붉게 물들어) 규방에 남은 인연은 그대 (봉선화) 한 몸뿐일세. 봉선화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이유로 봉선화 하였구나.

11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이 작품은 봉선화라는 꽃을 소재로 한 내방 가사로, 봉선화는 화자가 기르고 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는 등 직접 경험하는 존재이지 부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봉선화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지도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고운 섬돌 좋은 흙에 촉촉히 심어 내니	봉선화를 심음.
흰 구슬을 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爛漫)히 깨어 내어 파사국(波斯國) 저 제후(諸侯)의 홍산호(紅珊瑚)를 해쳐 놓은 듯, 심궁 풍류(深宮風流) 절구에 홍수궁(紅守宮)을 빨아 낸 듯, 곱고 가느다란 열 손가락을 수실로 감아 내니,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임.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봉선화가 짐.

오답 해설 | ① 봉선화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전통적인 풍속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② 앞부분에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에서 묻고, '신선의 통소 소리~ 신선의 옷을 펼쳐 놓은 듯.'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 나타나 있다.

③ '정정(貞靜)한 기상'을 지닌 봉선화에 대한 애정과 예찬의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④ 화자는 규방의 여인으로, 이 작품에서는 여성의 삶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는 손톱에 들인 봉선화 물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애상적인 정서는 찾아내기 어렵다. 한편 이 글은 봉선화 꽃잎이 떨어지는 것에서 애상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윗글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依舊)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무르지 않는가.	봉선화가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함.
<보기>	금빛 화분 저녁 이슬 규방에 어러니 여인의 열 손가락 길고도 고와라.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인 여인의 손가락의 아름다움을 예찬함.

오답 해설 | ①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동일한 행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이 글에서 화자가 친구를 불러 봉선화 물을 들인 손을 서로 자랑하며 비교하는 것에서, 봉선화에 대한 애정이라는 동일한 정서를 친구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는 봉선화 물을 들인 여인의 아름다움을 독백조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화자 홀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는 봉선화 물을 들인 여인의 손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가 넘노는 듯, 태연하게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쳐 놓은 듯’과 같은 표현을 통해 봉선화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⑤ 이 글의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과 같은 표현과 <보기>의 ‘호랑나비 날아온 듯’, ‘복사꽃잎 떨어진 듯’과 같은 표현은 모두 봉선화 물을 들인 손의 아름다움을 직유를 이용하여 보여 주고 있는 구절이다.

13 표현의 특징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 화자는 꿈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깨어난 후, 꽃 귀신이 자신에게 와 하직을 했다고 여긴다. 이는 봉선화가 시들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자는 문을 열고 낙화를 보며 봉선화를 향해 한스러워하지 말라며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依舊)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무르지 않는가.	봉선화는 해마다 피어나며, 화자의 손에 봉선화 물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들어 위로함.

오답 해설 | ① 이 부분은 떨어진 꽃, 즉 ‘낙화’가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므로 봉선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꿈속에서 꽃귀신의 하직 인사를 받고, 깨어나 문을 열고 낙화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뒷부분에서는 땅에 떨어진 봉선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화자에게 봉선화는 꽃이 진 후에도 자신과의 인연이 남아 있다고 하여 오랫동안 기억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화는 낙화한다 해도 ‘누가 슬퍼할까’라고 하여 슬퍼하는 이가 없어 기억에서 쉽게 잊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依舊)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무르지 않는가.	봉선화: 해마다 피는 꽃으로, 화자의 손톱에 자취를 남김으로써 화자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존재	
동원(東園)의 도리화는 잠깐 피었다 지는 꽃으로, 꽃이 진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누가 슬퍼할까.	도리화: 잠깐 피었다 지는 꽃으로, 꽃이 진 다 해도 슬퍼하는 이가 없는 존재	

오답 해설 | ① ㉠과 ㉡은 화자의 바깥에 있는 사물들로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은 화자에게 교감의 대상이나, ㉡은 교감의 대상이 아니다.

③ ㉡이 화자가 지닌 현실적 한계를 자각시켜 준다는 내용은 문맥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⑤ ㉠은 화자에게 덕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은 외양만 화려한 존재로 그려져 있다.

15 소재의 성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규방에 남은 인연’은 ‘그대 한 몸뿐일세’와 연결해 보면 봉선화 자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봉선화의 일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	절구에 홍수궁(紅守宮)을 뺏아 낸 듯	(손톱에 물을 들이기 위해) 으깬 봉선화 꽃잎
㉡	미인의 얇은 뺨에 홍로(紅露)를 끼친 듯	(손톱에 뽕) 봉선화 꽃물
㉢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손톱에 뽕) 봉선화 꽃물
㉣	쪽 잎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올겠는가.	(손톱에 뽕) 봉선화 꽃물
㉤	규방의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일세	봉선화 자체

오답 해설 | ① ‘홍수궁’은 ‘붉은 도마뱀’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손톱에 물을 들이기 위해 뺏은 붉은 봉선화 꽃잎을 의미한다.

② ‘홍로’는 ‘붉은 이슬’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손톱에 뽕 봉선화 꽃물을 의미한다.

③ 가지에 붙어 있는 ‘붉은 꽃’은 손톱에 뽕 봉선화 꽃물을 의미한다.

④ ‘쪽 잎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은 청출어람(靑出於藍)을 나타내는 말로, 봉선화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였더니 그 색이 원래의 봉선화보다 더 곱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쪽빛’은 봉선화(의 색)를, ‘쪽 잎 푸른 물’은 손톱에 뽕 봉선화 꽃물(의 색)을 가리킨다.

[16~19] 작품 분석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신계영)

▶ 제목의 의미

전원에서의 생활과 감회를 춘(春)·하(夏)·추(秋)·동(冬) 4계절에 따라 각각 2수씩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2수는 선달 그믐날 밤의 심회를 노래한 것이다.

▶ 갈래 시조(전 10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전원에 묻혀 살아가면서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완상하고, 이런 삶에서 여유와 흥취를 느낀다. 또 이에 덧붙여 선달 그믐날을 맞은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근면하게 농사일을 할 것을 권장함.	
작품 속 근거	아히야 올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하야라
• 전원에서의 삶에 흥겨움을 느낌.	
작품 속 근거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깨오자
• 늙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함.	
작품 속 근거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 주제

전원에서 계절에 따라 누리는 유유자적한 삶

▶ 특징

① 각 계절의 풍경과 경치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봄날이 점점 가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매화(梅花)는 벌써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봄
	잔화(殘花) 다 딴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 닭의 소리로다	여름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느껴 있다 긴들 황운(黃雲)이 한 빗치 퍼거고야	가을
	북풍이 노피 부니 압피에 눈이 딛다 모침(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겨울

② 종장에 '아히야'를 반복함으로써 형식적 통일성을 확보함.	
작품 속 근거	아히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하야라.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깨오자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하노라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랴 하로라

▶ 어휘 풀이

- 잔설(殘雪): 녹다 남은 눈.
- 잔화(殘花): 거의 지고 남은 꽃. 시들어 가는 꽃.
- 백일(白日): 구름이 끼지 않아 밝게 빛나는 해. 대낮(완히 밝은 낮).
- 계면도: 계면조(국악에서 쓰는 음계의 하나. 슬프고 애타는 느낌을 주는 음조로, 서양 음악의 단조와 비슷함.)
- 황운(黃雲): 누런 빛깔의 구름.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현대어 풀이

〈제1수〉 봄날이 점점 길어지니 남은 눈이 다 녹았구나.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 누렇게구나.
아이야, 율타리 잘 고치고 채소밭 갈게 하야라.
〈제3수〉 남은 꽃 다 진 후에 녹음이 깊어 간다.
대낮 외따로 떨어진 마을에 낮에 우는 닭의 소리로구나.
아이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깨우자.
〈제5수〉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늦었구나.
긴 들에 익은 곡식이 누런 빛이 되었구나.
아이야, 빛은 술 걸러라. 추흥(秋興) 겨워 하노라.
〈제7수〉 북풍이 높이 부니 앞산에 눈이 내린다.
초가지붕 처마의 찬 빛을 보니 석양이 거의 되었구나.
아이야, 공죽 먹었느냐? 먹고 자려 하노라.
〈제9수〉 이보게,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거워 마라.
수다스러운 세월이 젊은 나이를 찾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거워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1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의 '사시가'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이 글을 감상하면, 각 연에서 '봄-여름-가을-겨울'로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인간은 계절의 변화를 알고 이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사시가'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제1수〉	잔설, 매화, 버들가지: 봄
〈제3수〉	잔화, 녹음, 백일: 여름
〈제5수〉	서리, 황운, 추흥: 가을
〈제7수〉	북풍, 눈: 겨울

오답 해설 | ①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② 일종의 관습구인 '아히야'의 반복을 통해 각 연 사이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제1수〉, 〈제3수〉, 〈제5수〉, 〈제7수〉의 앞부분에는 경치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이 나온다. 이로 보아,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⑤ 〈제1수〉와 〈제3수〉에 전원에서 볼 수 있는 봄과 가을의 일상적 풍경이 각각 나타나 있다.

blacklabel! 특강 선경후정(先景後情)

작시(作詩)의 한 방법(方法)으로, 먼저 경치에 관한 묘사가 나타나고, 뒤에 정서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한시의 전형적인 창작 기법이나, 시조나 가사 등 고전 시가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다. 현대시 중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작품이 많다.

㉠ 비가 갠 뒤 긴 언덕에 풀빛만 짙어지는데.
입을 남포로 보내니 슬픈 노래만 흐르네. } 선경
대동강 물은 언제나 되어야 마를까.
해마다 이별의 눈물에 푸른 물결만 더하네. } 후정

— 정지상, 「송인(送人)」—

17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A]에서는 아이들을 향해 새해가 온다고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세월이 흘러 금방 늙게 됨을 지적하고 자신의 늙음을 한탄한다. 〈보기〉에서는 늙은 화자가 늙은 사람들을 만난 정서(반갑고 즐거움)를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이바 아히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사한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세월이 젊음을 앗아 감을 경계함.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늙음에 대한 탄식
〈보기〉	늘그나 늘그나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늙은 사람들을 만나 반갑고 즐거움

오답 해설 | ① [A]에는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는 즐거움이 나타난다.

③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은 〈보기〉에만 나타나고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화자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⑤ [A]는 현재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보기〉는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이 글의 지배적인 주제 의식은 '전원에서 누리는 사계절의 즐거움과 유유자적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9수〉의 내용은 이 작품 전체의 주제와 구별되어 대상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을 집약했다고 볼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9수〉	이바 아히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사한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아이들에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므로 즐겁게 노는 데만 치중해서는 안 됨을 당부함.

오답 해설 | ① '잔설', '녹음', '서리', '북풍', '눈' 등을 통해 자연의 계절감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종장의 첫 음보에 '아히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③ '아히야'가 아닌 '아히들아'라는 복수로 표현하여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며,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19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이 글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은 북풍이 불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 겨울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나, 이 표현이 화자의 무심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잔설이 녹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낮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여름날의 한가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③ 곡식이 익은 들판을 '황운(누런 구름)'에 비유하여 가을날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백발’을 통해 나이를 나타내고, ‘우리도’를 통해 자신도 겪은 과거의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 고전 시가 ③ ▶

20 ⑤

21 ④

22 ③

23 ③

24 ⑤

25 ⑤

26 ②

27 ④

28 ⑤

[20~23] 작품 분석

작품명(鑿水行)(김창협)

▶ 제목의 의미

‘얼음을 깨러 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한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양반들이 이용하던 석빙고를 얼음으로 채우려면 수많은 백성들의 수고로움이 필요했음을 드러내며, 여름에도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대비되어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조하게 된다.

▶ 갈래 한시

▶ 시적 상황

민중들이 한겨울에는 얼음을 캐느라 고통당하고, 여름에는 더위로 고통을 겪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현실의 부조리를 강하게 비판함.	
작품 속 근거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텅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 주제

한겨울에 얼음을 캐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한여름에 얼음을 즐기며 살아가는 지배 계층의 대비를 통한 현실 고발과 비판

▶ 특징

① 서사적인 내용 전개를 통해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늦겨울 한강 가에 → 고대광실 오뉴월 무더위 폭폭 떨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②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함.		
작품 속 근거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텅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그대: 청자

20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여름날에도 얼음을 먹으며 더위를 모르고 사는 양반들과 더위를 먹고 죽어 텅구는 백성들의 대비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여인의 하얀 손이 맑은 얼음 내어오네. 그 얼음 깨 자리에 두루 돌리니, 말건 대낮에 하얀 안개가 피어나네. 웁자지꼴 이 양반들 더위를 모르고 사니	여름에 얼음을 먹는 양반들의 호화로운 생활 - 비판의 대상

↑대조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텅구는 백성들	무더위에 목숨을 잃는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 - 연민의 대상

오답 해설 | ① 시적 화자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으며, 작품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② 겨울에서 여름으로의 계절 변화는 나타나고 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므로 상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의 목소리는 나타나나 시적 대상인 백성들의 목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미지의 전이는 공감각적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작품에는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black label 특강_ 이미지의 전이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한다. 이는 여러 가지 감각이 단순히 나열된 복합 심상과는 구별된다.

예 [이미지의 전이]

-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 - 청각의 시각화
- 금(金)으로 타는 태양(太陽)의 즐거운 올림 - 시각의 청각화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시각의 촉각화

[복합 심상]

-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 청각적 심상+시각적 심상
-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 후각적 심상+시각적 심상

21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얼음 채취를 위한 강제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특히 [A]의 고달픈 백성들의 처지와 [B]의 편안한 양반들의 삶을 대조시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A]와 [B]의 상황이 반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백성들이 얼음 채취 부역을 하는 모습 - 겨울	↔ 대조
[B]	백성들이 채취한 얼음을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 - 여름	
[C]	모순된 현실에 대한 개탄스러운 심정 → 작가의 목소리	

오답 해설 | ① [A]에는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백성들의 고달픈 모습이 담겨 있다.

② [B]에는 한여름에 얼음을 즐기고 있는 지배층의 모습이 담겨 있다.

③ [C]에는 ‘얼음 뜨는 그 고생을 누가 알아주랴’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에 작가의 비판적 어조가 직접 드러난다.

⑤ [C]에는 여름에 더위 먹고 죽어 텅구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A]에는 겨울에 한강에서 고통스럽게 얼음을 채취하는 모습을 통해, 겨울에도 여름에도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2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관찰자의 위치에서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에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얼음을 캐느라 고통을 받고 더위에 쓰러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백성들을 외면하는 양반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보기>에서는 제비의 호소를 통해 양반들의 횡포와 백성들의 고통을 우의적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19~21행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텅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양반들에 대한 비판 의식
<보기>	제비 다시 지저귀며 / 사람에게 말하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뒹진다요.”	

오답 해설 ① 비교적 직접적으로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글에 비해, <보기>는 ‘제비(백성)’, ‘황새와 뱀(탐관오리)’ 등을 활용하여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우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은 겨울에는 얼음을 캐느라 고통받고 여름에는 더위를 먹어 쓰러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지배층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탐관오리의 수탈에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지배층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겨울에는 얼음을 캐느라 고생하다가 여름에는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백성들의 고통을 그려 냈을 뿐이다. 반면, <보기>에서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제비는 삶의 터전을 갈구하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⑤ <보기>에서는 과장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 글에서는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네’, ‘찍어 낸 얼음이 설산처럼 쌓이니’ 등에서 과장법이 사용되어 얼음을 캐는 데 동원된 민중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2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①은 지배 계층의 호의호식과 백성들의 죽음을 대비시켜 지배 계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여인의 하얀 손’은 지배 계층의 여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생으로 볼 수도 있다. 또 얼음을 내어오는 행위 자체는 폭력적이거나 허위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구절이 지배 계층의 폭력적인 허위 의식을 보여 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누가 알아주리’는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겨울날 고통을 겪으며 얼음을 찍어 낸 민중들의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마지막 3행은 도치를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튕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뜨던 자들이니.	일반적인 어순에 따르면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가 맨 뒤로 와야 하지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도치법을 사용함.

④ ‘그대’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화자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님을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⑤ ①의 앞부분에서는 백성들이 시적 대상이 되며, ①에서는 ‘고대광실’의 ‘양반들’, 즉 지배 계층이 시적 대상이 된다. ①에서는 양반들의 호화로운 삶과 백성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24~28] 작품 분석

북찬가(北竄歌)(이광명)

▶ 제목의 의미

‘북쪽에서 은둔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간 작자의 처지와 창작 동기를 드러낸다.

▶ 갈래 가사(유배 가사)

▶ 시적 상황

유배지에서의 척박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유배 온 것을 억울하게 여김.	
작품 속 근거	미진 실음 풀작시면 분니곤고(分內困苦) 현수할가
•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괴로워함.	
작품 속 근거	안즌 곳의히 디우고 누은 자리 밤을 새와 좁든 밧기 한숨이오 한숨 땀히 눈물 일시

• 홀로 계실 어머니를 염려함.

작품 속 근거	어느 때에 증으시며 무스거스 잡스논고 일절의리(一點衣履) 숨히더니 어느 주손 디신홀고 나 아니면 뉘 되시며 주모(慈母) 밧기 날 뉘 꿔고
---------	--

▶ 주제

유배지에서의 괴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임금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유배 가사와 달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작품 속 근거	학발주안(鶴髮慈顏) 못 보거든 안독서신(雁足書信) 주출염은
	나 아니면 뉘 되시며 주모(慈母) 밧기 날 뉘 꿔고
② 중국의 고사를 인용함.	
작품 속 근거	쥬국 낙영(秋菊落英) 업슨 곳에 녕군(靈均)인들 석찬(夕餐)홀가 고죽 두견(苦竹杜鵑) 못 들으니 낙턴(樂天)이도 할 말 업니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여의(如意) 일흔 농(龍)이오 지 업슨비 아난가

▶ 어휘 풀이

- 삭풍(朔風):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 귀보리: ‘귀리’의 옛말.
- 니팔: 니팔. ‘입쌀(멥쌀을 보리쌀 따위의 잡곡이나 찹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의 잘못.

현대어 풀이

겨울바람은 들이치고 사산(서울의 4개 산)의 골짜기에
해묵은 얼음이 있고, 이른 가을에 눈이 오네.
온갖 풀이 일찍 시들어 버리니 곡식이 가득 찰 수 없네.
귀보리밥으로도 (끼니를) 못 이으며 쌀이야 구경할 수 있을까?
채소도 (못 먹어) 굶주리니 생선과 고기를 생각할까?
가족웃으로 여름을 나니 배웃으로 추위를 어찌 견딜까?
상서로운 별천지에 산과 바다에서 얻은 진귀한 음식을 어디에 두고
힘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 살기 어려운 곳에서 만물(유배 전에 누리던 것들)을 그리워하는가?
가을 국화 떨어지는 꽃이 없는 곳에 굴원인들 저녁 식사를 할까.
참대나무에 두건새 소리 못 들으니 백거이도 할 말이 없네.
맺힌 시름을 풀어 보자면 내 분수가 고생스럽고 딱함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바위 없는 산의 맛이 없는 술은 그나마도 사교파는 이가 없고,
기생이 연주하는 음악이 있다 해도 언제가 되어야 거문고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것인가?
장평산, 하천강 유람에도 뜻이 없네.
민간의 풍속도 좋다고는 하지만 나에겐 더 오는 것이 없다.
대중 들보로 담고 흙을 바른 방에 두문불출하고 홀로 있어
파리와 모기는 창을 뒤덮고 벼룩과 굴뚝이는 벽을 가득 채웠는데,
앉은 곳에서 해가 지고, 누운 자리에서 밤을 새워
잠들 때 외에는 한숨만 쉬고, 한숨 끝에는 눈물이 난다.
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둘러서 평상시처럼 하고 싶구나.
흰머리를 한 어머니의 얼굴을 못 보니 기러기 발에 서신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는데,
기다린들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오길 기다리던 한 달이 넘네.
못 볼 때는 기다리지만 보면 시원할까?
어머니 소식을 내가 모르는데 내 소식을 어머니는 아실까?
많은 산과 물로 막힌 길에 괴롭고 고통스런 모든 생각들을 누가 헤아려 줄까.
문노라 밝은 달아, 양지(내가 있는 곳과 어머니께서 계신 곳)를 비추고 있느냐?
따르고 싶구나, 뜨는 구름, (구름이) 남쪽 하늘로 가느구나.
흐르는 냇물이 되어서 (어머니의) 집 앞에 돌려 흐르고 싶다.
나는 듯 새가 되어 (어머니의) 창 앞에 가 노닐고 싶다.
내 마음을 헤아려 보니 어머니의 마음은 말해 무엇 할까?
여의주를 잃은 용이오, 키가 없는 배 아난가?
겨울바람의 낙엽같이 어디에 가서 멈추어 정박할까?
문중의 여러 집안도 다 파산하고, 친척들도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거나 숨으니,
어디든 방황해도 갈 곳이 전혀 없네.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수시는가?
한 벌뿐인 옷과 한 켤레뿐인 신발을 살았는데 어느 자손이 대신할까?
나 아니면 누가 모시며,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날 사랑해 줄까?
남에게 없는 모자의 정리를 잠시도 떨어지지 못했는데
조물주를 움직이게 했는가, 이렇도록 떨어뜨려 놓았는가?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이 작품에서 의인화된 자연은 ‘돌(달)’이다. ‘달’은 화자가 하소연하는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어머니가 무탈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문노라 붉은 돌아 낭지(兩地)의 비최거노	달에게 두 곳(자신이 있는 곳과 어머니께서 계신 곳)을 비추는지 물을음. → 달을 통해 어머니의 소식을 알고 싶어함.

오답 해설 | ① ‘천산 만수(天山萬水) 막힌 길’에서 과장을 볼 수 있다.

② ‘마니사곡(摩尼沙谷) 별건곤(別乾坤)에 산진히착(山珍海錯) 어디 두고 / 화외 삼갑(化外三甲) 호난 악지(惡地) 백동만물(百種萬物) 그리노고’에서 화자가 살기 힘든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녕균(靈均)’과 ‘낙턴(樂天)’이라 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④ ‘귀보리밥 못 니으며 니뿔이아 구경홀가’에서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25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A]의 화자는 귀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인데 쌀은 구경이나 할 수 있겠냐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자신이 원래 먹던 음식은 진수성찬이었으나, 지금 먹는 음식은 보리밥과 짬 간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와 <보기>에서 구핍한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는 각각 ‘귀보리밥’과 ‘맥반염장’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귀보리밥 못 니으며 니뿔이아 구경홀가 • 귀보리밥: 구핍한 식사 • 니뿔: 풍요로운 식사
<보기>	옥식진찬(玉食珍饈) 어디 두고 맥반염장(麥飯鹽藏) 무슨 일고 • 옥식진찬: 풍요로운 식사 • 맥반염장: 구핍한 식사

오답 해설 | ① [A]의 ‘삭풍’은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의미하고, <보기>의 ‘남방 염천’은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를 의미하므로, 두 시의 계절적 배경이 각각 겨울과 여름임을 알 수 있다.

② 두 시의 화자는 모두 편안하게 살다가 힘겨운 상황에 놓여 괴로워하고 있다. [A]의 화자는 ‘별건곤(별천지)’에 있다가 ‘악지’로 오게 되었고, <보기>의 화자는 ‘금의화식(비단옷으로 화려하게 꾸밈.)’을 하다가 ‘현순백결(웃이 헤어져서 백 군데를 기움.)’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별건곤’과 ‘금의화식’은 모두 비참한 처지가 된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날의 삶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애상감을 유발한다 할 수 있다.

③ 두 시의 화자는 지난날 자신이 누리던 좋은 음식을 회상하는데, 이는 각각 [A]에서는 ‘산진히착’으로, <보기>에서는 ‘옥식진찬’으로 나타난다.

④ [A]의 ‘악지’는 화자가 살고 있는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을 나타내고, <보기>의 ‘귀신’은 화자의 신세가 절망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화자는 함경도에 유배를 와 있는 상황이다. 그곳에서 가족옷으로 여름을 난다는 것은 옷이 가족 옷 한 벌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의 날씨가 매우 추워 여름에도 가족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얇은 옷으로 어한(禦寒) 엇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족옷 과하(過夏) 후니	여름에도 날씨가 서늘함.
포피(布被)로 어한(禦寒) 엇지	베옷으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위가 심함.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열음이 녹지 않은 채 여러 해 남아 있고, 이른 가을에 눈이 오는 낯선 곳에 와 있다.

③ ‘대충 들보로 덮고 흙을 바른 방’이라는 의미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의미한다.

④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달아 어머니께 보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누가 조물주를 움직여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느냐는 한탄이 나타난다.

27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화자는 귀양살이를 하는 중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은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소식을 전할 길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구절로, 대상을 잊고 지내는 상황에 대한 탄식과는 거리가 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기드린들 통이 올라 오노라면 돌아 넘니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니는 쉬원홀가 노친 소식(老親消息)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老親) 알가	어머니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함.

오답 해설 | ① ‘기생이 연주하는 음악이 있다 해도 언제가 되어야 거문고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것인가?’로 풀이할 수 있다. 즉 화자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므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이다.

② 파리와 모기, 벼룩과 굼벵이는 화자를 괴롭히는 대상이다.

③ 꿈을 평상시처럼 하고 싶다는 것은,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⑤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수시는가?’로 풀이되므로 적절한 해석이다.

28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화자는 늙으신 어머니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중에 흐르는 냇물이 되어서 (어머니의) 집 앞에 둘러 흐르고, 나는 듯 새가 되어 (어머니의) 창 앞에 가 노닐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내’와 ‘새’는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담은 분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흐르는 내히 되어 집 압히 돌넛고져 나는 듯 새히 되어 창전(窓前)의가 노닐고져	내, 새: 화자의 분신.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대변함.

오답 해설 | ㉠ ‘히’는 자연물로, 시간이 흐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돌’은 기간을 세는 단위로, 화자가 어머니의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 ‘천산’은 어머니와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를 의미한다.



29 ① 30 ① 31 ③ 32 ④ 33 ④ 34 ③
35 ②

[29~33] 작품 분석

(가) 추흥(秋興)(두보)

▶ 제목의 의미

‘가을의 흥’이라는 의미로, 이때 ‘흥’은 흥겨운 감정이 아닌 비애와 한탄의 심정

이다.

▶ **갈래** 한시(7언 율시)

▶ **시적 상황**

가을 날의 쓸쓸한 정경을 바라봄.

▶ **정서 및 태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림.	
작품 속 근거	다시 핀 국화 보니 눈물은 또 흘러 배에 꼭꼭 매어두는 고향 그리움

▶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향수)

▶ **특징**

① 대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하늘에 닿을 듯 강물결 높이 일고 변방의 먹구름 땅에 낮게 깔렸네	가을의 쓸쓸한 정취
② 자연물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타향살이의 안타까움을 잘 나타냄.		
작품 속 근거	차가운 이슬, 쓸쓸한 무산과 무협, 높이 이는 강 물결, 낮게 깔린 먹구름, 눈물 나 게 하는 국화	

(나) 어부가(漁父歌)(이현보)

▶ **제목의 의미**

‘어부의 노래’라는 의미로, 화자가 자신을 어부로 설정하여 강물을 따라가며 보
이는 자연물을 묘사하고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준 작품이다.

▶ **갈래** 연시조(전 5수), 강호 한정가

▶ **시적 상황**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함.

▶ **정서 및 태도**

제1수	이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살기 를 소망함.
제2수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 애라.	자연에 몰입함.
제3수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분이 아라실고.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 람이 적응을 탄식함.
제4수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자연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추구함.
제5수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버리지 못함.

▶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적인 생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 떨쳐 버리지 못한 조정과 세상에 대한 근심

▶ **특징**

①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경 묘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임.		
작품 속 근거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구버난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② 속세와의 단절과 거리감이 나타남.		
작품 속 근거	구버난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속세와의 정서적 거리감과 단절감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인세=홍진. 속세를 잊고자 함.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연매나 가겠는고.	
③ 고려 때 전해 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강호가도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줌.		

▶ **어휘 풀이**

- 일엽편주(一葉片舟): 한 척의 조그마한 배.
- 만경파(萬頃波): 넓은 바다 물결.
- 천심녹수(千尋綠水):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 십장홍진(十丈紅塵):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
- 노적 화충(蘆荻花叢):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 자연의 참된 의미.

- 북궐(北闕): 궁궐. 임금이 계신 곳
- 제세현(濟世賢): 세상을 구제할 현인

현대어 풀이

- 〈1수〉 이런 속에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어부의 생애로다. /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뒤에 띄워 놓고 /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알겠는가?
〈2수〉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 강호에 밝은 달이 밝게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3수〉 연잎에 밤을 싸고 버들가지에 고기 끼워 /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에 배 매어 두고 /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떤 사람이 알 것인가?
〈4수〉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 갈매기가 난다. / 아무런 욕심 없이 다정한 이
는 이 두 것이로구나. /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5수〉 서늘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 리로구나. / 고기잡이배에 누워 있으면 잊은 적이 있으랴. /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세상을 구제할 현인이 없겠느냐?

(다) 텐동 어미 화전가(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부녀자들의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규방 가사로, ‘텐동 어미’의 삶의 내력이 주를
이룬다. ‘텐동 어미’는 아들이 불에 데어 텐동이가 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갈래** 규방 가사

▶ **시적 상황**

부인들이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하며 놀다가 청춘과부가 신세 한탄을 하자 텐동
어미가 자신의 삶의 내력을 이야기함.

▶ **정서 및 태도**

• 청춘과부: 홀로 된 외로운 처지를 한탄함.	
작품 속 근거	새소리 들려도 회심하고 꽃 핀 걸 보아도 비창하되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 하 여야 좋을 거나.
• 텐동 어미: 운명론적 사고를 드러내며 청춘과부를 위로함.	
작품 속 근거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가. 운명 도망 못 할지라.

▶ **주제**

조선 후기 어느 여인의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삶

▶ **특징**

① 화전놀이의 과정을 묘사한 뒤 청춘과부와 텐동 어미의 대화로 전개됨.	
② ‘텐동 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냄.	
작품 속 근거	화전놀이를 떠나 놀던 중 한 청춘과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자 텐동 어미가 자 신은 중인 출신으로 네 번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모두 죽어 과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며 개가를 말함.

▶ **어휘 풀이**

- 만단정담: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
- 일장설화: 한바탕의 이야기.
- 축저감창: 닥치는 곳마다 슬픈 감정이 들.
- 비창: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 어리장고리장: 곱게 곱게.
- 치행: 길 떠날 여장.
- 풍후: 얼굴이 살쥔 너그러워 보임.
- 구고님: 시부모님.
- 현알: 지체가 높은 사람을 찾아 뵈.
- 추천: 그네.

29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가을이 되어 핀 국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이유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
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으나, 4, 5수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상에 대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연 속의 삶과 현명한 신하로서의 삶 사이
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다)에는 짝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

는 청상과부의 한탄과 남편을 잃은 텐동 어미의 고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다)의 시적 화자는 모두 내적 고뇌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다시 편 국화 보니 눈물은 또 흘러 배에 꼭꼭 매어두는 고향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적 고뇌를 겪음.
(나)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나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를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고기잡이배에 누워서도 세상일을 잊은 적이 없다면서도 자신이 없어도 제세현이 있다며 애써 잊으려 함.
(다)	보나니 족족 눈물ियो 들나니 족족 한숨일세. 천 하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한스러움

오답 해설 ② (가)와 (다)는 외부의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할 수 없다.

③ (가)~(다)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투사하고 있으나, (나)는 자연물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가)는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 (다)는 입과 헤어진 현실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나, (나)는 조정과 세상에 대한 근심을 떨치지 못했을 뿐 현실에 실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와 (다)는 관련이 없으며, (나)의 경우는 자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 둘을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는 고전 시가에서 자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삶과 교감하는 대상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가)의 자연은 타향살이를 하는 화자에게 애상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지, 화자가 자연 속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이슬, 산, 강 물결, 먹구름, 국화’ 등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연을 통해 타향살이의 안타까움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는 자연물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타향살이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자연은 머릿속으로 떠올린 자연이 아니라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실경(實景)이다.

31 정서와 표현 의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시적 화자는 1수~4수에서 속세와의 단절감을 드러내며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내비친다. 그런데 5수에서는 임금 계신 곳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종장에서 세상을 다스릴 현명한 신하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시름할 일이 아니라며 애써 잊으려고 한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도 만족스럽지만 임금을 잊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세속을 벗어나려고 있으려는 것이지 현실 정치에 안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임금 계신 곳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정치 현실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러우면서도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⑤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다. 1수~4수에서 세속을 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자 한 것에서 자연 속 삶과 세속의 삶을 연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나)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일시적으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으나 1수~4수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과는 단절하려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굴원’ 역시 세속의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겠다며 세상과 단절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가난 주를 알랴.	인간 세상을 잊고자 함.
<보기>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관을 털어서 쓰고,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 고 했소. 강물에 몸을 던져 물고기의 뱃속에서 장사를 지낼지라도, 어찌 희디 흰 결백함으로서 세속의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쓰겠소.”	세속과의 단절을 추구함.

오답 해설 ① (나)에는 삶의 내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의 어부는 안분지족의 경지가 아니라 시류에 영합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③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둘 다 관련이 없다.

⑤ (나)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생애를 드러내었고, <보기>의 어부는 일반 직업으로서의 어부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이동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어부 - 풍류객 → 안분지족의 삶 추구
<보기>	어부가 물기를 “온 세상이 혼탁하다면, 왜 그 흐름을 따라 그 물결을 타지 않으십니까?”라 했다.	어부 - 물고기를 낚는 사람 → 시류에 영합하는 삶 추구

33 시어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의 청춘과부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입과 헤어진 상태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낼 뿐 내적 정서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의 ‘피꼬리’나 <보기>의 ‘귀도리’가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내적 정서를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피꼬리 소리 깨우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좇들만 경경불멸하니	피꼬리 - 꿈속에서 임을 만나 정답을 하려고 하는데 잠을 깨움 → 원망의 대상
<보기>	제 혼자 우리 네어 사창 여원 잠을 살드리도 깨우는구나.	귀도리 - 여원 잠을 깨움 →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병상련의 존재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 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오답 해설 ① 결과적으로 ‘피꼬리’와 ‘귀도리’는 화자를 잠 못 이루게 하므로 전전반측(顛轉反側,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에 이르게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의 잠을 깨운다는 점에서 ‘피꼬리’와 ‘귀도리’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③, ⑤ (다)의 ‘피꼬리’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 그동안의 회포를 풀려 했는데 꿈을 깨워 화자의 원망을 사고 있고, <보기>의 ‘귀도리’는 외로운 밤을 보내는 화자에게 동병상련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34~35] 작품 분석

(가) 비가(悲歌)(이정환)

▶ 제목의 의미

원 제목은 ‘국치비가(國恥悲歌)’로,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통분히 여겨 지은 작품이다.

▶ 갈래 연시조(전 10수)

▶ 시적 상황

병자호란의 패배로 볼모가 된 소현 세자를 걱정하며 인간사를 돌아봄.

▶ 정서 및 태도

• 볼모로 잡혀 간 두 왕자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함.	
작품 속 근거	반갑다 학가(鶴駕) 선용(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호노라.
• 인간사(국치)를 한탄함.	
작품 속 근거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랑겨워 호노라.

▶ 주제

- 국난에 통분한 마음
- 볼모로 잡혀 간 왕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병자호란의 국치를 겪은 비통함

▶ 특징

① 도치법, 의인법, 대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	
작품 속 근거	• 도치법: 문노라 이 내 꿈아 / 만 리나 먼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 • 의인법: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랑겨워 호노라.: 너희 → 풀 • 대조법: 구렁에 낫는 풀(시름 없음) ↔ 우리(시름 많음)
② 국지(國恥)에 대한 비분강개를 꾸밈없는 직설적인 어법으로 노래함.	

현대어 풀이

〈제1수〉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 묻노라. 이 내 꿈아. / 만 리나 먼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
녀왔는가? / 반갑도다. 학을 타신 신선(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친히 뵈 듯하다.
〈제2수〉 눈바람 섞여 친 날에 물어보노라. 북쪽에서 온 사신이며. / 소현 세자의 근황은 어떠하
신지. 얼마나 추우실꼬 / 고국에 남아 차마 죽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하노라.
〈제8수〉 골짜기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저절로 자라네. / 풀은 애통함을 알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냐. / 우리는 사람이 되어 너희만 못하니 시름겨워 하노라.

〔나〕 선상탄(船上嘆)(박인로)

▶ 제목의 의미

‘배 위에서의 탄식’이라는 의미로, 임진왜란에 대한 작가의 정서가 담겨 있다.

▶ 갈래 전쟁 가사

▶ 시적 상황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아직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부산진에 통주사(統舟師)로 내려옴.

▶ 정서 및 태도

•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작품 속 근거	준피 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결항(乞降) 후야소라.
• 우국충정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구	
작품 속 근거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서,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호노라.

▶ 주제

전쟁에 대한 한탄과 우국충정(憂國衷情) 및 평화에 대한 기원

▶ 특징

① 민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룸.	
작품 속 근거	국운(國運)이 불행(不幸) 후야 해추 흥모(海醜兇謀)에 만고수(萬古羞)을 안고 이서
② ‘배’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밧고, 어니 사이(四夷) 엿볼넌고. 무슴 일 후려 후야비 못기를 비롯호고.
③ 역사상 인물과 중국 고사 등을 빈번하게 인용함.	
작품 속 근거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輗氏)를 애드노라.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中達)을 멀리 좃고, 발 업손 손빈(孫臏)도 방연(龐 涓)을 잡아거든.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들 못 홑것가.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서,

▶ 어휘 풀이

- 주사(舟師): 수군. 곧 통주사.

- 여기 진목(勵氣瞋目): 기운을 내고 눈을 부릅뜸.
- 어리미친: 어리석고 미친.
- 현원씨(軒輗氏): 배를 처음 만든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의 이름.
- 만세천추(萬世千秋): 오랜 세월.
- 궁달(窮達): 곤궁과 영달. 여기서는 임금과 신하의 신분.
- 설분신원(雪憤伸冤): 분함을 씻고 원한을 풀어 버림.
- 서절구투(鼠竊狗偷): 쥐나 개 같은 도적. 여기서는 왜적들.
- 결항(乞降): 항복하여 용서를 빚.
- 욕병생(欲竝生): 함께 살고자 함.
- 요순 군민(堯舜君民): 태평성대의 백성.
- 일월 광화(日月光華): 해와 달의 빛. 임금의 성덕을 가리킴.

현대어 풀이

이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사기에,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지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한 지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감히 올라 기운을 떨치고 눈
을 부릅뜨며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 있고,
이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배 위에 이리저리 거닐며 예로부터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어리석고 미친 듯한 생각에 배
를 처음 만든 현원씨를 원망하노라. 큰 바다가 넓고 이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가 많은 만리 밖에서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것인가? 무슨 일을 하
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던가? 장구한 세월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천하에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하는구나. (중략)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
이에 떨어뜨리는구나.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라마는,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천추를 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변변히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신하와 임금의 신분
이 서로 달라 모시지 못하고 늙은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이야 어느 시
각인들 잊었을 것인가?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장한 기운은 늙으면서 더욱 씩씩하다마는, 보잘것없는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함을 씻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기가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
러나 죽은 제갈공명도 산 중달을 멀리 좃았고, 발이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늘,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이 성하고 목숨이 이어 있으니, 쥐나 개와 같은 왜적을 조금인들 두려워하겠는가?
(㉠)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할 리가 있겠는가?

벌레처럼 구물대는 저 섬나라 오랑캐들아, 열은 항복하여 용서를 빌려무나. 항복하는 자는 죽
이지 않으니, 너희들을 구태여 모조리 다 죽이랴? 우리 임금님의 거룩한 덕이 너희와 다 같이
잘 살기를 바라시니라.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의 화평한 군민처럼 되어 있어, 해와 달의 빛이
매일 아침마다 광영하거든,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배를 타고 낚도록 노래하
고,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어, 성군 치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누려 보리라.

3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태자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의 화자는 자신과 달리 걱정할 일이 없는 풀이 부럽다고 한다. 또한 (나)의 화자는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 있는 중달을 쫓아내고, 발이 없는 손빈이 방연을 잡은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은 목숨이 붙어 있고 사지가 멀쩡하니 적을 추풍낙엽처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즉 (가)와 (나)는 모두 비교의 방식으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black label 특강 고사의 내용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中達)을 멀리 좃고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을 두려워하던 사마중달(위나라)이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갔으나,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세운 묘책으로 실패하고 만 이야기를 이룸.
발 업손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손빈이 방연의 배신으로 발이 잘렸으나, 뛰어난 지략으로 방연을 잡아 죽인 고사를 이룸.

오답 해설 ① (가)는 ‘풀’, (나)는 ‘복신’ 등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흥소냐.	근심 걱정이 없는 풀을 부러워함.
(나)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 노루(傷時老淚)를 천 일방(天一方)의 디이느다.	북극성, 즉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때를 근심함.

② (가)는 <제2수>의 ‘소해 용안(小海容顔)이 언제나 치오신고’에, (나)는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니 각(刻)에 이줄넌고’,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런들 못 홀 것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④ (가)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반면 (나)는 ‘제갈공명’, ‘요순’ 임금 등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왜적 섬멸의 의지와 풍류적 삶을 즐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는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으나 (나)에는 왜적을 향해 ‘항복하라’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준피 도이(羣彼島夷)들아 수이 결항(乞降)후야소라.	오랑캐들에게 항복을 명함.

35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A]에서는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학가 선용’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보기>에서는 남편을 ‘임’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표현했다. 즉 두 작품 모두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⑤ [A]의 화자는 학을 탄 신선 같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직접 본 것같이 꿈이 생생하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보기>의 화자는 집을 나간 남편을 꿈속에서라도 보려고 했으나 잎 소리와 짐승 소리에 잠이 깨어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③ [A]의 화자는 ‘학가 선용’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A]에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기>에는 화자와 달리 일 년에 한 번 임을 만나는 ‘견우직녀’를 제시하여 소식이 끊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 현대어 풀이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임을 보려고 하였던니 바람에 지는 잎과 물 속에 우는 벌레는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번씩 때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려졌길래 온다간다는 소식마저 그쳤을까?

STEP
B

<고전 시가 ⑤>

1등급 완성문제

36 ④

37 ⑤

38 ⑤

39 ⑤

40 ②

41 ④

42 ④

43 ④

44 ③

45 ⑤

[36~40] 작품 분석

(가) 소상야우(瀟湘夜雨)(이제현)

▶ 제목의 의미

소상(瀟湘)은 중국 후난성(湖南省)에 있는 것으로,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동정호(洞庭湖)를 가리킨다. 이곳은 예로부터 절경(絶景)으로 유명하여 소상강을 배경으로 한 한시와 그림이 매우 많이 창작되었다. 당시의 선비들에게 동정호는 절경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작품은 형식상 소상강가에 서서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상을 바탕으로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갈래 한시

▶ 시적 상황

나그네가 가을날 강을 끼고 있는 마을의 우수 어린 풍경을 바라봄.

▶ 정서 및 태도

임에 대한 그리움, 애수(哀愁)

▶ 주제

- 가을 밤에 느끼는 나그네의 애수(哀愁)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특징

① 시공간적 배경이 작품 내용과 절묘하게 호응됨.		
작품 속 근거	단풍잎 갈대꽃 흐드러진 강 마을은 가을인데 강 바람이 비를 몰고와 조각배에 뿌리네.	가을날, 강을 끼고 있는 마을에는 단풍잎과 갈대꽃이 흐드러져 있고, 강바람이 비를 몰고 와 강가에 매어 있는 조각배에 내림. 가을이라는 배경과 비의 결합을 통해 우수 어린 풍경을 보여 줌.
② 아향과 여영의 고사를 끌어들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임 그리워 죽은 상비의 근심을 나누어 불까나.	순(舜)임금을 그리워하며 죽은 아향(娥皇)과 여영(女英)의 근심을 나누겠다는 의미

(나) 서경별곡(西京別曲)(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임과 이별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곳인 서경과, 여인으로서 버릴 수 없는 길쌈조차도 주저 없이 버리고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적 상황

임과의 이별

▶ 정서 및 태도

• 이별을 거부함.		
작품 속 근거	이별하기보다 아줄가 이별하기보다 질삼배 버리고 사랑하신다면 아줄가 사랑하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 떠나는 임에 대한 불안감과 사공에 대한 원망		
작품 속 근거	가는 배에 아줄가 가는 배에 태웠는가 사공아	임을 배에 태운 사공에 대한 원망
	대동강 아줄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 들면 아줄가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	임이 다른 여인을 만나는 상 황에 대한 불안감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① 이별을 겪은 여인의 삶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남.		
② 상징적 시어의 사용으로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구슬이 아줄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곤이야 아줄가 곤이야 끊어지겠스니까	구슬과 곤의 비유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신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③ 3음보의 율격과 분연체 구성, 후렴구가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후렴구. 북소리의 의성어

현대어 풀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을 사랑합니다마는 / 임과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곤이야 끊어지겠스니까? / 임과 헤어져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 사랑하는 임에 대한 믿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스니까? //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 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 대동강 건너편 꽃을 / 배를 타고 들어가면 껌을 것입니다.

(다) 상사별곡(相思別曲)(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이별 후 독수공방하는 처지에서 ‘상사’, 즉 임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심정을 읊고 있다.

▶ 갈래 가사

▶ 시적 상황

독수공방하며 밤을 지새움.

▶ 정서 및 태도

임에 대한 그리움	
작품 속 근거	자나깨나 깨나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특징

① 서민층의 어휘와 양반층의 어휘가 혼재함.		
② 설의와 대구, 자연물의 활용이 나타남.		
작품 속 근거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외히 되어 높고높고 다시 높아	대구

36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① (가)는 쓸쓸한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다)는 독수공방하는 절망감과 그에 대한 운명론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가)는 한시의 전형적인 시상 전개 방식인 선경후정(先景後情)을 따르고 있는 데 비해 (다)는 자신의 심정을 사실조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단풍잎 갈대꽃 흐드러진 강 마을은 가을인데 강 바람이 비를 물고 와 조각배에 뿌리네.	선경(외적 상황. 풍경)
	나그네의 삼경(三更) 꿈에 해오라기는 돌아오고 임 그리워 죽은 상비의 근심을 나누어 볼까나.	후정(화자의 정서)

오답 해설 ① 대상과의 단절 과정이 드러난 것은 이별 과정을 다룬 (나)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가), (다)의 화자는 이미 홀로 있는 상태이다.
② (나), (다)와는 관련이 있으나 (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배 내어 아들이 배 내어 노흔다사공아	사공에 대한 원망
(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더욱 쉼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③ 운명론적 세계관은 (가)가 아닌 (다)에 나타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임 생가라 비나이다.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잊지 말자 처음 맹세 죽지 말자 백년기약 전금같이 믿었는데 세상일에 마(魔)가 많다.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기대거나 '세상 일에 마가 많다'고 하여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 줌.

⑤ (가), (나) 모두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임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37 화자의 내적 정서

정답 ⑤

정답 해설 ① (나)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을 그리고 있고, (다)는 임과의 이별 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함을 노래하였다. (나)의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길쌈배'를 버리고 임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였으므로 (다)의 화자로 변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할 뿐 임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시적 화자는 사공 탓에 임이 자신을 떠나 대동강을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나)에서 임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에서 고통스럽게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대동강을 건너간 임이 새 애인인 '꽃'을 꺾는다는 말에서 추리 가능하다.
④ (나)에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에서 보듯이 현재는 전혀 소식이 닿을 길이 없다고 했으므로 상황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① (가)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비 내리는 강 풍경을 통해 우수 어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가을 날에 애수를 느끼던 화자는 순 임금을 잊지 못해 세상을 떠난 아황과 여영의 전설을 떠올린다. '상비의 근심을 나누려 함'은 화자 역시 임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런데 나그네로서의 삶과 상비의 근심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을 날의 정취가 그리움을 심화시켜 상비를 떠올리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상비가 순 임금을 생각한 것과 같이 화자도 임을 그리워하기에 아황과 여영을 떠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3, 4행에 한밤중에 잠이 깬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시공간적 배경인 쓸쓸한 가을 날, 비 내리는 강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심화시킨다.

④ 아황과 여영이 순 임금을 잊지 않은 것을 떠올린 것은 화자 역시 임을 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39 시어의 함축적 의미

정답 ⑤

정답 해설 ① 현재 임이 떠나려 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대동강을 건너면 임이 '꽃'을 꺾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한다. 즉 '꽃'은 임이 대동강을 건너간 후 새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여인으로, 현재 이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서경'은 고려의 원래 수도인 개성에 이어 새로 지은 '쇼성경'과 같은 의미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다.

② 화자는 이별하기보다는 임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면 자신의 모든 것 즉 길쌈 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울면서 따르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여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③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라고 한 것에서 '끈'은 이별에도 불구하고 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④ 화자는 '사공'이 배를 띄워 임을 건너가게 함으로써 이별하게 되었다며 원망의 심정을 드러낸다.

40 정서의 파악과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① (다)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상사병(相思病)에 걸릴 지경이고, 간과 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는 소식이 끊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간장을 태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역시 소식이 끊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일조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리지도 오래거라 세월이 절로 가니 옥안은발 공로로다. 이별이 불이 되어 태우느니 간경이다	임과 이별한 후 소식이 끊긴 상황에서 그리움으로 애간장을 태움.
선지 ②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디 어디 머무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갖쳐신들 생각이 야 없을쏘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았더면.	임이 떠난 뒤 소식을 모르는 가운데, 인연이 끊어졌음에도 임을 그리워함.

- 오답 해설** ①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다.
 ③ 임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주로 나타나 있다.
 ④ 중국으로 들어가는 적막한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⑤ 임금에게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41~45] 작품 분석

(가) 사친(思親)(신사임당)

▶ 제목의 의미

작가가 고향 강릉을 떠나 시집살이를 하던 중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노래하였다. 제목 '사친'은 '어머님을 그리워함'을 의미한다.

▶ 갈래 한시

▶ 시적 상황

고향 마을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림.

▶ 정서 및 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갈 수 없는 안타까움		
작품 속 근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돌아가고파	꿈에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어 함.

▶ 주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천리'라는 관용어를 통해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산 첩첩 내 고향 천리언마는	고향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
② 고향을 시각적 이미지와 대구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리움을 강화함.		
작품 속 근거	한송정 가에는 외로운 달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한송정, 경포대는 고향에 있는 장소

(나) 정선 아리랑(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아라리'라는 이름으로 정선을 중심으로 구비 전승되어 온 민요이다.

▶ 갈래 민요

▶ 시적 상황

자신과 헤어진 임을 만나기 위해 뱃사공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함.

▶ 정서 및 태도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움	
작품 속 근거	사시정철 임 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 주제

- 떠난 임을 그리워함.
-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 특징

①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음.		
작품 속 근거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 주게. 싸리골 울등박이 다 떨어진다.	
②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이 자연물을 통해 표현됨.		
작품 속 근거	떨어진 동박은 낙엽(落葉)에나 싸이지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를 자연물과 대비
③ 4음보 율격과 후렴구의 반복으로 운율감이 드러남.		
작품 속 근거	이 내 몸이 V 옷은 뜻은 V 정들자는 V 뜻일세.	4음보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게 주게.	후렴구

(다) 관등가(觀燈歌)(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정월부터 12월까지의 세시 풍속에 따라 노래한 월령체 시가로, 「월령상사가(月令相思歌)」라고도 불린다. 각 월별로 세시 풍속을 따르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4월의 관등 행사가 두드러지고 있다.

▶ 갈래 가사

▶ 시적 상황

정월부터 12월까지의 세시 풍속을 따름.

▶ 정서 및 태도

청상과부가 세상을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외로워함.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달거리, 월령체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음.		
작품 속 근거	정월 상원일, 이월 청명일(淸明日), 삼월 삼일날, 사월 초파일, 오월이라 단오일, 유월이라 유두일, 칠월이라 백중날, 팔월이라 추석날, 구월 구일 망향대하나, 시월이라 상달, 동짓달은 일양이 생이라, 선달이라 제석날 밤	
② 매 달의 끝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살림.		
작품 속 근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는 줄 모르는고.	
③ 세시 풍속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운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칠월이라 + 백중날에 대웅신에 공양 예불할 제 + 우리 님은 어디 가셨노.	‘월령 + 월령에 따른 세시 풍속 + 임에 대한 그리움 표현’으로 구성

▶ 어휘 풀이

- 상원일: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 답교(踏橋):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는 풍속.
- 청명일(淸明日): 24절기의 하나.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들며, 음력 3월, 양력 4월 5일경.
- 춘기: 봄기운.
- 현신: 처음으로 몸을 보임.
- 행화방초: 삼구꽃, 꽃다운 풀.
- 체팔: 팔다리에 줄을 매어 움직이게 만든 다누 인형. 망석중.
- 유두일: 음력 6월 15일. 유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으로, 이 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불길한 것이 씻겨 나간다고 함.
- 백중날: 음력 7월 15일.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
- 신곡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빚은 술.
- 제석날: 설날 전날.
- 무장공자(無腸公子): 게.

4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 앉아 색동옷 입고 바느질 하던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자신을 떠나 있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다)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청상과부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가)~(다)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애상감이, (나)에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애상감이 나타나 있다.

② (나)에는 후렴구에, (다)에는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할 줄 모르는고.'에 반복이 나타나 있다.

③ (가)와 (다)는 청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백조로 볼 수 있다.

⑤ (가)~(다)는 모두 '고향'과 '임'이라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서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할꼬	고향을 그리워함.
(나)	떨어진 등박은 낙엽(落葉)에나 싸이지 사시강철 입 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떠난 임을 그리워함.
(다)	선달이라 제석날 밤은 무장공자(無腸公子)라도 참 기 어려우니 몽중에서나 볼까. 오매사복(寤寐思服) 어찌 할꼬.	꿈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

42 감상의 적절성

정답 ④

정답 해설 | 화자는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하던 추억을 다시 경험하고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고향까지 가는 길은 ‘산 첩첩’과 ‘천리’이다. ‘천리’라는 시어는 실제의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선 정서적 거리를 의미한다. 즉, 고향이 멀리 있을 뿐 아니라 고향에 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천리’로 표현한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의 1~2행	千里家山萬疊峯(천리가산만첩봉) 산 첩첩 내 고향 천리언마는 歸心長在夢魂中(귀심장재몽혼중)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돌아가고파

오답 해설 | ① 3행과 4행, 5행과 6행에서 자연 경치를 대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②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할꼬’에서 알 수 있다.

③ 한송정, 경포대, 백구 등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⑤ 어머니와 고향을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마음은 오매불망(寤寐不忘)이라 표현할 수 있다.

43 의미와 기능의 파악과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 ‘경포대’는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 강릉의 정경이고, ‘차가운 유리잔’은 ‘들어켜기’라는 시어로 보아 술잔인데, 타향에서 떠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시어의 기능과 의미를 연결하면 ‘차가운 유리잔’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경포대(㉠)	고향의 정경	고향을 그리워함.
〈보기〉	차가운 유리잔	‘자꾸만 그리워지는 당신네들’,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킴.	

오답 해설 | ① ㉠은 고향의 정경, ‘차가운 유리잔’은 고향 아닌 곳에 있는 사물이다.

② ‘차가운 유리잔’이 고향에 대한 정서를 심화시키므로 고향의 정경을 의미하는 ㉠과 기능이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고향을 떠올리면 화자에게 술잔은 더욱 차게 느껴질 것이다.

⑤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가운 유리잔은 더욱 차갑게 느껴질 것이다.

44 함축적 의미 파악과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에서 화자는 ‘임 그리워 못살겠다’고 할 만큼 임을 간절하게 그리워한다. 이때 시적 화자의 눈에 맺힌 ‘꽃’은 문맥상 그리운 임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시된 (다)의 시구 중 임을 의미하는 것은 ③이다.

오답 해설 | ① 답교하고 노는 소년들로, 화자에게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② 오지 않는 임과 대비되어 때가 되면 나타나는 존재이다.

④ 여름에 뜨거워진 산 또는 산불을 의미한다.

⑤ 문맥상 칠월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가리킨다.

45 유사한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 ‘무장공자’는 창자가 없는 게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선달 제석날 밤은 ‘무장공자’라도 그 외로움을 참기 어려운 것처럼 자기도 임을 여윈 외로움을 참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시된 시어 중 이와 유사한 것은 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⑤의 ‘빗’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우리님은 어디가고
	선달이라 제석날 밤은 무장공자(無腸公子)라도 참기 어려우니 몽중에서나 볼까. 오매사복(寤寐思服) 어찌 할꼬.

오답 해설 | ①, ② ‘등불’, ‘진달래꽃’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을 가리키는 비유적 시어이다.

③ ‘녹사남’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의 벼슬이나 신분을 나타낸다.

④ ‘약’은 임에게 바칠 화자의 정성을 의미한다.

IV. 고전 소설



[01~03] 작품 분석

옥루몽(남영로)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평생 은거한 남영로가 1840년경에 지은 소설로서, 자신이 쓴 소설 「옥루몽」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몽자 소설(夢字小說)의 계보를 집대성한 작품이자 군담계 영웅 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은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보면 가정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녔고,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뤄 나가는 애정 소설의 특성도 띠고 있어서, 대중적인 재미와 문학적인 품격을 겸비한 고전 소설의 백미로 꼽히던 작품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등장인물

- 강남홍: 꿈에 보살을 만나 자신이 본래 천상의 선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천상에 머물고 싶어 했으나 지상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다.
- 보살: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강남홍과 다른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 전체 줄거리

문창성이 선녀들인 제방옥녀(帝傍玉女) · 천요성(天妖星) · 홍란성(紅鸞星) · 제천선녀(諸天仙女) · 도화성(桃花星)과 마하지에 핀 연꽃을 꺾어 가지고 술을 마시며 희롱하자, 옥황상제의 밑에 있는 신불(神佛)은 자신의 법력으로 이들을 인간계로 내려보내, 각각 문창성은 양창곡(楊昌曲), 제방옥녀는 윤 소저, 천요성은 황 소저, 홍란성은 강남홍, 제천선녀는 벽성선, 도화성은 일지련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들은 지상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양창곡은 남만을 평정하는 등의 공을 세운다. 천자는 양창곡을 연왕(燕王)에 봉하고, 연왕 양창곡은 두 부인인 윤 부인 · 황 부인과, 세 첩 강남홍 · 벽성선 · 일지련과 함께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마침내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 지문 줄거리

강남홍이 꿈에서 한 명산에 이르러 자신을 맞아 주는 보살을 만나 함께 남천문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백옥루를 바라보다가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살은 그중의 한 선녀(홍란성)가 바로 강남홍의 전신이라 말하며 그들이 천상계의 인물이었으나 하계로 적강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남홍은 천상에 머물고 싶어 하나 지상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는 보살의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고, 이후 온갖 영화를 누린다.

▶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

▶ 어휘 풀이

- 석장(錫杖): 승려가 짊고 다니는 지팡이.
- 망연(茫然)히: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하니.
- 난새(鸞-)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 전신(前身): 1. 신분, 단체, 회사 따위의 바뀌기 전의 본체. 2. 바뀌기 전의 신분(身分). 3. 전생의 몸.
- 입도(入道):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을 시작함.
- 하계(下界): 천상계에 상대하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이르는 말.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 강남홍이 꿈에서 한 명산에 이르니 보살이 강남홍을 맞이한다. 강남홍은 보살과 함께 남천문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백옥루를 바라보다가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강남홍은 선관과 선녀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 그들과 재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라는 강남홍의 물음을 통해, 강남홍이 보살을 명산에서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를 통해 보살이 인도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혹시 ④를 정답으로 선택했다면 ‘전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전에는 낯선 단어가 곧잘 사용된다. 따라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영어 단어를 외우듯 외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⑤ 꿈에서 깬 강남홍이 꿈 이야기를 한 후 허 부인이 양창곡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보기>는 「옥루몽」의 환몽 구조를 설명한 글이다. 「옥루몽」은 다른 환몽 구조와 달리 속세에서 천상계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몽중몽의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강남홍은 취봉루에서 취하여 잠이 들어(입몽) 보살을 만나고 다시 취봉루에서 잠이 깨어(각몽) 부인들에게 꿈 얘기를 한다. 즉 취봉루는 속세에서 잠이 드는 장소이고, 인간계에 적강한 인물이 꿈을 통해 다시 천상계를 경험하는 곳이므로 속세에서 천상계로의 입몽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강남홍은 꿈에서 보살의 도움으로 백옥루를 보게 되고, 백옥루에서 취해 자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천상계에 진입한 것이며, 강남홍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③ 강남홍은 천상계를 경험하는 꿈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살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보살이 강남홍을 다시 인간계로 보내는 각몽을 유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허 부인은 연왕을 낳게 해 준 돌부처가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보살임을 말하면서 암자를 창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 이후 속세에서의 보답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보면 속세에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양창곡 일가가 천수를 누리며 영화롭게 살았음이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속세에서의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소유는 속세에서 벗어나 불도에 귀의하고자 한다. 천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03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지문의 강남홍은 보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후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라며 천상계에 머물 의향을 보이고 있다. 속세의 덧없음을 느끼고 천상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자신이 선녀였음을 알게 됨.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천상계에 머물고자 함.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는 성진이 양소유의 꿈을, 지문에서는 홍란성이 강남홍의 꿈을 통해 세속적 삶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② 지문에서 강남홍은 속세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보살의 말을 듣고 깨고, <보기>에서는 호승이 석장을 두드리 양소유의 꿈을 깨게 한다.

- ③ 지문의 강남홍은 꿈에서 자신의 전신이 선녀임을 깨닫고, <보기>의 인물은 깨어 나서야 승려인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다.
- ⑤ 「옥루몽」은 유교적 사상과 불교, 도교적 사상이 모두 나타나 있다. 결말에서 「옥루몽」은 도교적인 인생관을, 「구운몽」은 불교적인 인생관을 표현한다.

[04~06] 작품 분석

소대성전(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영웅의 일생을 모티프로 한 군담 소설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군담 소설의 전형을 따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인공 대성이 이 승상의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나오는 대목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 흥중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는 인물 설정은, 지체나 처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등장인물

- 소대성: 영웅의 풍모를 지니고 있으나 이 승상의 죽음으로 비통해하며 슬픔에 빠진다. 이 승상의 부인과 아들이 죽으려 하였으나 승상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들을 해치지 않고 집을 떠나며 훗날을 기약한다.
- 이 승상: 소대성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대려와 보살피며 딸과 혼인시키려 한다. 죽은 뒤에도 소대성을 돕는다.

▶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 병부 상서를 지낸 소양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영보산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외아들 대성을 얻는다. 대성은 동해 용자의 적강으로 어려서부터 비범했다. 부모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고아가 된 대성은 집을 떠나 풀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한다. 청주 땅에 사는 이 승상은 한 기이한 꿈을 꾸고, 월영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이 승상은 대성의 인물됨이 비범한 것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도록 한다. 부인과 세 아들은 대성의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혼인을 반대한다. 승상이 죽고 이 승상의 부인과 아들이 대성을 죽이려 하자 대성은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영보산 청룡사로 가 노승의 도움으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한다.

한편, 채봉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라는 어머니의 권고를 물리치고 대성이 돌아 오기를 기다린다. 청룡사에서 공부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대성은 천문을 보고 호국이 중원을 침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 노승에게서 보검을 받고, 이 승상은 꿈속에서 지시한 대로 갑주를 얻고, 한 노승으로부터 용마를 얻어 중원으로 떠난다. 대성이 중원에 이르러 적군을 격파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황제를 구하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대성을 대원수로 임명하니 대성은 호국 왕을 항복시키고 개신한다. 황제는 대성을 노국왕에 봉하는데, 노왕이 된 대성은 청주로 가서 채봉을 맞아 인연을 성취하고, 노국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다.

▶ 지문 줄거리

이 승상은 기이한 꿈을 꾸고, 월영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이 승상은 대성의 인물됨이 비범한 것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도록 한다. 부인과 세 아들은 대성의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혼인을 반대하다가, 성례 전에 이 승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대성을 박해하고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한다. 대성은 자다가 자객의 침입을 받지만 도술로 화를 피하고, 집을 떠난다. 방황하던 대성은 영보산 청룡사로 가, 노승의 도움으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한다. 이후 꿈속에서 이 승상을 만나 갑주를 받는데, 꿈에서 깨어 갑옷과 투구를 발견한다.

▶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

▶ 주제

- 남루(襤褸)하다: 옷 파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 추레하다: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 심란(心亂)하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 존호(尊號): 남을 높여 부르는 칭호.
- 학발(鶴髮):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

람을 이르는 말.

0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승상이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충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라고 하는 것에서 소대성이 이미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승상이 주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보신갑'뿐이다. 칠성검도 승상이 주었다는 정보는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③ 승상의 죽음은 소대성에게는 분명 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웅 소설에 등장하는 위기는 성숙과 성공을 위한 장치이다. 승상의 죽음으로 집을 나왔기 때문에 소대성은 스승을 만나 수련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갖게 된다.

④ 승상이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부분은 '청룡의 꿈', '소대성의 은은한 기품', '소대성의 탈속한 기운이 나타나는 소리'이다. 이는 소대성의 영웅으로서의 비범함을 외모와 분위기로 나타낸 것이다.

05 인물의 특성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이 글에서 승상이 아이가 잠을 깨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무 베는 아이'의 '추레함'을 보고도 그 옆에서 아이의 옷에 있는 이를 잡아 주는 것은 따뜻한 인품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 ② 승상은 자신의 사후에 대성을 제거하려 한 아들들의 행동을 '망령 된 의사'라며 부끄럽다고 하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자식의 안목없음과 망령된 행동을 부끄러워함.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③ 승상은 먼저 큰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른 후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한 자신의 딸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딸과의 신의를 지킬 것을 당부함.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④ '만 리 청충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라는 승상의 말을 볼 때, 대성은 아직 청충마를 얻지 않았으며 동해 용왕의 도움은 미래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청충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승상이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라고 하며 대성에게 주고자 한 것은 '보신갑'이다. 이것은 대성이 전장에 나가 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갑옷이다. 따라서 승상은 죽은 후에도 대성을 돕고 있으므로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공간의 상징적 성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조대)는 ㉡(책상)에서 꿈을 통해 이동한 ㉢(조대)와 동일한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은 승상이 꿈을 통해 이동한 초현실 공간(㉢)에서 돌아온 후에 이동한 특정 현실 공간으로, 그가 실제로 경험한 공간이다. 따라서 ㉢은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 아니다. ㉣(소나무 밑)은 승상이 사라지고 소생이 혼자 남은 공간이다. 그러나 승상과 만난 소생의 경험이 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남의 증거물인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는 승상이 꿈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공간으로 특정 현실 공간

이며, ⑥는 승상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초현실 공간이다. 승상은 꿈을 통해 ④에서 ⑥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② ⑥와 ③은 모두 '조대'라는 공간이지만, ⑥는 청룡을 본 꿈속의 공간이고 ③은 아이를 본 특정 현실 공간이다. 즉 '조대'는 특정 현실 공간이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⑥에서 승상이 본 청룡은 ③에서 승상이 본 아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사건의 흐름상 ⑥에서 승상이 만난 청룡은 현실 공간에서 아이를 암시하고, ④에서 대성은 '별세하신 지 이미 오래'인 승상을 만난다.

⑤ 승상이 대성을 만난 공간은 ④이지만 승상이 사라진 후에 대성이 혼자 있는 공간은 ③이다. 또한 ④에서 대성이 승상에게 받은 '보신갑'은 ③에서 '갑옷과 투구'로 남아 있지만 ④의 모습은 승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③은 ④와 겹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초월적 존재인 승상이 사라지자 그 공간 역시 사라진 것이다.



[07~09] 작품 분석

최척전(조위한)

▶ 작품 해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의 전쟁이 조선인과 중국인의 삶에 어떤 운명의 그림자를 드리웠는가를 탐구하고 있다. 여주인공 옥영은 자신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으며, 강인한 의지와 슬기로 전쟁이 가져다 준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인으로 부각되어 있다. 최척의 둘째 아들인 몽선은 중국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는 우리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유교적 윤리관이 엄격히 적용되는 조선 사회에서 조선인이라는 혈통의 승계를 거부하고 조선인 이외의 피를 유전시키는 것은 일종의 금기였다. 따라서 몽선의 결혼은 작가의 개방적이고도 진취적인 세계관과 애정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평범한 인물이 겪은 이산과 재회를 그린 작품으로, 수십 년에 걸친 가족사이자 민족사를 통해 역사의 비극과 그 속에 살던 인물들의 애환을 그려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등장인물

- 최척: 쇠락한 양반집 아들. 전란과 이산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전란으로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 죽음을 결심하기도 하였으나 당나라 장수 여유문에게 부탁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 여유문: 최척의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인물. 최척의 됃됨이를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누이와 혼인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한 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성격이다.

▶ 전제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이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녔다. 어느 날, 옥영이 창틈으로 최척을 엿보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 구애의 시를 써서 보낸 후 둘은 사랑하게 되어 약혼을 한다. 혼인날을 정해 놓고 기다리던 중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남원 지역에 의병이 일어났고 최척도 여기에 참전하게 되었다.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최척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옥영의 어머니는 부잣집의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옥영은 이를 거부하고 최척을 기다렸다가 혼인하여 아들 몽석을 낳는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었고, 최척은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실심한 끝에 당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최척은 가족의 생사를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부로 삼으려는 여유문의 요구를 완고하게 거절한다. 한편 일본에 잡혀간 옥영은 계속 남자로 행세하다 불심이 깊은 왜인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장삿일을 돕게 된다. 여러 해가 지나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항주의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안남(베트남)에 갔다가, 상선을 타고 안남까지 오게 된 아내 옥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이듬해 호족이 침입하여 최척은 아내와 아들을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 최척은 수용소에서 역시 청군의 포로가 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고, 옥영도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해후하여 단란한 삶을 누렸다.

▶ 지문 줄거리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은 가족들과 헤어진다. 최척은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실심(失心)한 끝에 당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중국에서 살면서 최척은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고, 자신을 때부로 삼으려는 여유문의 요구를 완고하게 거절한다.

▶ 주제

전란에 따른 가족들의 헤어짐과 재회

▶ 어휘 풀이

- 만류(挽留)하다: 붙들고 못 하게 말리다.
- 전몰(全歿): 전투 따위에서 모두 죽음.
- 심원(深遠)하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

0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은 고전 소설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으며 인물의 대화와 작가의 서술을 통해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였다. 특히 주인공 최척의 비통한 심정은 대화보다는 주로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즉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행동을 서술하여 비통함을 표현	최척은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한 뒤, 즉시 섬진강으로 달려갔다.
	최척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땅에 쓰러져 기절했다가 한참 후에야 깨어났다.
	혼자만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여 죽을 수도 없었다.
대화를 통해 심리 표현	"남군이시여, 남군이시여! 아아, 애통합니다!" - 춘생의 말 -

오답 해설 ① 제3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 인물의 심리나 사건이 과장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제시문은 비교적 사실적인 서술이 특징이다.

③ 이 글의 주인공 최척은 전란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아닌 사회적 갈등이 이 글의 주된 갈등이라 할 수 있다.

⑤ 인물의 내면 심리가 아니라 전란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가족의 헤어짐 등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08 작품과 영웅 서사 비교

정답 ④

정답 해설 최척은 집안이 고귀한지, 탄생 과정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란을 맞아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 갈 곳마저 없을 때 여유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즉 영웅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자주 물어보게 된다. 최척은 영웅이 아니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여유문을 만나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구출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영웅 서사와 같다.

오답 해설 ① 최척에게 늙으신 아버지가 있음은 알 수 있으나, 고귀한 혈통인지는 알 수 없다.
 ② 최척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최척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최척이 당나라에서 전투와 삼군의 장부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나, 아직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므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09 인물의 이해 및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여유문이 자신의 누이와 최척의 혼인을 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척이 '용모가 준수하고 지략이 심원하였으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한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척이 누이와의 혼인을 거절한 후 '여공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천정배필(天定配匹: 하늘에서 미리 정하여 준 배필이라는 뜻)이라 믿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답 해설 ② 풍비박산(風飛雹散):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③ 재자가인(才子佳人):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④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⑤ 소혼단장(消魂斷腸): 근심과 슬픔으로 낮이 빠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10~12] 작품 분석

허생전(박지원)

▶ 작품 해설

「허생전」은 중국의 과학 문명 수용을 주장한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박지원의 실학 사상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중시한 박지원은 허생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지배 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하였다.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한 상행위를 하는데, 매점매석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통해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 뿐만 아니라 허례허식에 치우친 양반들을 풍자하였다. 허생은 또한 군도를 이끌고 빈 섬으로 들어간다. 이를 통해 지배층의 무능으로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빈민 구제를 위한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허생은 섬을 나와 다시 책 읽기를 즐기는 생활로 돌아가는데, 이완 대장을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 등용, 명나라 후예와의 결혼, 유학과 무역이라는 시사 삼책을 제시하지만,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이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를 통해 박지원은 의미 없는 북벌론만을 내세우는 당시 지배층을 비판하였다. 「허생전」은 조선 후기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문제점을 허생이라는 선구적 안목을 지닌 지식인을 통해 비판함과 아울러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서, 연암의 실학 사상 특히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잘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다.

▶ 등장인물

- 허생: 빈곤한 유생으로 당시의 선구자적 인물. 지배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한다.
- 변 씨: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인물. 정계에 이름 높은 고급 장성인 이완과도 친교가 깊어 이완을 허생에게 소개하여 국정에 관한 허생의 뛰어난 정치 이론을 듣게 한다.
- 이완: 변화를 거부하는 무능한 지배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어영대장에 있을 때 변 씨의 안내로 허생을 만나 국정을 논한다. 북벌을 위한 묘안을 허생에게 얻으려다 그가 제시한 어느 계획도 불가능하다 하여 허생의 노여움을 산다.

▶ 전체 줄거리

남산 밑 목적골에 살며 책 읽기만 즐겨 하던 가난한 선비 허생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부자인 변 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린 후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큰돈을 번다. 장사를 하여 막대한 돈을 번 후, 나라의 골치거리인 변산의 도적을 이끌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남은 곡식을 일본 장기도(長崎島)에 가져다가 팔아 백만 냥을 얻는다. 허생은 섬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 글자를 아는 자들을 모두 데리고 섬을 떠나온다. 섬에서 농사와 무역으로 번 100만 냥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좁은 섬에서는 용납할 곳이 없다고 하며 50만 냥은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 50만 냥으로 국내를 돌아다니며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구제한 후, 남은 돈 10만 냥은 변 씨에게 갖고 빈손으로 귀가한 다음 못다한 독서를 계속한다. 어느 날 변 부자와 함께 온 이완에게 허생은 세 가지 시국책을 제시하고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완을 크게 꾸짖는다. 다음 날 이완이 허생을 다시 찾아가니 허생은 이미 종적을 감추었다.

▶ 지문 줄거리

어느 날 변 부자와 함께 온 이완이 허생에게 인재 구할 방법을 묻자, 허생은 세 가지 시국책을 제시하는데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완을 크게 꾸짖는다. 다음 날 이완이 허생을 다시 찾아가니 허생은 이미 종적을 감추었다.

▶ 주제

양반 사대부의 무능 비판과 새로운 삶의 각성 및 실천 촉구

▶ 어휘 풀이

- 천거(薦舉)하다: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하다.
- 권귀(權貴): 1.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2. 권문귀족.
- 국치(國恥): 나라의 수치.
- 백주국(伯舅之國): 중국 봉건 시대 제후국 중에서 규모가 큰 나라.
- 변발(辮髮/編髮): 몽골 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땅아 늘임. 또는 그런 머리.
- 호복(胡服): 1. 만주인의 옷. 2. 오랑캐의 옷차림.
- 상인(喪人): 상제.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10 타 장르로의 전환 정답 ⑤

정답 해설 허생이 내키지 않는 이 대장과 만남을 수락한 것은 변 씨가 이 대장을 밖에 오려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씨가 묵묵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허생은 자신의 계책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이 대장이 어차피 자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씨의 간곡한 부탁과 이 대장의 정성을 보아 계책을 내놓았으나 예상대로 이 대장은 따를 수 없는 계책이라 말한다. 허생은 양반의 허례허식과 무능함에 이 대장에게 칼을 겨눌 만큼 분노한다. 따라서 허생은 ②와 같은 이 대장의 정성에 그를 만나게 되지만 ④에서처럼 이 대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① 어떠한 계책도 따를 수 없다는 이 대장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낼 수 있다. 또 변 씨를 중간에 세워 겨우 만난 허생의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완의 위축된 마음은 ③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blacklabel 특강 장르 변환 문제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라는 가정은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발문이다. 인물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무대 장치와 의상 등으로 배경과 분위기를, 대사와 행동 등으로 내용 일치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역으로 카메라 기법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효과음 사용 등 ‘시나리오’ 관련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품 기획 의도와 연출 방향이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허생은 이 대장을 만나길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계책을 이 대장이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변 씨에게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라고 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오답 해설 ①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허생은 이미 해결책에 대한 판단이 뚜렷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 밖에 세워 두고 시간을 끄는 경우, 대부분 그 사람의 됃됨이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허생이 그의 됃됨이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시험을 통과한 이 대장은 허생과 마찬가지로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허생의 진짜 시험인 계책에 대한 반응에서 그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 ④ 허생은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온 이 대장을 부르지도 않고 있으므로 속 깊은 대화를 위해 술을 찾았다고 볼 수 없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허생이 이완을 꾸짖는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을 통해 우리 삶과 세계에 던지는 문제적 인식은 '양반의 허위식과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허생이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② 허생이 어떤 세력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④ 허생이 과거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⑤ 허생이 왕권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다.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①

[13~15] 작품 분석

운영전(雲英傳)(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몽유록 형식의 애정 소설이다. 꿈에서 김 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유영에 대한 외부 이야기와, 김 진사와 운영에 대한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 이야기에서는 운영과 김 진사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 사실감과 감동을 더한다. 고전 소설로서는 보기 드물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이며, 신분 질서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을 쟁취하려는 순수한 열망과 선구적 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등장인물

- 운영: 궁궐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궁녀. 김 진사를 사랑하게 되어 탈출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하여 자책감에 자살한다.
- 김 진사: 글솜씨가 뛰어난 선비로, 운영과의 사랑이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히자 식음을 전폐하다 운영의 뒤를 따라 죽는다.
- 안평 대군: 겉으로는 품위 있고 도덕적인 사람인 척하지만 위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 유영: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는 선비.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세인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 전체 줄거리

〈외화〉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의 수성궁은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되었다. 유영이라는 한 선비가 춘흥을 못 이겨 그곳을 찾아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잠이 들어 밤을 맞는다.

〈내화〉 한곳에 이르니 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과 속삭이다가 유영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한다. 청년은 김 진사, 여인은 안평 대군의 궁녀 운영이라 한

다. 유영이 안평 대군 생사의 일과 김 진사가 슬퍼하는 곡절을 물으니, 운영이 그들의 사연을 먼저 말해 준다. 어느 날 안평 대군과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는데 김 진사가 찾아와 함께 어울려 시회(詩會)를 열게 된다. 그리고 운영과 김 진사는 사랑에 빠져 몰래 만나는데, 마침내 안평 대군에게 의심을 사게 되어 운영은 탈출을 계획한다. 운영은 김 진사의 사내 종 특(特)을 통하여 가보와 집기들을 모두 궁 밖으로 옮기지만 특의 간계에 의하여 재물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 안평 대군이 운영을 옥에 가두자 그녀는 자책감으로 그날 밤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만다. 운영이 죽자 김 진사는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빈 다음 식음을 전폐하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운영의 뒤를 따라 죽는다.

〈외화〉 이야기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신다. 유영이 술에 취해 졸다가 깨어 보니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기록한 책자만이 놓여 있었다.

▶ 지문 줄거리

운영은 탈출을 계획하고 김 진사의 사내 종 특을 통하여 자신의 재물을 궁 밖으로 옮긴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운영의 탈출이 미뤄지자 특은 운영이 맡긴 재물을 숨겨 자신이 차지하고, 김 진사는 특의 간계에 분노하였으나 운영과의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특을 처벌하지 못한다. 특의 간교한 꾀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안평 대군은 크게 화를 내며 궁녀들을 불러 문초하게 된다.

▶ 주제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

▶ 어휘 풀이

- 발원하다(發願--):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빌다.
- 장물(贓物):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 발: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주로 무엇을 가리는 데 쓴다.
- 형장(刑杖): 예전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쓰던 몽둥이.

13

소재의 역할과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궁궐의 담'은 궁녀의 생활 반경을 제한할 뿐 아니라, 궁녀로서의 삶과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궁녀들은 궁궐의 담 안쪽에 머물며 대군의 통제 아래 살아가야 하는데,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궁녀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며, 이는 곧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은섬의 말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 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 담의 안쪽: 대군의 규율에 따라 궁녀로서 살아가는 공간 • 담의 바깥쪽: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오답 해설 |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 그 경계를 통해 위선과 진실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장면은 없기 때문이다.

② 물질적인 문제는 담 밖에 있는 특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궁궐의 담 안쪽을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섬의 말로 보아 담 안의 궁녀들이라고 해서 담 밖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제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뿐이다.

⑤ 김 진사와 특의 관계로 볼 때, 담 밖에도 신분적 위계는 존재하고 있다.

14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 ①은 특이 도둑을 만나 죽을 뻔하였으나 겨우 도망했다고 거짓말하는 부분이다. 매우 급박하고 긴장되었던 순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순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룸.’을 의미하는 ‘명재경각’이 가장 적절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특의 것짓말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김 진사를 속임.
	“제가 혼자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 오답 해설**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걱정과 근심들을 이룸.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을 이룸.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오 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룸.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을 이룸.

1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은섬은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라며, 운영의 행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른 것임을 들어 그녀를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라며 궁녀들이 죄가 없음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은섬의 말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을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피꼬리에게 던져 생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생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남녀의 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의 사랑을 옹호함.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궁녀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알림.

-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라는 구절로 볼 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운영과 김 진사 중 한 명이 서술자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보아, 이 부분의 서술자는 진사가 아닌 운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이 진사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③ 비취는 “주군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라고 말하며, 대군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 그를 따랐음을 밝히고 있다.
 ④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서술을 통해 그의 간교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특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운영이 서술자임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는 특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특은 일부터 궁궐 가까이 사는 땡인을 찾아가 진사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흘렸다. 이는 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소문내어 안평 대군이 알게 하려는 계략인 것이다. 그러나 운영은 특이 자기 죄를 알고 달아나기 위해 땡인에게 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6~18] 작품 분석

(가) 구운몽(九雲夢)(김만중)

▶ 작품 해설

‘아홉 사람의 구름 같은 꿈’이라는 제목의 의미와 같이, 아홉 사람(성진과 팔 선녀)이 꿈을 통해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경험을 ‘현실-꿈-현실’이라는 액자 소설 형식으로 그린 작품이다. ‘구름 같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무상’이라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귀영화는 결국 헛된 것’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주인공이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구조 역시 불교의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 소설은 김만중이 유배지에 있을 때 어머니 윤씨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소설로, 몽자류(夢字類) 소설의 효시이다.

▶ 등장인물

- 성진: 육관 대사의 제자. 불가에 회의를 느끼나 육관 대사에 의해 세속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고 난 후 깨달음을 얻는다.

- 육관 대사: 남악 형산 연화 도량의 주지. 불가에 회의를 느낀 성진을 인간 세상에 환생시켜 깨달음을 얻게 한다.

▶ 전체 줄거리

당나라 때 천축에서 육관 대사라는 고승이 인간 세상에 와서 큰 절을 세우고 제자를 모아 불도를 강론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성진이었다. 어느 날 성진은 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가게 되었는데, 용왕의 용승한 대접에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온다. 한편, 선녀 위진군은 팔 선녀를 대사에게 보내 약간의 보물을 선사한다. 길 중간에서 팔 선녀와 성진이 만나게 되어 서로 희롱하다 돌아온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만 생각한다. 끝내 그는 죄를 얻어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소유가 된다. 한편, 팔 선녀도 같은 죄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각각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소유와 인연을 맺게 된다.

성진은 회남 수주현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다. 그는 15세에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어사의 딸 진채봉을 만나 혼약하고, 난을 피해 있다가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중 낙양의 기생 계섬월과 인연을 맺고, 경사에 이르러 거문고를 타는 여자로 가장하여 정 사도의 딸 정경패를 만난다. 과거에 급제한 양소유는 정경패의 시비인 가춘운과도 인연을 맺는다.

하북의 왕이 역모하려 하니 양소유는 절도사로 나가 이를 다스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북의 명기 적경홍과도 인연을 맺는다. 상경하여 예부상서가 된 양소유는 황제의 누이인 난양 공주가 부는 통소 소리에 화답한 인연으로 부마로 간택이 되는데, 양소유는 정경패와의 혼약을 이유로 이를 물리치다가 옥에 갇힌다.

토번 왕이 쳐들어오자 대원수가 되어 출전한 양소유는 토번 왕이 보낸 여자 객 심요연과 인연을 맺고, 백룡담에서는 용왕의 딸인 백룡파를 도와주어 인연을 맺는다. 그동안 난양 공주는 양소유와의 혼약을 이루지 못하여 실심한 정경패를 만나 보고 그 인물에 감복하여 제1공주인 영양 공주로 삼는다.

토번 왕을 물리치고 돌아온 양소유는 위국공의 벼슬에 오르고, 영양 공주와 난양 공주의 2처와 진채봉, 계섬월, 가춘운, 적경홍, 심요연, 백룡파의 6첩을 거느리게 된다.

세월이 흘러 승상의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 날 두 부인과 여섯 낭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때마침 찾아온 어느 고승에게 불도에 귀의할 것을 말하자 그 도승은 쾌히 승낙하고 깊은 지팡이로 난간을 두드린다. 그러자 모든 것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손에 백팔 염주를 들고 있고 까칠까칠한 중의 머리를 한 자신(성진) 뿐이었다.

당황한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귀영화는 하룻밤 꿈이었고 자기는 분명히 연화 도량의 성진이었다. 꿈을 깬 성진은 황망히 대사 앞에 뛰어가 엎드린다. 팔 선녀도 이어 들어와 제자 되기를 청한다.

후에 대사는 도(道)를 성진에게 물리고 천축으로 돌아가고, 팔 선녀는 성진을 스승으로 삼아 도를 닦아 후에 아홉 사람 모두 극락 세계로 갔다고 한다.

▶ 지문 줄거리

양소유가 불가에 귀의할 것을 결심한 후 육관 대사가 나타나 성진을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러나 성진이 인세와 꿈이 같음을 깨닫지 못하자 육관 대사는 장주지몽을 예로 들며, 깨닫지 못한 성진과 인세의 성진이 다르지 않음을 일깨운다. 이에 성진은 스승에게 설법을 구한다.

▶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 어휘 풀이

- 토번(吐蕃): 중국 당나라 · 송나라 때에, ‘티베트족’을 이르던 말.
- 화상(和尚):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
- 경사(京師): 한 나라의 수도.
- 춘몽(春夢): 봄에 꾸는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암자(庵子):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도를 닦기 위하여 만든 자그마한 집.
- 포단(蒲團): 부들방석(부들이라는 풀로 둥글게 틀어 만든 방석).
- 도량(道場): 불교에서 도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곳.
- 한림학사(翰林學士): 중국 당나라 때에 한림원에 속하여 조칙(조서)의 기초를 맡아보던 벼슬.

- 불초(不肖): 못나고 어리석음.

(나) 조신의 꿈(일면 편찬)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정도사의 건립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사찰 연기 설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배경적인 내용보다도 설화 그 자체가 지닌 구조(‘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가 특이하여 서사적 흥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대 몽자류 소설 등에 영향을 미쳐 주목을 받아 왔다. 이름다운 여인과의 인연을 바라던 주인공의 현실적 꿈이 꿈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소원 성취로 인해서 오히려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질문을 하게 한다. 이 설화가 불교적인 인생관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고 보는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불교적인 세계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속의 욕망을 끊어야 할 승려가 세속의 처녀에 대한 연정을 성취해 달라고 관음보살에게 빌고 있는 광경에서, 현실의 초극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렵게 이룬 사람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데서 사랑에 대한 열망이 부질없는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숙고(熟考)도 가능하게 된다.

▶ 등장인물

- 조신: 신라 세달사의 승려. 세속적 욕망을 꿈꾸었으나 세속적 욕망이 결국은 고통임을 깨닫고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 전체 줄거리(‘지문 줄거리’와 동일)

신라 때의 승려 조신이 명주 태수 김흔의 딸을 보고 홀딱 반했는데, 얼마 후 그녀가 딴 사람에게 출가했으므로 조신은 울면서 그녀를 못내 그리워했다. 하루는 부처님을 원망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김 남자가 부모의 영에 어쩔 수 없어 결혼은 했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며 돌아왔다. 조신은 기뻐하며 고향에 돌아가 40여 년을 같이 살며 자식을 다섯 두었는데, 살림은 쫓아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풀일 조 한 되 없고 입을 옷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자식들을 서로 나누어 막 헤어지려는 찰나 잠을 잤다. 조신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치고 불도(佛道)에 전력하였다.

▶ 주제

인생무상,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

▶ 어휘 풀이

- 결방살이: 남의 집 결방을 빌려서 생활함.
- 난새(鸞-)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16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고전 소설은 대부분 만연체의 문장으로 서술된다. (가)와 (나) 역시 간결한 문장보다는 대체로 긴 호흡의 문장으로 서술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호흡이 긴 만연체 문장이 사용됨.
(나)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 임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답 해설 | ① (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논평하는 부분은 없다. ② (가)에서 육관 대사가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드리자 구름이 일어났다가 견고하고 능승과 팔 남자가 사라졌으며 양소유가 성진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나, (나)에서 조신이 50년 간의 꿈에서 깨어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어 버린 장면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에 해당한다. ③ (가)의 성진과 (나)의 조신이 꿈을 꾸게 된 것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한 내적 고뇌가 있었기 때문이다.

④ (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지만, 인물의 말과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black label 특강 보여 주기와 말하기

‘보여 주기’와 ‘말하기’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흔히 인물이 하는 말을 ‘말하기’로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보여 주기’는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이며, ‘(작가가 직접) 말하기’는 설명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보여 주기’는 관찰자 시점에서, ‘말하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용된다. 고전 소설의 경우는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보여 주기’도 ‘말하기’만큼 많이 사용된다.

구분	설명적 → 말하기(telling)	묘사적 → 보여 주기(showing)
의미	직접적 제시 방법(분석적 방법)	간접적 제시 방법(극적 방법)
개념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직접 요약, 설명하는 방법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장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판단 하게하는 방법
방법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분석과 설명(편지적, 해설적) 및 요약, 타 인물의 보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	등장인물의 언어 행위를 중심으로 행동이나 대화, 갈등을 장면적으로 보여 줌.

17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의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라는 성진의 말을 통해, 꿈이 인간 세상이고 현실은 천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꿈과 현실의 공간이 모두 인간 세상으로 일치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꿈’이라 함. → 현실 세계는 천계(천상)이고, 인간 세계는 꿈으로 표현함.
(나)	• 꿈속 세계: 조신이 김 남자와 만나 오십 년 동안 부부로 살아감. • 현실 세계: 조신이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음.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는 모두 인간 세계로 동일함.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는 모두 세속적 욕망으로 번민하던 주인공이 ‘꿈’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다.

③ (가)에서 육관 대사가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라고 묻는 것을 통해, 성진이 인간 세계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바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라는 내용으로 보아 성진의 욕망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나)의 조신은 꿈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만, 그가 현실에서 소망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는 것이었으므로 조신의 욕망도 꿈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만남은 현세의 인연에 기인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여기에서 불교의 ‘인연설’과 ‘공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⑤ (가)의 성진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다는 육관 대사의 말에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나)의 조신은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고픈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슬피 우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들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이별을 제안하자 기쁘게 수용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blacklabel 특강_몽유(夢遊) 소설

고전 소설에는 꿈속의 일을 소재로 하는 '몽유 소설'이 많다. 이들 소설은 대개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꿈에서 깨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현실-꿈-현실'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성 형식을 '환몽 구조(꿈에서 돌아오는 구조)'라고 한다. 이런 '환몽 구조'를 지닌 소설은 간혹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부귀영화와 희로애락은 하나의 꿈일 뿐이라는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 주요 몽유 소설

남염부주지	불교를 믿지 않던 박생이 꿈속에서 남쪽 염부주에 다녀온 후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
웅궁부연록	한생이 용왕의 초대를 받고 웅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는 내용. 화려한 웅궁 체험과 삶의 무상감을 담아냄.
원생몽유록	원자허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홍망의 도를 토론하였다는 내용. 인간사의 부조리에 대한 회의를 드러냄.
수성공몽유록 (운명전)	선비 유영이 꿈속에서 공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어 보니 두 사람은 없고 김 진사가 그들이 이야기를 기록한 서책만 남아 있었다는 내용
옥루몽(옥련몽)	주인공 양창곡이 만국을 토벌한 공으로 연왕으로 책봉되어 두 명의 처와 세 명의 첩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하늘로 올라가 선관이 되었다는 내용

1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흐름은 '성진이 불교적 삶을 살고 있음. -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느낌.(첫 번째 회의와 부정) - 세속적 삶을 살게 됨.(꿈) -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느낌.(두 번째 회의와 부정) - 불교적 삶으로 돌아옴. -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느낌.(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같이 성진이 양 승상(양소유)의 삶을 살며 토번을 정벌한 것은 세속적 삶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 할 때~"	양 승상(양소유)으로서의 삶 - 인간 세상에서 공을 세웠던 젊은 시절의 일에 해당함.

오답 해설 | ② ㉠은 성진이 불교적 가치관에 회의를 갖고 환생한 후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가던 때로, 아직 세속적인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의 단계에 이르지 전의 일이다.

③ ㉡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후로, 세속적인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후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육관 대사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다고 성진을 질책하며 이분법적 구분이 무의미함을 알려 주고 있다.

⑤ ㉣은 성진이 대사에게 설법을 요청하는 말로, 아직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을 통한 깨달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blacklabel 특강_「구운몽」의 구성

「구운몽」은 주인공 성진이 자신이 머무는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형이하학적 세계로 내려가 온갖 욕망을 성취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고 형이상학적 세계로 복귀하는 꿈의 구조를 지닌다. 즉, 현실과 꿈의 세계를 이중(二重)으로 그리고 있는 이 구조는 결국 인생의 무상함, 삶의 덧없음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작품 구조상 꿈의 세계로 되어 있는 양소유의 일생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실 세계로 되어 있는 선계(仙界)는 오히려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이 천상계이고 꿈이 인간계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일반적인 몽자류 소설과 다른 점이다.

고전 소설 4

STEP

A

1등급 도전문제

19 ②

20 ④

21 ③

22 ②

23 ①

24 ②

[19~21] 작품 분석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작자 미상)

▶ 작품 해설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성행하던 조선 말엽의 세태를 반영한 한글 소설이다. 딸을 팔아서까지 벼슬하려 하는 김 진사,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였다가 기생이 되는 채봉,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천한 이방이 되는 필성은 기존 질서에서는 크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다.

신분 질서의 와해뿐만 아니라 인물의 무분별한 욕욕과 출세욕은 개화기의 고전 소설들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현실적·합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와 사실에 가까운 표현법 등은 이 작품이 근대 소설로 옮겨 가는 과정에 있는 작품임을 시사한다.

▶ 등장인물

- 김 진사: 채봉의 부친. 평양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으나, 벼슬을 탐해 외딸 채봉을 허 판서의 소실로 보내려 한다.
- 김 진사 부인: 채봉과 장필성의 만남을 알게 된 뒤 둘 사이의 약혼을 허락하였으나, 김 진사가 딸을 허 판서의 소실로 보낼 것을 주장하자 그에 따른다.
- 김채봉: 김 진사의 외딸. 장필성과 장래를 약속한 뒤, 자신을 허 판서의 소실로 보내려는 부친에 반하여 장필성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 허 판서: 장안 제일의 세도가. 탐욕스러운 인물로 김 진사의 돈을 받고 벼슬을 약속한 뒤 채봉까지 소실로 달라고 요구한다.

▶ 전체 줄거리

평양성 밖 김 진사의 딸인 채봉은 봄날 꽃구경을 갔다가 전 부사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된다. 필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채봉의 집에 매파를 보내 채봉의 모친에게 허락을 받는다. 한편 채봉의 부친인 김 진사는 권세가인 허 판서를 통해 벼슬을 하려 하는데, 허 판서는 김 진사의 딸을 첩으로 삼기를 원한다. 김 진사가 이를 승낙하고 부인과 딸을 데리고 가산을 정리하여 상경하는 도중에 채봉과 시비 취향은 도망갔으나, 화적을 만난 김 진사는 재물을 모두 빼앗긴 채 허 판서를 찾아간다. 허 판서에게 사정을 알리지만 허 판서는 분노하여 김 진사를 옥에 가두고, 그 부인에게 돈을 가져오거나 딸을 데려올 것을 명한다.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으로 몸을 팔아 모친에게 돈을 준다. 필성은 채봉이 기생이 되었음을 알고 이방이 되어 채봉을 만난다. 감사는 두 사람의 애정을 가상히 여겨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 지문 줄거리

평양성 밖에 사는 김 진사의 딸 채봉과 선천 부사의 아들 장필성은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벼슬에 눈이 어두운 김 진사가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주려고 하자, 그녀는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장필성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 주제

권세에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 어휘 풀이

- 상노(床奴): 밥상을 나르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아이.
- 농간(弄奸):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
-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 시대에, 정일품·종일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 여염집(閭閻—): 일반 백성의 살림집.
- 초당(草堂): 억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채. 흔히 집의 몸체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지었다.

19

갈등의 원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라)에서 채봉은 허 판서의 첩이 되라는 부모의 말에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런다지만, 나는 한번 약속한 마음 변치 않으리라.'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채봉이 정혼을 깨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므로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 괴로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부모의 강요	"허허, 그 녀석, 네가 첩 구경을 못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재상의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이 또 없느니라."	홍 판서의 첩이 될 것을 강요함.
채봉의 다짐	"나는 한번 약속한 마음 변치 않으리라. 잠깐 동안 부모에게 근심을 끼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겠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장필성과의 약속을 지키려 함.

오답 해설 | ① 허 판서가 채봉을 탐하지 않았다면 채봉이 부모와 갈등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③ (라)에서 채봉의 모친 역시 결국에는 김 진사와 마찬가지로 채봉에게 허 판서의 첩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다)에서는 딸을 첩으로 보내는 것을 걱정하며 김 진사를 만류하는 부분에서 김 진사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④ 김 진사는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려 하지만 채봉은 장필성과의 정혼 약속을 지키려 한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려는 채봉에게 시련이 닥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아버지의 권위가 다소 흔들리는 시대적 분위기가 보이지만, 가부장적 사회의 전통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20

인물의 이해 및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 김 진사가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려는 이유는 자신이 벼슬길에 오르고 싶기 때문이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世上)에 드날림.'을 의미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김 진사의 기대	"벼슬 없이 늙던 내가 허 판서의 주선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됐지, 또 내일모레면 과천 현감을 하지, 이제 채봉이가 그리 들어가 살면 평생 호강하거니와, 내가 감사도 되고 참판도 되고 판서도 될 것인즉, 부인이야 정경부인은 따 놓은 당상이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소."	딸을 통해 입신양명(立身揚名)하기를 바람.

오답 해설 | ① '오월동주(吳越同舟)'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협력하게 됨.'의 의미이다. 김 진사와 허 판서는 적으로 볼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②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의 의미이다. 허 판서가 김 진사의 인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김 진사가 허 판서의 힘으로 벼슬을 얻으려 하고 있다.

③ '맥수지탄(麥秀之嘆)'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채봉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성어이다.

⑤ '여필종부(女必從夫)'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부인은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들이자는 남편의 제안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이를 수용한다.

21

작품에 표현된 사회상의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장 선전 부사 아들과 정혼했어?"라고 김 진사가 아내에게 묻는 장면을 보면 채봉의 정혼이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머니의 허락을 얻은 정혼이었다.

오답 해설 | ① 김 진사가 허 판서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자리를 얻는 모습을 통해 당시에 매관매직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② 김 진사의 부인은 딸을 첩으로 보내자는 남편의 말에, 첩은 호강을 할지언정 불편하고 불안한 처지임을 들어 반대한다.

④ '평안도 사람이 벼슬하기가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이 시절'이라는 대

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정경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부인이 "채봉이가 말을 들을지 모르겠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채봉이 가장의 명령이라 하여 무조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장의 권위가 다소 흔들리던 사회상을 보여 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시대적 상황	김 진사는 오전 냥 어음을 써 놓고, 또 오전 냥은 돈표를 써 놓으니, 허 판서가 받아 문갑 서랍에 넣고 웃는 낯으로 김 진사를 쳐다본다. "내일이면 과천 현감을 할 터이니, 이제는 김 과천이라 하지."
축첩 제도 속에서의 첩의 위치	"첩이란 것이 남의 눈에 가시 되는 것이 아니요? 언제 무슨 해를 당할는지 모르니 비단 방석에 앉아도 바늘방석 같을 텐데, 호강만 하면 제 일이란 말이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결정함	채봉의 어머니인 이 부인은 채봉의 혼인을 이미 정한 상태였다. "계집애 자식이란 것은 오래 부모가 하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랍니다."
서북지역 사람들의 중앙 진출이 어려움	평안도 사람이 벼슬하기가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이 시절에
가부장적 권위가 다소 약해진 시대 상황	"영감이 기어코 하려 드시면 난들 어쩌겠소마는, 채봉이가 말을 들을지 모르겠소."

[22~24] 작품 분석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도선 사상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 사건을 중심적인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애정담이다. 작품 구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길러, 혼인시키고 출세시키는 것을 가문의 영예와 자신들의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자식에게 효를 요구하는 반면, 자식은 그들끼리 사사로이 연애를 하여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고, 출세 같은 것은 부부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면서 부부간의 애정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효를 요구하는 부모와 애정을 추구하는 자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발전하면서 치절한 가정 비극을 불러오므로써 마침내 부모의 생각이 비판되고 자식의 의지가 그 타당성을 입증받는다.

효는 유교 도덕에 바탕을 둔 봉건적·전통적 가치관이고, 애정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이기때 양자의 갈등은 시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더욱이 후자가 전자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가치관의 변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 등장인물

- 숙영: 백선군의 부인, 적당한 선녀로 덕성이 높고 지혜로우며 절개가 곧다.
- 백선군: 숙영의 남편. 가문의 명예 같은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우선으로 여긴다.
- 백상군(상공): 선군의 아버지. 완고하고 보수적이며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적 인물로 숙영을 의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 매월: 선군의 첩. 숙영과 선군의 결혼으로 선군의 사랑을 잃자 숙영을 포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전체 줄거리

세종 때 안동에 사는 선비 백상군과 그 부인 정씨는 명산대찰에 빌어 외아들 선군을 낳았다. 선군이 자라자 상군 부부는 아들의 혼처를 구하였는데, 천상에서 죄를 짓고 선경 옥련동에 귀양 와 있던 선녀 숙영 낭자가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과의 천상 인연을 알려 주고 천정 기한이 3년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다. 선군은 낭자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상군 부부가 백약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 눈물로 세월을 보냈으나 선군은 사실을 실토하지 않았다. 낭자가 여러 번 꿈에 나타나 선물을 가져다주고, 상군 부부가 집의 시녀 매월을 시첩(侍妾)으로 삼게 했으나 여전히 차도가 없었다.

낭자는 선군의 목숨을 염려하여 다시 꿈에 나타나 자신을 만나려면 옥련동으로 오라고 했다. 선군은 유람을 핑계로 부모를 속이고 옥련동에 가서 3년만 참아 달라는 낭자의 간청을 듣지 않고 혼인하여 함께 귀가하였다. 부부는 그 뒤 부모를 모시고 자식 남매를 낳으며 8년 간의 행복을 누렸다. 상군 부부가 선군에게 과거

를 보아 조상을 빚내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하자, 선군은 재산의 필요함과 남자와의 이별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다가, 부명을 끝내 거역할 수 없어 과짓길에 올랐다. 그러나 도중에 남자가 그리워 이를 밤에 걸쳐 두 차례나 수십 리를 달려와 부모 몰래 남자에게 와 자고 갔다.

도적을 살피던 상군은 남자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남자 목소리를 듣고 남자의 정절을 의심하여 매월로 하여금 지기게 했다. 남자에게 질투를 느끼던 매월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노비와 공모하여 남자에게 누명을 씌웠다. 상군은 남자에게 실토를 강요하며, 하인을 시켜 가혹하게 매질을 했다. 남자는 선군의 귀가 사실을 실토해도 먹혀들지 않자 가슴에 칼을 꽂고 자살을 하였다. 상군 부부는 자살 내막을 은폐하고자 하였으나 칼과 시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상군 부부는 선군이 받을 충격에 대비하여 입 소저를 선군의 후실로 약정해 두었다가, 상군이 급의환향하는 선군을 만나 남자의 죽음은 알리지 않고 입 소저를 부실로 취하라며 도중에 혼례를 치르고 가자고 권했다.

상군의 권유를 물리친 선군이 바로 귀가하여 남자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며 자살 내막을 캐어 밝히고 모해자를 찾아 처벌하자, 상군 부부는 난처해졌다. 남자는 며칠 뒤 옥황상제의 은덕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재생했다. 선군은 남자의 권유로 입 소저의 딱한 사정을 주상께 상소하여 혼인을 허락받고 입 소저를 부실로 취했다. 주상은 남자와 입 소저에게 각각 정렬부인·숙렬부인의 직첩을 내려 주었다.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동일승천하였다.

▶ 지문 줄거리

숙영의 원혼이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누명을 벗겨 줄 것을 부탁한다. 상공(백상군)이 찾아와 입 소저와 혼례를 치르고 가자고 권하자, 선군은 숙영의 죽음을 확인한다. 선군이 집에 돌아와 숙영의 죽음을 확인한 후 숙영의 몸에서 칼을 빼자 파랑새가 나와 매월이 범인임을 지목한다. 이후 매월과 공범을 처벌하고 제문을 읽어 숙영을 위로한다.

▶ 주제

현실의 장벽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어휘 풀이

- 곡절(曲折): 순조롭지 아니하게 얹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 현숙하다(賢淑--):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 시비(侍婢):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 화용월태(花容月態):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맴시를 이르는 말.
- 절도(絶島): 절해고도(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

2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파랑새는 매월이 범인임을 알려 주는 고발자일 뿐, 숙영의 환생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두 마리의 파랑새	같이 문득 빠지며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다시 파랑새 한 마리가 또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숙영을 죽인 범인을 알리는 고발자의 역할을 함.

오답 해설 | ① ‘선군이 이에 매월을 죽여 숙영 남자를 위한 제물로 삼고 제문을 읽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선군이 숙영의 원수를 갚고 이를 통해 숙영의 원혼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매월은 “상공께서 숙영 남자를 의심하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던 차에 때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라고 자백하고 있다.

④ 선군의 제문 중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남자를 쫓을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리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애정 지상주의적인 그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

⑤ 상공이 입 진사의 딸과 혼인할 것을 권했을 때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라고 단호히 거역하는 선군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적 권위가 약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 [A]에서는 첫 문장을 통해 선군이 입신양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B]에서도 첫 문장을 통해 숙영 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A] 남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	선군의 처지
[B]	[B] 성인도 속세에 노닐고, 속녀도 험한 구설을 만났음은 예로부터 없지 않았으나, 남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오.	숙영의 처지

오답 해설 | ② [B]는 숙영을 위한 글로 ‘원수는 갚았으나’에서 숙영의 원혼을 달래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선군이 죽음에서 숙영과 재회하는 사건은 나오지 않는다.

③ [A]는 죽은 숙영이 꿈을 통해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B]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A]는 ‘꿈’을 매개로 하고는 있으나, 숙영은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 주기를 부탁할 뿐 남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⑤ [B]에만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의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A]에는 숙영이 자신은 이미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죽음조차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은 선군이 꿈에서 숙영이 자신의 죽음을 전한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숙영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군이 절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절망보다는 초조함과 걱정, 불안함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선군의 심리	선군은 숙영 남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산반의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재차 생각하되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부친의 말을 들은 후 숙영의 죽음을 확신함.

오답 해설 | ① 숙영은 선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는 선군이 숙영과 부부 사이로 숙영의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③ 상공은 숙영의 죽음을 숨기며 선군에게 입 진사의 딸과 혼례를 올릴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선군은 숙영의 죽음을 확신하고, 숙영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 길을 재촉한다.

④, ⑤ 숙영의 몸에서 나온 파랑새는 범인이 ‘매월’임을 지목하여 선군이 급히 형구를 벌이고 노복을 신문하게 한다.

blacklabel 특강 고전 소설의 인물 유형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은 영웅적 인물과 일상적 인물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김덕령·유충렬·양소유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은 영웅적이라 할 수 있고, 놀부·허생·이춘몽처럼 세속적인 인물은 일상적이라 할 수 있다. 영웅적 인물은 귀족적인 소설에서, 일상적인 인물은 평민적인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한 작품에서 두 유형이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영낭자전」의 주인공은 적강한 선녀와 장원급제한 인재로 신분이 고귀한 인물이지만, 개인적인 애정 관계에 치중하는 것으로 볼 때 일상적인 인물에 가깝다.

[01~03] 작품 분석

설씨녀 설화(薛氏女說話)(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신라 진평왕 때의 설화로, 두 남녀가 고난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는 내용이다. 헤어질 때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가졌던 거울을 재회의 순간 맞추어서 서로를 확인하는 결말로 볼 때, ‘신물(信物) 설화’에 해당한다. 이 설화는 고려 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약혼자와의 신의를 지키려는 설씨녀의 도덕적 태도를 당대에 높이 평가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 등장인물

- 설씨녀: 가난한 평민 출신의 여인이자 행실이 바르고 단정하여 주변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 가실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켜 백년해로한다.
- 가실: 가난한 평민이지만 기개가 있고 곧은 인물이다. 설씨녀의 아버지를 대신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설씨녀와 결혼한다.
- 설씨녀의 아버지: 가실이 자신을 대신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미안하고 고맙게 여기지만,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녀를 다른 사람과 혼인시키려 한다.

▶ 전체 줄거리(‘지문 줄거리’도 동일)

신라 진평왕 때 경주에 설씨라는 노인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설씨녀는 병역에 나가야 할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변방으로 가겠다고 나선 이웃의 가실이라는 젊은이와 장래를 약속한다. 그리하여 설씨녀는 거울을 반으로 쪼개어 서로 나누어 가지고 가실은 설씨녀에게 말 한 편을 선물로 준 후, 병역 기한인 3년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병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어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설씨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 한다. 그러나 설씨녀는 반대하며 기다린다. 마침내 6년 만에 가실이 돌아왔으나 그 몸골이 너무 초라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였다. 둘이 서로 거울을 맞추어 본 후 설씨녀는 가실을 알아보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한다.

▶ 주제

신의에 기반한 남녀의 사랑

▶ 어휘 풀이

- 종군하다(從軍—):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간다.
- 불초하다(不肖—): 못나고 어리석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인륜대사(人倫大事):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 혼인이나 장례 따위를 이른다.
- 창졸(倉卒)히: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 성례하다(成禮—): 혼인의 예식을 치른다.
- 신표(信標):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 양마(良馬): 좋은 말.
- 연고(緣故): 이유, 까닭, 사유.
- 황차(況且): 하물며.
- 과년하다(過年—): 주로 여자의 나이가 보통 혼인할 시기를 지난 상태에 있다.
- 남루하다(襤褸—):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 백년해로하다(百年偕老—):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다.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이 글에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기적 요소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이한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여타 고전 소설과 달리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 설씨녀와 가실은 서로의 징표로 ‘거울’을 나누어 갖는다. 이는 그들의 완전한 결합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이후의 재회를 암시한다.

② 첫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설씨녀와 가실의 외모, 처지, 성격 등이 요약적으로 기술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설씨녀	설씨녀(薛氏女)는 신라 경주의 민가 여자로서 비록 가문이 평범하고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안색이 단정하고 행실이 바르므로 보는 사람마다 곱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인물의 외모와 성격 등의 특징을 요약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함.
가실	사량부(沙梁部)에 사는 가실(嘉實)은 비록 집이 가난하고 외모 또한 불품이 없었지만, 그릇은 곧게 수양한 젊은이였다.	

④ 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려 하는 것에 단호히 거부하는 설씨녀의 모습에서 신의가 더욱 강조된다.

⑤ ‘신라 경주’와 ‘사량부’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black label 특강 서술자의 개입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가치 판단, 감정 표출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히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발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한다.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으로 ‘편지자적 논평’이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술자의 개입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서술자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등장인물이 한 말이 아닌 것 중 자기 의견을 밝힌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

예) • 어찌 다 설화하라.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쏘나?

• 바람이 분들 고덕하며 비가 온들 때내려갈쏘나.

• 그리하여서야 호여 죽을 될 수 있나.

※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 소설에 두루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공언 예술인 판소리에서 소설로 정착한 판소리게 소설에서 빈번히 볼 수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아버지도 가실을 6년 동안 기다리는 신의를 보였지만, 결국 딸이 돌아오지 않는 가실로 인해 시집을 가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 가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딸을 강제로 시집보내려 한 것이다. 이는 딸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아버지의 마음	딸의 나이도 과년해 가므로 배우자가 없을까 염려하여 강제로라도 그녀를 시집보내려 하였다.	가실과의 약속보다 딸의 행복을 중시함.

오답 해설 ① 설씨녀가 가실과 재회하게 된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가실이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또 모습이 마르고 옷이 남루하여 집안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실이 설씨녀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거울 조각’을 던져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③ 설씨녀는 가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를 강요하는 아버지와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설씨녀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려는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가 잔칫날을 청하자 도망을 가려 하는 것으로 보아, 가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의와 효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설씨녀가 결혼을 미룬 것은 인륜대사를 급하게 치러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핑계를 대기 위함이었다면 신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가실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⑤ 가실이 설씨녀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설씨녀의 아버지 대신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설씨녀와의 결혼은 설씨녀의 아버지가 가실의 결심을 들은 후 제안한 것이다.

blacklabel 특강 소재의 상징성과 역할

- ① 매개체: 소재가 매개체가 되는 경우는 「설씨녀 설화」의 '거울'과 같이 대상과 대상을 이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는 특정 소재를 통해 회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 ② 주제 암시: 제목에 등장하는 소재는 중심이 되는 소재로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현대 소설 '소나기'는 짧지만 강하게 내리는 비로 짧지만 강렬했던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암시한다. 고전 소설은 사람의 이름이 제목인 경우가 많아 제목을 통해 중심 소재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구운몽'의 경우는 '이름 사람이 곧 구름 같은 꿈'으로 인생의 부귀영화가 '꿈'과 같다는 주제를 암시하는 중심 소재라 할 수 있다.
- ③ 전개될 사건 암시(복선): 특정 소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소설에서도 소재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현대 소설에서는 필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연성이 남발하는 고전 소설에서도 소재의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서 지은 시는 이후 암행어사 출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03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글에서 가실이 변경에 간 것은 설씨녀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역을 하기 위해서였다. 설화 설씨녀의 연로한 아버지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운 국가가 폭력적이었다 해도, 이는 설씨녀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며 가실이 군에 간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반면, <보기>의 도미가 아내와 이별한 것은 국가 권력자인 왕의 횡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비록 불초한 몸이나 그대 아버님의 병역을 대신하 기를 원합니다."	가실이 설씨녀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역의 의무를 자청함.

오답 해설 ① 「설씨녀 설화」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나 설화와 달리 사건 전개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나 <보기>의 「도미 설화」에서 도미의 처가 하늘을 우러르고 통곡하자 빈 배가 파도에 밀려 나타난 것은, 고전 소설의 한계로 지적되는 우연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설씨녀는 도망을 가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보기>에서 도미의 처는 왕을 속이고 도망을 치는 기지를 보여 주었다.

③ 이 글에서 설씨녀는 아버지에게 단호히 자신의 의사를 전하고, 비록 실패하였지만 도망을 치려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보기>에서 도미의 처 역시 왕을 속이고 여종을 대신 들여보낸 후 도망을 치는 등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④ 이 글에서 설씨녀의 아버지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과 가실이 복무 기간의 두 배의 시간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못한 것은 가혹한 정치에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도미와 도미의 처 역시 무자비한 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04-06] 작품 분석

삼사황입황천기(三士橫入黃泉記)(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한글 소설로써, 1848년(헌종 14)에 간행된 「삼설기(三說記)」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세 선비가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저승차사의 실수로 황천에 끌려가 염왕 앞에서 각기 소원을 말하는 형식이다. 전기적·도술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재생 설화 또는 환생 설화가 삽입되어 있다. 아울러 당대 한국인의 저승관(내세관)과 행복관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특히 세 번째 선비가 말한 소원은 비록 염왕이 들어줄 수 없다며 역정을 내긴 했지만, 무병장수하면서 온갖 부귀 복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 등장인물

- 삼 인(세 선비):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상대의 약점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바뀌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인다.
- 세 번째 선비: 무병장수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최 판관: 뇌물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저승의 벼슬아치이다.
- 염왕: 잘못 데려온 세 선비로 인해 옥황상제로부터 질책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세 선비의 소원을 들어주어 환생하게 하여 사태를 무마하고자 한다. 문인과 무인을 소원한 두 선비의 소원은 들어주지만, 온갖 복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세 번째 선비에게는 호통을 친다.

▶ 전체 줄거리('지문 줄거리'도 동일)

옛날, 낙양 동촌에 함께 과공(科工)에 힘쓰던 세 선비가 있었다. 하루는 3인이 봄철을 맞아 백악산에 올라 더불어 산천경계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다가 술에 몹시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다. 마침 이때 지부(地府) 사자들이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세 선비를 지부로 잡아가게 된다. 지부에 이르게 된 세 선비는 최판관에게 자기들이 애매하게 잡혀오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판관은 생사지부책을 조사해 보고 삼십 년 뒤에 잡아올 사람을 미리 잡아왔음을 발견한다. 염왕이 이 사실을 알고 세 선비를 다시 지상계로 내보내도록 명한다. 세 선비는 이미 시신(屍身)이 없어졌다며 염왕에게 환생(還生)을 청하며 각각의 소원을 말한다. 염왕은 문관(文官), 무관(武官)이 소원이라는 두 선비의 소지(所志)는 들어주었으나, 온갖 청복(淸福)을 누리며 오래 살기를 원하는 셋째 선비에게는 욕심이 많고 말할 수 없이 흉악한 놈이라 꾸짖고, 성현군자도 하지 못할 일을 모두 다 달라 하니 그 노릇을 임의로 할 양이면 자신이 염라대왕을 내놓고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다.

▶ 주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당대인들의 내세관과 행복관

▶ 어휘 풀이

- 금준미주(金樽美酒): 금병에 담긴 맛있는 술.
- 옥반가효(玉盤佳肴): 옥쟁반 위의 맛있는 안주.
- 객란(瘡亂):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함.
- 경과(輕科): 가벼운 죄나 잘못.
- 사화(私和):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 버림.
- 상고(上告): 윗사람에게 알림.
- 수재곡법(收財曲法): 재물을 마구 거두어들이고 법을 왜곡함.
- 상제(上帝): 옥황상제.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 염문(廉問):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몰래 물어봄.
- 선태후결(先答後決): 태형을 먼저 집행한 후 차후에 결정권자가 확인함.
- 무궁하다(無窮--): 끝없이 펼쳐지다.
- 소지(所志):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 관아에 내던 서면.
- 만물모응(萬物感應): 모든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음.
- 윤회지과(輪廻之策): 다시 태어나 살게 될 곳.
- 길흉지권(吉凶之權): 좋은 운과 나쁜 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억만창생(億萬蒼生): 수많은 백성.

04 작품 내용을 통한 추론

정답 ③

정답 해설 최 판관이 "세상에도 탐관오리 수재곡법(收財曲法)하는 것을 각별 살피나니(公事) 하물며 지부에서 공사(公事) 그릇하는 말이 그 어찌 되는 말이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나라에서 탐관오리의 횡포를 엄격히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두 번째 선비가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을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바란 것을 통해, 관리의 비리를 고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 주 임무인 암행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탐관오리에 대한 대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염왕의 말	"세상에도 탐관오리 수재곡법하는 것을 각별 살피나니"

두 번째 선비의 소원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싶어 한다.
-------------	---------------------------------

오답 해설 ① 최 판관은 뇌물을 주겠다는 세 선비에게 저승에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이는 이승에서 뇌물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② 세 선비가 염왕에게 자신들의 몸이 이미 이승에 없으니 혼백을 어디에 붙이려 하느냐고 묻는 것과 자신들이 들어갈 육체에 대해 염왕과 흥정하는 것으로 보아, 혼백과 육체를 분리해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그 노릇을 임의로 할 양이면 내 염라대왕은 떼어 놓고 스스로 하리라.’는 말은 ‘내가 염라대왕을 그만두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로 세 번째 선비가 소망하는 행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⑤ 최 판관을 통해 벼슬아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선비를 저승으로 잘못 데려온 일로 인해 옥황상제의 추궁을 받을까 염왕이 염려하는 것을 통해, 저승에도 잘못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인물의 이해 및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수화상극(水火相剋)’은 ‘서로 원수같이 대함.’이라는 뜻으로, 염왕과 세 선비의 대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 선비는 자신의 바람을 당당히 말하고, 염왕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삼 인의 요구	삼 인이 다시 아뢰되, “좋은 사람을 잡아가다 오거라 가거라 하니 응당 그 값이 있을지라. 소생 등의 원대로 정지하여 주소서.”
염왕의 반응	염왕이 웃으며 가로되 “너희 소원대로 아뢰라.”

오답 해설 ① ‘광세영웅(曠世英雄)’은 ‘세상에 보기 드문 영웅’이라는 뜻으로, 용맹이 뛰어난 영웅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첫 번째 선비의 꿈과 통한다.
 ②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인정(認定)을 받고 출세(出世)하여 이름을 세상(世上)에 드날림.’이라는 뜻으로, 일대에 문장이 뛰어남을 떨치고 암행어사가 되겠다는 두 번째 선비의 소원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③ ‘각자무치(角者無齒)’는 ‘뿔이 있으면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모든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이다. 세 번째 선비는 모든 복록을 다 얻고 싶어 하니 각자무치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물실호기(勿失好機)’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세 선비에게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는 최판관의 상고 내용은 목숨을 건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06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의 남자(용인 사람)는 환생 후 전생의 영혼에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전생의 아내를 불러와 현생의 아내와 함께 산다. 이때 현생의 아내, 즉 진전 남자의 아내를 본부인으로 표현한다. 이 남자(용인 사람)의 정신(영혼)을 본질로 생각했다면 용인의 아내를 본부인이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육체보다 정신을 본질로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진전 본부인에게서 두 아들을 낳고

오답 해설 ① 윗글의 선비들의 소원이 당시 출세하여 복록을 누리고 싶었던 양반들의 욕망이라면, <보기>의 남자(용인 사람)가 부잣집 아들의 몸에 들어간 것은 부유한 삶을 살고 싶었던 서민들의 욕망에 해당한다.
 ② 윗글의 선비들은 이승에 자신들이 들어갈 육체가 없을 것을 염려하며 염왕과 협상을 한다. <보기>의 남자(용인 사람)는 이승의 몸이 망가져 혼백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③ 윗글의 선비들과 <보기>의 남자(용인 사람)는 모두 이승에서 죽어 저승에 간 상황이지만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저승에서 사람의 죽음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사가 이승에서의 죽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환생은 불교의 윤회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윗글의 세 선비와 <보기>의 남자(용인 사람)가 저승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알 수 있다.

black label 특강 설화의 특징

설화는 구비 문학이므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 감정과 습속뿐 아니라, 나아가 집단적 소망을 담고 있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흥미나 교훈 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설화는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므로 이야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전승자는 이야기의 세계 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하여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구조를 기억하여 이것에 자신 나름의 수식을 덧붙여 전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화는 대부분 길이가 짧고, 사건의 우연성이 남발되거나 인과 관계가 치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설화는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것이 후에 양반 등 지식인의 참여를 통해 문자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STEP B

<고전 소설 2>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④
12 ②

[07~09] 작품 분석

김원전(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탈각(脫却) 설화뿐만 아니라 용궁 설화, 연적 설화, 재생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김원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 태어나, 그 운명이 처음에는 불행했으나 나중에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천한다. 주인공이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 등장인물

- 김원: 원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원을 깨고 소년의 모습을 갖게 된다.
- 김 승상 부부: 자식이 원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기이한 출생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원에게 밥을 주라 이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운다.

▶ 전체 줄거리

김원은 등근 원(圓)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원을 깨고 아름다운 남자로 변신한다. 이때 머리 아홉 달린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해 가자, 대원수가 되어 공주를 구하러 간다. 철마산에 이르러 동우리를 타고 동굴을 통해 아귀가 사는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김원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아귀를 죽이고 납치되어 온 세 공주와 부녀자들을 구한다. 그러나 김원의 공을 시기한 부하 강문추는 동굴을 막아 김원을 지하국에 가둔다. 김원은 지하국에서 용왕의 아들을 구해 준 보답으로 용궁에서 용왕의 딸과 결혼한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공주와 결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로 승천한다.

▶ 지문 줄거리

승상 부부는 둥글기만 하고 입도 손도 없는 원의 형상에 놀랐지만 원(圓)이라 이름 짓고,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먹이고 보살핀다. 원으로 태어난 김원이 10년이 지난 후 원을 깨고 소년의 모습을 갖게 된다. 김 승상 부부는 원의 변화에 기뻐하고, 원은 자신을 보살펴 준 김 승상 부부에 감사한다.

▶ 주제

김원의 환골탈태와 고난 극복

▶ 어휘 풀이

- 비복(婢僕):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섬돌: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0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비복은 사건의 속사정은 모른채 원이 사라지고 소년이 나타난 상황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비복은 승상에게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나.’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아뢰었을 뿐이다. 또 승상이 비복의 말을 듣고 의혹하여 월영각에 간 것으로 보아, 비복의 말이 부자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승상은 소년에게서 적강의 사연을 듣고 선관이 남기고 간 허물과 천서 세 권을 본 후에야 부자 관계를 확신한 후 주변인들과 함께 기뻐한다.

오답 해설 | ① ‘이것’은 본래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홍물로 적강(謫降)한 김원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② 김원이 적강(謫降)한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 과정에 선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골육(骨肉)’은 ‘혈육(血肉)’과 유사한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을 일컫는다. ‘원(圓)’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불초자’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승상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호칭으로 드러내고 있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추론

정답 ④

정답 해설 | 김원의 성장은 김원이 밥을 먹고 부모가 부양을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신의 과정에서 부모는 집을 비운 상황이고, 김원 역시 선관이 자신의 허물을 벗겼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변신의 과정에 주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 ㉕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했다는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주인공은 자신의 뜻에 의해 스스로 적강하지 않고 죄에 대한 벌로 적강하였다.

② 김원의 적강이 있었기에 성장과 변신이 가능하다.

③ 변신한 김원의 이야기를 들은 승상은 놀라고 기뻐하였다고 하였다.

⑤ 김원은 자신이 벗은 ‘허물’과 ‘천서 세 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이때 ‘천서 세 권’은 지상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천상계의 물건으로, 이 물건을 근거로 천상계와 지상계가 소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9 인물의 심리와 역할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승상은 처음으로 원에게 밥을 주며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게나 밥을 더 주어 보라.”라고 말한다. 자식을 ‘이것’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사람이라면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에서 보듯이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애듯함과 대견함을 가지고 본다고는 할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골육으로 보살피려 함.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홍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이상하게 여김.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게나 밥을 더 주어 보라.”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오답 해설 | ① 원이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라고 한 것은 부모의 고충에 대해 송구함과 황송함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는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② 선관이 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나, (중략) 이후 소년(원)의 말을 통해 선관이 원의 허물을 벗긴 후, 이를 부모께 보여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고 일렀으며, 천서(天書)를 놓고 갇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의 실체와 그간의 사정이 밝혀졌고, 부모의 의혹 역시 풀렸다.

③ 비복 중에 한 사람이 승상에게 “난데없는 선동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이라고 하였다. ‘난데없는’, ‘차마 ~ 못하여’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노복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승상은 원이 흥하고 고이함에도 불구하고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흥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라며 십여 년 동안 원을 기른다. 승상의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승상이 매우 신중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0~12] 작품 분석

임경업전(작자 미상)

▶ 작품 해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민족적 영웅이었던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는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사리사욕만을 채우던 간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자호란의 치욕이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간신들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제시된 부분에는 임경업의 충신으로서의 면모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 김자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등장인물

- 임경업: 무신이며 충신. 호왕의 회유를 거절하고 세자 일행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호왕이 공주와 결혼할 것을 권유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지만 김자점의 흉계로 잡혀가게 된다.
- 김자점: 간신으로, 임경업을 제거하기 위해 임금에게 모함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무리와 계락을 꾸며 임경업을 속여 잡아간다.
- 호왕: 적이지만 임경업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

▶ 전체 줄거리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들어간다. 이때 마침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다. 명나라에는 마땅한 장수가 없어서 조선의 임경업이 청병 대장이 되어 출전하여 호국을 구원한다. 귀국 후에 호국이 강성해져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호국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 임경업의 용맹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 도성을 공격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의주에 있던 임경업은 이 소식을 듣고 회군하는 적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호국군에게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 준다.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고 조선에 청병을 하면서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김자점의 주청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하였는데, 임경업은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명나라와 대통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거짓 항서를 올리게 하고 귀국한다. 이 사실을 안 호왕은 다시 임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지만, 임경업은 호국의 간계를 미리 알고 호송하던 호병을 죽이고 중이 되어 명나라로 도망한다. 임경업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승 독보의 배신으로 호군에게 잡혀 호국에 이르게 된다. 호왕은 오히려 임경업의 위엄과 충의에 감복하여 세자 일행과 임경업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 임경업의 귀환 소식을 들은 김자점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왕을 알현하고 나오는 임경업을 암살한다. 왕은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보고 김자점을 잡아 처형하고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 지문 줄거리

임경업은 호왕의 회유를 거절하고 세자 일행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임금은 재물을 가져온 세자에게 호통을 치며 임경업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한편 호왕은 임경업에게 공주와 결혼할 것을 권유하지만 임경업은 기지를 발휘하여 상황을 모면한다.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김자점의 흥계에 잡혀가게 된다.

▶ 주제

임경업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 어휘 풀이

- 방불하다: 거의 비슷하다.
- 존명(尊命): 남의 명령을 높여 이르는 말.
- 해오다: 생각하다. 헤아리다.

10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행복하리오.”,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조강지처가 있사오니,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이다.” 등의 말에서 임경업의 강직함을, 숙모공주를 속이는 행동에서 재치를 각각 발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임경업과 김자점의 대립이 임경업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지만, 지문에서 임경업은 사자(使者)에 의해 잡혀가고 있다. 배후에 김자점이 있다는 것을 임경업이 인지하고 있다는 어떠한 단서도 지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숙모공주는 임경업의 키가 다소 큰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거절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이어 호왕이 임경업에게 부마가 되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공주가 거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③ 김자점이 임경업을 모함했을 때 임금은 임경업을 충신이라 일컬으며 김자점을 엄히 꾸짖었다.

④ 호왕은 적군이지만 임경업의 강직함과 충절에 감동하여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1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소설을 보면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네게 행복하여 계시거니와’에 역사적 사실과 마찬가지로 호국에 행복한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어지는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행복하리오.’에서 호왕에게 강직한 모습을 보이는 임경업을 통해 정신적 승리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임경업은 정묘호란 이후 청의 공격로를 방어하고, 병자호란 때 국경에서 청군을 막으려 하였으며, 이후에도 명과 통통하여 청나라에 저항했다고 하였다.

② 역사적 실존 인물인 임경업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김자점의 음모 사건 역시 역사적 사건이므로, 독자들은 소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임경업은 인조의 요청으로 조선에 돌아와 임금에게 심문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소설에서 임금은 임경업을 충신으로 대하고 있다. 소설에서 임경업과 대립하는 인물은 김자점이다.

⑤ <보기>에서 소현 세자는 곡식을 팔아 진기한 물품을 사들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소설에서 변형되어 소현 세자가 탐욕이 강해 호왕에게 금을 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낭독을 들으며 작품에 몰입한 청중은 극 중 의주 백성들과 달리 임경업이 잡혀가는 이유가 김자점의 계략임을 알기에, 김자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즉 그 연고를 바로 알기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호왕에게 조선의 왕이 행복한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청중들은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장군인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청중들은 통쾌해할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앞부분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네게 행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행복하리오.”
	경업이 크게 꾸짖어 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③ 호왕이 임경업의 소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 줄 때, 세자는 재물인 금은을 구하였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즉 세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지 않고 탐욕만 채운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주상은 바로 세자를 꾸짖고 대군으로 세자를 봉한다. 따라서 낭독자는 이 장면에서 주상의 세자를 향한 분노를 생생하게 표현하였을 것이고, 청중들은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④ 사자와 임경업의 대사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장면의 낭독을 듣는 청중들은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사자	“장군이 반역했다 하여 역률(逆律)로 잡아 오라 합니다.”
임경업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 가노라.”

⑤ 임금은 임경업을 충신이라고 지칭하며,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하였지만, 김자점은 임경업의 존재가 자신에게 방해가 됨을 알고 임금 몰래 임경업을 역적으로 잡아 오라고 명한다. 이 장면을 듣는 청중들은 극중 인물인 김자점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며, 나아가 현실에서의 간신과 충신이 누구인지, 처우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blacklabel 특강 선지 분석 방법

이 문제에서 ②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를 간과하고 선택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고전 소설은 보통 마지막 지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주어부와 서술부를 집중해서 읽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고전 소설 ③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①	18 ③

[13~15] 작품 분석

낙성비룡(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어려서 부모가 죽고 고아로 자란 주인공 이경작이 구원자를 만나고 다시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가 되는, 영웅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줄거리나 주제, 표현 형식에 있어 다른 영웅 소설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점은 없지만, 섬세한 성격 묘사와 순우리말 표현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인공이 잠꾸러기였다 먹보인 것이 독특한데, 이는 「소대성전」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주인공의 능력은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라기보다는 학업에 정진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키워나간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 등장인물

- 이경작: 잠꾸러기에 먹보로 장모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지만 영웅적 인물이다. 난리를 평정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서 설인수로부터 양 소저의 소식을 듣게 된다.
- 설인수: 경작의 동서로 유쾌한 성격의 인물. 경작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재치 있게 질책하며 양 소저의 근황을 알려 준다.

▶ 전체 줄거리

명나라에 이주현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의 부인 오 씨가 어느 날 큰 별이 방안에 떨어졌다가 황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잉태한 뒤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 경작이라 이름 지었다. 경작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유모의 손에 자라다가 남의 집 머슴으로 떠돌게 된다. 그러다 퇴임 재상 양 승상이 경작의 인물됨을 알아보아 경작은 그에게 의탁하게 된다. 양 승상의 딸과 정혼을 하지만, 이후 승상이 죽자 부인 한 씨로부터 심한 박대를 당하다 양 승상 맥을 나와 청운사로 들어가 학업을 하고 장원 급제한다. 경작은 변왕이 모반하여 쳐들어오자 원수가 되어 평정하고, 평원왕에 봉해져 양 승상의 딸과 결혼한 후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

▶ 지문 줄거리

원수가 되어 난리를 평정한 이경작은 설인수를 만나게 되는데, 설인수는 조강지처를 돌보지 않는 경작을 질책한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난 후 설인수는 아내에게 양 승상의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것에 대해 감탄하며 이경작의 이야기를 전한다.

▶ 주제

먹보에 잠꾸러기인 이경작의 고난 극복과 승리

▶ 어휘 풀이

- 면식(面識): 얼굴을 서로 알 정도의 관계. '안면'으로 순화.
- 잠소(潛笑): 가만히 웃음.
- 감복(感服):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함.

13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설인수는 이경작이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람마다 이경작의 어질고 넓은 덕을 추앙하는데 정작 그는 '약한 부인'을 돌보지 않는다며 질책하였다. 그러면서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탈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에서 '약한 부인'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다. 즉 경작의 아내가 아픈 것은 원래 약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경작이 집을 나간 이유로 아프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오답 해설 ③ '우회적'이란 직접적으로 용언을 말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설인수는 경작의 무심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경작의 처'에 대해서는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은 다시 한 번 "처가는 평안하시오?"라고 확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 상황 이해 및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환골탈태(換骨奪胎)'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또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판사람처럼 됨.'을 이르는 말인데, ④에서는 후자의 의미이다. 원수는 11년 전 소 먹이던 목동이었으나, 현재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설 태수는 경모의 모습이 몰라보게 바뀌었기 때문에 놀란다.

오답 해설 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경모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도로 가는 길에 부모 묘소가 있는 고향에 들르겠다고 했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

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이해에 대하여 협력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③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알.'을 이른다.

1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마지막 장면에서 설 태수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 원수의 일을 전한 후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감복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장인은 이 원수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태수는 원수에게 "그 솔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 까 하오."라 했고, 이에 대해 원수는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라고 했다. 이로 보아 이 원수가 한때 잠을 많이 잤음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장인이 인물됨을 알아봄.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
대식가이며 잠을 많이 자던 과거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담당하기겠소."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솔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 까 하오."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오답 해설 설 태수와 이 원수의 대화에서 이 원수는 부인을 두고 집을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했을 뿐,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한 이 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 먹이던 목동이었던가 원수가 되었는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18] 작품 분석

바리데기(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사령제(死靈祭)로서 무속 의식에서 구연되는 서사 무가이다. 신화로서 「바리데기」가 갖는 특성은 바리데기가 사령을 통제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데에 있다. 또 개인적으로 효녀인 바리데기가 국가의 공신으로서 집단적 추앙을 받는 영웅이 되고, 다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되어 영속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바리데기가 죽지 않고 성장하여 죽은 부모를 살리는 내용은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당대 민중의 소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 등장인물

- 바리데기: 부모에게 버림받지만 부모를 위해 희생한다. 효심이 지극하고 강한 끈기와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 오구 대왕과 길대 부인: 바리데기의 친부모이나 딸을 버린다. 병에 걸려 바리데기에게 약을 구해 오도록 하여 죽음에서 회생한다.

▶ 전체 줄거리

불라국의 오구 대왕과 길대 부인은 딸만 여섯을 낳고 살던 중,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 아이를 잉태하지만 또 딸을 낳는다. 대왕은 실망하여 아이를 버리라고 명하고, 길대 부인은 아이의 이름을 '바리데기'라고 짓고 산에 갖다 버린다. 바리데기는 산신령이 구해 키우는데, 바리데기가 열다섯 살 되었을 때, 오구 대왕은 병이 들었고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험을 보지 못한다. 노장 스님은 서천 서역국의 약력수만이 살길이라고 말하는데, 여섯 공주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길대 부인이 꿈에 계시를 받고 바리데기를 찾아가고,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했던 바리데기는 약력수를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서역국에 간 바리데기는 무상 신선을 위해 9년 동안 노동을 하고 일곱 아들을 낳아 주고 약을 얻어 무상 신선과 일곱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 오는 길에 왕과 왕비의

상여를 만나 급히 상여를 멈추고 약수와 나무로 부모를 되살린다. 바리데기는 죽은 이들의 안내자가 되려 무당이 되기로 결심하고, 무조신이 된다.

▶ 주제

바리데기의 지극한 효심, 바리데기의 고난 극복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

▶ 어휘 풀이

- 양전마마: 왕과 왕비.
- 수결(手決): 서명.
- 인산거동(因山舉動): 임금이 죽어 상여가 나가는 것.
- 선후망의 아모 망재: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죽은 사람이나 아무 망자나.
- 월출동령(月出東嶺): 동쪽 산마루에 달이 떠오름.
- 나화(羅花): 비단으로 만든 꽃.
- 억만귀졸(億萬鬼卒):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질구레한 온갖 귀신.
- 무상 신선: 신적 존재인 약수지기.
- 총망길: 급히 오는 길.

1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 바리데기의 고된 처지를 제시하고 나서 ‘우여! 슬프다’라며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바리데기」에는 신화적 성격과 판소리의 성격이 모두 들어있다.

blacklabel 특강_「바리데기」의 영웅 설화적 구조

영웅 서사 구조	「바리데기」
고귀한 혈통	공주로 태어남.
비정상적 출생	신령님께 치성을 드린 결과로 잉태됨.
어려서 버려짐.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짐.
조력자의 도움	산신령(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장함.
비범한 능력	지팡이를 휘둘러 천 리 길을 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음.
고난	약려수를 구하기 위해 지옥과 극락을 가고, 노동을 하고 아이를 낳음.
고난 극복	약려수를 구함. 부모를 회생시킴.
영웅이 됨.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무조신이 됨.

17

등장인물의 태도와 인식

정답 ①

정답 해설 | 오구 대왕이 아들을 낳기 위해 백일기도를 드린 점, 바리데기가 딸이라는 이유로 버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구 대왕은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한 인물이다.

오답 해설 | ② 여섯 명의 딸은 오구 대왕을 살릴 약수를 구하려 못 가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③ 길대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 딸을 버리거나 여섯 명의 딸에게 약수를 구하려 갈 것인지 묻거나 바리데기를 찾아다니는 등,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하고 있다.

④ 무상 신선은 바리데기에게 삼 년 간의 고행을 세 번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장의 권위를 앞세운 요구가 아니라 바리데기가 가져 오지 않은 ‘물값, 나무값’에 대한 요구이다.

⑤ 바리데기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약수를 구하려 서천 서역으로 떠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장 어린 자식이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8

구절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㉞은 무상 신선의 외양을 묘사한 구절로, 무상 신선이 바리데기를 일 부러 겁을 주지도 않았으며 이후에도 본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정보가 없으므로 무상 신선이 변신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던지시 암시하는 서술이 ‘복선’이다. 바리데기가 길을 떠난 것은 오구 대왕이 병이 들어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바리데기는 ‘양 마마님께서 한낱한시에 승하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하며 자신을 기다려 장례를 미룰 것을 요구하는데, 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따라서 ㉞은 ‘복선’이라 할 수 있다.

② 바리데기의 비범함은 그가 ㉠과 같은 능력을 지닌 것, 석가세존과 무상 신선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 등에서 드러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바리데기는 하고 있다.

⑤ 이 꿈을 꾸고 서둘러 길을 떠났으나 이 꿈처럼 이미 왕과 왕비가 죽었으므로 부모의 상황을 알려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19 ④

20 ⑤

21 ④

22 ⑤

23 ③

24 ⑤

[19~21] 작품 분석

열녀춘향수절가(작자 미상)

▶ 작품 해설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소재의 현실성, 배경의 향토성, 인물 성격의 창조성, 주제의 저항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문 소설의 백미(白眉)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등장인물

- 월매: 거지꼴로 찾아온 몽룡이 마음에 들지만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몽룡: 암행어사이나 신분을 숨기고 월매의 구박을 받으며 춘향을 찾아간다. 춘향의 절박한 상황에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인명은 재천’이라는 말로 춘향을 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암시한다.
- 성춘향: 이몽룡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자 신임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옥에 갇혔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몽룡에게 자신이 죽은 후이라도 자신을 몽룡 집안의 선산에 묻어 달라고 한다.

▶ 전체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월매의 딸 성춘향이 서로 사랑하다가, 몽룡의 아버지인 남원 부사가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이별한다. 남원에 부임한 신임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는데, 춘향은 이를 거절하다가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 전라 여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 춘향을 구한다.

▶ 지문 줄거리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기 위해 결인으로 위장한 몽룡이 찾아오자 춘향은 자신이 죽으면 이몽룡 집안의 선산(先山)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달라는 유언을 한다.

▶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주제

- 등롱(燈籠): 등의 하나. 대오리나 쇠로 살을 만들고 곁에 종이나 형짚을 씌워 안에 촛불을 넣어서 달아 두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함.
- 사정(使丁): 예전에, 관청이나 기관에서 잔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 상사일념(相思一念): 서로 그리워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이르는 말.
- 만단정회(萬端情懷): 온갖 정과 회포.
- 염문(廉問):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몰래 물어봄.
- 기절담락(氣絶膽落): 기절낙담. 매우 놀라서 정신을 잃음.
- 낙상(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침. 또는 그런 상처.
- 노문(路文): 조선 시대에, 공무로 지방에 가는 벼슬아치의 도착 예정일을 미리 그곳 관아에 알리던 공문.
- 기색(氣塞)하다: 1.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막히다. 2. 심한 흥분이나 충격으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멎다.
- 상사불견(相思不見):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함.
- 박명(薄命)하다: 1.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 2. 수명이 짧다.
- 일구월심(日久月深):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함을 이르는 말.
- 자진(自盡)턴가: 온갖 정성을 다하던가.
- 만수운환(漫垂雲鬟): 가다가다가이 흩어져 드리워진 쪽 찢 머리.
- 염습(殮襲):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 청운(靑雲): 1. 푸른 빛깔의 구름. 2.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육진장포(六鎭長布): 함경북도의 육진이 있던 곳에서 나는 베.

19

인물의 상황과 정서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춘향은 몽룡과 이별한 후 몽룡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옥에 갇혀 죽을 날이 가까워 올수록 몽룡에 대한 그리움과 혹시라도 몽룡이 자신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절실해진 상황으로, 꿈에서나마 이몽룡을 만나고 있었다. ④는 꿈에 다니는 것도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면 입을 보러 가는 길이 돌길이라도 닳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움이 깊어 곁길마다 찾아간다는 것이므로, 몽룡을 간절히 기다리고 꿈에서라도 보려는 춘향의 정서와 유사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재회 전의 춘향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상(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 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대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더니 몽중에 보던 입을 생시에 본단 말가?”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런 입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나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 일러니~”

오답 해설 | 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한 빗들의 행동으로 당쟁을 풍자한 시이다.

② 봄의 경치를 통해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외로움이 ‘이별’과 ‘그리움’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어이없어 나오는 헛웃음이라며 빗들에게 웃지 말라 한다. 웃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이다.

⑤ 꽃이 지고 봄이 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며 자연의 이치에 대한 순응으로 볼 수도 있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소인(小人)들의 정계 풍파에 대한 개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0

외적 준거를 통한 장소의 상징성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춘향이 옥에 갇힌 이유는 정절을 지켜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또한 춘향은 당대 사회의

덕목(정절)을 실천하여 그에 대한 보답(선산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자신을 기리는 문구를 새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춘향이 당대 사회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은 ‘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대표하는 장소이며, ㉡은 ‘춘향’이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정절의 한을 위로받고 싶은 장소이다. 따라서 ①, ②는 둘의 사랑의 장소라는 점에서, ③, ④는 춘향의 한을 해소하고 소망을 이루는 장소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21

각색된 희곡과의 차이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이몽룡은 춘향에게 ‘인명은 재천’이라며 춘향이 죽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이몽룡이 당당한 모습이라 여길 만한 단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제시문에서는 향단이 시간을 기다려 옥에 가는 길을 밝혀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보기〉에서는 몽룡에 대한 원망과 멸시로 춘향과의 재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월매에게 춘향의 마음을 전하며 몽룡을 춘향에게 안 내할 것을 제안하고, 춘향의 초췌해진 모습을 보이며 몽룡을 원망하는 월매를 말리는 등 몽룡과 월매 사이를 중재하고 있다.

② 제시문에서 춘향은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이몽룡에게 자신을 구하러 왔느냐는 기대에 찬 질문을 하지만, 〈보기〉에서는 몽룡의 결혼 여부를 먼저 묻고 있다.

③ 제시문에서도 몽룡에 대한 원망이 ‘서방인지 남방인지’ 정도로 표현되지만, 희곡에서는 몽룡과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인지 서계 서방인지’, ‘이 이가 놈’, ‘이놈아 저 꼴을 보아라.’처럼 낮추어 말하고 있다. 제시문보다 〈보기〉에서는 원망과 멸시의 정도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22~24] 작품 분석

이춘풍전(작자 미상)

▶ 작품 해설

가정이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몰락하고,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의 전개는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또한 허위로 가득 차고 방탕한 삶을 비판하고 근면과 슬기와 성실한 삶을 강조하는 교훈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부패한 사회상을 풍자한 작품이기도 하다. 돈으로 벼슬을 사려다가 집안이 망한 상인 박득만과 최 참판 사이에서 대리 청탁으로 돈이나 뜯어 쓰려는 이춘풍의 행위는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성행했던 당시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다. 호조의 돈을 빌려 온 이춘풍을 갖은 수법으로 털어 내고는 돈이 떨어지자 하인으로 부려먹으며 구박하는 추월의 모습에서 신의와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사회를 비판한 점도 엿볼 수 있다. 한 여성의 활약으로 방탕한 남성을 개과 천선하게 하고 몰락한 가정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인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등장인물

- 이춘풍: 서울 거부의 아들이었으나 방탕하여 가산을 탕진함. 위선과 허세에 가득 찬 가부장적 남성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 춘풍의 처: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남편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그의 허위를 꾸짖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다.

▶ 전체 줄거리

속중 때 서울에 사는 이춘풍은 가정은 돌보지 않고 놀러 다니며 가산을 탕진한다. 춘풍은 돈이 떨어지자 기생 월향에게까지 천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 김 씨가 굶주려서 거동도 못 하고 누워 있다. 춘풍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고는 아내에게 서약까지 한다. 이에 김 씨는 기뻐하며 주린 배를 안고 열심히 푼팔이를 하여 돈을 모은다. 춘풍은 다시 교만하여져서 호조(戶曹)에서 돈 2,000냥을 빌리고 아내가 모은 500냥까지 합해서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간다. 평양에 도착한 춘풍은 명기 추월에게 미혹되어 장사는 하지 않고 돈을 탕진하다

가, 이윽고 박대와 수모를 받으며 추월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한다. 춘풍의 소식을 들은 김 씨는 마침 이웃에 사는 참판이 평안 감사로 부임하게 되자 청을 드러 비장(裨將)이 되어 남북을 하고 평양에 간다. 추월의 집을 찾아가 추월의 간교한 행태와 춘풍의 거지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 추월을 엄히 문책하여 5,000냥을 춘풍에게 주게 하고 춘풍 역시 태장(笞杖)을 쳐서 죄를 다스린다. 춘풍은 의기양양하여 집으로 왔으나 아내가 비장의 복장으로 나타나서 꾸짖자 다시 망신만 당한다. 춘풍은 비장이 아내인 것을 알고 개과전선하여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힘써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을 이룬다.

▶ 지문 줄거리

춘풍의 처가 춘풍을 구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춘풍도 의기양양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춘풍은 예전의 일을 반성하지 않고, 이에 다시 아내가 비장의 복장으로 나타나서 꾸짖자 망신만 당한다. 춘풍은 비장이 아내인 것을 알고 둘은 평양에서의 일을 이야기한다.

▶ 주제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 여성상의 제시

▶ 어휘 풀이

- 설치하다(雪恥--): 설욕하다. 부끄러움을 씻다.
- 수쇄--(收刷--): 수습하다.
- 외람되다(猥濫--): 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다. '분에 넘치다'로 순화.
- 불일내(不日內): (주로 '불일내로', '불일내에' 꼴로 쓰여) 며칠 걸리지 아니하는 동안.
- 은안준만(銀鞍駿馬): 은으로 장식한 안장과 빠르게 잘 달리는 말.
- 장취(長醉): 늘 술에 취함.
- 오동수복(烏銅壽福): 백동으로 만든 그릇에 검은 구리로 '수(壽)'나 '복(福)'자를 박은 것.
- 갈분(葛粉): 칩뿌리를 짓뎌어 물에 담근 뒤 가라앉은 앙금을 말린 가루.
- 체중--(體重--): 지위가 높고 집값다.
- 파경(破鏡): 1. 깨어진 거울. 2. 사이가 나빠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부합(附合): 서로 맞대어 붙임.
- 일푼전(一分錢): 한 푼의 돈이라는 뜻으로, 극히 적은 액수의 돈을 이르는 말.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춘풍의 처와 기생 추월인데, 춘풍의 처는 사회 제도 면에서 피억압자이지만 남편을 위기에서 구하고 남편의 잘못을 꾸짖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추월은 춘풍을 하인으로 부렸던 것으로 보아 억압받는 여성으로는 볼 수 없다. 즉 둘 모두 당대의 억압받는 여성의 전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춘풍은 개인을 넘어서 무능력하고 위선적이며 가부장적 권위를 앞세우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방탕한 남편을 무겁게 질책하기보다 아내가 '비장으로 위장'하여 골리는 것으로 풀어 가는 과정에서 춘풍은 회화화되고 내용의 해학적인 성격이 형성된다.

③ 춘풍과 아내의 대화가 사건 전개에 중심이 되어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한다.

④ 판소리는 아니지만 판소리와 유사한 구어체의 문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서술자의 개입으로 독자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서술자의 빈번한 개입	이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을 잡아들여 돈 오천냥 바치라 하시니 뒤 영이라 거역할까?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그 거동을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이 황갑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쏘냐?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쏘냐? 좌불안석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23

인물에 대한 평가

정답 ③

정답 해설 | 춘풍이 돈을 자신의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비장, 즉 춘풍의 처가 찾아 준 돈을 가져온 것이다. 또 춘풍이 추월의 집에서 하인이 되어 고생하다가 아내 덕에 벗어난 것으로 볼 때 고난 극복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춘풍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내에게 교만하게 구는 모습으로 보아 방탕하고 권위만 내세우던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춘풍의 처는 춘풍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한다. 그래서 춘풍이 화를 내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④ 춘풍의 처가 사또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소인 몸이 외람되어 존중한 처소에 오래 있삽기 죄송하와 떠날 줄로 아뢰나이다.'에서 춘풍의 처가 여인임을 사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춘풍도 찾삽고 호조 돈도 수쇄하오니'에서 춘풍의 처가 비장으로 온 목적도 드러난다.

⑤ 방탕하고 무능한 남편을 모질게 혼내 주려 했다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를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생각이다.

24

인물의 의도와 사회상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비장이 평양에서의 일을 말하자 아내가 들을까 봐 주변을 살피는 것으로 보아 춘풍은 평양에서 있었던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내에게 권위를 잃고 싶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그러한 일을 겪고도 뉘우치지 않는 춘풍에 대한 조롱이고 응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해설 | ② 춘풍은 아내가 비장의 옷가지와 갓 망건을 다 벗고 자신을 밝힐 때까지 비장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③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였다면 춘풍의 처가 춘풍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여전히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고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조금씩 그 가치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춘풍이 집에 돌아와서도 반찬 트집에 평양 기생 추월을 들먹이며 권위를 내세우자 평양에서의 춘풍의 행색을 알고 도움을 준 비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STEP		B		1등급 완성문제		고전 소설 ⑤	
25 ④	26 ④	27 ③	28 ⑤	29 ②	30 ②		
31 ⑤	32 ⑤	33 ⑤					

[25~29] 작품 분석

백학선전(작자 미상)

▶ 작품 해설

내용과 문체상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작가·연대 미상의 국문 고전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들이 가연(佳緣)을 맺을 때 교환한 신물(信物) '백학선'을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백학선'은 주인공 '유백로'가 지니고 다니는 흰 학이 그려진 부채이다. '백학선'은 작품에서 주인공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사건을 이끌어 간다.

한편 이 작품은 천상 세계에서 죄를 지은 선관·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와서 갖은 고초 끝에 서로 만나고 또 오랜 역경 끝에 행복을 찾아 영화를 누리다가 삶을 마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이른바 적강 소설(謫降小說)에 속한다. 또 남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이 적극적 인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박씨전」, 「홍계월전」과 같은 여성 영웅 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두 주인공 사이의 애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 화두가 된다는 점에서 애정 소설의 성격도 두드러진 작품이다. 또한 두 주인공이 맺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점에서 ‘혼사 장애담’에 해당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영웅 소설마저도 애정물로 전환되었던 조선 후기의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 등장인물

- 유백로: 상서 유태종의 아들. 13살 때 수양을 갔다 오다가 조은하를 만나 백학선을 주며 청혼을 한다.
- 조 소저: 어릴 때 외가에 다녀오다 유백로를 만나서 유 씨 집안의 가보인 백학선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유백로와의 혼약을 지키고 유백로와 나라를 구하는 영웅적 모습을 보인다.

▶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 유태종은 꿈에 ‘천상에서 죄를 지어 당신의 자식이 되겠다’ 한다. 이 아이의 배필은 서남에 있다.’라는 선녀의 말을 듣고 아들을 잉태하였는데, 그가 바로 유백로이다. 이부 상서 조정노도 절에 기도를 하여 ‘천상의 시녀’가 딸로 태어나게 되니, 이름을 조은하라 하였다. 운수 선생에게 가던 열세 살의 유백로는 길가에서 열 살의 조은하를 만나, 집안대대로 보물로 전해 내려오던 백학선에 ‘요조숙녀 군자호구’라는 글귀를 써서 주고는 훗날을 기약한다. 그 뒤 병부 상서 문 상서가 유백로를 사위로 맞고자 하나 유백로가 벼슬을 얻은 뒤 하자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고, 최국양도 조은하를 며느리로 맞고자 하나 조은하가 유백로로 인해 거절하자 앙심을 품는다. 유백로는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순무 어사로 부임하여 조은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병이 들어 벼슬을 버린다. 이때 오랑캐 가달이 쳐들어오자, 유백로는 최국양이 간한 대로 대원수가 되어 가달을 막으려 하나, 최국양이 군량을 보내 주지 않아 패전하여 가달에게 잡히고 만다. 방황하던 조은하는 주막에서 점괘를 보고 유백로가 위험함을 알고는 임금에게 자원한다. 병법과 무술에 신통력이 있음을 본 임금은 조은하에게 원수 가달을 물리치도록 허락한다. 조은하는 결국 선녀의 도움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해 돌아온다. 이에 최국양은 처벌을 받고, 유백로와 조은하는 연왕, 연왕비가 되어 팔순까지 살고 하늘로 올라간다.

▶ 지문 줄거리

조 소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병이 든 유 한림은 벼슬에서 물러난다. 아들의 병의 원인을 짐작한 그의 아버지는 전 현령을 통해 흔처를 물색하다 조 소저의 사연을 듣고 아들이 미리 말하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유 한림은 조 소저를 찾아 나설 뜻을 아뢰는다.

▶ 주제

- 남녀 사이의 신의 있는 사랑
- 혼사 장애를 극복하고 결연(結緣)에 이르는 사랑

▶ 어휘 풀이

- 괴망하다(怪妄--): 말이나 행동이 괴상하고 망측하다.
- 성혼하다(成婚--): 혼인이 이루어지다. 또는 혼인을 하다.
- 임소(任所): 지방 관원이 근무하는 곳.
- 천신만고(千辛萬苦):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 소질(小姪): 조카가 아저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2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작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시된 내용은 부채를 주어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약속했던 조 소저를 잊지 못하는 대사도의 상사병과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아버지 유 상서와 전 현령은 조 소저를 만난 일이 각각 있었다. 그러나 대사도와 조 소저가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불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아버지 유 상서와 전 현령은 대사도의 혼사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유 상서는 백학선을 가진 조 소저를 문초한 적이 있고, 전 현령은 조 소저를 놓아 준 적이 있다.

③ 제시된 내용과 중심 사건은 대사도의 혼사 문제에 맞춰져 있다.

⑤ 마지막 말에서 대사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조 소저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답지를 찾아내야 한다. <보기>에 따르면 대사도와 조 소저는 하늘에서 이미 인연이 정해진 인물들이다. 그러나 제시된 부분만으로 볼 때 대사도가 조 소저와 자신의 인연이 이미 정해진 것임을 알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대사도가 조 소저와 자신이 혼인에 이르는 일이 정해진 것임을 알았다면 조 소저를 만나지 못해 불안해하고 애통해하는 않았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이 소설을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의 이원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제시된 부분은 적당의 결과로 나타난 지상 세계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

② 남녀 주인공이 여러 차례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으므로 조 소저의 투옥이나 남경행은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두 사람은 결국 혼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적당했던 인물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27 발화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유 상서의 말은 자신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데 어찌할 것이냐는 책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미리 말을 했더라면 그 여인이 겪는 고통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인과 아들 대사도의 관계도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의 앞에 유 상서가 한 말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애가 왜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병이 되도록 있느냐.”에서도 사도가 미리 말을 했더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끌어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아니다.

④ 아들이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유 상서의 관심사는 아들에게 있고, 조 소저가 한을 품어서 가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조 소저가 겪는 고초를 견디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과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 ‘백학선’은 대사도가 조 소저를 만났을 때 조 소저에게 준 신물이면서, 후에 둘 사이를 엮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백학선은 대사도와 조 소저 사이의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⑤의 ‘다리위’ 역시 화자에게 누이를 생각나게 하는, 화자와 누이 사이의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마귀’는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 불안한 화자의 심리를 보여 준다.

② ‘산 땡’은 여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③ ‘문의’는 시적 화자에게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빈 길’은 화자의 외로움과 단절감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다.

29 지시 대상의 구분

정답 ②

정답 해설 | 제시된 부분에 등장하는 여인은 대부분 조 소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⑥의 '여자'는 일반적 의미의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버지 유 상서가 아들의 병이 상사병(相思病)임을 알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이 조 소저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사도가 사모하는 여인이므로 조 소저이다.

③ 유 상서가 가두었던 여인이므로 조 소저이다.

④ 아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상이므로 조 소저이다.

⑤ 사도의 말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므로 조 소저이다.

[30~33] 작품 분석

옥수기(심능숙)

▶ 작품 해설

심능숙이 만년에 지은 것으로 모두 14장으로 된 장편 소설이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가, 화, 왕, 진 네 가문의 사람들이 가씨 집을 중심으로 서로 혼인을 맺어 가면서 정치적 환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가유진으로 화의실의 딸 화 소저와 정혼한 뒤, 설강운, 진 처사의 딸 진 소저, 왕 상서의 딸 왕 소저 등과 차례로 결연하고, 이오의 반란, 복호의 침입 등을 물리치는 공을 세운다. 반면 가유진과 제일 먼저 정혼한 화 소저는 아버지 화의실과 시아버지 가남이 황제에게 상소했다가 유배되는 바람에 혼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그런가 하면 양방, 계효, 나춘 등 간신배들과 가남, 처사, 요 도사, 임 소저 등 도선의 세제, 진 소저, 양씨 등 여걸의 활약, 청춘 남녀들의 낭만적 결연과 투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의 성취를 도선적 초월의 세계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에 「구운몽」에서 양소유와 팔선녀가 모두 모여 즐거운 생활을 하듯이 이 작품에서도 다 모여 즐거운 생활을 하며, 도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현실에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탐욕적인 욕망 추구는 아니며, 선비의 도리를 지키며 그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서 온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당대 벌열 집안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새롭게 대두되던 평민 계층의 성장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복고적인 왕도 정치를 이념적 지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이 계층이 스스로 벌열 집단을 형성하고 세도 집단의 세계관으로 기울어져 사회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적극 배제하면서 권력과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특권 집단만의 세계를 이상화하고 있어 근대 이행기의 보편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등장인물

- 가유진: 가남의 아들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 주는 인물. 화 소저와 정혼한 사이이나 화 소저에 비해 혼인을 위한 노력이나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다.
- 화 소저: 가유진과 정혼한 숙녀. 혼사 장에 구조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한 번 정해진 혼인을 깰 수 없다는 유교적 윤리에 충실하다.
- 옥 부인: 화 소저의 어머니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정해 버린 혼사를 깨는 인물로 유교적 윤리 체계의 위기를 초래하는 장본인이다.
- 운아-홍교: 화 소저의 시비로, 혼사 위기에 처한 화 소저에게 계책을 주어 위기를 돌파하게 해 준다. 조선 후기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방자형 인물'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전을 위해 예민한 판단력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

▶ 전체 줄거리

가유진은 화 소저와 정혼한 사이였으나 아버지 가남과 장인 화의실이 황제에게 상소했다가 유배되었을 때 화 소저의 어머니 옥 부인이 나옹의 재물에 넘어가는 바람에 혼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화 소저는 혼약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하고 시비 홍교, 운아와 함께 부친이 있는 곳으로 도망친다. 그들은 나옹이 보낸 일행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나 홍교가 화 소저로 가장해 대신 잡혀가서 화 소저는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한다. 한편 가유진은 설강운, 진 처사의 딸 진 소저, 왕 상서의 딸 왕 소저 등과 차례로 결연하고, 이오의 반란을 제압하는 공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가남 역시 아들들의 등과로 벼슬이 회복

된다. 이후 가유진은 유럽하던 중 죽은 줄 알았던 화 소저를 우연히 만나 전에 나누어 가졌던 금봉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혼인을 하며, 화 소저는 집에 돌아와 있던 아버지 화의실과 만나 회포를 푼다. 가유진은 호진과의 전투에서도 승전하여 높은 직책에 오른다.

▶ 지문 줄거리

가유진은 화 소저와 정혼한 사이였으나 아버지 가남과 장인 화의실이 황제에게 상소했다가 유배되었을 때 화 소저의 어머니 옥 부인이 나옹의 재물에 넘어가는 바람에 혼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화 소저는 혼약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며, 시비인 홍교, 운아와 더불어 대책을 찾고 있다.

▶ 주제

- 재물에 대한 탐욕의 비판과 유교 윤리의 회복
- 기존 질서에 대한 옹호와 상층 귀족들의 선민 의식 고양

▶ 어휘 풀이

- 퇴혼하다(退婚--): 정한 혼인을 어느 한쪽에서 물리다.
- 금봉(金棒): 쇠막대기.

30 갈등의 원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이 글에서는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다. 이미 정혼한 사이인 가유진과 화 소저 사이의 혼사가 어그러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두 집안 가장들이 유배를 가게 된 상황 변화에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권세와 재물을 좋아하는 성품인 옥 부인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혼사를 물리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금봉'이 결혼의 신물인데 이것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③ 오해로 인해 혼사가 어그러진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④ 화 소저가 옥 부인과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화 소저는 자식 된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무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결혼 당사자인 가유진과 화 소저는 혼사에 대한 혼란이 없었다. 가남의 유배 이후 옥 부인의 결정으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31 진술 방식의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옥 부인이 혼약을 파기하려 하자 가유진은 화혼의 인품이 좋지 않음을 들어 화 소저의 인품도 그러할 것이라며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가유진의 어머니는 유하혜와 사마우의 예를 들어 화 소저에 대한 편견을 가진 가유진을 훈계하고 있다. 한편 화 소저가 가유진과의 혼약을 지키겠다고 하자 옥 부인은 어미를 배반하려 하느냐며 권위를 내세워 꾸짖고 화 소저의 뜻을 꺾는다. 처사가 혼사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권위를 내세워 꾸짖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경 부인의 말에는 혼인 결정권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옥 부인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금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였다.

② 경 부인은 혼사가 깨짐을 받아들이고 신물을 찾아오려 하고 있으므로, 아직 가유진과 결혼하지 않은 화 소저를 가유진의 부인으로 대접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경 부인은 결혼이 깨진 이유가 어느 정도는 가난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다. 옥 부인은 딸의 도리를 말하고 있지 혼인을 깬 원인인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④ 경 부인은 결혼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32 진술의 의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위급한 상황에서 화 소저는 운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운아가 하는 말의 핵심은 '결정은 소저가 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운아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장친녀의 절개를 지키고자 한다면 금봉을 보낼 수 없을 것이고, 어머니의 명을 따라 조종법의 처를 본받고자 한다면 금봉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결정은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해야 할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결정은 결혼 당사자인 소저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을 뿐 금봉을 돌려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② 금봉의 주인은 소저이다.

③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④ 금봉이 혼인을 성사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보기〉를 보면 가유진은 화 소저와의 혼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없다. 또한 제시문에도 육 부인이 혼사를 물리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인을 하려 하기보다는 결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혼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많은 고난을 극복하였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화 소저와 가유진은 금봉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혼인한다.

② 화 소저와 가유진이 결혼하게 되었으므로 딸을 내놓 집에 시집보내려던 육 부인의 계획은 무산된 것이다.

③ 화 소저는 혼약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가는 등 가유진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결국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V. 갈래 복합

STEP

&

시가 복합

갈래 복합 1

01 ①

02 ③

03 ⑤

04 ①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④

10 ②

[01~04] 작품 분석

(가) 탄궁가(嘆窮歌)(정훈)

▶ 제목의 의미

‘가난을 탄식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생활 현장의 일상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빈곤한 생활상을 보여 주는 한편, 가난에 대한 인식을 개성적으로 보여 준다.

▶ 갈래 가사

▶ 시적 상황

가난을 탄식하던 화자가 가난 귀신과 대화를 하며 수용적 태도로 바뀌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한탄함.	
작품 속 근거	엇지혼 인생(人生)이 이대도록 고초(苦楚)하고
	가난한 식구(食口) 이리하야 어이 살리
• 자신의 가난을 받아들임.	
작품 속 근거	하늘 삼긴 이내 가난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 어니 설워 무엇하리

▶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 특징

① 가난을 의인화하여 가난과의 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 어디 가늠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노	가난 귀신의 말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올토다 ~ 인위(人威)로 절교하며 좀피로 어월너나	화자의 말
②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가난을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안표누공(顔瓢屨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간난(原憲艱難)인들 나같이 이심(已甚)할가	
③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년 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 어휘 풀이

- 삼순구식(三旬九食): 삼십 일에 아홉 끼를 먹음. 몹시 가난함을 이룸.
- 안표누공(顔瓢屨空): 공자의 제자 안회가 가난하여 음식을 담은 표주박이 자주 비었음.
- 원헌간난(原憲艱難): 공자의 제자 원헌의 집이 몹시 가난함을 이룸.
- 따버: 논이나 밭을 가는 원시적인 형태의 농기구.
- 부역: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우는 의무.

(나) 떠나가는 배(박용철)

▶ 제목의 의미

젊은이가 정든 고향을 안타까움을 참고 떠나가는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젊은 나이를 무기력하게 눈물로만 보낼 수 없어 어디론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고자 한다.

▶ 정서 및 태도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떠나는 아쉬움		
작품 속 근거	아득한 이 향군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뭇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아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기가 쉽지 않아 눈물이 어림.

▶ 주제

-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떠나는 슬픔
-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떠나는 울분과 비애

▶ 특징

①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내용을 구성함.		
작품 속 근거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간다).	1연을 마지막 연에 반복
②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나 두 야 가련다(간다).	

▶ 어휘 풀이

- 뭇부리: ‘뭇부리(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의 옛말.
- 희살: ‘해살(① 일을 짓곳게 휘방함. ② 물 따위를 젖거나 하여 흠뜨림.)’의 전라도 방언.

(다) 북어(최승호)

▶ 제목의 의미

밤에 식료품 가게에 놓인 말라비틀어진 ‘북어’를 묘사하면서, 그 ‘북어’를 통해 비판 정신과 말할 용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자신 역시 반성하고 있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꼬챙이에 나란히 꿰어진 북어를 관찰하면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전반부: 말라비틀어진 북어들에 대한 연민과 비판		
작품 속 근거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막대기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민
• 후반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에 대한 반성		
작품 속 근거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 주제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성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과 자기반성

▶ 특징

①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반전되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나타남.		
작품 속 근거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화자 - 비판의 주체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화자 - 비판의 대상
② 시적 대상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추상적 주제를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식료품점에 쌓여 있는 북어의 모습
	말라붙고 찌부러진 눈, 북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북어의 말라비틀어진 모습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안표누공(顔瓢廬空)’과 ‘원헌간난(原憲艱難)’을 끌어들이 자신의 가난이 매우 심함을 한탄한다. 가난이 극심하여 벼룩북으로 옷을 해 입을 일도, 시루술에 밥을 안칠 일도 없을뿐더러 나라빛과 이자,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기도 힘든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화자는 ‘나의 이 젊은 나이를 / 눈물로야 보낼 거냐.’라고 하며 젊은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낼 수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희망찬 발걸음이 아니라 ‘쫓겨가는 마음’이다. 떠나게 만든 현실도, 떠난 후의 미래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의 화자는 식료품 가게에 놓인 말라비틀어진 북어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응시한다. 북어의 모습에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다)에는 대상과의 대립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가)에서 화자가 가난 귀신을 쫓으려 하다가 가난 귀신의 말에 가난을 수궁하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를 대상과의 대립 과정이라 볼 수는 없다. (다)의 북어는 화자와 대립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비판 대상이었다가 화자를 비판하는 주체로 바뀌는 대상이다.

③ (가)의 화자는 가난을 한탄하다 가난 귀신을 쫓아 버리려 하는 것으로 거기에 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가난 귀신의 말을 듣고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고향에서의 삶에 눈물만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향을 떠나고자 하나, 이는 운명에 맞서는 것이기보다는 고향에서의 삶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다)의 화자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을 뿐, 운명에 맞서려고 하지는 않는다.

④ (가)에서는 가난을 거부하려던 화자의 시도가 가난 귀신과의 대화 형식을 빌린 성찰을 통해 가난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즉 스스로 가난을 수용한 것이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좌절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나)에서 화자는 무기력하게 눈물로만 지낼 수 없어 고향을 떠나고자 하지만 안타까움과 슬픔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밀려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만이 드러날 뿐, 극복 의지나 그 좌절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 (나)와는 거리가 먼 설명이다. (다)는 북어들의 모습에서 생각과 허가 굳은(비판 능력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읽고 그것을 비판하던 화자가, ‘너도 북어지’라는 북어들의 외침에 자신도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비판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02 표현상 특징과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자는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그런데 가난 귀신은 되레 화자를 꾸짖으며 자신은 화자와 평생 변함없이 함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자 화자는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가난 귀신을 칭찬하고 있다.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을 개성적인 표현과 해학적 태도로 풀어내고 있을 뿐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으로 밝은 느낌을 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가난 귀신을 사방으로 보내려 하였으나, 가난 귀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게 된다.

②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가난 귀신과의 대화라는 개성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인정하면서 달관의 경지에 이른다.

④ 가난 귀신이 먼저 말을 하고 화자가 답을 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업섯거늘 어디 가 뉘랄 들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가난 귀신의 말 : 화자와 가난이 늘 함께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냄.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올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거늘 네 혼자 유신하야 나를 아니 버리거든 인위(人威)로 절교하며 좁피 여월너나	화자의 말 : 가난을 수용하는 달관의 경지

⑤ ‘무정한 세상’은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 세상을 원망하는 인식을 보여 주

며, ‘네 혼자 유신하야’는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과 달리 자신을 버리지 않은, 가난 귀신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보여 준다.

03 화자어 정서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에는 고향을 떠나 유랑민의 생활을 해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이지만,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을 알지 못하기에 더 처량하고 절망적이다. ㉞는 바로 이러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해설** | ① 젊음을 눈물로 보낼 수 없으니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이다.
 ② 향구를 ‘아늑한’ 곳으로 나타내고, ‘손쉽게야 버릴 거냐’라고 표현한 것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을 알 수 있다.
 ③ 화자가 이별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화자는 안타까움과 고뇌를 느낀다.
 ④ 자신을 쫓겨가는 존재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사구 해석

정답 ①

정답 해설 | <보기>는 억압적인 시대와,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사구 해석을 보여 준다.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 북어들’에서 ‘터무니없이’는 북어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다.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기다림이 터무니없는 것은 생명력을 잃은 북어들의 모습이 너무도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보기>의 해석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기력한 북어의 모습은 부조리한 현실 탓에 입이 막힌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입을 닫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허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한 것이나 생각이 ‘막대기 같은’ 것은 생각이나 입이 굳어 버린 모습을 비유한다.
 ③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라는 환청은 결국 화자의 부끄러움을 북어의 말을 빌려 대신 표현한 것이다.
 ④ ‘말의 변비증’과 ‘무덤 속의 벙어리’는 부조리한 현실에 침묵하는 부끄러운 도시민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⑤ ‘가슴에 상심한 지느러미를 달고’는 생명력이 있는 모습, 즉 현실 비판을 할 수 있는 처지를 가리킨다.

[05~10] 작품 분석

(가) 파초(김동명)

▶ 제목의 의미

일제 강점기 때 조국을 잃은 시적 화자의 가련한 모습을, 남국(南國)의 고향을 떠난 파초에 비유하여 광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시이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고향을 떠난 파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작품 속 근거	나는 즐겨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주제

조국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나라를 잃은 화자의 상황을 파초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② 대화투의 구어체 표현을 통해 친근감을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 어휘 풀이

-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수철리(水鐵里)(김광균)

▶ 제목의 의미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의 심정을 노래한 산문시로, ‘수철리’는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의 이름이다.

▶ 갈래 현대시, 산문시

▶ 시적 상황

누이의 무덤 앞에 서 있다.

▶ 정서 및 태도

쓸쓸함과 비애감	
작품 속 근거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 특징

① 비유적 표현으로 죽은 누이의 모습을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밤나무 하나,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흰나비, 함박꽃
② 누이동생이 묻혀 있는 묘지의 정경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함.	
작품 속 근거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독 서서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빈민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 어휘 풀이

-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견회요(遣懷謠)(윤선도)

▶ 제목의 의미

작가가 함경도로 유배되었을 때의 심정을 노래한 연시조로, ‘견회요’는 ‘마음을 달래는 노래’ 또는 ‘품은 생각을 온 천하에 알리는 노래’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갈래 연시조(전 5수)

▶ 시적 상황

유배지에서 부모와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작품 속 근거	내 몸의 해를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야야 분별할 줄 이시랴.
•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작품 속 근거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작품 속 근거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주제

유배지에서의 정회와 연군지정(戀君之情)

▶ 특징

①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긔 울어 에는 저 시내야	시내=임을 향한 내 뜻
② 대구법, 반복법을 통해 형식적 운율과 주제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함.		
작품 속 근거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어휘 풀이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현대어 풀이

〈제1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건만 / 그 밖의 다른 일이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2수〉 나의 일이 잘못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모두가 임을 위한 탓이로다. / 그 누가 아무리 험뜯더라도 임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제3수〉 경원성 진호루 밖에서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 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제4수〉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부모님 그리워하는 뜻은 많기도 많다. / 어디서 외기러 가는 슬파 울며 가는구나.
 〈제5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었으니 /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하느라.

0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누이의 무덤가에서 애상감을 느끼고 있고, (다)의 화자는 귀양살이를 하는 처지이므로 임금과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 죽은 누이의 무덤을 찾아감. • 무덤 옆의 밤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즉 누이동생 같아서 절로 눈이 감김. • (누이동생들) 부르면 누이동생이 눈뜯 것 같아서 '서러운 생각'이 들.	죽은 누이와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다)	• 〈제3수〉 '추성 진호루'에서 임(임금)을 그리워함. • 〈제4수〉 아버이를 그리워함.	임금과 아버이를 만날 수 없음.

오답 해설 | ① (가)의 현실은 겨울이고, 이상은 겨울을 이겨내거나 벗어나는 것인데, (가)에는 파초와 함께 겨울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다. (나)의 현실은 죽은 누이와의 사별이며, 이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날 뿐 누이와의 재회나 이별의 슬픔에 대한 극복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좁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가)의 자연은 '파초'라고 할 수 있는데, 파초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대립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의 자연 중 '시내'는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대상이므로, 자연이 화자와 대립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경우 '겨울'이 원치 않는 상황이고, (나)의 경우는 죽은 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이 원치 않는 상황이고, (다)의 경우는 임금, 아버지와 헤어져 있거나 만날 수 없는 것이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파초와 함께 겨울을 견디려 하고, (나)의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다)의 화자는 임금과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나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가 '파초'를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일체감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대상은 죽은 누이이므로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의 화자는 아버지와 임금을 동일시하며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할 뿐, 이들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06 화자의 태도 비교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의 5연에서는 파초이므로 겨울을 가림으로써 겨울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한편 (나)에서는 '흰나비처럼 여윈' 누이동생이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묘지를 찾아 주는 것은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이라고 하여, 누이동생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데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조국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 = 남국을 떠난 파초 → 화자와 파초를 동일시
	이제 밤이 차다 ~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 우자.	두 존재가 처한 상황을 '밤'과 '겨울'로 표현하며 '치 맛자락'으로 비유된 파초의 넓은 잎으로 그 '겨울'을 가리자고 함. → '겨울'과 같은 어려운 현실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 라는 마음이 반영
(나)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비애감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파초'를 위해 샘물을 부어 주거나 '파초'를 머리맡에 두는 등 대상에 대한 유화적(상대를 용서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는 죽은 누이동생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을 뿐, 독단적인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보다는 대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고,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비애가 나타나 있다.

③ (가)에는 파초와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파초와 함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나)에는 누이와의 사별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열망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에는 '겨울'로 비유된 고통스러운 현실(식민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겨울을 견디고자 하나 겨울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천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에는 누이동생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07 공통된 표현 효과의 추리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의 5연에서 '나'와 '너(파초)'를 '우리'라고 묶은 것으로 보아, '겨울(식민지)'을 겪고 있는 '나'와 '남국'을 떠나 추운 곳에 있는 '파초'의 처지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에서 '나'는 샘물을 파초의 '발등에 붓는' 정서를 보여 준다. 이것은 남국을 향한 파초의 향수와 그리움을 연민의 마음으로 달래는 동시에 조국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도 위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촉각적 심상(샘물을 발등에 부어 줌.)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과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B]에서는 '임 향한 내 뜻(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그칠 때를 모르고 주야로 흐르면서 '울어 예는(울면서 가는)' 시냇물에 감정 이입하여 감각적(시각적·청각적 심상의 활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의 공통된 표현 효과로 적절한 것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A]에는 '나'와 '너'가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질문과 대답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B]에서도 역시 '저 시내야'라는 어구에서 대상이 설정되었고, '흐르는다'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 '-나'를 사용하여 의문문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시내'의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A]에서는 '나'와 '너'가 동일시되는 한편 '나'가 '너'를 위로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객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B]에서도 '시내'에 화자의 마음이 이입되고 있으므로 대상의 객관화와는 거리가 멀다.

④ 도치의 방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할 수는 있으나 [A]와 [B]에는 도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A]에서 파초를 '정열의 여인'에 빗대 의인화했으며, [B]에서는 '시내'를 '울어 예는' 존재로 의인화하였다. 그러나 의인화로 긍정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A]에는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B]에서는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08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와 파초는 조국을 떠났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파초를 향한 연민을 드러낸다. '너

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에서 파초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파초를 돌보는 화자의 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행의 ‘치맛자락’은 열대 식물인 파초의 넓은 잎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파초는 겨울을 가리는 존재로 제시되었을 뿐 모성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파초를 향한 정성과 연민을 2, 3연에서 보여 주고 있는데, 4연에서 ‘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파초를 위한 ‘종’이 되겠다는 것은 파초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미이다.
- ④ 화자와 파초는 조국을 떠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화자는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가 파초에게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조국을 떠난 파초와 ‘나’의 상황을 차가운 ‘밤’과 ‘겨울’의 이미지로 나타내어 시련과 고난의 상황임을 드러냈다.

09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비’, ‘눈’, ‘별’은 동생의 무덤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자연 현상 또는 자연물로, 애상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해 동생의 모습을 떠올릴 수는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동생의 가슴 우연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동생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자연 현상 →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화

- 오답 해설** ① ‘환하고’, ‘아득한’에 ‘—’ 표를 넣어 말을 늘임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② 밤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갈 길을 못 찾는 영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 준다.
- ③ ‘비석’은 누이의 무덤가에서 있는 것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 ⑤ ‘함박꽃’처럼 눈을 뜰 것만 같다는 표현을 통해 함박꽃은 ‘흰나비’와 함께 ‘누이동생’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시구의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제2수>의 초장에서는 ‘내 일(간신을 귀양보내라는 상소를 올린 것)’이 ‘망령된’ 줄을 안다고 하였고, 중장에서는 ‘내 일(이) 망령된’ 이유가 ‘임 위한 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3수>의 종장에서는 시냇물이 ‘임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때 없이 흐른다고 하여, 임금을 향한 화자의 충정심이 한결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수를 연결하여 보면, <제2수>의 망령된 ‘내 일’과 <제3수>의 ‘내 뜻’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제2수>	내 일=망령된 것=임 위한 것	내 일=내 뜻
<제3수>	임 향한 내 뜻	

- 오답 해설**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할 일을 할 뿐, 누군가 ‘옳다 하나 외다(그르다)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2수>에서는 자신의 일이 망령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임을 위한 것이므로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고해 바쳐도)’ 임이 해야 할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1수>에서 화자의 행위를 옳다 또는 그르다고 말하는 이는 <제2수>의 ‘아무가’라 할 수 있다.
- ③ 문맥상 화자는 ‘추성’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임금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데 ‘뫼’는 ‘길고 길고’, ‘뫼’는 ‘멀고 멀다’. 따라서 ‘추성’과 그리움의 대상인 임금과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제4수>의 ‘뫼’는 ‘아버지 그린(그리워하는) 뫼’이고, <제5수>의 ‘뫼’는 ‘임금 향한 뫼’이다. 그런데 <제5수>의 종장에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라고 함으로써 <제4수>의 ‘뫼’를 더욱 확대하여 표출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제1수>에서 화자는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할 일을 한다고 하였고, <제2

수>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임금을 위한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5수>의 ‘임금 향한 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STEP & 시가 복합 갈래 복합 2

- | | | | | | |
|------|------|------|------|------|------|
| 11 ① | 12 ⑤ | 13 ④ | 14 ④ | 15 ③ | 16 ② |
| 17 ① | 18 ① | 19 ③ | 20 ④ | | |

[11~16] 작품 분석

(가) 길(김소월)

▶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의 ‘길’은 인간이 가야 할 공간으로서의 길이자 미래가 없는 막막한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나그네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떠돌이로서의 비애감	
작품 속 근거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주제

- 유랑인의 비애
- 나라 잃은 민족의 비애

▶ 특징

① 3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이 나타남.	
작품 속 근거	까마귀√까악까악√올며 새웠소.
②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나라 잃은 당시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반영함.	
작품 속 근거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가오. •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어휘 풀이

- 정주 관산: 평안북도 정주군 관산면
- 바이: 아주 전혀.

(나) 적막강산(백석)

▶ 제목의 의미

산에 있으나 들로 내려오나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세상은 화자에게 막막할 뿐이다. 그 속에 혼자 있는 화자의 적막감을 ‘적막강산’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내고 있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적막강산에 있다.

▶ 정서 및 태도

자연의 소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놓인 화자의 외로움	
작품 속 근거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썹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별로 오면 별이 들썹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 주제

자연 속에서의 쓸쓸함(삶의 고독)

▶ 특징

① 각 연이 대체로 3행으로 이루어짐.	
작품 속 근거	4연을 제외한 모든 연이 3행으로 구성됨.
② 서술어를 제한하여 여운을 줌.	
작품 속 근거	~벌 소리, ~덜거기 소리, ~갈색 소리, 나 홀로 ※ 서술어인 동사 ‘~있노라’로 종결되는 5연을 제외한 나머지 연은 모두 서술어 없이 명사와 부사로 종결됨.
③ 대비적인 표현으로 외로움을 강조함.	
작품 속 근거	‘들썩’ ↔ ‘홀로’

▶ 어휘 풀이

- 별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단가(短歌)(이신의)

▶ 제목의 의미

광해군 9년(1617년) 인목대비의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로 유배된 작가가 유배 생활의 심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단가’는 가사에 상대하여 시조를 이르는 말이다.

▶ 갈래 연시조(전 6수)

▶ 시적 상황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임금에 대한 충정	
작품 속 근거	〈제1장〉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 유배지에서의 한탄	
작품 속 근거	〈제3장〉 격적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 특징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제1장〉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제2장〉 남산에 많은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② 종장의 ‘하노라’ 반복을 통하여 운율 및 통일감을 형성함.	
작품 속 근거	〈제1장〉 다만 인가 하노라 〈제2장〉 다시 불가 하노라 〈제4장〉 널로만 하노라 〈제5장〉 다만 넌가 하노라 〈제6장〉 애 꿀일까 하노라
③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술 남산에 있다 배어진 것 →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작가를 상징
	우로 술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임금의 은혜
	명월 화자를 ‘천 리를 멀다 아녀’ 따라오는 대상 → 진정한 벗
	매화 여원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 → 유배 생활 중 작가의 모습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 →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지조

▶ 어휘 풀이

- 효제충신(孝悌忠信): 아버지(효)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 벗 사이의 믿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부근(斧斤):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우로(雨露):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호접(蝴蝶): 호랑나비.

11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에서는 공중에 길이 있어 잘 가는 ‘기러기’와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들썩거리는 ‘산’, ‘벌’과 홀로 있는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제비’, ‘명월’ 등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시름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화자: 갈 곳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 ↔ 기러기: 길이 있어 잘 감.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 → 외로움 심화
(나)	화자: ‘나 홀로’ 외로움을 느낌(적막함). ↔ 산: 빼꾸기나 덜거기 소리가 남. 벌: 물담이나 갈새 소리가 남.	
(다)	〈제3장〉 제비를 통해 귀양살이하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함. 〈제4장〉 제비를 통해 자신의 시름을 드러냄. 〈제5장〉 명월을 통해 자신을 위로함.	화자의 시름을 드러내는 자연

오답 해설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외로움, (다)의 화자는 시름이라는 일관된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관점의 다양함이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보여 주고 있으나 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산과 벌로 오면 여러 새들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에서는 시름 많은 화자가 나는 제비나 명월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난다. 시선의 이동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의 화자는 5연에서 기러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산과 벌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을 뿐, 말을 건네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제비와 명월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에게 말을 걸.
(다)	〈제4장〉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제비에게 말을 걸.
	〈제5장〉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명월에게 말을 걸.

⑤ (가)~(다) 모두 어조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가)는 시종일관 외롭고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역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자연의 새 소리와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어조의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다)의 경우에도 귀양살이하는 시름과 외로움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다.

1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의 2연에서 화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의문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고, 3연을 통해 갈 곳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의문과 확인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의 갈 곳 없는 처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심화하여 표현할 뿐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에는 ‘~ 소리’, ‘나 홀로’ 등의 서술어를 생략한 표현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산에 오면 산 소리가 난다.’와 같이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제목 ‘길’은 나그네인 화자가 가야 할 길, 즉 화자의 처지와 관련을 맺고 있고,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나)의 제목 ‘적막강산’은 산과 벌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는 동시에 화자가 느끼는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② (가)에서는 ‘~로 갈까’,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와 같은 시구의 반복과 시어 ‘길’의 반복을 볼 수 있다. (나)에서 역시 ‘산에 오면 산 소리 / 벌로 오면 벌 소리’ 등에서 대구와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에서 ‘정주 객산’은 화자의 고향이고,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현재 가야 할 곳이므로 둘 다 화자와 관계된 구체적 공간이다.

④ (가)의 7연의 ‘갈린 길’은 열십자로 갈라진 공간적인 길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하룻길’은 정주 동림을 향해 화자가 가야 하는 구십여 리의 길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성격과 시간적 성격을 동시에 띤다.

13

시구와 정서의 대응 관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갈 곳이 없는 화자와 자유롭게 나는 기러기는 대비되는 관계로, 기러기로 말미암아 화자의 갈 곳 없는 외로움의 정서는 강화된다. 그러나 기러기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러기와 화자가 가까이 있다 해서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자유롭게 길을 가는 기러기의 존재 자체가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심화시키는 것이지, 화자와 기러기의 거리가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2연에서 화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막막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정처를 정하지 못한 채 길을 가는 것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②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오라고 하는 곳이 없다고 하여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을 오라고 하는 곳이 없어 정처없이 떠도는 상황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③ 4연을 보면 화자에게도 고향이 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심화된다.
⑤ 6연에서 화자는 열십자 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하고 있고, 7연에서는 갈래길 사이에서 길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2, 3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1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1, 2, 3연을 통해 산에서 나는 산 소리, 별에서 나는 별 소리를 시상의 전개에 따라 구체화하면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4연을 통해 산에서의 산 소리 속에 자신은 '나 홀로'라고 하였고, 별에서의 별 소리 속에서도 역시 '나 홀로'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4연의 '산'과 '별'은 상응 또는 대응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연이 대구라는 점에서도 '산'과 '별'은 대응되는 공간이지, 상반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1연에서는 '별배재 통이 지는 때'라고 하여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산'과 '별'을 통해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1연은 (나)의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1연의 2행과 3행은 '산에 오면 산 소리 / 별로 오면 별 소리'라고 하여 산과 별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1연에서는 단지 '산 소리'와 '별 소리'라고 표현하여 어떤 소리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2연에서는 산 소리의 정체를, 3연에서는 별 소리의 정체를 구체적 대상, 즉 새들의 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현재 '구슬여 리'를 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2연~4연을 통해 새들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적막강산'에 있다고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산이 들쭉거리고 별이 들쭉거리는 분위기와는 달리 화자의 내적 심리는 외롭다는 것이다.

15

화자와 대상의 관계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에서 화자는 산과 별에서 나는 새 소리를 2, 3연에 걸쳐 제시한 후, 4연에서는 산 소리와 별 소리가 산과 별을 들쭉거리릴 정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생동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는 '나 홀로'라고 거듭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자신이 대비됨을 보여 주고 있다. (다)에서 이와 유사한 것은 <제3장>이다. 가랑비가 오는 중에 제비가 나는 것을 보고 있는 화자는 귀양살이하는 자신의 근심이 끝이 없다고 하면서 한숨겨워한다. 자유롭게 나는 제비와 그렇지 못한 대비하여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제1장>에서 화자는 장부가 해야 할 일인 효제충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효제충신'이라는 대상은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제2장>에서 화자는 자신을 '술'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겪은 비극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로(임금의 은혜)'가 깊어져 자신이 돌아갈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술' 사이에는 대응 관계가 나타난다.
④ <제5장>에서 화자는 귀양을 가는 자신을 따라온 '명월'을 유일한 벗이라고 하였으므로 '명월'과 화자가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제6장>에서 화자는 눈 속에 핀 '매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 것을 보면서 '나비'가 가슴 아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나비'는 임금, '매화의 향기'는 화자의 절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와 대상은 대응 관계를 이룬다.

16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다)의 <제2장>은 자신이 겪은 일(인목대비 폐위 사건에 대해 상소문을 올려 사화를 겪은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게 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서 화자는 종장에서 '우로 곧 있으면(임금의 은혜가 깊어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다시 볼까 하노라'라고 하여, 임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관직에 다시 진출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은 장부가 해야 할 일, 즉 효제충신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임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없음을 보여 준다.
③ ㉢은 귀양살이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과 고뇌를 잘 보여 준다.
④ ㉣은 자연물인 제비를 통해 자신의 근심을 토로하고 있다.
⑤ ㉤의 '매화의 향기'는 화자의 지조, '나비'는 '임금'이다. ㉤에는 자신의 충성심을 임금이 알면 가슴 아파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17~20] 작품 분석

(가) 춘면곡(春眠曲)(작자 미상)

▶ 제목의 의미

남성 화자가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고 평생 같이 지내자는 연약까지 했으나 결국 이별하게 된 후 이별의 슬픔과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재회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봄날을 배경으로 꿈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였다.

▶ 갈래 가사

▶ 시적 상황

임과의 이별

▶ 정서 및 태도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작품 속 근거	새벽달 지셀 적에 외기러기 올 때 반가운 임의 소식 행여 올라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과 빗소리뿐이구나. 지리하다 이 이별을 언제 다시 만나 볼까.

▶ 주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한(恨)

▶ 특징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적적한 산에 달은 밝고 두견새는 슬피 우는데 슬프구나 저 새소리 내 맘 같은 두견새라.	
② 영탄법, 대구법 등의 다양한 표현법을 구사함.		
작품 속 근거	슬프구나 저 새소리, 여와 향홀하다	영탄법
	옥상 조양에 제비 되어 날고 지고. 옥창 영도화에 나뉘 되어 날고 지고.	대구법

▶ 어휘 풀이

- 옥상 조양: 지붕 위의 아침 해.
- 공명: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나) 고향(박용철)

▶ 제목의 의미

고향을 잃은 아픔을 직설과 반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박용철이 일제 강점기에 터전을 잃은 우리 민족의 삶을 다룬 시를 자주 썼다는 점, 10년 이상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험한 발에 고향이 짓밟혔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의 고향은 잃어버린 조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연에서부터 화자

가 고향을 찾아 무엇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고향을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고향이 짓밟힌 상황에서 타지를 떠돌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안타까움, 비애	
작품 속 근거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람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 **주제**

짓밟힌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 **특징**

① 직설적인 어법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짓밟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냄.		
작품 속 근거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	고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직설적 표현 → 고향을 찾고 싶음을 반어적으로 강조

(다) 빈집(기형도)

▶ **제목의 의미**

‘빈집’은 사랑의 추억과 열망을 상실한 화자의 공허한 내면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빈집’에 갇힌 것은 지나간 사랑의 추억과 열망으로 볼 수 있다.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시적 상황**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였다.

▶ **정서 및 태도**

사랑을 잃은 허전함, 상실감		
작품 속 근거	장님	사랑을 상실한 화자 = 세상의 빛을 잃은 장님
	빈집	사랑의 추억과 열망을 상실한 화자의 공허한 내면

▶ **주제**

사랑을 잃은 공허함과 절망

▶ **특징**

① 화자의 눈에 비치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을 나열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함.	
작품 속 근거	밤, 겨울 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열망
② 영탄적 어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작품 속 근거	‘잘 있거라’ 반복 → 사랑의 추억들이 온전하기를 바람.

17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고, (다)는 사랑을 잃은 절망적인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짓밟힌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어 (가), (다)의 정서와는 구별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간신히 드니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우리 임을 꿈속에서 잠깐 보고 천 가지 시름 만 가지 한(恨) 못다 이루는 부질없는 꿈이 되니 •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고.	임과 이별한 후 그리워함.
(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사랑을 잃음(이별의 아픔)

오답 해설 | ② (나)에 나타난 고향 상실의 아픔 또한 개인적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고향의 의미가 ‘잃어버린 조국’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③ (다)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아파하고 있을 뿐,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역시 고향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으

나, 내적 갈등을 이겨 내고자 하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 절망감, 실망감 등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⑤ (가)는 임이 떠나간 것, (나)는 고향이 짓밟힌 것, (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이 아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다) 모두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다)의 화자는 사랑을 잃고 상실감과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끝에,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열망들’은 이별한 임을 찾거나,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은 (가)에서 임과 만났던 ‘부질없는 꿈’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⑥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를 의미한다.

③ ③는 임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④ ④는 자신이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싶은 대상이므로 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⑤는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의미한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보기>는 일제 시대에 창작된 작품을 감상할 때 핵심이 되는 모티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향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화자가 ‘남겨 둔 무엇이길래 못 잊히우랴.’라고 한 것은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고향을 잊기 어렵다.’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 따르면 ‘고향’은 일제에 의해 빼앗긴 조국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② ‘엄마’는 육친이라는 점에서 육친 부재 의식이 반영된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험한 발’은 일제, ‘짓밟힌 고향’은 훼손된 고향으로 볼 수 있다.

⑤ ‘옛사랑’, ‘쓰린 심사’와 같은 표현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심정이 반영되었다.

20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다)의 화자는 사랑을 잃은 허전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빈집’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 <보기>의 ‘돌’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금’을 통해 사랑의 상처를, ‘눈’을 통해 방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다)와 <보기> 모두 상징적 시어로 정서를 표현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사랑을 잃은 허전하고 절망적인 마음
<보기>	여기저기서 어린 날 /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	어린 시절의 추억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 찬찬히 깨어진 글들이 보인다.	사랑의 상처
	눈 뜨고, 멀며 한없이 떠다니는 / 몇 송이 눈.	방황하는 화자의 마음

오답 해설 | ① (다)에는 ‘가엾은 내 사랑’ 등에서 직접적인 감정 노출이 나타나며, ‘잘 있거라’와 같은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에 비해 <보기>는 추상적 표현과 절제된 어조로 감정을 자제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다)와 <보기>는 모두 사랑의 깨짐, 이별을 시적 상황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다)의 첫 행은 창작 동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⑤ (다)의 ‘내 사랑 빈집에 갇히다’와 <보기>의 ‘어제(사랑)를 동여매다’, ‘글들이 깨어지다’는 이별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다.

blacklabel 특강 조그만 사랑 노래(황동규)

사랑의 상실로 인한 아픔을 상징적,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받고 과거와 단절된 채 절망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실연의 상황이 1970년대의 암울한 현실을 은유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어제를 동어맨 편지', '그대 뒤를 따르던 / 길 문득 사라지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 '눈 뜨고 멀어 한없이 떠다니는 / 몇 송이 눈' 등 비일상적 표현을 통해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얻고 있다.



21 ④ 22 ⑤ 23 ④ 24 ② 25 ③ 26 ③
27 ⑤ 28 ④ 29 ⑤

[21~25] 작품 분석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작자 미상)

▶ 갈래 사실시조

▶ 시적 상황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으려다 백송골을 보고 놀라 피하려다 자빠진다.

▶ 정서 및 태도

• 두꺼비: 자기 합리화, 허장성세	
작품 속 근거	모처럼 날랜 녀식만경 에헐질 변하래라.
• 화자: 두꺼비를 회화화	
작품 속 근거	두엄 아래 갓바지거고

▶ 주제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자

▶ 특징

두터비, 백송골, 파리를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를 풍자함.		
작품 속 근거	두터비	탐관오리(중간 관리) 또는 양반
	파리	힘없는 백성들
	백송골	외세 또는 중앙 관리

▶ 어휘 풀이

• 에헐: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현대어 풀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란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피멍이 들 뻔했구나.

(나) 고공가(雇工歌)(허전)

▶ 제목의 의미

신하들을 '고공(머슴)'에 빗대어 노래한 가사이다.

▶ 갈래 가사

▶ 시적 상황

주인이 새끼를 꼬며 게으른 머슴들을 꾸짖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머슴들(벼슬아치들)의 각성을 촉구함.	
작품 속 근거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 사려 깊은 새 머슴(벼슬아치)의 출현을 염원함.	
작품 속 근거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 주제

- 임란 직후 백관들의 탐욕과 정치적 무능 비판
- 분별과 계획이 없는 관리들에 대한 풍자.

▶ 특징

① 주인이 새끼를 꼬며 한탄하는 형식으로 표현함.		
작품 속 근거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② 나라의 일을 한 집안의 농사일로, 화자를 주인으로, 탐욕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머슴으로 비유함.		
작품 속 근거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관리들이 일을 하지 않음.
	가득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나라 살림이 풀여짐.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임진왜란을 겪음.

▶ 어휘 풀이

- 고공: 머슴.
- 동웃: 남자가 입는 저고리.
- 호수(戶首):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 올벼: 제철보다 일찍 여우는 벼.
- 사리: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

(다) 어부(魚賦)(이옥)

▶ 제목의 의미

‘부’는 한문 문체의 하나로, 작자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국가를 ‘물(수국)’에, 물고기를 사람에 빗대어 신하와 관리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 갈래

부(고전 수필)

▶ 주제

관리들의 백성 착취 현실의 고발과 선정 당부

▶ 특징

①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물고기를 통해 표현함.		
작품 속 근거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령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② 다양한 물고기들을 특정 계층과 연관 지음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거둠.	
작품 속 근거	물	국가
	용	군주
	큰물고기	군주의 여러 신하
	중간 물고기	서리나 아전 등 하위 관리
작품 속 근거	작은 물고기	만백성

▶ 어휘 풀이

- 차서(次序): 차례.
- 구구한: 잘고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가 구차스러운.

21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못살게 굴면서 강한 존재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두터비’의 모습을 통해 중간 관리 또는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나)는 머슴(고공)을 내세워 당시 국록(國祿)을 먹는 관리들의 부패상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관

리 계층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왜적의 무리를 뜻하는 '화강도'에서 창작의 배경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옛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의 살림 이 기울어졌음을 표현

② (다)의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어찌 알겠는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볼 수 있다.

③ (가)는 두터비를 회화화하여 그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다.

⑤ '우의적'이라 함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 '두터비', '파리', '백송골'이라는 동물에 빗대어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우화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국가-임금-관리'를 '한 집안-주인(화자)-머슴'에, (다) 역시 '국가-임금-군주의 신하-서리나 아전-백성'을 '물-용-큰 물고기-중간 물고기-작은 물고기'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우의적인 수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시어의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 '두터비'는 맥락상 부패한 양반이나 지방 관리를 상징하고, '파리'는 힘없는 백성, '백송골'은 중앙 관리나 외세를 상징한다. 세 존재를 힘의 우열 관계로 정리해 보면 '약자(파리)-강자(두터비)-더 큰 강자(백송골)'와 같다.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⑤이다. 술개, 쥐, 봉황을 (가)의 세 존재와 연결해 보면, '술개-두터비, 쥐-파리, 봉황-백송골'에 각각 대응된다.

오답 해설 ① '닭'과 '개'는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존재를, '뿔'은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 그 자체를 의미한다.

② '까마귀'와 '백로'는 서로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대상들이고, '너'는 백로를 지칭한다.

③ '나비'와 '뱀나비'는 화자가 함께하고자 하는 자연물이고, '꽃'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을 의미한다.

④ '봉황'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오작'은 화자가 꺼리는 대상을 나타내며, '동자'는 화자가 꺼리는 대상을 쫓아내어 화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23 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의 첫 번째 단락에서 물은 국가, 용은 군주, 작은 고기들은 백성이라고 하여 수국(水國)을 통해 국가의 구성을 보여 주었다. 이어 두 번째 단락에서 가물어 물이 마르면 용이 비를 내려 주니 이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라고 하였다. 결국 '비'는 임금이 내리는 은혜를 함축하고 있다. (나)에서는 종들이 굶주리는 것을 염려하여 '죽조반'을 먹었다고 하였으므로 '죽조반'이 이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용	군주
	물고기	백성
	비	은혜
(나)	주인	임금
	머슴	신하
	죽조반	은혜

오답 해설 ① 임금이 집을 짓는 것에 대응하여 '움'은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② '백미'는 올벼에 방아를 찧었을 때의 결과물이다. '방아를 못 찧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올벼가 백미가 될 수 있는데 방아를 찧지 않으면 그것이 백미가 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올

벼를 방아에 찧을 것, 즉 집안일을 열심히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살림'은 주인과 종이 함께 해야 할 나라의 일을 의미한다.

⑤ '새끼'는 주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주인은 종들이 일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을 한탄하며 스스로 새끼를 꼬고 있다.

24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는 (나)가 쓰인 시대적 배경과 창작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당시 관료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고공(관료)'들의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샘하는 듯	관료들의 반목과 질시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관료들이 어지러운 현실에서도 맡은 바 일을 하지 않음.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말아 하라	관료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할 것을 촉구
너희 재주 내 짐작하였노라	

오답 해설 ① 고공들이 밥과 옷을 두고 다투며, 시샘하고 흘깃거리는 것은 조정 관료들 사이의 불화를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주인인 '나'는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라고 하며 그 도적들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 (나)는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라고 한 데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 즉 사욕만을 앞세우는 관료들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25 글의 논지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의 존재이다. 임금이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나 백성들에 대한 관리들의 횡포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는 이러한 횡포를 없애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 주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성들이 예부터 곤핍한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물고기에게 (비를 내려 주는 등)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라고 하였으므로 군주가 백성들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

②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라고 한 데서 대신들과 중간 관리, 아전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함을 알 수 있다.

④ 네 번째 단락에서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용은 군주 노릇을 할 수 없고, 큰 물고기들이 으스스할 수 없다고 한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⑤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와 통하는 내용이다.

[26~29] 작품 분석

(가)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최치원)

▶ 제목의 의미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는 의미로, 통일 신라 말기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옥두품 지식인으로서 한계를 경험한 작가가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 갈래 한시(7언 절구)

▶ 시적 상황

거센 물소리로 인해 가까운 곳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 은거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어 함. → 신라 말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좌절	
작품 속 근거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돌려 버렸대네.

▶ 주제

세상과 단절하고 산 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 특징

①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점점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겁겁 봉우리 올리니 → 물은 속세와 단절된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며, 세상의 시비를 멀리하고자 하는 운둔의 결의를 드러냄.
②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작품 속 근거	물소리(1, 4구) ↔ 말소리(2, 3구)

(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운선도)

▶ 제목의 의미

작가가 전남 보길도에 은거할 때 지은 작품으로 어부의 생활을 사계절에 걸쳐 읊은 시조이다. 고려 때 전해 오는 ‘어부가’를 이현보가 9장으로 개작한 것을 다시 운선도가 여음을 넣어 창작하였다. 한 계절당 10수씩 읊었으며 각 계절의 10수는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읊었다.

▶ 갈래 연시조(전 40수)

▶ 시적 상황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

▶ 정서 및 태도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함.	
작품 속 근거	삼공(三公)을 불리소나 만사(萬事)를 생각하랴

▶ 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 생활의 여유와 흥취

▶ 특징

① 초, 중, 종장 사이에 여음이 들어감.	
작품 속 근거	초장, 종장 사이: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이어라 이어라 - 돌 디여라 돌 디여라 - 비 미여라 비 미여라 →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보여 줌.
	중장, 종장 사이: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사와(於思臥) → 노 젓는 소리와 노 저를 때 띄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
② 대구법, 반복법 등의 표현 방법과 원근에 따른 묘사 및 의성이 표현이 나타남.	

▶ 어휘 풀이

- 안류정화(岸柳汀花): 강가의 버드나무와 물가의 꽃.
- 보이니: 눈이 부시니
- 진훤(塵喧): 티끌과 왁자지껄함, 즉 세속의 소리.

현대어 풀이

<춘사 6> 석양이 기울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 돛 내려라. 돛 내려라. / 물가의 버들꽃은 고되고 비새롭구나. /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 정승도 부럽지 않다. 만사를 생각하랴.

<하사 2>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마라. /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 청악립(갈대로 만든 삿갓)은 이미 썩노라. 도롱이는 가져오느냐. /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 욕심 없는 갈매기는 내가 저를 쫓는가, 제가 나를 쫓는가.

<추사 4> 기러기 날아가는 밖에 돛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 노 저어라. 노 저어라. / 낚시질도 하겠지마는 내가 취하려는 것이 새로운 자연을 즐기는 흥취라. /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 석양이 비치니 온 산이 수놓은 비단이구나

<동사 8> 물가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씩씩하게 서 있는가. / 배 매어라. 배 매어라. /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마라. 인간 세상을 가려 주는구나. /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 물결 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더러운 소음을 막아 주는구나.

(다) 신록 예찬(이양하)

▶ 제목의 의미

신록의 아름다움과 그 신록이 주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한 수필이다.

▶ 갈래 현대 수필

▶ 지문의 내용

신록의 신선한 아름다움, 나의 생활과 신록의 의미, 초록에 바치는 찬탄 등을 내용으로, 자연에 몰입하여 인생을 관조하는 동양적 직관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신록의 아름다움 예찬

▶ 특징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자연의 혜택과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 어휘 풀이

- 영일(寧日): 일이 없이 평화스러운 날.
- 현요(眩耀): 눈부시고 찬란함.
- 유열(愉悅): 유쾌하고 기쁨.

26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의 화자는 <춘사 6>에서는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고, <동사 8>에서는 험한 구름과 거센 파도가 당장은 싫지만 그것이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기에 싫지 않다고 하였다. (다)의 화자는 세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봄의 신록을 보면서 세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춘사 6> 삼공(三公)을 불리소나 만사(萬事)를 생각하랴 <동사 8> 머흔 구름 한티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다)	잠간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세상과 자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예 단절을 선택한다. (나)의 화자는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

② (다)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가)에는 화자가 있는 공간과 인간 세상의 대비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④ (가)는 자신을 시비하는 세상, (나)는 자연과 대비되는 세속, (다)는 자연과 대비되는 세상이라는 대상과의 관계성을 따질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의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세상 사람과의 단절을 노래했고, (나)의 화자 역시 세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⑤ (나)와 (다)는 안빈낙도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는 안빈낙도와 거리가 멀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보기>를 참조하면 (가)는 최치원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계층인 진골 귀족의 시비에 실망한 최치원이 산 속으로 들어갔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최치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하는 상황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는 세상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세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진골 귀족의 모습은 시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최치원은 웅장한 물소리를 통해,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 속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최치원이 가야산 속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설명을 보면 최치원이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는 길을 택했음에도 여전히 현실이 그를 괴롭게 했다고 하였다.

④ 최치원은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시비 소리에 실망·좌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있는 곳을 물로 돌려 버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28 시구의 의미와 효과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㉔은 '기러기가 떠 있는 저쪽으로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진 구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낚시질도 즐겁지만 산을 통한 즐거움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러기 외에 보이는 '산'은 기러기와 더불어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연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㉑은 노 젓는 소리를 형상화한 후렴구로 청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연잎에 밤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않고, 청약립(갈대로 만든 찻갓)을 쓰고 녹사익을 입은 것은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③ 마음이 평온한 갈매기가 나를 좇는지 내가 갈매기를 좇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물아일체의 경지이다.

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가 혼자 씩씩하게 서 있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연을 거부해도 자신만은 의연하게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9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글쓴이는 5월의 신록이 지닌 힘과 위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지닌 한계를 논하면서 부정적인 인간의 세계를 잠시 떠나 자연과 함께하고픈 소망을 제시한다. 화자가 자연에서 누리는 만족은 현실에서 누리는 경지이지,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는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과 우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극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양하여, 조화 있고 질서 있는 세계에까지 높은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② 첫 단락 중간 부분에 인간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세속에 얽매며,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영일(寧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

③ 두 번째 단락 앞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④ '나의 흥중에도 신록이요, 나의 안전(眼前)에도 신록이다.'에서 알 수 있다.

STEP & 수필 복합

30 ② 31 ① 32 ③ 33 ② 34 ① 35 ⑤
36 ③ 37 ③

[30~34] 작품 분석

(가) 백설부(白雪賦)(김진섭)

▶ 제목의 의미

'흰 눈'을 소재로 하여 이에 대한 글쓴이의 사색과 감상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 갈래 현대 수필

▶ 지문의 내용

글쓴이는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눈이 안겨 주는 기쁨과 즐거움, 눈 내리는 광경의 아름다움과 눈이 쌓여 새하얗게 변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주제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눈에 대한 예찬

▶ 특징

① 대상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함.	
작품 속 근거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한 족속이며,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여! 과연 뉘라서 너희의 무정부주의를 통제할 수 있으랴?
② 눈이 내리는 모습과 내리고 난 후의 순화된 설경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소리 없이 온 눈이 소리 없이 곧 가 버리지 않고 마치 그것은 하늘이 내리어 주신 선물인 거나 같이 순결하고 반가운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순화(純化)시켜 주기 위해서 아직도 얼마 사이까지는 남아 있어 준다는 것은, 흡사 우리의 애인이 우리를 가만히 몰래 습격함으로 의해서 우리의 경탄과 우리의 열락(悅樂)을 더 한층 고조하려는 그것과도 같다고나 할는지! → 눈 내린 후의 설경
③ 만연체, 한문투의 어려운 문장을 구사하여 장중한 느낌을 줌.	
작품 속 근거	구각(舊殼)을 탈(脫)하고 현란한 백의(白衣)를 갈아입을 때
	백설 애매(白雪曖曖)한 세계
	순치(馴致)할 수 없는 고공(高空) 무용이 원거리에 뻗친 과감한 흠어짐

▶ 어휘 풀이

- 강설(降雪): 눈이 내림. 또는 그 눈.
- 구각(舊殼): 낡은 껍질이라는 뜻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옛 제도나 관습 따위를 이르는 말.
- 정(呈)하다: 어떤 모양이나 빛깔 따위를 나타내다.
- 애애하다(皚皚--): 서리나 눈 따위가 내려서 희디희디하다.
- 단안(斷案): 옳고 그름을 판단함.
- 유열(愉悅): 유쾌하고 기쁨.
- 열락(悅樂): 기뻐하고 즐거워함.
- 윤무(輪舞): 원무(圓舞). 여럿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추거나 돌면서 추는 춤.
- 순치(馴致): 1. 짐승을 길들임. '길들이기'로 순화. 2. 목적인 상태로 차차 이르게 함.
- 부유(浮遊):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나) 매화사(梅花詞)(안민영)

▶ 제목의 의미

매화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조로, '영매가(詠梅歌)'라고도 한다.

▶ 갈래 시조(전 8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눈 속에 핀 매화를 바라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를 예찬함.	
작품 속 근거	빙자옥질(氷姿玉質)이어 눈 속에 너로구나.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주제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 절개 예찬

▶ 특징

① 매화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작품 속 근거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② 영탄법을 사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어휘 풀이

- 암향(暗香): 그윽이 풍기는 향기. 흔히 매화의 향기를 이른다.
- 빙자옥질(氷姿玉質):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 황혼월(黃昏月): 황혼에 뜨는 달.
- 아치고절(雅致高節):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
- 청향(清香): 맑은 향기.

30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는 눈이 내리는 모습과 내린 후의 풍경에 대한 감흥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나) 역시 ‘매화’를 ‘빙자옥질(氷姿玉質)’에 비유하며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에 대한 감흥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눈’, (나)는 ‘매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③ (가)에는 마지막 문장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한 족속이여,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여! 과연 누라서 너희의 무정부주의를 통제할 수 있으랴?	은유법, 영탄법, 설의법, 의인법 사용

④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인 ‘눈’과 ‘매화’에 예찬적 태도를 보이므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 역시 한자어가 사용되었고, 엄숙한 맛은 (가), (나) 모두와 거리가 있다.

31 대상에 대한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에서 눈을 ‘자유의 도취 속에 부유함’, ‘무질서의 쾌락’, ‘너희의 무정부주의’ 등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눈을 자유롭고 무질서한 존재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눈에서 완전한 질서를 느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비가 겨울이 되면 얼어서 눈으로 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백설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작은 위안은 더욱이나 그 양을 줄이고야 말 것이니’와 같은 구절을 통해 눈이 위안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③ ‘모든 것은 일시에 원시 시대의 풍속을 탈환한 상태를 정(正)한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④ <제2수>와 <제4수>의 종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매화에 심취하는 모습
	청향(清香)이 잔(簾)에 뒹뒹 휘(醉)해 놀려 하노라.	

⑤ <제2수>의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와 <제3수>의 ‘아치고절(雅致高節)’에서 알 수 있다.

32 정서와 태도의 파악과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는 ‘눈’의 속성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데, ㉠은 쌓인 눈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생의 고요한 즐거움과 마음속의 놀라움을 맛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서 눈은 화자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평화를 느끼게 한다. ‘설레이는 평화’라는 시구를 통해 눈에서 느끼는 화자의 유열을 생각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의 눈은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기 위해 겪은 시련을 의미한다.

②의 눈은 서글픈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④의 눈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⑤의 눈은 매화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33 화자의 의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제2수>에서 화자는 눈 속에 핀 매화를 촛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감 감상하면서 그윽한 향기를 느끼고 있다. <제3수>에 이르러 화자는 눈 속에서도 옥과 같은 본질을 잃지 않는 매화를 예찬하면서 ㉠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매화가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데 달빛을 받은 매화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즉, 주인공인 매화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달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매화는 예찬의 대상이지 위로의 대상이 아니다.

③ 달이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리라 본 것이다.

④ 달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달로 인해 매화의 흥취가 깊어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모르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달과 매화의 향기가 동일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문맥을 통해 보면 ㉠은 소리 없이 춤추며 내려오고, ㉢은 순결하고 반가운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은 과감하게 흠여지고, ㉥은 백설이라고 했으므로 ㉠, ㉢, ㉤, ㉥은 모두 눈 또는 눈의 모습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는 ‘겨울의 모진 바람 속에 태고의 음향을 찾아 듣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겨울에 부는 바람 소리를 의미한다.

[35~37] 작품 분석

(가) 조찬(朝餐)(정지용)

▶ 제목의 의미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아침 식사’라는 의미로, 화자가 바라본 맑고 고요한 아침 정경을 보여 주고 있다.

▶ 갈래 현대시

▶ 시적 상황

비가 그친 초여름날의 아침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현실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느낌.		
작품 속 근거	물소리에 / 이기 시리다	현실로 인한 화자의 서러움
	서러운 새 되어 / 흰 밥알을 쫓다.	화자의 서글픈 모습과 심경

▶ 주제

비 온 뒤 아침 풍경 속에서의 자아 성찰

▶ 특징

①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이 드러남.		
작품 속 근거	해사살 피어 ~ 촉촉 죽순(竹筍) 돌듯.	비 온 후 아침의 싱그러운 정경
	물소리에 / 이가 시리다 ~ 서러운 새 되어 / 흰 밥알을 쫓다.	서러운 화자의 심정
② 우리말의 활용과 조탁이 드러남.		
작품 속 근거	이윽한 후	‘이윽한 후(시간이 얼마간 오래 지난 후)’의 뜻
	머흠머흠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냄.
	차돌부리	비 온 뒤 드러난 차돌의 뒷부분을 새의 ‘부리’처럼 표현함.
	촉촉	차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또는 차돌이 점점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냄.

▶ 어휘 풀이

- 머흠머흠: 구름이 좀 험상궂게 흘러가는 모양.
- 앉음새: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

(나) 파초(芭蕉)(이태준)

▶ 제목의 의미

‘파초’는 글쓴이가 애정을 드러내는 대상이자, 사물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다.

▶ 갈래 현대 수필

▶ 지문의 내용

글쓴이는 ‘파초’라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을 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파초가 죽기 전에 그것을 팔라는 앞집 사람의 권유와 그 권유를 거부하는 화자의 반응을 통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파초에 대한 애정

▶ 특징

두 개의 이야기가 공통된 소재로 연결됨.		
작품 속 근거	파초는 언제 보아도 ~ 여기 있을 것이다.	앞 이야기: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오늘 앞집 사람이 ~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뒷이야기: 파초에 대한 이웃 사람과 글쓴이의 대화

▶ 어휘 풀이

- 주렴(珠簾):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 성화하다(成火--): 몹시 귀찮게 굴다.
- 종시(終是): 끝내.
- 객적다(客--):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35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가)의 1~4연에 나타난 비 갠 아침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5~7연에서 사용된 ‘시리다’와 ‘서러운’ 등의 시어로 볼 때 화자는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글픈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나)에서는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가치관을 드러낼 뿐, 자연을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해사살 피어 / 이윽한 후 ~ 촉촉 죽순(竹筍) 돌듯.	자연: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 화자의 지향의 대상
	물소리에 / 이가 시리다	화자: 지향의 좌절로 인한 서러운 마음
	서러운 새 되어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 지 않겠소?”	파초를 동반자로 여김. 자연물과의 교감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화자는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서로 교감하거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서술을 통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나)는 파초를 통해 대상을 사랑으로 대하며, 대상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는 ‘이윽하다, 머흠머흠, 촉촉’ 등 순수리말을 다양하게 조탁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계절을 유추할 수 있는 소재로 (가)에서는 ‘길경(도라지) 꽃봉오리’를, (나)에서는 ‘폭염’과 ‘꽃이 핀 파초’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화자는 비 온 뒤의 아침 정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연은 차돌에 물방울이 튀어 죽순이 돌아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이것을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서러운 새 되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희망을 잃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차돌부리 촉촉 죽순(竹筍) 돌듯.	차돌에 물방울이 튀어 죽순이 돌아난 것처럼 보이는 모습
	서러운 새 되어	화자의 서러운 처지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시인은 비 온 뒤의 아침 정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고 하였다.

② 1연에서 4연까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어지는 사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보기>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언급하였으므로, ‘물 소리가 이가 시’린 것은 화자가 생각한 부정적 시대 인식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시인은 암울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호응할 수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조그리고’ 앉아서 ‘밥알을 쫓’는 행위와 연결된다.

black label 특강 시상 전개 방식

- 시간의 경과: 낮에서 밤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등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 시선의 이동: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 등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 유사 구조의 반복: 문장 성분의 배열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나며 반복되는 시상 전개 방식

3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는 작품의 전반부에서 파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후반부에서 ‘앞집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파초를 둘러싼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파초가 주는 멋과 정취를 즐기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임이 나타날 뿐, 파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오답 해설 | ① (나)는 ‘나’가 자신이 경험한 바, 생각한 바를 독백적으로 서술하는 수필이다. 특히 전반부에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② (나)의 후반부에는 ‘나’와 ‘앞집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파초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가치관의 대립이 나타난다.

④ (나)의 전반부에는 파초에 대한 ‘나’의 애정이 독백의 형식으로, 후반부에는 파초에 대한 인물 간의 대립된 가치관이 대화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수필이 지닌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측면과 연결될 수 있다.

⑤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니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를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파초가 비를 맞는 장면을 개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STEP

&

극 · 시나리오 복합

38 ①

39 ②

40 ①

41 ①

42 ④

43 ④

44 ①

[38~41] 작품 분석

(가) 구름의 파수병(김수영)

▶ 제목의 의미

화자는 ‘구름의 파수병’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구름’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에서 ‘구름’은 꿈이나 이상, 더 나아가 시를 지키려는 삶의 태도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화자가 시를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낸 제목이라 할 수 있다.

▶ 갈래 현대시

▶ 시적 상황

화자는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일상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에 쑥스러움과 비참함을 느낀.	
작품 속 근거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 시를 반역한 자신을 반성하고 시를 지키려는 의지를 다짐함.	
작품 속 근거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주제

현실에 안주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시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

▶ 특징

영단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 어휘 풀이

- 반역(反逆):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 산정(山頂): 산꼭대기.
- 파수병(把守兵):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병정.

(나) 느낌, 극락 같은(이강백)

▶ 제목의 의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형식이나 내용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극락 같은 느낌’에 이를 수 없으며,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극락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참된 인생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 갈래 희곡

▶ 등장인물

- 함묘진: 최고의 불상 제작자. 동연과 서연의 스승이다.
- 동연: 외형적인 가치에 얽매이는 인물. 불상을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 그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찾으려 한다.
- 서연: 내용을 중시하는 인물. 부처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완벽한 형태는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 함이정: 함묘진의 딸이며, 조승인의 모친. 동연과 결혼하여 승인을 낳았으며, 동연과 서연의 갈등을 승인에게 알려 준다.
- 조승인: 함이정과 동연의 아들. 과거의 이야기를 어머니인 함이정에게서 듣게 된다. 육신의 아버지인 동연과 정신적 아버지인 서연 사이에서 번민하던 중, 서연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함이정과 함께 과거를 되짚어 가며 두 사람의 가치관을 통합하고자 한다.

▶ 전체 줄거리

서연의 장례식장에서 함이정은 아들 조승인에게 서연과 동연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연과 동연은 불상 제작에서 각각 내용과 형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갈등하고, 서연은 동연을 인정하는 스승 곁을 떠난다. 동연은 함묘진의 딸인 함이정과 결혼하여 아들 조승인을 낳고, 불상 제작자로서 세속적인 성공도 거둔다. 그러나 함묘진이 죽자 함이정은 서연을 찾아 떠나고, 들판을 떠돌며 돌부처를 만드는 서연을 만나 함께 돌부처를 만든다. 모든 자연에 부처의 마음이 들어 있음을 깨달은 서연은 마지막까지 부처를 만들다 죽고, 함이정이 서연의 임종을 지킨다. 서연의 죽음을 알게 된 조승인이 장례식장으로 찾아간다.

▶ 지문 줄거리

서연의 장례식장에 온 함이정은 과거 동연과 서연의 관계를 아들인 조승인에게 알려 준다. 불상 제작자 함묘진의 제자인 동연과 서연은 불상 제작의 형태와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다. 이후 서연은 자신의 예술혼을 완성하며 극락으로 가게 된다.

▶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

▶ 특징

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함.		
작품 속 근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서연의 장례식장에서 함이정과 아들 조승인이 대화를 나누는 현재로부터 함이정의 회상을 통해 인물의 과거 이야기가 펼쳐지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남.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②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 안에 공존함.		
작품 속 근거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현재의 인물이 과거의 장면에 등장하는 등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이 공존하며 극이 전개됨.

▶ 어휘 풀이

- 전보(電報): 전신을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3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이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오답 해설 | ② (나)에서 동연과 서연은 불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각각 형태(모습)

와 내용(마음)이 중요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인물 간의 예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외적 갈등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사회적 신념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화자인 '나'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내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화자와 사회의 갈등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주로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오는 문제로 인한 인물의 갈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예술관의 차이로 인한 동연과 서연의 대립)만이 드러나 있다.

④ (가)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므로 내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는 동연과 서연의 인물 간 갈등이 제시되고 있어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나)에 제시된 인물 간 갈등은 동연과 서연의 갈등뿐이므로, '다양한 인물 간의 갈등'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과 현실의 삶의 모습이 달라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인물들은 불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하고 있을 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blacklabel 특강 갈등의 양상

- 내적 갈등: 괴로움이나 걱정 등 한 인물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갈등
- 외적 갈등: 인물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겪는 갈등
 - 인물 vs 인물: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물끼리 대립하는 것
 - 인물 vs 사회: 사회적 금기, 구조적 문제로 인물이 불만을 느끼는 것
 - 인물 vs 운명: 인물이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것
 - 인물 vs 자연: 인물이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 환경과 부딪쳐 싸우며 갈등을 겪는 것

39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B]에서 함이정은 개울물을 바라보고, 물 위에 비친 서연과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얼굴 뒤에 비친 구름, 구름 뒤에 비친 하늘을 순차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대상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함이정과 서연은 갈등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함이정도 내적 갈등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B]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에 구름이……. 구름 뒤에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 대상의 순차적 제시(개울물 → 얼굴 → 구름 → 하늘) • 함이정과 서연의 교감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의 어리석음이 이제는 모두 사라진 것을 아쉬워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 날아간 제비와 같이	화자의 행위 나열 아쉬움의 정서

③ [A]에서 화자는 이제는 모두 사라진 '어리석음'을 '날아간 제비'와 같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에서 '물 위에 얼굴, 얼굴 뒤에 구름, 구름 뒤에 하늘'로 표현하였으므로, 연쇄적으로 풍경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통해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B]에서 '물'은 인물들의 얼굴을 비추고, '구름'과 '하늘'은 인물들의 얼굴 뒤로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인물과 관련이 있다.

⑤ [A]의 '사라졌나 보다 / 날아간 제비와 같이'에서, [B]의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에서 도치가 나타나며, 이러한 도치법을 통해 화자와 인물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blacklabel 특강 연쇄적 표현

글을 쓸 때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점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화자는 자신의 현재 삶을 '시와는 반역된 생활'로 표현하며,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자신의 현재 삶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이며 '낱아빠진 생활'이라고 성찰하고 있는 것이므로, 두 시어는 의미상 유사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반역된 생활 ≡ 낱아빠진 생활: 화자의 현재의 삶을 나타냄.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오답 해설 | ② '면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면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 생활을 똑바로 보기 위해 상정한 가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현재 '시와 반역된 생활'을 하는 화자는 친구가 와서 자신의 '꿈'을 깨워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날아간 제비'처럼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든 가야 하는 '반역의 정신'을 화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꿈'은 '반역의 정신'을 일깨우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며 '그릇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반성적 인식은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표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남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쑥스러움'을 느낀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다. 결국 화자는 '시를 반역한 죄로' 오랫동안 구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41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극중에서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는 것을 보여 준다. 천막을 무대 위로 올리는 것으로 무대 상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①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 무대 공간의 분할 • 천막의 제거: 무대 공간의 통합

오답 해설 | ② 함이정과 조승인이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에서 과거의 장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③ 서연이 동연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서연의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서연이 자신의 생각을 더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④ 돌이든 물이든 부처님을 만드는 데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재료나 형식보다 본질(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⑤ 함이정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지만, 서연이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서연이 건너간 개울물 '저쪽'은 저승을, 함이정이 있는 '이쪽'은 이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극락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개울물 '저쪽'은 예술의 본질을 좇던 서연이 이르게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42~44] 작품 분석

(가) 무진기행(霧津紀行)(김승옥)

▶ 작품 해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무진은 안개가 자주 덮이는 곳으로, 권태와 단조로움, 절망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작품에서 ‘나’가 무진의 모호한 안개 속에서 벗어나 밝음을 지향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모습이지만, ‘나’는 결국 무진이라는 공간에서 되찾으려 했던 순수함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실로 복귀하고 만다.

▶ 갈래 현대 소설

▶ 등장인물

- ‘나’(윤희중): 장인이 경영하는 제약 회사의 전무 자리에 오르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아내의 권유에 따라 주주 총회를 앞두고 무진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만난 하인숙에게 잠시 사랑을 느끼지만, 결국 현실과 타협하여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 아내: ‘나’에게 무진에 가 있을 것을 권하는 인물. 현실적, 세속적 가치를 상징한다.
- 하인숙: 무진 중학교 음악 교사. ‘나’를 만난 후 허무를 벗어나기 위해 무진을 떠나고 싶어 하나, 결국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무진에 머무른다.

▶ 전체 줄거리

제약 회사의 전무가 될 ‘나’는 아내의 권유로 젊은 날의 추억이 있는 고향 무진으로 떠난다. 무진에 와서 ‘나’는 후배 박과 동창 조, 그리고 박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하인숙이라는 음악 교사를 만난다. 무진을 떠나고 싶어 하는 하인숙은 ‘나’에게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청하고, 하인숙에게서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한다. ‘나’는 하인숙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그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는다. 아내로부터 빨리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은 ‘나’는 과거의 의식으로부터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기로 하고, 무진을 떠나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 지문 줄거리

제약 회사의 전무가 될 ‘나’는 아내의 권유로 젊은 날의 추억이 있는 고향 무진으로 떠난다.

▶ 주제

-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
-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심리

▶ 특징

현실의 공간과 추억의 공간이 대비됨.				
작품 속 근거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table border="1"> <tr> <td>서울</td><td>무진</td></tr> <tr> <td>세속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실의 공간</td><td>일상을 벗어난 추억의 공간</td></tr> </table>	서울	무진	세속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실의 공간
서울	무진			
세속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실의 공간	일상을 벗어난 추억의 공간			

▶ 어휘 풀이

- 공상(空想):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또는 그런 생각.
- 안색(顔色): 얼굴빛.

(나) 안개(김승옥)

▶ 작품 해설

동일 작가의 단편 소설인 「무진기행」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는 안개가 낀 듯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전통적인 가치가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세속화된 시대이다. 「안개」는 이 같은 혼돈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갈래 시나리오

▶ 등장인물

- 윤기준: 장인이 경영하는 제약 회사의 전무 자리에 오르기로 되어 있다. 주주

총회를 앞두고 무진으로 가지만 현실과 타협하여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 아내: 윤기준에게 무진에 가 있을 것을 권하는 인물. 현실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 전체 줄거리

장인이 경영하는 제약 회사의 상무로 있는 윤기준은 휴양차 고향에 내려간다. 그는 6·25 때 징병을 기피했던 사실이 새삼스럽게 비굴하게 느껴지며, 고향의 분위기 자체가 뻔한 안개 속처럼 인간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와 음악 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 무료한 시간을 때우곤 한다. 이후 윤기준은 장인 회사의 전무로 승진되었으니 급히 상경하라는 아내의 전보 한 장을 받고는 서울로 떠나 버린다.

▶ 지문 줄거리

장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윤기준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 성묘를 다녀오라는 아내의 권유로 무진으로 떠나게 된다.

▶ 주제

현실적 욕망과 타협하는 현대인의 자기반성

▶ 특징

소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방에 붙은 욕실’,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로우브’ 등	인물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편임을 드러냄.

▶ 어휘 풀이

- 주마등(走馬燈):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나)의 제목은 ‘안개’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안개는 구체화되지 않은 불명확한 존재이며, 주인공에게 무진은 안개처럼 깊숙이 잠겨 있는 무의식의 원형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안개는 무진의 무의식의 원형의 이미지를 활용한 제목임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보기>	무진은 주인공에게는 안개처럼 깊숙이 잠겨 있는 무의식의 원형 같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아내가 남편이 무진에 간 사이에 일을 꾸며 놓겠다고 한 것은 ‘공간의 의명성’과 관련이 없다. <보기>에서 언급하는 의명성은 안개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일 뿐이며, 안개가 무진의 이미지와 닮아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있는 공간은 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② (가)의 ‘나’가 무진에서 자신을 상실했다는 것과 인물 간의 단절감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 ‘나’가 무진에 가는 것은 거리를 확보하여 서울에서의 일이나 그곳에서의 인물들과 ‘나’를 단절시킬 수는 있으나, ‘나’가 자신을 상실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과거에 ‘나’가 무진에서 항상 자신을 상실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의 ‘나’가 엉뚱한 생각을 무진에서는 거침없이 해내는 것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자신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 무진은 안개처럼 깊숙이 잠겨 있는 무의식의 원형 같은 것이며, 이 안개는 구체화되지 않은 불명확한 존재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명확한 생각이 무진에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없다.

⑤ (나)에 묘사된 공간의 모습은 버스 차창에서 보이는 가로수, 논, 밭, 바다 등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안개로 인해 경계가 흐려진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안개가 자욱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나)의 제목을 ‘안개’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43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A]와 [B] 모두 아내가 남편에게 무진에 다녀오면 ‘대회생 제약(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남편의 무진행을 설득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 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예요?”
[B]	꼭 쉬시다 오시면 대회생 제약 주식회사의 전무 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오답 해설 | ① [A]에서 ‘나’는 무진에 가는 것에 대해 투덜대며, 이는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나’의 서술에 의해 나타날 뿐,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②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라는 대사를 통해 남편이 무진행에 대해 불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평은 아내의 대사 이후가 아니라, 아내의 대사 이전에 나타난다.

③ 건강 회복이나 성묘는 남편이 무진으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A]와 [B] 모두에서 아내는 남편이 무진에 간 동안 그를 전무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남편을 무진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한 무진에 간 김에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성묘를 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건강 회복이나 성묘 때문에 무진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⑤ [A]에서 ‘나’는 아내의 제안을 ‘진심에서 나온 권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B]에서는 윤기준(‘나’)과 아내와의 대화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내의 진심을 다른 인물의 시선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S#4의 지시문에서는 배경과 소품,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윤기준의 대사에서는 무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아내의 대사에서는 남편을 전무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생각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S#4에서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S#4	지시문	소품, 인물의 행동과 모습 제시
	윤기준의 대사	무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 표현
	아내의 대사	남편에 대한 염려와 내조

오답 해설 | ② 두 사람이 사는 집의 ‘방에 붙은 욕실’이라는 공간과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로우브’ 등의 소품을 통해 인물의 넉넉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③ S#4의 공간적 배경은 윤기준의 집이며,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무진행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S#12의 공간적 배경은 무진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가 S#4부터 S#12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S#5는 윤기준의 집이 위치한 동네의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이후 S#12에서는 윤기준이 탄 버스 차장에서 보이는 눈, 발, 산, 바다 등이 나타나면서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⑤ S#11에서는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는 버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시선은 버스 외부에 있음이 나타난다. 반면 S#12에서는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시선은 버스 내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

시간 순서에 따라

- 순행적 방식: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내용 전개 방식
- 역순행적 방식: 자연적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 → 과거’ 또는 ‘현재 → 과거 → 현재’ 등의 순서로 구성되는 내용 전개 방식

STEP & 극·시나리오 복합

45 ④ 46 ① 47 ④ 48 ⑤ 49 ② 50 ⑤
51 ⑤ 52 ⑤ 53 ②

[45~49] 작품 분석

높여 가는 아내에게(황지우)

▶ 제목의 의미

시적 대상인 아내에게 남편인 화자가 고백하는 형식의 시이다.

▶ 갈래 현대시

▶ 시적 상황

‘높여 가는 아내’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회상, 현재에 대한 다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아우르고 있는 이 시에서 화자는 ‘아내’를 자신에게 병과 싸워 이길 의지를 불태우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준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많은 일을 겪은 사람, 서로 의지하며 아름답게 높아 가야 할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아내에 대한 따뜻한 사랑	
작품 속 근거	그대 웃김의 술밥이 뜰어 주고 싶게 유난히 커 보이는 게야
	그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늙는 일이라

▶ 주제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 가는 아내에 대한 사랑

▶ 특징

① 고백체의 대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내가 말했잖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 나 사랑해? 물질 않아
② 원숙한 사랑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함.	
작품 속 근거	힘없는 소리로, 임자, 우리 괜찮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때, 그때나 가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나 가서 할 수 있는 말일 거야

▶ 어휘 풀이

- 적산 가족(敵産家屋): 일제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사람의 집.
- 형(兄):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학우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로 ‘학형(學兄)’을 줄여 부른 말.
- 에담부틀, 스트랩토마이신: 결핵 약.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강풀 원작, 추창민 감독)

▶ 작품 해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이다. 제목인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는 만석의 대사로, 만석은 죽은 아내에 대한 호칭인 ‘당신’과 구분하여 상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만석은 이를 통해 아내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 갈래 시나리오

▶ 등장인물

- 만석: 가부장적 권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거친 모습이지만,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간직한 채 인생의 마지막 사랑으로 다가온 송 씨를 살뜰히 보살피는 자상함을 가졌다.
- 송 씨: 징용에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호적을 올리지 못해 이름도 주민등록증도 없으며, 홀로 살아가며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 가는 도시 빈민이

다. 만석과 노년의 사랑을 통해 삶의 기쁨을 깨닫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택한다.

- 연아: 만석의 손녀. 송 씨와 만석의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하는 속이 깊은 인물이다.

▶ 전체 줄거리

우유 배달부 김만석과 파지 좁은 할머니 송 씨는 추운 겨울날 언덕바지의 가파른 비탈길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송 씨가 이름도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만석은 송 씨에게 ‘송이쁜’이란 이름을 지어 주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게 해 준다. 그리고 송 씨에게 처음으로 생일상도 차려 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한편 주차 관리인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 조순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조순이는 집을 나와 길을 잃게 된다. 한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배회하던 조순이를 발견한 김만석이 집을 찾아 주며 네 명의 노인들은 서로 친구가 된다. 얼마 후 장군봉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죽음을 택한다.

군봉 내외의 빈소를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에, 송 씨는 죽음 때문에 만석과 이별하는 것이 싫어서 만석에게 헤어지자고 한다. 만석은 송 씨를 고향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송 씨의 집 앞에서 송 씨를 그리워한다. 송 씨의 집에 이사 온 꼬마가 송 씨의 부탁을 받아 오토바이가 위험하지 않게 가로등에 불을 켜 둔다는 것을 알게 된 만석은 송 씨를 추억한다. 만석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송 씨를 찾아온 만석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둘은 만석의 오토바이를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

▶ 지문 줄거리

송 씨의 생일을 알게 된 만석은 생일상을 준비하고, 송 씨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며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

▶ 주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노인들의 가슴 따뜻한 사랑

▶ 특징

① 노년층의 삶의 방식을 섬세하게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만석: (할머니 사진 한번 보고) 우리 나이에 ‘당신’이라는 말은 ‘여보 당신’ 할 때 쓰는 말이야. 연아: 만석: 뭘 말이나 하면 말이야. ‘당신’은 먼저 간 네 할머니한테 쓰는 말이야.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②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작품 속 근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원가를 꺼낸다. 머리핀 하나를 내민다. 만석: 싸구려 은반지라도 사 울까 했는데 죄다 문을 닫아서. 송 씨: 만석: 아, 팔 아파. 멍하니 쳐다보던 송 씨, 머리핀을 받아들고 가슴 깊이 안아 본다.

45 화자와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나)의 만석은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무뎠직한 성격의 노인이다. 손녀의 충고에 따라 송 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무척 쑥스러워하며 말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연아: 가서 말하세요. 만석: 알면 된 거잖아. 연아: 참 내, 그런 건 말해 줘야 돼요.
	만석: 그대를 사랑합니다. 만석: (놀라 본다.) 뵈? 만석: 두 번은 뵈 뜨거워서 못 하나까 그리 아예.

오답 해설 | ①, ③ (가)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그대(아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늙는 일’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대(생의 마지막)나 가서 할 수 있는 말일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

② (나)에서 연아는 할아버지인 만석에게 ‘참 내, 그런 건 말해 줘야 돼요.’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음…… 그건…… 직접 말해 주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

르거든요. 왜냐하면…… 음…… 할머니도 여자니까요.’라고 설명해 준다.

⑤ 눈에 낀 눈곱을 훔치거나, 옷깃의 솔밥을 뜯어 주고 싶은 것과 같이 작은 행동들이 화자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6 단어의 내포적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나)의 만석은 ‘당신’이라는 말은 아내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송 씨에게 고백할 때 ‘당신’ 대신 ‘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대’를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만석: 우리 나이에 ‘당신’이라는 말은 ‘여보 당신’ 할 때 쓰는 말이야.

오답 해설 | ② (가)는 화자가 아내에게 말을 하는 대화체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또 (나)에서도 만석이 송 씨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그대’는 모두 청자를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③, ④ (가)의 ‘그대’는 화자의 아내이자 사랑하는 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나)의 ‘그대’는 ‘당신’이라는 말과 대비를 이루며, 사랑하지만 아내가 아닌 사람을 부르는 말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⑤ (가)는 아내와 사랑을 시작하던 젊은 날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미래까지를 아우르며 사랑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그대’는 과거에서 미래까지를 함께할 대상이다. 그러나 (나)는 노년의 마지막 사랑의 대상인 송 씨를 가리키므로 현재와 미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4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화자는 사랑이란 상대의 ‘아픔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2연	저도 형과 같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요
3연	그 사랑은 아픔을 낮게 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 하는 것임을 한밤, 약병을 쥐고 울어 버린 나는 알았지

오답 해설 | ① 눈곱을 떼어 주는 일, 솔밥을 뜯어 주는 일, 비듬을 털어 주는 일, 넥타이를 여며 주는 일 등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작은 행동에서 부부의 일상적이면서도 섬세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화자가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대화 형식을 통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③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을 지나 서로 의지하는 중년과 서로의 곁을 지켜 주는 노년의 사랑을 따뜻한 어조로 나타내고 있다.

⑤ ‘우리가 그렇게 잘 늙은 다음 ~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나 가서 / 할 수 있는 말일 거야’라는 구절을 통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지금의 사랑을 지켜 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현재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유예시켜 오래도록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48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만석은 ‘당신’이라는 호칭은 죽은 아내를 위해 남겨 두는 것이 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송 씨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죽은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만석이 사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만석: '당신'은 먼저 간 네 할머니한테 쓰는 말이야.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	죽은 아내('당신')와 송 씨('그대')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구별함.

오답 해설 ① 연아가 만석에게 고백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만석은 송 씨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아내가 이승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석은 마음 한 구석에 죽은 아내의 자리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연아는 만석에게 송 씨의 생일을 알려 주며 그녀에게 고백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③ 만석은 '니미', '씩을', '미친 놈의 가사'와 같이 거칠게 말하면서도, 송 씨의 생일상을 준비하고 선물까지 챙기는 섬세함을 보여 준다. 또한 송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죽은 아내를 존중하여 '당신'이 아닌 '그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섬세함을 찾아볼 수 있다.

④ 송 씨는 생일상을 받고 불을 끄라는 만석의 말에 순순히 따르고, 그가 내민 머리핀도 말없이 받아 가슴에 안는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매우 소극적이지만 만석에 대한 진심을 알게 한다.

49

작품 속 상황의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만석이 송 씨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 것은 송 씨가 미처 알지 못한 사건이므로, 만석 선물을 줄 것을 미리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 만석은 원래 은반지를 사오려 했으나 가게가 문을 닫아 대신 머리핀을 사온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만석: 싸구려 은반지라도 사 올까 했는데 죄다 문을 닫아서.	은반지를 사 오지 못한 이유

오답 해설 ① 생일 노래를 부르기 전 헛기침을 하는 등의 행동과 '아, 팔 아파.'와 같은 통통스러운 말투는 송 씨의 생일상을 차리고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축스럽기 때문이다.

③ 자신의 생일을 만석이 알고 있을 거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송 씨는 평소와 다른 만석의 행동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④ 멍하니 쳐다보는 송 씨의 행동을 통해 생일 선물을 받는 것이 생소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머리핀을 가슴 깊이 안아 보는 행동을 통해 그녀가 만석의 고백과 선물에 매우 감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씩을, 그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만석의 말을 통해 생일상을 차리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는 등의 이벤트를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석이 송 씨의 생일을 준비할 때 연아의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50~53] 작품 분석

(가) 전우치전(田禹治傳)(작자 미상)

▶ 작품 해설

실제 인물의 내력이 전설로 자리잡은 후 소설화된 작품이다. 부정한 관리와 도적 등 악한 자를 괴롭히는 무리들을 징벌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인물인 전우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우치가 비록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지배 질서를 반역하는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 개조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도술이 장난이나 자기만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 갈래 고전 소설

▶ 등장인물

- 전우치: 왕을 위해 도적을 잡는 공을 세웠으나, 모함을 받아 역도로 몰리자 도술로 위기를 모면한다.
- 왕: 도둑을 평정하는 공을 세운 전우치를 포상하고 위로하나, 모함의 말만을 믿고 전우치를 위협에 빠뜨린다.

▶ 전체 줄거리

송도에 사는 전우치라는 사람은 신기한 도술을 얻었으나 재주를 숨기고 살았다. 그는 빈민의 처참한 처지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천상 선관으로 가장하여 임금에게 나타나 옥황상제의 명령이라 하여 황금 들보를 만들어 바치게 하고, 그것을 팔아서 곡식을 장만해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뜻을 널리 알렸다. 나라에서 전우치를 잡아갔으나 그는 쉽게 탈출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횡포한 무리를 징벌하고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자수를 하고 무관 말직을 얻어 도둑의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나, 역적의 혐의를 받아 다시 도망쳤다. 도술로 세상을 희롱하며 다니던 끝에 친한 벗을 위해 절부(節婦)를 훼손시키려다가 강림 도령에게 제지를 당하고, 서화담에게 굴복해 그와 함께 산중에 들어가 도를 닦는다.

▶ 지문 줄거리

전우치가 무관 말직을 얻어 도둑의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나, 모함으로 역적의 혐의를 받아 도술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도망친다.

▶ 주제

- 당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 빈민을 구제하는 전우치의 의로운 행동

▶ 특징

① 지배층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남.		
작품 속 근거	조정 백관이 다 우치를 보고 성공함을 치하고 왕이 상을 후히 내리려 한다. 이때 호서 땅에서 역모하려는 자를 잡아왔는데, 우치를 시키하는 자 있어 그 일당을 매수하여 우치가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자백을 하게 한다.	공을 세운 전우치를 시키하고 모함하는 신하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었으니 변명하나 어찌 면하리오?"	사건의 진위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임금
② 사건 전개에서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남.		
작품 속 근거	우치가 가달산 괴수 엄준을 도술로 물리치고 돌아와	도술로 도적을 잡음.
	우치 지팡이를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과 만장 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되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밑에 안장 없은 나귀를 그리고 ~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데 없거늘	그림을 그려 그 안에 들어감.

▶ 어휘 풀이

-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 전지(傳旨):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
- 인검(引劍): 임금이 병마를 통솔하는 장수에게 주던 검. 명령을 어기는 자는 보고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 천봉만학(千峯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만장폭포(萬丈瀑布): 매우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
- 사은(謝恩):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 사례함.
- 여년(餘年): 여생(앞으로 남은 인생).

(나) 전우치(최동훈)

▶ 작품 해설

고전 소설 「전우치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소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우치를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인 전우치가 당대의 현실에 순응하지 않으며 도술을 부리는 신이한 인물이라는 점, 화답 서경덕이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점 등은 기존의 소설과 유사하다. 그러나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현대까지로 확대한 점, 전우치와 인연이 있는 여인 등을 등장시킨 점 등은 차이가 있다.

▶ 갈래 시나리오

▶ 등장인물

- 전우치: '망나니'라는 별명을 가진 천망지축의 도사. 탐욕스러운 왕을 조롱하고 요괴와 맞서는 영웅적 면모를 지녔으면서도 한 여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인물이다.
- 왕: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임금. 전우치의 도술에 속아 황금 1만 냥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 전체 줄거리

500여년 전 조선 시대. 전설의 피리 ‘판파식적’이 요괴의 손에 넘어가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신선들은 당대 최고의 도인인 천관 대사와 화담에게 도움을 요청해 요괴를 봉인하고 ‘판파식적’을 둘로 나눠 두 사람에게 각각 맡긴다. 그러나 화담은 피리에 현혹되어, 요괴로 변해 천관 대사를 죽이고 남은 반쪽 피리를 취하려 하지만 얻지 못한다. 한편, 천관 대사의 망나니 제자 전우치가 둔갑술로 임금을 속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자, 신선들은 화담이 요괴인 사실을 모른 채 화담과 함께 천관 대사를 찾아갔다가 그가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된다. 전우치는 화담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고 자신의 개 초랭이와 함께 그림 족자에 봉인되는데, 그 순간 전우치가 피리를 빼앗아 그와 함께 피리도 족자에 봉인된다.

2009년 서울. 과거 봉인된 요괴들이 하나 둘 다시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힌다. 신부, 중, 점쟁이의 신분으로 제각각 살아가던 신선들이 다시 모여 화담을 찾지만, 500년 전 수행을 이유로 잠적한 그는 생사조차 알 수 없다. 고심 끝에 신선들은 박물관 전시품이 된 그림 족자를 찾아 전우치와 초랭이를 불러낸다. 요괴들을 잡아 오면 봉인에서 풀어 주겠다는 신선들의 제안을 마지못해 수락한 전우치와 초랭이는 요괴 사냥에 나서고, 전우치는 피리를 빼앗으려는 화담과의 결투에서 승리한 후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 지문 줄거리

망나니 도사 전우치가 둔갑술로 임금을 속여 기근에 힘들어하는 함경도에 황금 1만 냥을 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다.

▶ 주제

탐욕스럽기만 하고 백성은 살피지 않는 왕을 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와 싸우는 영웅의 활약

▶ 특징

① 왕과 대신들의 실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함.		
작품 속 근거	전우치: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왕의 생각은 어떠신가?	
② 전우치를 통해 선정을 바라는 백성들의 열망을 대변함.		
작품 속 근거	전우치: 이것들은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도록.	
③ 사건 전개에서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남.		
작품 속 근거	하늘에선 오색구름 위에 날개 달린 말을 탄 전우치가 의관을 차려입고, 그 뒤로는 천군들이 호위하며 자상으로 내려온다.	전우치의 도술
	전우치가 말에 올라타더니,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 어휘 풀이

- 일진광풍(一陣狂風): 한바탕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
- 의관(衣冠): 남자의 옷옷과 갓이라는 뜻으로,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이르는 말.

50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의 왕은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의 왕은 공을 세운 전우치를 시기하는 신하들의 모함에 넘어가 오히려 전우치를 벌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우치의 역모를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되었으니 빨리 잡아 오라.”
(나)	전우치: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왕의 생각은 어떠신가?

오답 해설 | ① (가)의 왕은 역모를 꾸며다고 의심하여 전우치와 대립하고, (나)의 왕은 자신을 속여 황금을 빼앗았기 때문에 전우치와 대립한다.

② (가)와 (나)의 전우치는 모두 그림을 그려 그 속으로 들어가는 도술을 부려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③ (가)의 왕은 전우치와 군신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나)의 왕은 전우치가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까지 그의 정체를 모른 채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들로 믿고 있다.

④ (가)의 왕은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생각하며 묶인 전우치를 풀어 주라 한다. (나)의 왕은 전우치를 ‘망나니’라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정체와 이전 행적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가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51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전우치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왕에게 자신의 소원(그림을 그리는 것)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자, 왕이 생각 끝에 이를 허락한다. 이로 인해 우치는 도술을 부려 위기를 모면한다. ㉠과 ㉡은 우치의 계획대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우치의 제안	“신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기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오매 이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옵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잇고?”
왕의 명령	죽시 댜것을 풀려 주시고 지뫼를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오답 해설 | ① ㉠에서 임금의 근심을 유발한 것은 우치가 아니라 도적이다.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우치가 도적을 잡겠다고 아뢰는 것이다.

② ㉢은 우치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임금의 반응이 맞다. 그러나 ㉣은 모함으로 인해 우치의 역모를 의심하게 된 임금의 반응으로, 사건의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③ ㉤과 ㉥에서 임금과 우치의 갈등이 제삼자(우치를 포함한 신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임금의 의중을 헤아린 처사는 아니다.

④ ㉦에서 ㉧으로의 변화는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왕을 속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우치의 계획에 왕이 흔들리는 부분이다.

black label 특강 인물의 갈등

- 내적 갈등: 개인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과 회피하고 싶은 것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 자신의 잘못을 숨길 것인지, 고백할 것인지 사이에서의 갈등
- 외적 갈등: 인물과 외부 요인 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갈등
 - 개인과의 갈등: 성격의 차이나 오해, 이익에서 시작된 갈등
 - 예 간을 요구하는 용왕과 이를 거부하는 토끼의 갈등 — 작자 미상, 「토끼전」 —
 - 사회와의 갈등: 신분 제도 등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와의 갈등
 - 예 대동(大同) 세상을 구현하고자 한 민중들과 조정의 갈등 — 황석영, 「장길산」 —
 - 운명적 갈등: 운명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것으로 인한 갈등
 - 예 떠돌이의 운명을 타고난 성기가 결국 길을 떠나게 됨. — 김동리, 「역마」 —
 - 자연과의 갈등: 인간이 자연에 맞섬으로써 일어나는 갈등
 - 예 늑대는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상어 떼와 싸움. —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

52

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전우치가 벼슬에 연연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가)의 전우치가 자신을 ‘신(臣)’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에서 그가 벼슬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또한 (나)에서 전우치는 왕으로부터 빼앗은 황금 1만 냥 중 하나를 자신의 품에 넣는다. 이를 통해 전우치가 어느 정도는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황금 1만 냥이 쌓여 있는 상자를 대충 살펴보고는, 하날 뚝뚝에 넣는 전우치.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의 전우치는 모두 왕을 속여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특히 (가)는 이미 포박이 된 후에도 언변을 통해 왕을 속여 포박을 푸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에서는 도적을 막았고, (나)에서는 백성의 기근을 걱정하며 황금을 보내는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③ (가)와 (나)에서 전우치는 신변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임기응변(臨機應變)’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을 의미한다.

④ (나)의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왕의 생각은 어떠신가?”라는 전우치의 대사에서 그가 지배 계층보다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에게서 황금을 빼앗아 기근 지역에 보내고, 왕을 조롱하는 것은 심판자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53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 전우치는 왕을 예우하기는커녕 꾸짖으며 그에게 말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기에는 ‘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하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이 어울린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전우치: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왕의 생각은 어떠신가?	왕과 대신을 꾸짖고 조롱함.

오답 해설 | ① 망자재배(芒刺在背): 까끄라기와 가시를 등에 지고 있다는 뜻으로,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하고 편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③ 문필도적(文筆盜賊): 남의 글이나 저술을 베껴 마치 제가 지은 것처럼 하는 사람.

④ 양호유환(養虎遺患): 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뜻으로,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환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⑤ 혼비백산(魂飛魄散):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났을 있음을 이르는 말.

STEP & 기타 복합		◀ 갈래 복합 7 ▶				
54 ①	55 ⑤	56 ③	57 ⑤	58 ⑤	59 ⑤	
60 ⑤	61 ⑤	62 ③	63 ②			

[54~58] 작품 분석

(가) 시가의 주제와 정서(김윤식)

▶ 지문 해설

시가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고전 시가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전 시가를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주제와 정서를 중심으로 시가를 감상하는 방법

▶ 특징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움.		
작품 속 근거	「훈민가」	짐을 지고 가는 늙은이를 본 상황에서 늙은이의 짐을 덜어 주려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 있음.
	「보리타작」, 「훈민가」	후반부로 갈수록 주제가 구체화되면서 독자에게 거의 직설적으로 전달됨.

(나) 훈민가(訓民歌)(정철)

▶ 제목의 의미

‘백성을 가르치는(훈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경민가(警民歌)’라고도 한다.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 갈래 시조(전 16수의 연시조)

▶ 시적 상황

백성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등의 유교적 덕목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짐을 진 노인에게 연민을 느낀.	
작품 속 근거	늘거도 설웨라커든 지름조차 지실가

▶ 주제

유교적 윤리의 실천을 권장함.

▶ 특징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일상적인 어휘와 친근한 어조를 사용함.		
작품 속 근거	이고 진 더 늙으니 짐 프려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지름조차 지실가	한자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로 표현함.

현대어 풀이

이고 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 나에게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히라 무거울까?
늘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게 할까?

(다) 보리타작(정약용)

▶ 제목의 의미

농민들이 보리를 타작하는 장면을 그려 낸 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제목이다. 정약용의 한시에는 필박받는 백성들의 삶을 고발한 작품이 많은데, 이 작품은 노동에 몰두하는 농민들의 건강하고 흥겨운 모습을 예찬하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성찰까지 담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갈래 한시(행(行))

▶ 시적 상황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태도를 예찬함.	
작품 속 근거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네.
• 세속적인 욕망에 연연했던 것을 반성함.	
작품 속 근거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 특징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작품 속 근거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엩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농기가 한 자로세. ~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선경(先景): 농민들이 보리 타작하는 모습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후정(後情): 화자의 깨달음과 반성

5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에 따르면 시가는 개인의 내면적 정서를 바탕으로 중심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주제라고 하였다. (나)의 화자 역시 짐을 지고 가는 늙은이를 보는 상황에서, 그 늙은이에게 연민이 생겨 그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정서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이 중심 생각이나 사상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일 수도 있다.	
(나)	이고 진더 늘그니	시적 상황과 대상 - 짐을 진 노인
	짐 프러 나를 주오	화자의 태도 - 짐을 들어 주고자 함.
	늘거도 설웨라커든	화자의 정서 - 연민

오답 해설 | ② (나)의 증장과 종장은 초장과 같이 반응(늙은이의 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함)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 초장의 인식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의 자연 발생적 정서는 시가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윤리 의식과 직결되는 정보가 아니다.
 ④ (나)의 화자는 젊은이의 관찰자가 아니라 젊은이 자신이다.
 ⑤ 「보리타작」에서와 같이 (나)에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주제가 구체화되면서 독자들에게 거의 직설적으로 전달된다.

blacklabel 특강 장르를 설명하는 글과 작품이 함께 지문으로 제시되는 경우
 이런 지문이 제시된다면 (가)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설명하는 글인 (가)를 읽을 때는 해당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하며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작품인 (나)를 읽을 때 그 특징들에 주의하며 읽는다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풀 수 있다.

5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A]에서 고전 시가의 주제는 시대와 사회 변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가 시가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시대나 사회상이 시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에서 시적 화자가 하는 행동이 변화된 시대상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비교가 되는 작품이나 참고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다) 자체만으로는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고전 시가의 주제는 시대 및 사회 변천을 반영한다. 그것은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나 사회적 배경이 시가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시대나 사회상이 시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파악하면 시적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의 시적 상황은 화자가 농민들의 보리타작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A]에서는 시적 화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시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의 시적 화자는 농민들의 노동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
 ③ [A]에서 시적 화자가 무엇으로부터 정서적인 자극을 받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의 시적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에서 자극을 받고 있다.
 ④ [A]에서는 시적 화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의 시적 화자는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라고 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에 임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육신과 정신의 조화를 이룬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56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 (다)의 농민들은 화자가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건강하고 흥겨운 모

습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의 농민들은 탐관오리에게 수탈을 당하여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다)와 달리 <보기>는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건강한 노동의 모습
<보기>	새로 짜 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수탈당하는 모습

오답 해설 | ① <보기>와 (다)는 모두 백성들의 생활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보기>는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장면에, (다)는 농민들이 노동하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다. (다)의 농민들의 모습에서 부유함을 끌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 자기 성찰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작품은 (다)이다. (다)의 마지막 4행은 화자가 농민들의 노동의 모습을 본 후 얻은 깨달음과 자기 성찰을 담은 내용이다.
 ⑤ (다)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의 모습에 대한 예찬적 시선이 드러나며, <보기>는 백성들이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의 시선이 드러난다.

57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 <보기>에서 누워 있는 양반의 모습은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과 대비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보기>의 양반의 모습을 풍류적이라고 하기도 모호하고,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양반이 아니라 농민들이므로 작가가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하는 바는 한가롭게 지내는 지배 계층에 비해 근면히 노동하는 평민 계층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다)	큰 사발에 보리밥, 농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께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겉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농민들의 활기찬 노동의 모습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농민들의 흥겨운 노동의 모습
<보기>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벼타작 모습	농민들의 근면한 노동의 모습 부각
	우측 상단에 위치한, 누워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양반의 모습	농민들과 대비되는 양반들의 나태한 모습

오답 해설 | ① <보기>와 (다)는 모두 농민들이 곡식을 타작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다)에서는 ‘벼슬길’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가 양반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는 갓을 쓰고 비스듬히 누워 술과 담배를 하는 인물이 양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의 화자와 <보기>의 양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농민들을 관찰하는 존재이다.
 ③ <보기>의 양반은 농민들의 노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지배 계층의 시각을, (다)의 화자는 농민들의 노동에 공감하며 친밀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 준다.
 ④ <보기>의 농민들과 (다)의 ‘그들(농민들)’ 모두 노동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58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곳이 낙원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이에 화자는 벼슬길에 헤매 이유가 없음을 선언한다. 그렇다고 하여 화자가 전원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벼슬길이라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것을 후회하며 건강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한 것이지, 현재 자신이 맡은 벼슬을 내려놓고 전원에서 살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 화자의 현재 상황(벼슬을 맡고 있는지 여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건강하고 참된 삶을 추구함.

오답 해설 | ① ‘지름조차 지실가’에서 설의법이 보이고, 이를 통해 젊은 자신이 늙은이를 도와야 하는 당위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큰 사발에 고봉으로 보리밥을 담은 모양은 농민들의 활기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 ③ 「옹헤야」는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 ④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농민들을 보고 한 이야기이다. 화자는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59~63] 작품 분석

(가) 농가월령가의 이해(김종철)

▶ 지문 해설

문학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고, 그중 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가진 작품으로 「논매기 노래」와 「농가월령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서 「농가월령가」의 형식적 특성(월령체), 다양한 기능(공동체 통합, 교훈 제공, 세시 풍속 기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주제

농가월령가의 특징과 의의

▶ 특징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움.		
작품 속 근거	「논매기 노래」, 「농가월령가」	공동체를 통합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작품으로 제시함.

(나) 농가월령가(정학유)

▶ 제목의 의미

‘농가의 일(농사일, 세시 풍속, 예의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노래’라는 뜻으로, 월령체 가사에 해당한다.

▶ 갈래 월령체 가사(서사부터 12월령까지 전 13장으로 이루어짐.)

▶ 시적 상황

백성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철에 따라 지켜야 할 풍속과 해야 할 일 등을 알려 주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때에 맞는 농사일, 세시 풍속 등을 알려줌.		
작품 속 근거	일년지계(一年之計) 재춘(在春)하니 범사(凡事)를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失時)하면 종년(終年) 일이 낭패(狼狽)되네.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펴 먹여 재거를 재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내어 맥전(麥田)에 오줌 주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하소.	농사일
	정조(正朝)의 세배(歲拜)함은 돈후(敦厚)한 풍속이라 새 의복 펼쳐 입고 친척(親戚) 인인(隣人) 서로 차차 노소남녀(老小男女) 아동까지 삼삼오오 단일 적에 와삭바삭 울긋불긋 물색(物色)이 번화(繁華)하다. 사나희년 날이기 계집아해 날뛰기오 늦 노라 나기하기 소년들에 놀이로다.	세시 풍속

▶ 주제

유교적 윤리 실천을 권장함.

▶ 특징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남.		
작품 속 근거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펴 먹여 재거를 재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내어 맥전(麥田)에 오줌 주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하소.	농사일 관련 어휘

▶ 어휘 풀이

- 간학(澗壑): 물이 흐르는 골짜기.
- 평교(平郊): 들 밖. 또는 시외에 있는 넓고 평평한 들.
- 간측하다(懇惻--): 몹시 딱하고 가엾다. 간절하고 지성스럽다.
- 관농윤음(勸農綸音): 농사를 장려하는 임금의 교서.
- 종년(終年): 한 해를 마침.
- 재거름: 재로 만든 거름.

- 상원(上元): 상원.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의 다른 이름.
- 슈한(水旱): 수한.
- 징험(徵驗): 어떤 징조를 경험함.
- 정조(正朝): 원단. 설날 아침.
- 돈후하다(敦厚--): 인정이 두텁고 후하다.
- 인인(隣人): 이웃사람.
- 물색(物色): 물건의 빛깔. 여기서는 설날 아침에 차려 입은 설빔의 빛깔을 말함.
- 세알(歲謁): 세배.
- 병탕(餅湯): 떡국.
- 엿파: 엿파. 겨울에 엿 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파.
- 무엿: 무엿. 저장하여 둔 무에서 자란 난 순.
- 오신채(五辛菜): 자극성이 있는 다섯 가지 채소류. 불가에서는 마늘·달래·무릇·김장파·실파를 가리키고, 도가에서는 부추·자충이·마늘·평지·무릇을 이름.

현대어 풀이

정월은 이른 봄이니 임춘과 우수가 들어 있는 절기이다.
산속 골짜기에 얼음과 눈은 남아 있으나,
넓은 들과 벌판에는 풍경들이 변하고 있다.
아! 우리 임금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셔서
농사를 권장하는 간절한 교서를 온 나라에 널리 알려 퍼시니,
슬프다 우리 농부들이! 아무리 무지한들
네 몸의 이익과 손해는 고사하더라도 어찌 임금의 뜻을 어기겠느냐?
산골 밭과 논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서 힘껏 농사를 지어라.
일 년 농사의 풍흉은 (미리)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재앙은 벗어날 수 있으니,
제 각각 부지런하기를 권하여 게을리 굴지 말아라.
일 년의 (농사) 계획은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계획)을 미리 하라.
봄에 만약 시기를 놓치면 그 해를 마칠 때 일이 낭패를 당하리라.
농지를 다스리고, 농사일하는 소도 살펴 먹여
재거름을 재워 놓고, 한편으로 실어 내어
보리밭에 소변 (거름) 주기를 지난해보다 힘써 하라. (중략)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그 해의) 가뭄 장마를 안다 하니,
늙은 농부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세배하는 것은 인정이 두터운 풍속이니,
설빔 차려 입고 친척 이웃 서로 찾아
노인, 젊은이,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와삭바삭 울긋불긋 옷차림이 화려하다.
사나이가 연 띄우고 계집아해 날 뛰고,
웃을 놀아 내기하니 소년들의 놀이로다.
사당에 세배하니 떡국에 술과 과일이로구나.
엿파와 미나리를 무의 썩에 곁들이면,
보기에 상스러워 오신채가 부러우랴.
보름날 약밥을 먹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신라 때 풍속이라.
묵은 산나물 삶아 내니 고기 맛과 바꿀쏘나.
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스럼 삭히는 생밤이라.
(남의 이름) 먼저 불러 더위팔기. 달맞이 햇불 농기는
전해 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59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논매기 노래」는 노동요로서 농민들이 논에 모를 심을 때 함께 부르는 노래이며, 「농가월령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 농사를 위해 각 달마다 해야 할 일과 세시 풍속 및 범절을 제시한 노래이다. 따라서 두 노래의 향유 계층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2문단	노동요인 「논매기 노래」와 같은 민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논매기 노래」: 농민들이 논을 밭 때 함께 부르는 노래
	조선 후기에 나타난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 노래는 농가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과 철마다 다가오는 풍속과 지켜야 할 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월령체(달거리) 가사이다.	「농가월령가」: 농가에서 지켜야 할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과 세시 풍속 및 범절을 읊은 노래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문단에서 문학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두 번째 문단에서 문학은 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지닌 작품으로 「논네기 노래」와 「농가월령가」를 들었다.
 ③ 첫 번째 문단의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인식하고 발견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농가월령가」에 대해 「농가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과 철마다 다가오는 풍속과 지켜야 할 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월령체(달거리) 가사이다. 머리 노래에 이어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 모두 13연이다.」라고 설명하였다.

60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농가월령가」는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과 풍속과 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가사라고 하였다. (나)의 구성을 보면 1월에 해야 할 농사의 지침을 먼저 제시한 후 세시 풍속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이 노래는 농가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과 철마다 다가오는 풍속과 지켜야 할 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월령체(달거리)가사이다.	
(나)	일년지계(一年之計) 재춘(在春)하니 범사(凡事)를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失時)하면 종년(終年) 일이 낭패(狼狽)되네.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피며 먹여 재거를 재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내어 맥전(麥田)에 오줌 주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하소.	1월에 해야 할 농사일
	정조(正朝)의 세배(歲拜)함은 돈후(敦厚)한 풍속이라 새 의복 펼쳐 입고 친척(親戚) 인인(隣人) 서로 차차 노소남녀(老小男女) 아동까지 삼삼오오 단일 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物色)이 변화(變華)하다.	1월의 세시 풍속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말하는 「교훈 가사」의 성격은 「구지 마소」와 「힘써 하소」와 같이 명령형에 가까운 어조를 통해 나타난다.
 ② (가)에 「공동체의 통합 기능」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나)에서 공동 노동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 「예의범절」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는 일상에서 지켜야 할 덕목에 해당한다. 또 (나)에서는 임금의 간곡한 권농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하라고 했지, 충의를 잊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④ (가)에 따르면 이 작품은 「머리 노래」까지 포함하여 13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는 2연에 해당한다.

61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농가월령가」는 당시 임금이 농업을 중시하였고 농업을 권면하였다는 내용에서 당시 사회상을 일부 엿볼 수 있을 뿐, 사회 제도를 알 수는 없다. 또한 「동동」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으로, 여기에도 사회 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어와 우리 성상(聖上) 애민중농(愛民重農) 하오시니 간축(懇摯)하신 권농운음(勸農輪音) 방곡(紡曲)에 반포(頒布)하니
〈보기〉	녹사(錄事)니문(尼門)넷나를 닛고 신더
	즈문(存)할 장존(長存)하살(藥)이라 반잡노이다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노이다

오답 해설 ① 두 작품 모두 달거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보기〉는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되었고, 「농가월령가」는 농민들에게 농사일과 세시 풍속을 알려 주어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③ 〈보기〉에는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있어 음악성을 부여한다.
 ④ 「농가월령가」에는 1월의 세시풍속이 제시되어 있고, 〈보기〉에는 5월 단옷날의 풍속이 제시되어 있다.

6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서 「농가월령가」의 자연은 노동의 현장이자 생활의 현장이며,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 운물」이 변하는 것 역시 농사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자연의 모습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A]	「농가월령가」에서 자연은 노동(勞動)의 현장이자 생활의 현장이다. 여기서 자연은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곳이지 완상(玩賞)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농사의 공간임.
(나)	평교(平郊) 광야(曠野)에 운물(雲物)이 변화하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오답 해설 ① [A]에서 「농가월령가」의 자연은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② [A]에서 「농가월령가」의 자연은 노동 현장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하였으므로, 병설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알맞다.
 ④ [A]에서 「농가월령가」의 자연은 관념의 자연이 아니라 실생활의 자연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하였다.
 ⑤ [A]에서 「농가월령가」의 자연은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하였으므로, 「봄에 만일 실시」하는 것은 농사지을 때를 농진다는 뜻이다.

63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농사에 힘쓰도록 권면하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농사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임금의 뜻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	슬프다 우리 농부들이 아무리 무지한들 네 몸 이해(利害) 고사(姑捨)하고 성의(聖意)를 어길소나	성의: 임금의 뜻 (농사를 권장함.)

오답 해설 ① 입춘과 우수는 정월에 들어 있는 세시 풍속이다.
 ③ 사람이 힘써 일함이 극진하면 하늘의 재앙을 면한다는 말이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과 관련이 있다.
 ④ 일 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으니 농사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는 말이다.
 ⑤ 남자는 연날리기, 여자는 널뛰기, 아이들은 윷놀이 등을 한다고 하였다.

STEP

&

기타 복합

64 ①
65 ①
66 ⑤
67 ②
68 ④
69 ②

【64~66】작품 분석

(가) 한국 구비문학 대계(뽕꾸기 전설편)

▶ 지문 해설

뽕꾸기의 별칭인 「떡국새」의 유래와 관련된 설화를 소개하며, 춘궁기에 더욱 고달팠을 시집살이와 며느리의 한이 만들어 낸 설화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주제

시집살이로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한을 담은 뽕꾸기 전설의 의의

▶ 특징

빠꾸기 관련 설화에 담긴 민중의 의식과 상황을 분석함.		
작품 속 근거	「빠꾸기 설화」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머느리가 죽어서라도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떡국떡국, 개개개.” 하고 소리를 내는 빠꾸기로 환생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한다.	억울함을 사후에라도 해소하고자 함.
	빠꾸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5월에서 8월까지 시기는 춘궁기의 빈한한 보릿고개와 겹친다. 배고픈 봄날과 고달픈 시집살이가 겹쳐져 “빠꼭빠꼭.” 우는 소리는 배고픈 이에게는 “떡국떡국.”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보릿고개와 시집살이의 고달픔

▶ 어휘 풀이

- 춘궁기(春窮期):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아니하여 식량이 궁핍한 봄철의 때.
- 빈한하다(貧寒—):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하다.

(나) 지리산 빠꾸새(송수관)

▶ 제목의 의미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존재이고 빠꾸새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지리산과 빠꾸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제목은 우리 민족 전체의 공동체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갈래 현대시

▶ 시적 상황

지리산의 빠꾸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삶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생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 정서 및 태도

• 사색 끝에 깨달음을 얻음.	
작품 속 근거	각 연의 끝에 ‘알아냈다(알았다),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 애상적, 정한적 정서를 드러냄.	
작품 속 근거	나는 길든 설움에 맛이 들고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한의 승화를 그려 냄.	
작품 속 근거	오래 남은 추스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 주제

우리 민족(민중) 내면에 존재하는 한과 힘

▶ 특징

① 시적 공간에 대한 주의 환기로 통일성을 부여함.	
작품 속 근거	여러 산봉우리에 [지리산 상(上)]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섬진강 섬진강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운동감을 나타냄.	
작품 속 근거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③ 유사한 시어의 반복으로 운율성을 획득함.	
작품 속 근거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64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의 「빠꾸기 설화」에는 춘궁기의 가난과 시집살이의 고달픔이 함께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있지만 이것이 춘궁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화자가 가난으로 인해 삶의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배고픈 봄날과 고달픈 시집살이가 겹쳐져 “빠꼭빠꼭.” 우는 소리는 배고픈 이에게는 “떡국 떡국.”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나)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오답 해설 ② (가)의 ‘살아 있을 때의 바람이나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사후에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와 (나)의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길로 남아 /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를 통해, 「빠꾸기 설화」의 머느리와 (나)의 화자 모두 한을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빠꾸기 설화」는 억울하게 죽은 머느리의 한이 담긴 이야기이다. 또 (나)의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길’은 빠꾸새의 울음이 살아 있는 사람의 한이 아닌 죽은 사람의 한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④ (가)의 「빠꾸기 설화」에는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나)는 ‘지리산’과 ‘섬진강’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지리산과 섬진강은 남도를 상징하며, 남도는 역사적인 많은 사건과 탐관오리의 수탈 등으로 인해 ‘한의 정서’가 담겨 있는 지역으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한다.

⑤ (가)의 「빠꾸기 설화」가 고달픈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며 공감을 얻었던 것처럼, (나)에 나타난 빠꾸기의 울음 역시 한 마리의 울음이 메아리가 되어 퍼지는 과정을 통해 여러 마리 빠꾸새의 울음으로 확장된다.

blacklabel 특강 우리 문학의 ‘한(恨)의 정서’

한(恨)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서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 문학의 모티프로도 종종 등장한다. 한의 정서를 지닌 작품은 고려 가요 「가시리」와 「서경별곡」, 조선 시대 황진이와 시조와 「아리랑」과 같은 민요, 김소월의 현대시 「진달래꽃」 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들에서 화자는 체념과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문에 제시된 「지리산 빠꾸새」의 시인인 송수관이나 일제 강점기의 저항 시인 한용운 등은 그 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시의 정서(감정)가 같아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지, 행동)가 같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6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와 <보기>에는 각각 머느리와 전처의 딸이 자신의 원한을 알리기 위해 ‘새’가 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저항 정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에서 죽은 머느리가 새가 되어 억울함을 알리고 누명을 벗으려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 역시 사회적 약자의 저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떡국떡국, 개개개.” 하고 소리를 내는 빠꾸기로 환생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한다.
<보기>	딸의 원통한 님이 한 마리새가 되어 날아가며 ‘풀국풀국’ 하며 울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는 ‘풀국새’가 변음하여 ‘빠꾸새’가 된 것이라고 하였다. (가)에서 “빠꾸빠꾸.” 우는 소리는 배고픈 이에게는 “떡국떡국.”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떡국새’로 불리던 새가 변음하여 ‘빠꾸새’로 불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사람이 죽어서 ‘새’로 환생한 설화 유형은 살아 있을 때의 바람이나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사후에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의 설화의 환생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사후에 해소하고자 하는 의식이, <보기>의 딸의 환생에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딸의 원통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떡국새’와 ‘풀국새’는 모두 ‘빠꾸새’로 변음되고 있다. ‘빠꾸기’의 울음소리와

소리가 유사한 ‘떡국’과 ‘풀국’ 소재로 만들어진 설화를 통해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㉔ (가)에서, 배고픈 봄날과 고달픈 시집살이가 겹쳐져 “뽕뽕뽕.” 우는 소리는 배고픈 이에게는 “떡국떡국.”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는 ‘끓주리던 전처의 딸은 호청에 들인 풀죽을 보고 정신없이 퍼먹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배고프고 힘들었던 당시를 반영하는 소재로 ‘떡국’과 ‘풀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6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정답 해설 | (나)는 ‘한과 설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과 설움은 결국 물줄기가 모여 섬을 밀어 올리고 마지막 뽕새 울음이 철쭉꽃밭을 볼때음으로써 모두 승화되고 있다. ‘한의 앙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4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한의 승화
5면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석 석 삼 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 알아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실제의 뽕기기가 /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그래서 여러 마리의 뽕새로 울음우는 것을 알았다.’는 하나의 울음이 메아리가 되어 확산되는 모습으로, 개인의 한이 공동체의 한으로 증폭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의 뽕새’와 ‘여러 마리의 뽕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섬진강 섬진강’을 통해 독자가 화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④ 시선이 ‘산봉우리’에서 ‘강’으로, ‘강’에서 ‘남해’로, 다시 ‘산’으로 옮겨지면서 ‘한’의 정서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정서로 확산되고, 다시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생성을 보여 준다.

[67~69] 작품 분석

(가) 설(說)(이은백, 김원경, 김선풍)

▶ 지문 해설

‘설(說)’이라는 문체의 발생과 이 문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떻게 정착했는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설’의 문체적 특징

▶ 특징

지문에서 단서 찾기		
중국에서의 ‘설’의 발전 과정 및 우리나라로의 유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함.		
작품 속 근거	한유(韓愈)의 「잡설(雜說)」, 「사설(師說)」을 비롯하여 유종원(柳宗元)의 「골설」, 「포사자설(捕蛇者說)」, 「승부설」, 「적룡설(譴龍說)」, 「웅설(熊說)」 등을 들 수 있다.	당나라 때의 설체 작품
	「명설(明說)」, 「자설(字說)」로서 「중형자문보설(仲兄字文甫說)」, 「명이자설(名二字說)」 등이 그것이다.	송나라 때의 설체 작품
	「경설(鏡說)」, 「주뢰설(舟路說)」, 「술견설(蝨犬說)」, 「뇌설(雷說)」 등 다수의 설체가 수록되었는데, 거의 우의적인 작품이다.	고려 시대의 설체 작품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강희맹(姜希孟)의 「훈자오설(訓子五說)」, 권호문(權好文)의 「육묘설(畜猫說)」, 이식(李植)의 「교송설(矯松說)」, 김매순(金邁淳)의 「작치설(鵲鷄說)」, 이견창(李建昌)의 「웅설(鷹說)」 등이 명작으로 손꼽힌다.	조선 시대의 설체 작품
	자설은 고려조 이곡(李穀)의 「경보설(敬父說)」, 「심보설(深父說)」에서 비롯되었고, 호설은 백문보(白文寶)의 「율정설(栗亭說)」, 「적약재설(積若齋說)」에서 비롯되었으며, 명설은 조선 조 하륜(河崐)의 「명자설(名子說)」에서 시작되었는데,	명설, 자설, 호설 작품

▶ 어휘 풀이

• 고명사의(顧名思義): 어떤 일을 당하여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아닌지 돌이켜 보고, 또한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함.

(나) 멧설(說)(조지훈)

▶ 제목의 의미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멧’이라는 말에 함축하고 있다.

▶ 갈래 현대 수필

▶ 지문의 내용

작가는 가을을 맞아 ‘멧’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연상하고 있다. 멧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규정들, 삶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가는 비록 소박하지만 살아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멧이라 한다.

▶ 주제

• 자족(自足)하며 배우는 삶의 자세. 인생의 참된 묘미

▶ 특징

① 예스러운 어투와 한자어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냄.	
작품 속 근거	세상 사람들은 번뇌라 이르더라.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멧을 삼노라.
②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지향하는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함.	
작품 속 근거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③ 영탄적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함.	
작품 속 근거	그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④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줌.	
작품 속 근거	멧을 멧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멧’이다.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멧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 어휘 풀이

• 무상(無常): 모든 것이 덧없음.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함.
 • 자적(自適):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김.

67 세부 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의 ‘설’과 (나)는 모두 사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규범적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규범적 가치’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가치를 말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가)	‘설(說)’은 구체적인 사물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사리를 설명하여 나가는 문장을 말한다.
(나)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멧을 삼노라.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설’은 대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사리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필로 볼 수 있다. (나) 역시 생활에서 느끼는 ‘멧’에 대한 작가의 통찰을 보여 주고 있어 수필이라 할 수 있다.

③ (나)는 비록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썼지만, 고려와 조선에서 유행한 문체인 ‘설’을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예스러운 표현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내용으로 볼 때, 고문 운동은 수사나 기교를 버리고 내용에 충실하자는 운동이며, ‘설’은 고문 운동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했을 것이다.

⑤ 원래의 ‘설’은 중국의 문체이므로 당연히 한자로 썼다. (나)는 한글로 쓴 작품이지만 ‘설’이라는 이름에 맞게 ‘멧’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설’의 장르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68 구절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 ㉔ 바로 앞에서 우주의 질서(변화, 즉 무상함)를 인정하고 만족하면 우주는 ‘멋’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우주에 회의한다.’는 것은 무상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의 질서를 인정하면 우주를 멋으로 받아들이게 됨.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우주의 질서를 의심하면 세속적인 슬픔을 느끼게 됨.

오답 해설 | ① ㉔ 앞의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절과 ㉔ 뒤의 ‘유위전변’이라는 말을 통해 작가가 자연의 이치에서 덧없음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㉔에 나오는 ‘마른 잎’은 소멸의 이미지로 작가가 덧없는 자연의 이치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려 준다.

② 작가는 쓸쓸함을 소박한 머무술로 달래며 자적하는 것이 ‘멋’이라 깨닫고 있다. 그 깨달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로 표현된다.

③ 세상 사람들은 이 커다란 멋(무상함)을 번뇌라 이르고, 가장 큰 괴로움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이는 곧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무상함)를 긍정하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⑤ 작가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자족(自足)하는 것이며, 행복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69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슬픔이 되지만 그조차 만족하면 즐거움이 되고 ‘멋’이 된다는 글쓴이의 말에서 대비가 드러나고, <보기>는 맑은 거울을 선호하는 손과 흐린 거울을 선호하는 거사의 대비를 통해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문에서 단서 찾기	
(나)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보기>	옛날에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오답 해설 | ① <보기>는 거울이 맑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현상만을 중시하는 세태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멋’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며 자족하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지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③ <보기>는 풍자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 쓴 ‘설’의 전형이지만, (나)는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④ (나)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쓰고 있지만, <보기>는 작가가 자신을 대변하는 거사라는 존재를 가정하여 글을 썼다.

⑤ (나)는 자신의 시각으로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보기>는 고정된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손의 물음과 세상을 유연하게 보는 거사의 대답으로 나누어져 있다.

black label 특강 대비, 대조, 비교

-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설명함.
- 대조: 두 가지의 차이를 밝혀 설명함.
- 비교: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함.

blacklabel



memo